

KINU 연구총서 13-08

#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 조영주 · 조은희 · 최은영 · 홍민

KINU 연구총서 13-08

#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 조영주 · 조은희 · 최은영 · 홍민

##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인 쇄 2013년 12월

발 행 2013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예원기획 (02-745-8090)

인 쇄 처 경성문화사 (02-786-2999)

ISBN 978-89-8479-739-0 93340

가 격 ₩15,000

© 통일연구원, 201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관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요약 .....	vii
<b>I. 서론 .....</b>	<b>1</b>
1.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	3
2. 연구방법 .....	8
<b>II. 새로운 세대의 세대공간 .....</b>	<b>15</b>
1. 인구사회학적 배경 .....	17
2. 정치경제적 사건 .....	26
3. 사회문화적 환경 .....	41
<b>III. 육체와 언어의 경험 .....</b>	<b>53</b>
1. 주체의 호명과 수행 .....	55
2. 빈곤과 계층화의 육체적 경험 .....	57
3. 국가와 내면 사이의 언어적 경험 .....	98
4. 소결 .....	108
<b>IV. 사물과 장소의 경험 .....</b>	<b>111</b>
1. 화폐세대의 물신화된 정체성 .....	113
2. 사물의 경험과 문화 정체성 형성 .....	132
3. 장소적 경험과 공간적 정체성 형성 .....	146
4. 소결 .....	176

V. 관계와 친밀성의 경험 .....	181
1.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친밀성, 하위문화, 정체성 .....	183
2. 또래관계와 친밀성 .....	188
3. 또래집단과 하위문화 .....	201
4. 가정의 해체와 재구성 .....	219
5. 국가 및 최고지도자에 대한 인식 .....	231
6. 소결 .....	240
VI. 생애사적 체험과 세대의 특성 .....	245
1. 사례 재구성 .....	247
2. 세대경험의 특성과 세대의 분화 .....	275
VII. 결론 .....	307
참고문헌 .....	333
최근 발간자료 안내 .....	343

# 표·그림 목 차

<표 I-1> 성별 면접인원 .....	11
<표 I-2> 연령대별 면접인원 .....	11
<표 I-3> 지역별 면접인원 .....	11
<표 I-4> 도시/농촌별 면접인원 .....	11
<표 I-5> 탈북연도별 면접인원 .....	12
<표 I-6> 면접 대상자 인적사항 .....	12
<표 II-1> 2008년 기준 0~14세 인구손실의 크기와 요인 .....	20
<표 II-2> 2008년 기준 35~49세 인구손실의 크기와 요인 .....	21
<표 II-3> 북한 가임 여성의 모성사망비 변화 추이 .....	22
<표 II-4> 1993년, 2008년 인구조사에 나타난 연구대상집단 인구 규모 .....	24
<표 II-5> 2013년, 2023년 인구 추계치에 나타난 연구대상집단 인구 규모 .....	25
<그림 II-1> 북한의 인구피라미드: 2008년 센서스 자료 .....	18
<그림 II-2> 주요 정치경제적 사건 .....	27
<그림 VI-1> 사회변동의 주관적 체험과 개인적 발달 .....	304

## 요 약

경제난과 자생적 시장화의 경험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심성 체계가 변화하였고, 이는 북한 사회의 결속력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 북한체제의 통치기반인 젊은 세대의 특징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이나 북한 사회의 변화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특질을 ‘세대’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경제난과 시장화가 진행된 시기에 유년기와 성장기를 보낸 북한 청소년들이 특정한 사회·역사적 과정 속에서 ‘세대’로서 어떠한 공통의 세대경험을 하였는지를 신체와 언어, 장소와 사물, 관계와 문화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북한 청소년들의 생애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이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세대경험이 어떻게 누적되고 상호 결합하면서 한 인간을 형성해내고, 그 집합체로서의 세대를 형성해내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북한 청소년들의 생애 사례와 다양한 세대경험 속에서 이들을 하나의 세대로 결속하는 ‘정서의 병목현상’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세대경험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소화함으로써 서로 상이한 특질을 지니게 되는 ‘세대단위’의 맹아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주제어:** 북한 청소년, ‘새 세대’, 세대경험, 세대단위, 생애사

## Abstract

#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Through the course of economic hardships and spontaneous marketization, the social consciousness and mindset of the North Korean people has changed. In turn, this became a major factor to the cohesiveness and stability of the North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the characteristics of the young generation as the ruling base of the Kim Jong-un regime has many implications on th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society as well as regime's stability.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emergence and hallmarks of North Korea's new generation focusing on formation of a generation. This research further explores what the young North Koreans - who spent their childhood and adolescence during the time of economic crisis and marketization - have experienced as a 'generation' within a particular social and historical process.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life histories of young North Koreans, this research explores how various kinds of generational experiences were accumulated and mutually interconnected to form an individual, and eventually to create a generation group.

**Keywords:** young North Koreans, generational experience, generation unit, life history

# I

---

## 서론



## 1.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경제난과 자생적 시장화의 경험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심성 체계가 변화하였고, 이는 북한 사회의 결속력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과 2000년대 전후로 진행된 시장화는 사회주의 정권 출범 이래 북한 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가장 크게 뒤흔들어 놓은 역사적 사건이자 과정이었다. 유년기에 형성된 가치관과 자아에 각인된 생애경험은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쉽게 변화될 수 없는 불가역성을 띤다. 또한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헌신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 시간인 청소년기에 경험한 역사적 변동은 청소년의 정체성과 가치체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sup>1</sup> 북한에서 경제난 시기에 출생하거나 유년기를 보낸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경제난과 시장화라는 사회적 변동의 영향력을 더욱 크게 받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사회적 변동으로 인한 특정한 생애경험과 그 결과로 형성된 특성이 동시대의 특정 연령집단에서 일반화된 사회적 특성으로 나타날 경우, 이는 다시 사회변동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김정은 시대 북한체제의 통치기반인 ‘새 세대’<sup>2</sup>가 이전 세대와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sup>1</sup>-Gisela Trommsdorff, “Subjective experience of social change in individual development,” J. Bynner and R. K. Silbereisen (eds), *Adversity and Challenge in Life in the New Germany and in England*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2000), pp. 91~92.

<sup>2</sup>-북한은 세대 개념을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약 20~3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서로 바뀌는 기간 또는 그 나이 또래에 속하는 사람들의 총체이며, 한 생물이 생겨나서 생존을 마칠 때까지의 사이”로 정의하며(리광선, “세대에 대한 주체적 리해,” 『철학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1), p. 32), 대체적으로 4세대로 세대를 구분해왔으나, 최근 혁명 5세대와 6세대에 대한 언급(주종경, “정론: 조국이 우리를 지켜본다,” 『로동신문』, 2006년 10월 15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혁명1세대는 항일빨치산 세대, 2세대는 1950~1960년대 전쟁 및 전후복구와 천리마 운동

I
II
III
IV
V
VI
VII

다면, 이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이나 북한 사회의 변화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북한의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특질을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문화권에서 태어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유사한 의식과 행위양식을 갖는 동시기 출생집단”<sup>3</sup>을 의미하는 ‘세대’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경제난과 시장화가 진행된 시기에 유년기와 성장기를 보낸 북한 청소년들이 특정한 사회·역사적 과정 속에서 ‘세대’로서 어떠한 공통의 세대경험을 하였고, 그 결과 어떠한 공통의 특질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잠정적으로 분석대상인 연령집단을 1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까지의 연령집단으로 본다. 이들은 ‘고난의 행군기’<sup>4</sup>에 유아기와 소년기를 지낸 연령대, 즉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무렵 태어나 경제난 상황 속에서 유아기를 보내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소학교에 입학한 연령집단부터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나 중학교 학령기 때 고난의 행군을 맞은 연령집단까지를 포괄한다.

사회학적 세대의 개념은 첫째, 친족계보에서 같은 항렬에 속하는 사

---

세대, 3세대는 1970~1980년대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통해 성장한 세대, 4세대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성장한 세대로 구분한다(정창현, “북한 지배 엘리트의 구성과 역할,”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당·국가기구 군대』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p. 572). 북한에서 말하는 ‘새 세대’는 4세대 이후의 세대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sup>3</sup> 박재홍,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권력·이념·문화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연구학』, 제33권 3호 (한국연구학회, 2010), p. 76.

<sup>4</sup> 북한에서 1990년대의 경제난을 일컫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용어는 1996년 1월 공동사설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하였으며, 1998년에 들어서는 ‘사회주의 강행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999년에 북한 지도부는 담론상으로 ‘고난의 행군’이 마감되었다고 선언했고, ‘강성대국 건설’을 과제로 내걸었으며, 2000년 10월 10일에 ‘고난의 행군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였다(차문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 경제의 성격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8권 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5), p. 39). 이 글에서는 ‘고난의 행군기’를 1990년대 중반부터 말에 이르는 경제난 시기를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한다.

람들, 둘째,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출생집단(cohort), 셋째,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 넷째,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생존한 사람들 등과 같이 다양하다.<sup>5</sup> 이 연구에서는 ‘세대’를 만하임(K. Mannheim)의 정의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유사한 사회·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동일 출생집단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만하임의 세대 개념에서는 역사적, 문화적 경험의 공유가 핵심적이다. 만하임에 의하면 하나의 세대는 모두 집단적 사건의 동일 단계에 동시에 참여함으로써 유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사람들이 동시에 태어났다는 사실이나 어린 시절, 성인 시절, 노인 시절이 일치한다는 사실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에서 비롯된 동일한 종류의 기억과 삶의 내용 등등에 참여하고, 또한 동일한 종류의 의식층에 근거하여 이런 일에 참여한다는 점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영역에서 공통 위치를 구성한다.<sup>6</sup> 이와 같은 ‘세대위치’에 소속된 개인들이 공동의 운명에 참여함으로써 동일한 세대위치에 있는 개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유대를 만들어낼 때 ‘실제 세대’가 구성된다.<sup>7</sup> 즉 ‘세대위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역동적 사회변화의 과정에 사회적, 지적 징후에 노출됨으로써 상호간에 구체적 연대감이 형성되고 새로운 상황을 창출하는 힘의 상호작용을 능동적, 수동적으로 경험할 때 비로소 ‘실제 세대’로 발전하는 것이다.<sup>8</sup>

이와 같은 만하임의 세대 이론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연령집단의 공통적 경험에 주목한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뒤 흔든 경제사회적 변동을 ‘새 세대’라고 불리는 연령집단이 어떻게 경험

<sup>5</sup> 위의 글, p. 50.

<sup>6</sup> 카를 만하임 지음, 이남석 옮김, 『세대 문제』 (서울: 책세상, 2013), p. 57.

<sup>7</sup> 위의 책, p. 65.

<sup>8</sup> 박재홍,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권력·이념·문화갈등을 중심으로,” p. 52.

I
II
III
IV
V
VI
VII

했고, 그 결과 어떠한 공통의 정서를 공유하게 되었는지가 이들 세대의 특성을 밝히는 데 있어 핵심적인 작업이다. 노이만(Neuman)의 주장에 따르면 세대란 단순히 동년배 집단을 통칭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당대의 획기적 사건 내지 역사적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집단”을 의미한다.<sup>9</sup>

만하임의 ‘경험의 성층화’ 개념에 의하면, 생애 과정 속에서 겪는 경험들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단순히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경험들의 층 중에서 최하층부에 위치한 소년기의 기층경험은 그 이후의 경험들에 대해 특정한 의미와 성격을 부여하는 프리즘의 역할을 한다.<sup>10</sup> 이에 이 연구에서는 특히 청소년기의 초기 인상과 경험들이 개인들의 의식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유의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II장에서는 청소년들의 생애경험과 생애경험의 주관적 수용,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환경에 대해 개괄한다. 우선, 이들 세대가 태어난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인구사회학적 환경의 특징을 분석한다. 1990년대 이후의 중요한 정치경제적 사건들을 개괄하고, 이러한 사건들을 북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수용하고 기억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생존방식의 변화, 가족 구성과 학교교육의 변화, 외부문화의 유입과 정보 유통 활성화 등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세대가 어떠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공간 속에 위치해있는지, 이들 세대의 전경(全景)을 보여주고자 한다.

---

<sup>9</sup> 박길성·함인희·조대엽, 『현대 한국인의 세대경험과 문화』 (서울: 집문당, 2005), p. 47에서 재인용.

<sup>10</sup> 박재홍, 『한국의 세대문제』 (서울: 나남출판, 2005), p. 109.

Ⅲ, Ⅳ, Ⅴ장은 새로운 세대의 미시적 경험세계에 접근한다. 인간 형성의 기본기제였던 국가담론, 공교육, 정치조직의 작동이 중지되고 주요한 생존방식으로서 시장 경험이 확산된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들 출생집단이 어떠한 세대경험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대경험을 살펴봄에 있어, 우선 의식세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육체적 경험과 내면을 표현하는 언어적 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빈곤의 고통이 어떻게 육체적으로 각인되고 내면의 세계가 어떤 언어를 통해 구성되는가를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대 구성원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그들의 존재와 세계를 매개하는 장소와 사물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장소와 사물의 경험이 그들의 존재와 세계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여기에 대응해 그들이 행하는 문화적 전략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하는 관계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범주는 개인 내면으로부터 출발하여 사물들을 통한 세계와의 접촉, 그리고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까지를 보는 것이다. 이들 범주는 새로운 세대의 경험 차원에서는 상호 구성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Ⅲ장에서는 영유아, 청소년기의 극심한 기아와 굶핍, 죽음의 공포를 이들은 어떻게 체험했고 그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러한 체험이 이들의 신체와 의식과 언어에 어떻게 각인되고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1990년대의 경제난과 뒤이은 자생적 시장화의 과정 속에서 지리적 이동성이 증가하고 외부문화와 사물이 유입됨에 따른 청소년들의 경험의 변화를 살펴본다. Ⅴ장에서는 이들 출생집단이 국가, 가족, 학교, 또래집단 속에서 맺는 관계 질서의 해체와 재구성,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Ⅵ장에서는 생애사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삶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I
II
III
IV
V
VI
VII

북한 청소년들의 가치관, 심성구조, 정체성을 단기적인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생애사적 체험이라는 관점을 통해 재구성한다. 세대는 청소년기의 체험이라는 특정한 생애주기의 사건만이 아니라 전 생애주기를 통해 역동적으로 형성되는 구성물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북한 청소년들의 생애사를 통하여 연구대상인 출생집단 구성원들이 출생 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떠한 공통의, 또는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용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다양한 세대경험들이 어떻게 켜켜이 누적되고 상호결합하면서 한 인간을 형성해내고, 그 집합체로서의 세대를 형성해내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 청소년들의 생애 사례와 앞 장들에서 살펴본 다양한 세대경험 속에서 이들을 하나의 세대로 결속하는 ‘정서의 병목현상’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세대경험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소화함으로써 서로 상이한 특질을 지니게 되는 ‘세대단위’의 맹아들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VII장에서는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북한의 새로운 세대의 세대경험과 특성을 정리하고, 이러한 특성이 향후 북한 사회의 변화에 주는 시사점을 밝힌다.

## 2. 연구방법

일반적으로 세대 효과 분석에서는 계량분석방법을 활용한다. 그러나 북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계량분석이 불가능하고, 연령 효과(현재의 특정한 생애주기 단계나 연령에 기인한 효과), 코호트 효과(출생 이후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화에 기인한 효과), 기

간 효과(특정한 관찰 시점에 기인한 효과)의 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sup>11</sup> 이 연구의 주제는 북한 청소년들의 성장 경험과 그러한 성장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주관적 신념, 감정, 가치체계, 사고방식 및 이들이 자신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와 해석방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심층면접<sup>12</sup>과 생애사 연구<sup>13</sup> 등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질적연구방법은 연구 대상의 질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로, 연구대상이 갖고 있는 경험 세계와 가치관을 연구자가 당사자의 주관적 시각에서 이해하는 연구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북한체제를 설명하는 모형이나 거시담론, 실증적 통계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위와 경험, 주관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북한 사회의 변동과 개별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체험, 사회적 세대 형성 간의 복합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개별 심층면접조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북한이탈주민, 40대 북한 교사 출신 그룹을 선정하여 초점집단

11. 이인정은 북한 일차자료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자료를 활용한 1990년대 북한 청소년 세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이 ‘연령 효과’로서의 일탈 성향과 부정적 정서, 경제난과 관련한 ‘시기 효과’로서의 물질주의적 경향, 외부 문물과 정보의 유입과 관련한 ‘코호트 효과’로서의 자유주의적이고 비사회주의적인 가치선호 등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이인정, “북한 청소년 코호트와 도덕교육적 함의,” 『도덕윤리과교육』, 제30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0)).

12. 심층면접은 면접자가 구술자에게 질문을 하여 이야기를 듣는 것인데,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형식의 개방성 정도에 따라 비구조화된 면접, 반구조화된 면접, 구조화된 면접으로 구분된다.

13. 생애사 연구는 특정 집단과 사회를 표상(representation)하는 개인의 삶의 이야기와 생애사건을 통해 특정 사회의 ‘구체적 일반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인간의 구체적인 생애에 기초한 연구 방법에 대한 여러 학문 분야의 관심은 “전기적인 선회(biographical turn)”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 선회는 실증주의(positivism), 결정주의(determinism),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 등 지배적인 사회과학 담론이 사람들의 실제 삶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P. Chamberlayne, J. Bornat and T. Wengraf, *The Turn to Biographical Methods in Social Science* (New York: Routledge, 2000)).

I
II
III
IV
V
VI
VII

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연구는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연구방법으로 그룹 간의 언어행위, 상호작용, 의견형성 과정을 관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초점집단면접을 통해서도 각 집단이 바라보는 북한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비교하고, 이를 통해 개별 심층면접조사의 질문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개별 심층면접 대상자는 연구자가 직접 알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소개를 받거나 무지개청소년센터, 하나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직을 통해 소개받았다. 이는 질적연구의 경우 연구자와 면접대상자 간의 신뢰 형성이 면접의 내용과 심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면접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신변 안전의 문제에 대해 예민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소개자에 대한 신뢰 여부가 면접 자료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면접 대상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연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조사 참가의사를 타진하였다. 참가의사를 표명한 대상자에 대해 연구자의 연구실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등지에서 2~3시간 정도에 걸쳐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이나 생애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연령집단인 10대 중반에서부터 20대 후반의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탈북청소년을 주요 면접 대상으로 삼았고, 이들 집단과의 비교를 위해 20대 후반, 30대, 40대도 포함시켰다. 출신지역별로 면접 대상자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려고 했으나,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 초기 면접자를 선정하고 면접의 과정에서 초기 면접자를 통해 후속 면접 대상자를 확보하는 스노볼링 기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주지역별로 인원이 균형있게 안배되지는 못하고 함경북도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면접

대상자를 어느 정도는 확보하였기 때문에, 지역별 경험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거주했던 도보다도 도시지역인지 농촌지역인지 여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 지역 출신자들을 고루 포함시키려고 했다.

면접 대상자의 성, 연령대, 출신지역, 탈북연도 구성 및 인적사항은 다음 <표 I-1>~<표 I-6>과 같다.

● 표 I-1 성별 면접인원

(단위: 명)

성별	남자	여자	합계
인원	20	20	40

● 표 I-2 연령대별 면접인원

(단위: 명)

연령대	10대 후반	20대 초반 (20~22세)	20대 중반 (23~26세)	20대 후반 (27~30세)	30대	40대	합계
인원	7	14	8	3	7	1	40

● 표 I-3 지역별 면접인원

(단위: 명)

출신 지역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양	평안남도	양강도	강원도	합계
인원	24	4	1	6	4	1	40

● 표 I-4 도시/농촌별 면접인원

(단위: 명)

출신 지역	도시	농촌	합계
인원	23	17	40

I
II
III
IV
V
VI
VII

표 1-5 탈북연도별 면접인원

(단위: 명)

탈북 연도	'03	'05	'08	'09	'10	'11	'12	합계
인원	1	1	2	3	5	20	8	40

표 1-6 면접 대상자 인적사항

코드	성별	연령대	지역	직업	탈북 연도	면접일시
사례 1	여	20대 중반	평안남도 군 지역	학생	2010	2013. 2. 8.
사례 2	남	30대	함경북도 도시 지역	노동자	2011	2013. 3. 19.
사례 3	남	20대 초반	양강도 도시 지역	학생/ 장사	2008	2013. 3. 20.
사례 4	여	20대 초반	함경북도 군 지역	학생	2009	2013. 3. 20. 2013. 4. 17.
사례 5	남	10대 후반	양강도 도시 지역	학생	2012	2013. 3. 20. 2013. 5. 18. 2013. 8. 20.
사례 6	여	20대 후반	함경북도 군 지역	노동자/ 부양	2010	2013. 3. 20.
사례 7	남	30대	함경북도 군 지역	노동자	2011	2013. 3. 20.
사례 8	남	30대	평안남도 군 지역	농장원/ 전문직	2010	2013. 3. 21.
사례 9	남	20대 중반	함경남도 도시 지역	보위대	2012	2013. 3. 25.
사례 10	여	30대	함경북도 도시 지역	서비스직	2011	2013. 3. 27.
사례 11	여	20대 후반	평양시	연구원/ 장사	2012	2012. 3. 29.
사례 12	남	30대	평안남도 도시 지역	연구원	2012	2012. 3. 29.
사례 13	여	20대 초반	함경북도 군 지역	노동자	2011	2013. 4. 1.
사례 14	여	20대 중반	함경북도 도시 지역	서비스직	2012	2013. 4. 2.

코드	성별	연령대	지역	직업	탈북연도	면접일시
사례 15	남	20대 초반	함경남도 도시 지역	학생/ 장사	2011	2013. 4. 8.
사례 16	여	20대 초반	함경북도 군 지역	교사	2011	2013. 4. 13.
사례 17	여	30대	함경북도 군 지역	노동자	2011	2013. 4. 15.
사례 18	여	10대 후반	함경북도 도시 지역	학생	2011	2013. 4. 16.
사례 19	여	20대 초반	함경북도 군 지역	노동자/ 장사	2011	2013. 4. 16.
사례 20	여	20대 중반	양강도 도시 지역	사무직	2011	2013. 4. 16.
사례 21	남	20대 후반	함경북도 도시 지역	학생	2011	2013. 4. 17.
사례 22	여	20대 초반	함경남도 군 지역	노동자	2011	2013. 4. 17.
사례 23	남	20대 초반	함경북도 도시 지역	수산업	2011	2013. 4. 18.
사례 24	여	20대 중반	함경북도 도시 지역	학생/ 부양	2011	2013. 4. 23.
사례 25	남	20대 중반	강원도 도시 지역	학생	2009	2013. 4. 24.
사례 26	여	10대 후반	평안남도 군 지역	학생	2012	2013. 5. 4.
사례 27	남	20대 초반	함경북도 군 지역	학생	2008	2013. 5. 9.
사례 28	남	20대 중반	평안남도 도시 지역	학생/ 장사	2011	2013. 5. 11.
사례 29	남	20대 초반	함경북도 군 지역	학생	2012	2013. 5. 16.
사례 30	남	10대 후반	평안남도 도시 지역	학생	2012	2013. 5. 18.
사례 31	여	30대	함경북도 도시 지역	교사	2010	2013. 5. 30.
사례 32	여	40대	함경북도 도시 지역	교사	2003	2013. 5. 30.
사례 33	여	20대 초반	양강도 도시 지역	학생	2010	2013. 6. 22. 2013. 7. 17.
사례 34	여	20대 초반	함경북도 군 지역	학생	2005	2013. 7. 19.
사례 35	남	10대 후반	함경북도 도시 지역	학생	2011	2013. 8. 2.
사례 36	남	10대 후반	함경북도 도시 지역	학생	2011	2013. 8. 6.

I

II

III

IV

V

VI

VII

코드	성별	연령대	지역	직업	탈북연도	면접일시
사례 37	남	10대 후반	함경북도 군 지역	학생	2011	2013. 8. 6.
사례 38	남	20대 중반	함경북도 군 지역	학생	2011	2013. 8. 9.
사례 39	남	20대 초반	함경남도 도시 지역	학생	2011	2013. 8. 10.
사례 40	여	20대 초반	함경북도 군 지역	학생	2009	2013. 8. 19.

면접 내용은 면접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에 녹음하였으며, 면접 후 면접 내용을 전부 녹취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이후 녹취록을 읽으면서 주요 내용을 범주화하고 주제별 코딩을 실시한 후 코딩 내용의 비교분석을 통해 연구 주제와 관련된 중심 주제들을 도출하고 중심 주제와 주제별 해석을 정교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면접 자료 분석 과정에서 추가면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2회 추가면접을 실시하였다. 생애사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경우에는 생애사 구술 방식으로 수집한 전체 면접자료를 검토하여 연구주제와 관련된 최대비교와 최소비교의 관점에서 주요 사례를 선택하고, 선택된 사례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한 주제화 작업을 통해 상호비교의 관점을 도출하고, 사례를 재구성, 해석하였다.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연구진 간에 자료 수집 및 사례 분석 과정을 공유하였다. II장은 조은희, III장은 홍민, IV장은 홍민, 조영주, 최은영, V장은 조영주, VI장은 조정아가 책임집필하였음을 밝혀둔다.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 자료 이외에도 북한의 공간문헌과 북한 사회 동향 관련 자료, 신문 및 방송 등의 일차자료를 활용하였다. 노동신문과 북한방송, 학습제강 등 일차자료, 청소년 교육 관련 정기간행물, 북한 소설 등의 문헌자료를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질적 자료의 교차분석에 활용하였다.

# II

---

새로운 세대의 세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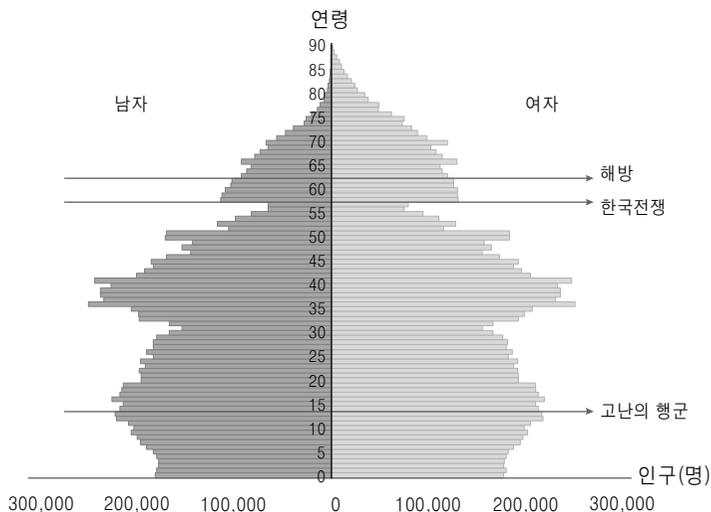
이 장에서는 북한 청소년들이 특정한 세대경험을 하고 그 결과로 하나의 세대로서의 특정한 특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시대적 배경에 대해 개괄한다. 이는 북한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세대경험과 생애를 낱낱이 들여다보기에 앞서, 이들이 태어나 성장한 특정한 시간적, 공간적 무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전경을 그려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거시적 환경으로 이들 세대가 태어난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거시적 변동이 이들 세대의 삶에 미쳤을 영향력을 추정해본다. 다음으로, 1990년대 이후의 중요한 정치경제적 사건들을 개괄하고, 이러한 사건들을 청소년들은 어떻게 수용하고 기억하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생존방식의 변화, 가족 구성과 학교교육의 변화, 외부문화의 유입과 정보 유통 활성화 등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 1. 인구사회학적 배경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13년 현재 1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의 나이인 연령집단이다. 출생시기로 보면 이들은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후반 사이에 태어났다. 북한에서 전국적인 인구조사는 1993년(12월 31일자 기준)과 2008년 10월(10월 1일자 기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2008년 인구조사 결과를 인구피라미드로 그려보면 다음 <그림 II-1>과 같다.

I
II
III
IV
V
VI
VII

● 그림 II-1 북한의 인구피라미드: 2008년 센서스 자료<sup>14</sup>



<그림 II-1>의 인구피라미드에서 인구수가 감소되는 지점은 세 구간이다. 우선, 57~58세 구간에서 갑자기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전쟁 발발로 인한 출생률 감소와 영유아 사망의 영향이다. 또한 35세 이하 상당 구간의 인구도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국전쟁 시기에 태어난 인구집단이 가임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출생자 수 감소가 진행된 것과 동시에, 1970년대 후반 이후 북한 당국이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이 집단의 인구 감소는 경제난 시기에 태어난 인구의 감소로도 연결된다. 2008년 인구 피라미드에서 ‘고난의 행군’ 화살표로 표시된 13세 이하 부분의 인구규모가 계속 축소되는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부모 세대인 30대 초중반 인구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경제난 발생

<sup>14</sup> 김두섭, 『북한인구와 인구센서스』 (대전: 통계청, 2011), p. 34.

으로 출생률이 감소하고 영유아사망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난의 행군이 끝난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만혼과 출산기피 등의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러한 사회적 변동이 인구구조에 반영된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인구피라미드의 형태는 서구 인구피라미드와 비슷한 모양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 소득향상과 출산기피 등의 서구적 인구변천의 결과가 아니라, 1990년대 극심했던 경제난의 충격에 따른 기형적인 인구구조라 할 수 있다.

연구대상 집단이 영유아기 또는 유년기를 보낸 경제난 시기의 인구변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 시기의 거시적 인구변동이 청소년들의 세대경험에 미친 영향을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1993년과 2008년 두 차례의 인구조사 결과의 자료를 보정, 분석하여 이 시기 인구손실의 특징을 확인한 박경숙의 연구<sup>15</sup> 결과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는 2013년 현재 10대 중후반인 연령집단의 인구손실 규모와 특성에 관한 것이다. <표 II-1>을 보면 2008년 기준 0~4세, 5~9세, 10~14세 집단의 1993~2008년간 인구손실 크기와 효과를 요인별로 분석해놓았다. 이 중 10~14세 연령집단(2013년 현재 15~19세 집단)은 이후 출생집단과 다르게 사망이 인구손실의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1994년에서 1998년까지 경제난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에 출생한 집단으로, 인구손실 중 사망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은 이 연령집단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영유아기 사망률이 현격히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경숙의 분석에 의하면 1993년 1천 명당 19.56명

I
II
III
IV
V
VI
VII

<sup>15</sup> 박경숙,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총서 20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박경숙, “북한의 식량난 및 기근과 인구변동,”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12).

이었던 영아사망률은 1998년 41.0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5세 이하 사망률 역시 1993년 26.42명에서 1998년 57.07명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sup>16</sup> 높은 영유아사망률은 살아남은 어린이일 경우에도 영양상태가 불량하여 신체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추측하게 한다. 이 집단은 또한 이주 효과도 이후 출생집단보다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등의 탈북에 따른 동반탈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1 2008년 기준 0~14세 인구손실의 크기와 요인<sup>17</sup>

연령	구분			출산 효과			사망 효과			이주 효과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0~4세(명)	65,937	55,544	121,480	17,630	20,008	37,638	4,518	3,062	7,580			
5~9세(명)	80,944	68,968	149,913	24,249	27,372	51,621	4,857	5,585	10,442			
10~14세(명)	7,543	7,209	14,752	35,416	36,668	72,084	9,154	9,261	18,415			
0~4세(%)	74.9	70.7	72.9	20.0	25.5	22.6	5.1	3.9	4.5			
5~9세(%)	73.6	67.7	70.7	22.0	26.9	24.4	4.4	5.5	4.9			
10~14세(%)	14.5	13.6	14.0	68.0	69.0	68.5	17.6	17.4	17.5			

다음의 <표 II-2>은 2008년 기준 35~49세(2013년 현재 40~54세) 연령집단의 두 번의 인구조사 기간(1993~2008년)의 인구손실 크기와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sup>16</sup> 박경숙,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p. 227.

<sup>17</sup> 박경숙, “북한의 식량난 및 기근과 인구변동,” p. 148.

표 II-2 2008년 기준 35~49세 인구손실의 크기와 요인<sup>18</sup>

연령	구분	사망 효과			이주 효과		
		남	여	계	남	여	계
35~39세(명)		21,059	3,415	24,474	6,224	10,647	16,871
40~44세(명)		19,741	3,815	23,556	6,653	11,163	17,816
45~49세(명)		10,541	3,385	13,899	6,229	7,736	13,966
35~39세(%)		77.2	24.3	59.2	22.8	75.7	40.8
40~44세(%)		74.8	25.5	56.9	25.2	74.5	43.1
45~49세(%)		62.8	30.4	49.9	37.2	69.6	50.1

위의 표에 나타난 인구집단은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2013년 기준 15~29세 집단의 부모 세대에 해당한다. <표 II-2>는 각 연령 구간에서 여성보다 남성 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 세대에서 경제난 이후 남성은 주로 사망, 여성은 주로 이주, 즉 탈북에 의해 인구손실이 발생했음을 말해준다. 남성의 사망은 경제난 시기 이들이 군대와 직장에 조직되어 기근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폭이 넓었고 중국 등지로 탈북하여 생활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여 이주 효과가 컸다.<sup>19</sup>

여성 사망자 수는 남성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경제난이 한창이었던 1990년대 중후반에는 여성들의 사망률도 높았다. 다음 <표 II-3>에서 북한 가입기 여성의 모성사망비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

<sup>18</sup> 박경숙,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p. 224.

<sup>19</sup> 위의 책, p. 224.

기 여성의 모성사망비는 1993년 이래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데,<sup>20</sup> 특히 고난의 행군 막바지였던 1998년의 모성사망비는 1993년의 두 배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I-3 북한 가임 여성의 모성사망비 변화 추이<sup>21</sup>

연도	1993	1998	2003	2008	2000년대 후반	2012
모성사망비 (10만 명당 명수)	54	105	87	77.2	90	85~250

부모 세대 남성의 높은 사망률과 성인 여성의 이주로 인한 인구손실은 이들의 자녀 세대인 청소년들의 성장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과정에서 접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유아기나 성장기에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하거나 병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가 많았으며, 어머니나 이모 등 모계의 여성 친척이 탈북한 후 외가에 맡겨져 생활하거나, 한국에 정착한 어머니나 이모 등에 의해 탈북하게 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20. 문경연·김판석,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과 경제에의 함의,”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129.

21. 각 수치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1993년: 중앙통계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93년 인구일제조사 전국보고서』 (평양: 중앙통계국, 1994). \*1998년, 2003년: UNICEF, *Analysis of the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6). \*2008년: Central Bureau of Statics in the DPRK, *DPRK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2009). \*2000년대 후반: UNICEF확대예방접종프로그램(Expanded Programme on Immunization) 자료. \*2012년: UNDP, *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2); 문경연·김판석,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과 경제에의 함의,” p. 129.

이상에서 살펴본 경제난 시기와 그 이후의 성인 남성 사망률 증가, 가임기 여성의 이주, 출생률 감소 등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족 구성원의 사망이나 탈북으로 인한 가족 구성의 변화와 가족해체로 이어지면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성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부모 중 한쪽의 사망이나 탈북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재혼 가정이 증가하였을 것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빈곤과 가정 내 가부장적 규율 약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출생률 감소는 형제의 수를 감소시켜 가족 내부와 또래집단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경제난 이후 인구사회학적 변화는 청소년들의 가정환경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연구대상 연령집단의 인구규모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이 연령집단의 인구수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는 다음 <표 II-4>로 정리한 1993년과 2008년 인구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II-4>에서 1993년 실시된 인구조사는 2013년 현재 10대 중후반 연령집단이 태어나기 전에 실시된 것이므로 현재 10대 중후반 나이인 연령집단은 제외되어 있다. 2008년 인구조사 결과에 나타난 연구대상 연령집단 규모는 10~14세(2013년 기준 15~19세) 2,021,350명, 15~19세(2013년 기준 20~24세) 2,052,342명, 20~24세(2013년 기준 25~29세) 1,841,400명이다.

I
II
III
IV
V
VI
VII

표 II-4 1993년, 2008년 인구조사에 나타난 연구대상집단 인구 규모<sup>22</sup>  
(단위: 명)

연령	1993.12.31(보정)			2008.10.1		
	남	여	계	남	여	계
0~4	1,071,954	1,016,554	2,088,508	872,173	837,866	1,710,039
5~9	957,583	909,000	1,866,583	943,048	903,737	1,846,785
10~14	904,764	862,348	1,767,112	1,035,282	986,068	2,021,350
15~19	879,427	839,783	1,719,210	1,050,113	1,002,229	2,052,342
20~24	1,160,585	1,116,226	2,276,811	941,017	900,383	1,841,400

1993년 총인구는 21,213,378명으로, 2003년 현재 1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이 된 1993년 당시 0~9세 연령집단이 1993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6%이다. 2008년 총인구는 24,052,231명으로, 당시 15~24세 연령집단(1993년 0~9세 집단)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2%이다. 1993년과 비교할 때 그 비중이 2% 이상 감소하였다. 이중 0~5세 어린이의 수는 약 15년 사이에 2,088,508명에서 2,052,342명으로 36,166명 감소하였고, 5~9세 어린이의 수는 1,866,583명에서 1,841,400명으로 25,183명 감소하여, 경제난 시기에 영아들의 사망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인구조사 이후 5년간 태어나 2008년 인구조사 시 10~14세가 된 연령집단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연구대상 집단은 2008년 기준으로 5,915,092명이며, 2008년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24.6%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현재와 10년 후 이들 집단의 인구 및 비중을 살펴보자. <표 II-5>에서 통계청에서 1993년과 2008년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

<sup>22</sup> 박경숙,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pp. 44~45의 표에서 부분 발췌하였다.

으로 계산한 2013년 말 북한의 연령대별 인구 추계치를 보면, 본 연구의 대상인 1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15~29세)까지는 총 5,855,454명이며,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23.9%이다. 이 이하 연령대(0~14세)가 30세 이상 연령집단과 비교할 때, 그 집단보다는 이 연구의 대상 세대와 유사한 경향을 지닌다고 가정하여, 이 연령대까지를 전부 포함하면, 인구 규모는 11,037,117명,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45.0%가 된다. 10년 후인 2023년 말에는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연령집단은 25~39세의 나이가 된다. 이때 39세 이하 연령집단의 인구규모 추계치는 14,335,028명이고,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55.8%가 된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이 연구에서 고찰하는 연령집단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양적으로 북한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때 이들의 세대특성이 북한 사회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표 II-5 2013년, 2023년 인구 추계치에 나타난 연구대상집단 인구 규모<sup>23</sup>

2013(추계)				2023(추계)			
연령	남	여	총	연령	남	여	총
0~14세 (명)	2,643,602	2,538,061	5,181,663	0~24세 (명)	4,382,354	4,212,206	8,594,560
15~19세 (명)	1,035,835	987,730	2,023,565	25~29세 (명)	1,018,259	972,453	1,990,712
20~24세 (명)	1,032,838	986,990	2,019,828	30~34세 (명)	1,011,035	968,507	1,979,542
25~29세 (명)	925,502	886,559	1,812,061	35~39세 (명)	902,960	867,254	1,770,214

<sup>23</sup> 북한통계, <<http://kosis.kr/bukhan/>>의 자료를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2013(추계)				2023(추계)			
연령	남	여	총	연령	남	여	총
0~29세 합계(명)	5,637,777	5,399,340	11,037,117	0~39세 합계(명)	7,314,608	7,020,420	14,335,028
총 인구 (명)	11,972,015	12,573,327	24,545,342	총 인구 (명)	12,582,393	13,126,418	25,708,811
총인구 중 비율 (%)	47.1	42.9	44.7	총인구 중 비율 (%)	58.1	53.5	55.8

## 2. 정치경제적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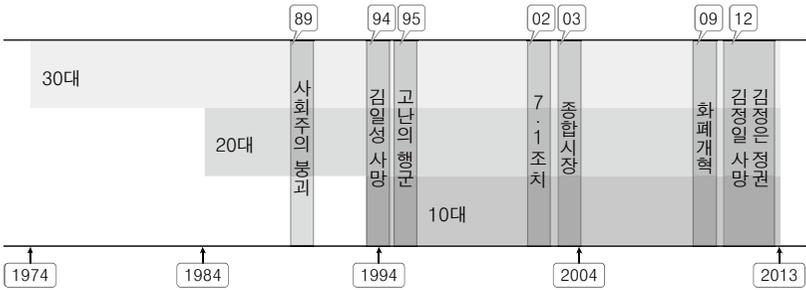
우리가 세대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기계적으로 나누지 않는 이상, 세대구분의 기준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 그리고 그에 대한 특정 세대의 경험과 반응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만하임의 ‘결정적 집단경험’, 즉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공동경험은 여전히 유용한 개념이다.<sup>24</sup> 이 절에서는 북한 청소년들이 유사한 연령대에서 공통으로 경험하였을 주요한 정치경제적 사건들을 개괄하고, 이러한 사건을 이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연령집단은 1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까지의 연령집단으로,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나 학령기에 고난의 행군을 맞은 연령집단부터 경제난 시기에 태어나 경제난 상황 속에서 유아기를 보내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학교에 입학한 연령집단까지를 포괄한다. 이들이 출생 후 경험하였을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주요한 정치

<sup>24</sup> 박재홍, 『한국의 세대문제』, p. 120.

경제적 사건을 연대기별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 II-2>와 같다. 사회주의권 붕괴, 김일성 사망, 고난의 행군,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종합시장제 등 일련의 경제개혁, 화폐개혁,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정권의 등장 등이 그에 해당한다.

● 그림 II-2 주요 정치경제적 사건



### 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세계청년학생축전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동구 사회주의권과 소련의 붕괴는 북한 정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북한의 대외무역과 협력의 주요 상대국이었던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이 해체되자 북한의 경제 침체는 가속화되었고,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합영·합작, 경제특구정책 도입 등 부분적인 개혁·개방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사회주의권 붕괴 소식이 상당한 시간을 경과한 이후 고도로 통제된 형태로, 역사적 교훈 위주로 전달되었다. 따라서 이 세계사적 사건은 그 역사적 비중에 비해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 깊은 기억을 남기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10대, 20대의 젊은 세대들은 당시에는 학령기 이전의 어린 나이였거나 태어나지조차 않았기 때문에, 이

I
II
III
IV
V
VI
VII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몇몇 청소년들이 언급한 것은 오히려 1989년에 북한에서 개최되었던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에는 남한의 대학생 임수경이 참석하였고, 이 사실을 북한의 기성세대들은 많이 기억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유입되고 '임수경 식' 유행이 유통되면서 북한 일반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임수경의 차림새를 보고 젊은 여성들이 이를 따라하는 풍조가 나타났으며, 북한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였다.<sup>25</sup>

연구 과정에서 접한 청소년 중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과 축전에 참가했던 임수경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는 본인이 직접 겪은 사건에 대한 기억이기보다는 부모 세대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거나, 기록영화를 통해 접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게 북한에서 전국 뭐 청년학생이라고 그거 한 다음에 북한이 망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저희 엄마가 그냥 말했어요. 북한 그거 축제하고 망했다고. 그 다음에 남한은 올림픽하고 일어섰다고. (...) 그냥 그때 엄마들만 알 뿐이지 학생들은 별로--, 부모님들한테서 듣지 학교적으로 뭐 알린다든가 그건 게 전혀 없어요.<sup>26</sup> (사례 13 구술녹취록, 2013 I/7-8)<sup>27</sup>

---

25. 김석향, "1990년 이후 북한 주민의 소비생활에 나타나는 추세 현상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Vol. 16, No. 1 (북한연구학회, 2012), pp. 194, 201.

26. 녹취록에 사용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은 생략된 인용, --는 말늘임 표시, (( ))은 연구자의 부연설명을 의미한다.

27. 이 글에서 녹취록을 인용하는 방식이다. 괄호 안의 표시는 구술자 사례 13의 2013년 첫 번째 구술녹취록 중 7~8쪽에서 인용한다는 뜻이다.

나는 그때 13차랑 뭔지도 모르고요. 실은-- ((임수경 방북은)) 그때 기록영화 보고 알았죠. 통일의 꽃 림수경이라고 김일성하고 사진도 찍고 뭐 이랬었는데--. 무슨 림수경이 그 다음에 경찰하고 살고. 그게 기록영화, 아 때부터. 아, 한 몇 살 땀가, 어릴 때 본 거 같은데. (...) 느낌은 없었고요, 림수경이 좋다는 거--. 그러니까 13차라면 무슨 뭐, 크게 뭐 외국이고 뭐 이걸 생각 않고 림수경을 우리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아무튼 김일성이하고 사진 찍고 이러니까 ‘저것도 좋은 사람이로구나.’ 했는데. (사례 9 구술녹취록, 2013 I/39-40)

## 나. 김일성 사망

1994년 7월 8일, 정권 수립 후 약 50년간 북한 사회를 이끌어왔던 최고지도자 김일성이 사망했다. 이 사건은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에게 아버지를 잃은 것과 같은 큰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주었다.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은 유아기에 이 사건을 겪어서 그 충격을 직접 기억하지 못하고 김일성 사망에 대해 자기 스스로는 별다른 느낌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부모 세대로부터 전해 들은 김일성 사망 당시의 정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자신들이 직접 겪은 김정일 사망 시의 정황과 비교하고 있다. 이에 비해 당시 초등학교 학령기였던 20대 후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김일성의 사망에 대해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네, 그냥 죽었다니까 죽은가보다. 저는 기억나는 게 없는데, 저희 엄마랑 말하는 게 김일성 죽었을 때는 진짜 사람들이 ((김일성)) 잘해준다 해가지고, 믿어가지고--, 진짜로 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고 막 사람이 진짜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런데 김정일에 대해서는 완전 틀린 거예요. 사람들이 울고 싶지 않아서. 저희 김정일이 딱 죽기 전에 넘었는데, 김정일이 죽은 사람들이랑 같이 왔거든요. 오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 김정일이 죽어도 막 울음이 안 나오는 거 내가 어떻게 울어.” 할 수

I

II

III

IV

V

VI

VII

없이 우는 척 하고 어떤 사람은 울지 않았다고 잡아간 사람까지 있대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김정일에 대해서는 되게 아니다 싶었는데, 김일성이 때는 진짜로 믿고 울었대요. (사례 13 구술 녹취록, 2013 I/9)

엄마도 말하는 게, 김일성 때는 진짜 좋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일성에 대한 기억은 좋아요. 되게 자애롭고. 막 그런 진짜 기록영화에도 되게 멋있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웃는 거만 나오고 그러고 하니까, 되게 저는 좋았어요. (...) ((김일성이 살아있었으면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거 같아요. 엄마가 말하는 게 계속, 김일성이 댐 진짜 공산주의고 좋았단니까, 나도 그때 태어나지 왜 지금 태어났을까 하는 좀--.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사례 14 구술 녹취록, 2013 I/20, 22)

특히 김일성 사망 시 학령기 연령이었던 20대 후반의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는 김일성 사망 사건을 기억하고, 이를 김정일 사망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일성이 죽은 때는 제가 열 살 때인가 그때인데 기억이 생생한 게, 웃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다 울어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동상에 가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꺾꺾 메워가지고, 그리고 기절하는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이번엔 ((김정일 사망 때)) 그런 거 하나도 못 봤어요. 그리고 저랑 친구랑 맨날 집에 붙어 있다가, 박혀 있다가, “야 그래도 동상 한 번 가야 되지 않니?” 개는 그만하면 김일성주의 정수분자라 그럴 정도로 그런 당일군 가족인데도 집에 붙어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나가 봐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들어서 나갔는데, (...) 갔는데도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몇 명 씩 알든 모르든 사람들이 몇 명 모여야지 그 동상 올라가는 계단으로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오래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가서 사람 차면은 인사하고, 내려오면서 하는 소리가 “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냐?” (사례 11 구술 녹취록, 2013 I/9-10)

청소년들은 김일성이 생존해 있었던 시기를 직접 경험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 시기를 직접 겪지 못했거나 기억하지는 못하는 경우에도, 부모 세대에게 들은 이야기와 학교교육, 공식 언론매체 등을 통해 김일성을 좋은 지도자로 기억하고, “김일성 때”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구술자들이 김일성 사망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를 김정일 사망 당시의 정황과 비교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한 “김정일 시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김정일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이 이와 대비되는 김일성 시대를 좋은 기억으로 채색하도록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다.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명사로 명명되는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은 해방 이후 북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 사회와 주민 의식의 변화를 촉발시킨 계기가 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북한의 새로운 세대는 이 사건을 즈음하여 태어난 연령군부터 가장 민감한 성장기인 중학교 학령기 때 이 사건을 경험한 연령군을 포괄한다.

북한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구소련,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주의 배급제를 유지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중국의 개혁·개방에 영향을 받아 부분적으로 라진·선봉에 특구를 지정하는 등 경제난을 해결하려 노력하였지만, 1990년을 전후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경제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1990년대 초반 핵 위기와 대외관계 악화, 1990년대 중반의 김일성 주석 사망과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최악의 경제난을 겪게 되고, 1995년부터 소위 ‘고난의 행군’에 접어들게 된다. 고

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주민들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아와 질병, 가족과 친지의 사망과 가족해체를 경험하였다. 경제난 시기 북한의 아사자 규모는 추산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3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가 기아로 인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28</sup> 이 연구 과정에서 심층면접을 하였던 청소년들 또한 유아기와 유소년기에 궁핍과 질병을 경험하였고, 가족과 친지, 친구들의 죽음을 목격하였고, 그 신체적, 정신적 상흔을 지닌 채 성장하고 있다.

경제난과 고난의 행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기억은 연령과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경제난 시기에 막 태어났거나 유년기의 나이였던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은 어린 나이로 인해 당시의 궁핍과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고난의 행군에 관해 부모에게 듣거나 책이나 학교 교육을 통해 이를 인지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저는 고난의 행군 때 어린 나이여서 그런지 그렇게 잘, 그렇게 힘든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스쳐지나간 거 --. 말은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을 잡아먹고 뭐,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저는 눈앞에서 그런 현실을 못 봤거든요. 배고팠던 기억이 없어요. (사례 16 구술녹취록, 2013 I/15)

그게 그저 아홉 살 때라니까요, 소학교 2학년 때. ‘아, 고난의 행

<sup>28</sup>. 통계청의 북한 인구추계에 의하면 북한에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경제난과 기아로 인한 초과사망자는 33만 6천 명 규모이며, 1994년부터 2005년까지의 초과사망자는 48만 2천 명 규모이다(『한겨레신문』, 2010년 11월 23일). 이석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의 기근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63만 명에서 112만 명으로 추산하였다(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177). 박경숙은 두 번의 센서스 자료를 분석하여, 경제난에 따른 인구 손실이 1993년부터 2008년에 걸쳐 88만여 명이며, 이 중 49만 명이 사망, 29만여 명이 출산을 감소, 10만 명이 이주 및 그에 수반된 출산을 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박경숙,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p. 228).

군이로구나.’ 그런데 이제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의미도 모르고 --. 아마 중학교 3학년 이때 회고록을 봤거든요, 김일성이 쓴. 거기 고난의 행군이라는 글이 있어요. 몇 권이던지. 항일무장투쟁할 때 고난의 행군이 있어서. (사례 9 구술녹취록, 2013 I/23)

20대 초중반의 청소년 중에는 어릴 때이지만 이때의 기억을 또렷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주로 배고픔과 관련된 기억이었다. 특히 고난의 행군기가 종료된 이후 2000년대까지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된 경우에는 경제난 시기의 궁핍의 기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전 저 어렸을 땐데, 할머니가 자꾸 이렇게 밥을 안 주고 찹을 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찹인데. 그런데 고구마라도 할머니가 계속 줬는데 엄청 맛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울었던 기억이 나요. 배고프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자꾸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들고 산에 올라가서 뭐 캐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뭐 고난의 행군이다 이런 건 몰랐는데, 할머니가 계속 산에 올라가서 뭐 캐고. 안 먹던 풀을 캐오고, 그냥 풀죽을 먹고. 그해 감자만 먹고. 쌀이라는 건 본적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막 찹이 진짜 한 질릴 정도로 찹뿌리 먹었던 게 생각 나요. (사례 4 구술녹취록, 2013 I/34-35)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여덟 살까지는 거의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기억. 저도 어릴 때까지 저는 진짜 제가 엄마젖을 먹을 때까지도, 네 옥수수밥을 거의 먹고 자란 기억이 있거든요. 진짜 많이 네, 거의 진짜 상황이 너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북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소나무 진. 네, 껍질 거기서 껍질 벗기면 진이 또 나오거든요. 송진떡이라고 하는데, 북한말로, 그런 것도 많이 해먹고. (...) 여섯 살 때인데, 너무 그때 진짜 미역국만 먹은 기억도 나고. 아무튼 저는 한 번도 배부르게 먹고 자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례 27 구술녹취록, 2013 I/3)

I

II

III

IV

V

VI

VII

아, 애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성인이 아니고 그때 완전 어릴 때, 두살 때 와서 할머니 집에서 살았으니까. 할머니 집에서 학교 다녀도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여섯 살 때인가, 막 할머니, 칩뿌리-. 진짜 잘 살았는데, 엄청 고기 먹고 진짜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쌀이 안 보이고, 평양에서도. 그 북한은 다 죽어도 평양사람들만 살리면 된다, 이런 좀 그런 게 있는데, 평양에서도 완전 진짜 칩뿌리 먹고 장난 아니게 살았던 거 같아요. (...) 학생들, 유엔에서 오는 선물-. 어 맛다, 유엔에서. 갑자기 생각났네. 선물 되게 많이 주는데 그때 되게 많이 줬었는데, 그때 우리 굶을 때는 막 배고프고 이럴 때는 산에 올라가서 나뭇잎랑 캐게 했던 거 같아요. 애들을 뭐 냉이 이런 거를 캐서. 옛날엔 그런 게 진짜 없었던 말이에요. 선생님들도 평양은 꼭꼭 월급을 주고. 월급이라 해봤자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안 줘서 선생님들이 되게 막 말이 많고 이런 게 기억나요. (사례 4 구술녹취록, 2013 II/3, 7)

그러나 경제난 시기를 기억할 연령대인 경우에도, 부모가 일찍 장사 활동을 시작하거나 해외의 친척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 비교적 경제 형편이 좋았던 경우에는 오히려 고난의 행군과 얽힌 특별한 어려움을 기억하지 못한다.

고난의 행군 때 저희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때랑 워낙 잘살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는 일본에서 방문단도 왔었고, 뭐 이래가지고 저희가 고난의 행군 때 남들처럼 이렇게 배고프고 뭐 옥수수 쌀 먹고 이렇게 않았거든요. 고난의 행군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저희는 잘 기억을 못해요. (사례 1 구술녹취록, 2013 I/15)

## 라.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2003년 종합시장화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으로 배급이 중단되고 아사자가 발생하면서 살아남은 주민들은 시장활동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경에는 전국적으로 암시장이 성행하였고, 주민들은 시장을 통한 생존방

식을 습득해나갔다. 북한 당국은 배급제를 정상화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취하기 어려웠다. 이에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제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을 공식적인 제도 영역으로 포섭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7·1 조치의 주요 내용은 식량을 비롯한 공식가격체계를 사장가격체계에 맞게 조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인상하고, 임금과 물가의 변화를 반영하여 공식 환율을 조정하는 것이었다.<sup>29</sup> 이 이외에도 인센티브 부여, 독립채산제, 개인 텃밭 허용 등 자본주의경제적 요소가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2003년 3월에 종래의 ‘농민시장’을 ‘시장’ 또는 ‘종합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유통물자의 범위도 공업제품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종합시장의 도입은 이미 확산된 시장을 제도화함으로써 규제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시장이라는 제도를 계획과 연계시키려는 조치였다.<sup>30</sup>

심층면접 대상자 중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20대 중후반의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구체적인 ‘7·1 경제관리개선조치’라는 명칭을 알지는 못하지만,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임금 인상이나 독립채산제 실시 등 당시 실시되었던 구체적인 조치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7·1 조치는)) 모르는데요. 아, 그게 독립채산제라는 게 나왔거든요. 자기가 일한 걸, 일한 거만 짝 먹는다. 맞아요. 기억나요. 독립채산제라고 그래, 북한에서는. 그때가 정말 더, 아닌 게 아니라 좀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일자리를 그때 모두 마련하느라고 아무 모두 인민들이 좀 분기한 거 같아요. 특히 제일 로임이 높

<sup>29</sup> 『조선신보』, 2002년 7월 26일.

<sup>30</sup>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2005년 하반기호(통권 제44호) (평화문제연구소, 2005), p. 66.

은 게 한 달에 5천 원 됐는데, 상하수도사업소. 그러니까 상하수도 아시죠? 거기가 들어가면 5천 원이다. 그 다음에 탄광은 뭐 2만 원이다. 뭐 이렇게 돼서 그때 아마 한 번 열의가 있었어요. 네. 그때가 독립채산제라니까 아마, 아마 그때 피득, 그때 우리 그랬거든요. “자본주의 좀 비슷하다.”, “종구나, 이거 이렇게 하니까.”(사례 9 구술녹취록, 2013 I/15-16)

((경제관리개선조치))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지내 자본주의화 된다 해가지고 그걸 다시 바꾼 거예요. (사례 11 구술녹취록, 2013 I/35)

위의 구술에서 드러나듯이, 2000년대 초반 북한 당국에 의해 실시된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엿볼 수 있다. 반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은 당시 10세 전후의 나이였기 때문에 실제 경제활동과는 거리가 멀어 이와 같은 경제적 조치들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연령대의 청소년들의 기억에 각인된 경제적 조치는 2009년 말의 화폐개혁조치였다.

## 마. 화폐개혁

2000년대 중반의 시장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더욱 확대되어 갔고, 주민들의 경제생활에서 시장활동에 대한 의존도도 갈수록 높아져, 시장의 확산은 불가역적인 상황이 되어갔다. 이에 북한 당국은 시장활동과 관련된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통제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화폐개혁 직후 북한 당국은 배급, 임금 지급과 국가상업망을 통한 상품공급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시장활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시장활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화폐개혁의 여파로 물가가 폭등하고,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배급과 임금 지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불만이 팽배해졌다. 화폐개혁으로 시장활동 자본금을 회수당한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박탈감도 크게 증가하였다. 결국 시장 폐쇄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복구라는 화폐개혁의 당초 의도는 관철되지 못하였다. 이듬해 초 시장 통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이어지고, 화폐개혁 사건은 김영일 내각 총리의 사과문 발표와 재정상 박남기의 처형으로 마무리되었다.

화폐개혁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사건인데다가 그 경제적 여파가 컸기 때문에,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의 많은 청소년들이 이에 관한 생생한 증언을 하고 있다. 이들의 구술에 따르면, 화폐개혁은 처음에는 특히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계층에서 환영을 받았다.

((화폐개혁)) 야, 그거 물론 불만했죠. 그때는 아무튼, 뭐 좀 이거 뭐 잘사는 놈들은 죽이는 거고, 이제 돈 없는 사람들, 이제 골고루 시작--, 아무튼 이제 평등하게 된단니까 아무튼 좋은 건 좋은 거고요. 그때까지 화폐개혁한다, 이렇게 해서 나쁘게 생각 가진 건 또 없었거든요. (...) 우리 엄마한테 내가 그때도 얘기했었거든요. “낙심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좋은가.” 그래 됐는데, 정작 이게 탁 해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지, 아무튼 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건 다 무슨 저 죽은 거고, 돈을 쓰지 말라니까 안 쓴 건 다 죽었고요. 돈 있어도 그때 잔돈은 유통이 안돼서. 무슨 50원짜리 하나 나가도 뭐 싸지 못해. 잔돈이 없다나니까. 그러니까 좀 어쩐지 그때 좀 점차 힘들면서 가격이 완전 올라가는 거예요. (...) 이제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고 아, 그 다음에 다 죽어 가는 거예요, 굶어서. (사례 9 구술녹취록, 2013 I/17)

그냥 뭐 화폐교환하면은 잘 사는 사람들은 좀 망했겠죠. 그런데 저희는 못 살았으니까. 화폐교환하면 그때 막 쌀이랑 다 풀고,

I
II
III
IV
V
VI
VII

풀어준다고 막 배급 풀어준다고 이래서 기분도 완전 그때 좋았어요. 막 10원짜리도 있어, 10원짜리 가지고도 뭐 사고, 천 원 가지고도 섹테레비 사고 막 이래서. 그래가지고 기분 좋았는데 되게. 그런데 그것도 한 10일인가 지나서 뭐 물가가 막 갑자기 막 상승한 거예요, 막. 천 원짜리 테레비가 막 만 원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서. 그때 막 많이 팔은 사람들이 좀 후회 하죠. 많이 사둔 사람들은 와, 대박이다 이려고. (사례 33 구술녹취록, 2013 I/37)

그러나 한두 달이 채 못되어 물가가 급등하고 시장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되자, 이와 같은 초반의 긍정적인 평가는 반전되었다. 특히 작은 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시장활동을 하던 상인이나 시장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살았던 주민들의 경우 시장의 마비는 곧 생계유지가 불가능 해짐을 의미했다. 심층면접을 했던 청소년들 중에도 화폐개혁을 계기로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면서 고난의 행군기에도 겪기 못했던 빈곤과 삶의 불안정성을 겪어야 했던 기억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워낙 이제 화폐개혁 저거랑 하고 워낙 2009년도 때 저희 가족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 전보다도 진짜. 그래갖고 너무 사는 게, 너무 이렇게 힘들다 해가지고 아마도 아버지가 먼저 가신 거 같아요. 거의 일단은 먹고 사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제일 힘들었고 어... (….) 그때((고난의 행군))보다 더 힘들었어요. (사례 25 구술녹취록, 2013 I/4, 5, 18)

아, 이거는 정부에서 돈 벌기 위한 거지 그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로구나. 처음엔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강냉이도 뭐 이렇게, 옥수수도 국정가격으로 댔어요. 그렇게 한 한 달도 채 못 간 줄 알아요. 한 달 정도나 갖겠는지. 그 다음엔 ((물가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사례 13 구술녹취록, 2013 I/4)

## 바.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정권 출범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뒤를 이어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인 북한의 청소년들은 이와 같이 큰 정치적 사건에 대해 대체로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장례 절차에 따라 동상을 참배하고 꽃을 바치는 의례를 시행했지만, 이들의 부모 세대가 김일성 사망 당시에 보여주었던 슬픔이나 안타까움을 보이지는 않았다. 당시 중학교를 다녔던 한 청소년은 김정일 사망 당시의 청소년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냥 TV랑 보면 진짜 막 사람들이 울고 옷을 막 벗어, 진짜 뭐 났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 좀-- 좀 이상하기도 하고, 별 생각이 안 들었어요. 학교에서도 애들이 그런 거, 그 TV를 보며 울거든요. 그런데 TV를 보고 한 10분 지나면 막 웃고 떠들고 이러거든요, 애들이. 그런 감정이 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동상에 가서 꽃을 놓고 또 우는 애들도 있는데, 저는 꽃을 놔도 그냥-- 옆에 애들 다 울어도 그냥 눈물이 안 나와요. 왜 그런지. 감정이 없어서. 우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냥, 그냥 눈물이 나 온대요. (사례 5 구술녹취록, 2013 III/29)

김정은의 세습에 대해서는 북한체제의 특성과 반복된 교육 탓에 모든 주민들이 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의구심을 품지 않았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20대 일부 청소년들은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자신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외국물을 먹은” 젊은 지도자에 대한 기대를 갖기도 했다.

김정은이가 그 정치를 더 옛날 방식이 아니고, 뭐 인민경제생활을 향상시킨다, 그런 말이 들었어요. 엄마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I

II

III

IV

V

VI

VII

애들도 젊었으니까, 좀 우리 살림이 나아지도록 그런 외국에 가서 또 공부했다니까, 그런 게 들은 거예요. 외국에 가서 공부했다, 그래서 좀 방식이 아빠하고 달라서 이렇게 방식 다르게 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우리를 먹여 살려주겠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다, 뭐 이래 말하는 거. (사례 13 구술녹취록, 2013 I/38)

이상에서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일어난 주요 정치경제적 사건들을 북한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북한의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주요 사건들에 대해 외부에서 추측하는 것만큼 명징한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기억나는 정치 사회적 사건이 무엇이나고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정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웃이 정치범으로 잡혀간 사건처럼 자신의 일상과 연결된 주위의 작은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큰 사건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적시하여 물어보았을 때에야 비로소 그와 관련된 기억이나 생각을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마도 이러한 정치경제적인 사건들은 개인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을 포괄하는 일련의 사회적 변동 속에서 연속적으로 경험되고 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거시적 사건들이 이들에게 중요하게 각인되는 것은 이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서 거시적 사건의 구체적인 영향력을 포착할 수 있을 때일 것이다. 북한 청소년들은 또한 연령대와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경제난 시기에 태어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소년들과 이 시기에 학령기를 맞은 20대 중반 이후의 청소년들의 기억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3. 사회문화적 환경

이 절에서는 북한 청소년들의 세대경험에 영향을 미친 1990년대 이후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배급제 붕괴와 시장 활성화에 따른 생존방식의 변화, 가족 구성과 학교교육의 변화, 외부문화의 유입과 정보 유통 활성화 등이 북한 청소년들의 경험을 구성하는 주요한 사회문화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 가. 생존방식의 변화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반 배급체계가 붕괴되었고, 현재까지도 배급체계는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간간히 평양을 중심으로 배급이 재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그것마저도 지속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북한의 주민들은 직장의 월급과 국가배급에만 의존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배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2008년 57.3%, 2009년 64.1%, 2010년 63.2%, 2011년 76.8%로 계속 높아졌다. 반면 배급을 받았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은 2008년 5.5%, 2009년 6.4%, 2010년 2.6%, 2011년 8.9%로 답하고 있어 실제 북한에서는 극히 일부 주민에게만 식량이 배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31</sup> 배급 수혜 정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평양 거주자 중 60%가 식량배급을 받았다고 응답한 데 비해, 강원도 거주자의 75.0%, 함경남도 거주자의 71.4%,

<sup>31</sup> 황나미, “북한주민의 공공 식량배급 수혜상황과 영양취약 아동규모추계,”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85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3), pp. 61~62.

함경북도 거주자의 66.7%, 양강도 거주자의 63.3%가 식량배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고 있다.<sup>32</sup> 또한 배급이 된다 하더라도 그 양이 적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시장과 연계된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08, 2009, 2011년에 실시한 탈북자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장사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60~70%에 달하고 있고,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에서 받는 임금 이외의 비공식 수입이 있었던 응답자 비율이 2008년에는 31.1%, 2009년 30.2%, 2011년에는 60.5%로 크게 증가하였다. 장사 경험이 있었던 비율도 2008년에 전체 조사대상자 296명 중 168명으로 56.8%, 2009년에는 370명 중 206명으로 66.7%, 2011년에는 114명 중 79명으로 69.3%를 차지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sup>33</sup>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북한에서 장사나 8.3 노동<sup>34</sup> 등 비공식일만을 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175명 중 82명으로 46.9%, 비공식일과 공식일을 병행한 사람이 55명으로 31.4%를 차지했고, 공식일만 했던 사람은 38명으로 21.7%에 불과했다.<sup>35</sup> 이러한 연구결과는 80%에 가까운 주민들이 장사일만으로 생계

---

32. 위의 글, pp. 61~62.

33. 김병로,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북한사회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15권 1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2012), pp. 52~53.

34. 기업의 노동력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경제외적 강제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업에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의 계약관계를 의미한다(이석기, “북한의 노동: 2000년대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2.11), p. 83).

35. 김화순, “시장화시기 북한 주민의 일유형 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94.

를 해결하거나 공식직장과 장사일을 병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경제난 이전 시기에 배급과 공식 직장에 의존하였던 생존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과정에서 심층면접을 실시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부모들이 대부분 공식적인 직장에 적을 걸어놓고 장사를 하거나, 직장일과 장사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청소년들이 부모의 공식 직장을 잘 모르고 장사를 했다는 것만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도 중학교나 대학교 재학 중 부모의 장사일을 돕거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거나, 심지어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의 배급망에 긴박되어 생계를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또는 자신의 장사활동을 통해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은 이들 청소년 세대의 세대공간을 기존 세대의 세대공간과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다. 특히 경제난이 시작된 이후에 태어난 10대 후반 이하의 청소년들은 국가의 보호와 시혜를 한 순간도 직접 체험해볼 수 없었던 세대라는 점에서 이전 세대와 구분된다.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분화되고 상인들 간의 경쟁도 격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시장활동을 일정한 수준에서 통제하기 위해 정책을 자주 변경하고 있어, 시장활동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화폐개혁이다. 시장활동과 관련된 변동성을 늘 예측하고 이에 잘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하루아침에 큰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고, 이는 삶의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요소가 된다. 또한 비합법성이 큰 상행위일수록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적발과 처벌의 위협을 무릅쓰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위협성이 상존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장사

I
II
III
IV
V
VI
VII

하는 과정에서 범한 불법행위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기 일쑤이고, 심한 경우에는 추방이나 사형과 같은 심한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가정의 안정성과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 나. 가족

경제난과 자생적 시장화는 가족 관계에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난의 행군기에 기근과 전염병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사망하였고, 그중에서도 생산조직과 군대에 동원된 장년층 남성의 경우에 사망률이 높았다. 이들은 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장년층 남성의 높은 사망률은 곧 아버지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다.

고난의 행군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료체계 등 사회안전망은 정상적으로 복구되지 못하였고, 경제난 시기 기아의 흔적으로 주민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 기아 지수의 추정에 의하면 북한 전체 인구 중 영양실조의 비율은 1990년 21%, 1996년 30%, 2001년 34%, 2012년 35%로 추정되고 있다.<sup>36</sup> 이러한 수치는 고난의 행군이 종료된 이후에도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영양결핍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2007년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병경험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당시 유병경험율은 본인 51.6%, 배우자 37.3%, 부모 61.9%, 형제자매 37.7%, 자녀 24.8%로,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다.<sup>37</sup> 이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치

---

<sup>36</sup>-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2012 Global Hunger Index,” (2012), <<http://www.ifpri.org/book-8018/node/8058>>; 문경연·김판석,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과 경제에의 함의,” p. 137에서 재인용.

자체를 북한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 주민들의 영양실조율이나 유병경험율이 높다는 것은 북한 청소년들에게는 보호자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한 생활의 불안정과 고통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연구 과정에서 접한 많은 청소년들의 삶 속에서 가족 구성원의 질병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기인한 고통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사망과 질병으로 인한 가족해체 이외에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가족 해체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기에 여성들은 가장을 대신하여 장사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다. 이후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직장에 나가야 하는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여성이 시장경제활동의 주체로 나서게 되었다. 소위 ‘달리기’ 등을 하며 생계활동을 하는 여성과 남성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지역공간에 고정되었던 가족의 안정성이 크게 낮아지게 되었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식량 부족과 가족 구성원의 잦은 부재로 인해 사실상의 이혼과 가족의 해체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sup>38</sup> 가족이 해체되지는 않더라도 이전 시기에는 가정일을 도맡아 하던 여성이 지방을 오가며 장사를 하고 가정을 장기간 비우게 되면서, 어린 자녀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탈북으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sup>39</sup> 정확한 수치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성의 탈북 증가로 인해 북한에서 여성들의 행방불명이 많아지면서 남편이 아내를

37. 박경숙,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p. 199.

38. 조정아 외, “자아와 내면세계,”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0).

39.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70%를 상회하고 있다.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sup>40</sup> 이와 같은 가족해체 현상은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방치되거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다. 학교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교육을 ‘사람들을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혁명인재로 키우는 것과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교육에서의 계급성, 유일사상체계의 확립과 ‘혁명과 실천’의 밀접한 결합을 이루는 것이 강조된다.<sup>41</sup> 이와 같은 교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북한은 1970년대에 ‘11년제 전반적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평등주의적 교육제도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경제난 시기에 수해로 인해 학교 시설이 크게 파손되었고 경제난으로 인해 교사들이 학교에서 이탈하고 학생들의 출석률도 저하되면서 학교수업은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2000년대 들어 학교 시설 복구와 교사들의 학교 복귀가 이루어졌지만, 경제적 사정과 교육정책 및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일반 초중등학교의 출석률은 경제난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UNICEF가 북한의 학교 실태에 대해 조사관찰한 바에 의하면 초중등

---

40. 보도에 의하면 최근 북한에서 이혼이 급증하고 있고, 이혼사유가 ‘외도’ 또는 ‘불임’의 이유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탈북으로 인한 ‘위장이혼’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北, ‘외도’로 이혼한 부부 알고보니...,” 『동아일보』, 2013년 5월 16일, <<http://news.donga.com/3/all/20130516/55185289/1>>). 이러한 현상은 경제난 이후 시장화의 확산과 상대적으로 이동이 쉬운 여성들의 탈북이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

41.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테제(1977.9.5.),” 『김일성저작집 3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학교에서 장기결석이 증가하고 있고 계절에 따라 60~80%의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sup>42</sup>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반중학교의 경우 최근까지도 출석률이 낮고 학사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사들이 출석을 강조하지만, 일단 학교에 등교한 후 중간에 빠져나가 부모의 장사를 돕거나 놀러다니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sup>43</sup>

또한 북한 당국이 교육 예산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1990년대 말부터는 국가적 교육 예산을 과학기술분야의 수재교육을 중심으로 배분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 대한 지원이 크게 축소되었다. 교과서, 학용품으로부터 책걸상 등의 교구비품, 학교 시설의 유지에 드는 비용에 이르기까지 경제난 이전 시기에는 국가에서 제공하였던 공교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sup>44</sup>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탁아소와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부담공교육비가 크게 증가하여 무상교육제가 유명무실화되기에 이르렀다. 각종 잡부담으로 인한 교육적 어려움은 초중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고등교육기관도 무상으로 학비, 기숙사비, 교재, 실험실습비 등을 거의 내지 않았으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학생들은 학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다.<sup>45</sup>

중등학교 서열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중등교육

<sup>42</sup>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6), p. 57.

<sup>43</sup> 좋은벗들에 의하면, 2009년 5월에 실시된 함경남북도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흥남시 평균 결석률이 1/3에 달했다는데, 이는 생계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장기 결석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고되었다고 한다(좋은벗들, “[280호]흥남시 교육부 실태 조사 결과, 평균 1/3 결석,” 『오늘의 북한소식』, 2009년 5월 26일).

<sup>44</sup>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143.

<sup>45</sup> 신효숙, “김정일 정권의 교육정책,” 『평화학 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0), p. 220.

수준의 저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1990년대 말 중등교육체계가 평양제1중학교-도제1중학교-시·군·구역제1중학교-일반중학교의 서열화된 체계로 개편되면서, 결과적으로 학교등급에 따른 국가적 지원과 학생들의 학력 및 대학 진학 가능성에 큰 편차가 발생하였다.<sup>46</sup> 일반 중학교 재학생들에게는 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상당히 제한되었고, 일반중학교와 제1중학교 간의 학력 격차도 커지고 있다.<sup>47</sup>

북한에서는 저하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계적 교육 추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지난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초등교육기관인 소학교를 종전의 4년제에서 5년제로 개편하고, 전기 중등교육기관인 초급중학교와 후기 중등교육기관인 고급중학교를 분리하는 등의 학제 개혁을 실시하고, 의무교육 기간을 11년에서 12년으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가 부실화되고 있는 학교교육을 복구하고 박탈된 빈곤층의 교육권을 회복시키는 정책적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 라. 대중매체·정보의 유통

2000년대 들어 시장은 급속하게 팽창하였고, 정부의 주기적인 통제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매시장망과

---

<sup>46</sup> 북한 공식매체에서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탈북자들의 여러 증언을 통해, 군과 구역단위에 설립되었던 제1중학교가 2007년경에 폐지되어 일반중학교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up>47</sup> 조정아, “2000년대 북한의 교육 전략과 교육생활세계의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09), p. 41.

각 지역의 시장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갖추었다. 이제 시장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의 유통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것은 식량과 생필품만이 아니다. 중국과의 국경을 통해 유입된 각종 정보와 외부 문물이 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거래된다. 각 지역의 주요 시장에는 전국 각지의 상인들을 통해 흘러들어온 각종 정보가 모이고, 이 정보는 다시 다른 지역으로 운반된다.<sup>48</sup>

특히 2000년대 이후 중국 상인을 통해 비디오와 CD 기기가 대중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지방의 대도시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을 접하는 주민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사회주의 사상의식 약화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북·중 접경지역의 경우 주민의 대다수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영상매체를 접하고 있으며, 이 매체는 전국 각 지역의 시장네트워크를 통해 내륙지역으로도 유통되고 있다. 영상매체의 유통경로는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등 북·중 접경지역은 물론 평양, 평안도, 강원도, 황해도 등 내륙지역까지 연결되어 있다. 특히 혜산시, 나진시를 비롯한 국경 무역도시는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 영상매체를 북한 전역으로 유통하는 중간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혜산에서 평양, 순천, 김책, 함흥, 원산, 신포, 청진 등지로 상인들이 이동하며 영상매체를 유통시키고 있다.<sup>49</sup> 한국 영상물은 적발 시 강도 높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드러내놓고 팔지는 못하지만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시장에 가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밀하지만 공공연하게 유통된다.

<sup>48</sup> 이교덕 외,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서울: 통일연구원, 2009).

<sup>49</sup> 강동완·박정란,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p. 115, 117.

2000년대 중반 이후 당국의 강력한 통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sup>50</sup> 북한 주민들 속에서 한국 대중문화는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문화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에서 한국 영상매체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40명 중 79명으로 50%가 넘고, 이중 월 1회 시청이 21명, 매일 시청이 5명, 보고 싶을 때마다 시청한 경우가 40명으로, 시청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 80% 이상이 지속적으로 한국 대중매체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sup>51</sup> 본 연구 과정에서 접한 청소년들도 거의 대부분 북한에서 한국 가요나 드라마, 영화 등 한국의 문화를 접한 경험이 있었다.<sup>52</sup>

---

50. 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북한에서는 2004년 개정 헌법 제6장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에서 1999년 형법에는 없었던 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제193조),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제194조), 적대방송 청취, 인쇄물, 수집, 보관, 유포죄(제195조)와 같은 항목을 추가하였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93조>: 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씨디롬 같은 기억매체를 허가 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4조>: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씨디롬 같은 기억매체를 여러 번 보았거나 들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5조>: 적대방송청취, 인쇄물, 유인물 수집, 보관, 유포죄(반국가목적이 없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방송을 체계적으로 들었거나 빼라, 사진, 녹화물, 인쇄물, 유인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51. 윤선희, "북한 청소년의 한류 읽기: 미디어 수용에 나타난 문화 정체성과 사회 변화," 『한국언론학회』, 제55권 1호 (한국언론학회, 2011), p. 443.

52. 오양열은 북한의 한류현상이 매우 대중화되어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스토리가 뻘한 한국영화나 드라마보다 <람보 4>(2008), <007 카지노 로

한국 영상매체는 북한의 공식 선전매체에 대한 흥미와 공신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북한 주민의 한국사회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을 통해 유입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외부 영상매체와 정보는 북한 청소년들에게 북한이 아닌 다른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학교교육이나 공식적인 선전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없는 사고방식과 문화,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

알>(2006), <수퍼맨 리턴즈>(2006), <아마겟돈>(1998) 등의 미국 액션영화나 <프리즌 브레이크> 등의 미국 드라마에 더 열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오양열, “북한 내 외래문화 유입으로 인한 영향과 전망,” 『플랫폼』, 26권 (인천문화재단, 2011), p. 17).



# III

육체와 언어의 경험



## 1. 주체의 호명과 수행

우선 ‘청소년’이라는 명칭과 호명은 그 대상이 되는 청소년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실천을 요구한다. 그러한 호명을 통해 청소년은 비로소 하나의 주체가 된다. 국가나 사회가 만들어내는 청소년 담론이 지니고 있는 주체 산출의 효과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것은 청소년이 특정 나이에 속하는 사람들의 집합적 명사로서 어떤 본래적인 특성을 갖는 집단이라기보다는 국가 또는 사회에 의해 그렇게 호명될 때, 즉 담론으로 구성될 때 주체로서의 위상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국가가 “어이 거기 청년!”이라고 외칠 때 그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는 국가에 의해 ‘청소년’으로 호명되는 것이다. 즉 국가의 부름을 받고 뒤돌아서는 행위에 의해서 개인들은 ‘청소년’이라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가령 ‘청년동맹’에 가입되고 교육이라는 제도적 과정 및 통과 의례, 청소년으로서 해야 할 규범과 규율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육체에 기입될 때 비로소 그는 청년이라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런 호명을 거부하거나 호명에 실패한 자들은 배제되고 억압되면서 주체가 아닌 비체들(non-subjects)이 된다.<sup>53</sup>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청소년이라는 특정 생물학적 나이로 구분되는 청소년, 다른 하나는 특정한 시기의 경험을 공유하는 ‘세대’로서의 청소년이다. 전자가 주로 특정 경험의 공유가 아닌 특정 나이대가 갖는 보편적 특성을 전제하여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후자는 특정 시기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어떤 경험과 정서의 공유 차원에서

<sup>53</sup> 사라 실즈 지음, 김정경 옮김,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서울: 엘피, 2007), pp. 190~191.

I
II
III
IV
V
VI
VII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하나의 ‘세대’로서 청소년을 바라본다는 것은, 특정 시기의 청소년이 어떻게 국가와 사회에 의해 호명되고 주체화되었는가, 그리고 이 속에서 어떻게 이들의 경험세계가 펼쳐졌는가의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세대의 경험으로서 청소년이 갖는 정체성은 단순히 국가의 호명과 제도 및 규율을 통해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정체성은 주어진 사회경제적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런 국가의 제도와 규율을 자신들만의 언어와 육체적 수행을 통해 재-전유(re-appropriation)하는 것을 통해서도 복수적으로 형성된다. 다시 말해 국가의 제도와 규율, 관습과 규범을 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끊임없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비틀고 전복하면서 자아를 형성해 가는 특징을 갖는다. 그것은 곧 육체, 언어, 몸짓, 말하는 스타일, 신체적 표현, 사물, 장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드러나고 수행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떤 경험과 정서의 공유로서 ‘새 세대’의 특징을 발견한다는 것은 고정되고 평균화된 특징으로 포착되기 힘들다. 오히려 그들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발견되는 문화적 전략과 전술의 일정한 패턴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국가 또는 사회가 특정한 시기에 청년들에게 제도적, 물리적, 담론적 차원에서 ‘청소년’으로서의 규범과 규율을 어떻게 육체적 또는 언어적으로 각인시키고자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시기를 경험한 세대가 어떻게 육체 속에 그들 세대의 경험을 각인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경험을 언어적으로 수행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둘은 분리된 어떤 과정이 아니라 상호 중첩되고 교차하며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2. 빈곤과 계층화의 육체적 경험

### 가. 세대경험과 주체형성의 양면성

육체는 한 세대의 경험이 각인되는 기억의 장소이다. 한 세대의 사회경제적 경험은 신체적·심리적 외상이나 기억으로 육체에 남겨지기 마련이다. 주지하고 있듯이 1990년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은 주민들의 삶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이런 급격한 사회변동이나 사회적 충격은 전체적인 인구의 양적 손실은 물론이고 개별 주민들의 육체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sup>54</sup> 그런 측면에서 질병과 죽음, 기근의 고통이 각인되는 기억의 장소로서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들의 ‘육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육체적 경험은 이들 세대의 행동과 사고에 영향을 미쳐 하나의 세대적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전 시대와의 경험적 비교를 하지 못하는 고난의 행군 전후에 태어난 세대의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성장하여 나름의 새로운 세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세대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이 고난의 행군 이전 시기를 아주 어린 시절 경험하거나 아예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1990년대 이후의 사회질서, 삶의 방식, 경제적 생활을 태어나면서부터 일상적으로 경험한 세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 시기와의 비교를 통해 생활상에서 받는 ‘고통’의 정도나 변화를 자각적으로 느끼기 힘든 측면이 있다. 다

<sup>54</sup> 홍민, “북한의 인구정치와 식량체제: 인구학적 변화 속의 주민일상,” 홍민·박순성 엮음,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3), p. 144.

I
II
III
IV
V
VI
VII

만 이전 시기를 경험한 어른 세대나 외부의 관찰자 입장에서 이들의 육체적 경험을 특정 사례들을 통해 의미화하고 특징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세대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 세대의 목소리를 통해 말해지는 육체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세대는 크게 고난의 행군 시기에 유년 또는 청소년 시절을 보낸 이들과 고난의 행군 이후 태어난 이들로 볼 수 있다. 물론 지역적인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자가 주로 극심했던 기근과 질병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어느 정도 기억한다면, 후자는 상대적으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은 덜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라난 이들이다. 크게 보면 이들 모두 고난의 행군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육체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 시장화 등을 경험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부분은 이런 기근, 질병, 죽음, 시장의 경험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의 세계관, 정서, 행동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이다.

새로운 세대의 경험세계를 시기적으로 보다 세분화하면, 우선 1985년 전후로 태어나 유년과 청소년 시기에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둘째, 19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셋째, 2000년대 시장화가 본격화된 이후 태어난 사람들로 세분화할 수 있다. 첫 번째의 경우는 고난의 행군 경험이 보다 확실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부류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고난의 행군 전후를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두 번째의 경우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전후로 태어나 희미하게나마 극심한 배고픔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거나 아예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다. 대체로 배고픔이나 시장 중심의 생활이 일상화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의

경우는 고난의 행군에 대한 직접적 경험은 없는 세대이지만 2000년대 더욱 활성화된 시장활동과 ‘화폐교환조치’와 같은 시장 관련 조치들을 경험하며 자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시기적으로 다소간의 경험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고난의 행군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를 유년 및 청소년 시절을 통해 고스란히 경험한 세대란 점에서 유사한 육체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육체적 경험은 크게 기억의 측면과 육체적 외상의 측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육체적 고통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으나 어린 시절이라 기억으로 남아 있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육체적 외상의 경우에도 증세가 표면화되는 것이 느릴 수 있고 대부분 유사한 경험을 한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 살면서 자신의 증상을 도드라지게 문제적으로 인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억과 외상은 이들에게 자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파편화된 경험의 조각으로만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부의 시선으로 생각하고 짐작하는 것과 달리 이들이 말하는 경험에는 많은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 기억과 외상의 정도에 따라, 첫째는 극심한 배고픔의 고통을 기억하고 외상을 뚜렷하게 인식하는 경우, 둘째는 육체적 고통을 경험했으나 기억하거나 자각하고 있지 못한 경우, 셋째, 아예 육체적 고통의 경험이나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면담에 참여했던 구술자들 중 일부는 극심한 배고픔과 같은 육체적 고통, 가족의 해체나 죽음 등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외에 나머지는 대체로 어린 시절 희미한 기억으로 배고픔을 기억하거나 아예 기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고난의 행군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기억하는 경우는 대체로 자신의 유년 및 청소년 시절과 고난의 행군 시기가 교차하는 경우이다.

I
II
III
IV
V
VI
VII

대체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출생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 1980년대 중반생

네. 저 아버지도 199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고난의 행군 때.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위병으로 그냥 이렇게 환자 됐거든요. 환자 돼가지고 앓다가 1996년도에 우리 동네에서 하룻밤만 자고 나면 옆집 아버지 죽고, 그 다음 아버지 죽고, 완전 동네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하룻밤 자고 나면 사람 죽었다, 죽었다. 완전 너무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위병으로 앓고. 이 성성한 사람도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풀을 먹고 그저 이렇게 송기를 벗겨먹고 비지깡치 먹고 돼지풀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사례 17 구술녹취록, 2013 I/2)

· 1990년대 초반생

되게 어릴 때 쌀이 없어서 이런 풀죽 같은 거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좀 어릴 때라서, 잠깐 그런 기억. 엄마는 쌀 구하러 나가고 아빠가 밥 하는데, 밥도 잘 못하고 아무튼 그런 기억이--. 그 어릴 때 잠깐 그런 기억이 있었고 커서부터는 좀 그렇게 막 굶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거 같아요. 잘 먹고 잘-- 너무 어렵어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 기억 안 나고. 좀 커서부터 뭐 막 굶어서 죽고 이런 얘기를 들어왔었던 거 같아요. 직접 본적은 없고.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1-2)

· 1990년도 초반생

정말 그 배고픔이라는 게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몇 끼까지 굶어봤는데요, 하루 종일 굶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굶었어요. 그 래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랑 뭐 집안 식구들은 어떻게 구입을 하러 이렇게 다녔고 그래가지고. 그때 집에 누구랑 같이 있었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네 번을 굶어 봤는데, 그때 굶으면서 느낀 게 처음에는 두 끼 굶을 때는 막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밖에 나가면 막 눈이 핑핑 돌고 앞이 안 보이고, 일어나면 막 앞이 안 보이고. 물만 계속 퍼마셨던 거 같아요. 물만 계속 퍼마시고, 세 번째 굶으니깐 그 다음에는 그냥 막, 그런데 배고프니까 음식이 더 생각이 나요--. 제일 무서웠던 게 있다면, 제일 무서운 게 있다--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많이. 굶는 게 제일 무서웠던 때도 있었고, 막 배고플 때가 제일 무서울 때도 있었고. 또 점점 크면서는 국가가 많이 무서워졌어요. (사례 29 구술녹취록, 2013 I/7-8,10)

구술자: 네, 그때 그 다음 퐁구데이라는 거 봄나물이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 동생과 내가 둘이서 그냥 개울 따라 다니면서 한 지대 팡팡 눌러 따오면 엄마가 그거 데쳐가지고, 풀 넣고, 풀죽이죠 완전. 풀 한 절반만 넣고 그 다음 옥수수 가루를 그냥 버무려가지고 죽 주는데, 그 죽도 저희 배부르지 않아서 좀 줬으면, 좀 줬으면, 그런 생각이 나요.

연구자: 참 힘들게 살았네.

구술자: 네, 제가 그래서 하나원에 있을 때 그런 뭐지, 문예작품이라는 거 써요. 그거 쓰면 좋다고 다 쓰라고, 저는 그런데 막 쓰고 싶은 거예요. 잘하지 못하지만, 그런 작품들. 그래서 살아오던 그거 막 쓰고, 그리고 또 이사랑 엄청 다녔어요. 그래서 아빠랑 되게, 동생이 막 세살 때인데 배고파가지고 아빠가 그 말 하면 눈물 흘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닭을 갖다 주라 했는데, 그게 암탉인데, 그 암탉이 알 있었잖아요. 그 알 아직 낳지 않았는데 아빠가 손 넣어가지고 알을--. 동생 너무 울어가지고 동생한테 깨워줬다구 그거 되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잘 먹이지 못해가지고--.

연구자: 고난의 행군 때예요? 어려서 열 살도 안 된 나이에서도 기억을 다 하네, 그제.

구술자: 저 다 나요, 그제. 제가 소학교 때는 여덟 살 붙었는데, 신발이 없어가지고 어떤 남자애가 데릴러 왔는데, 학교라고, 전 학교인지도 모르죠. 데릴러 왔는데 신발이 없어가지고 엄마 신발 이만큼 큰 거 신고 가가지고 애들이 놀리는 거 참고, 책도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출석부

주는데 출석부에도 공부하고 그런 생각이 진짜 있어안  
지고. (사례 13 구술녹취록, 2013 I/27-28)

그러나 비슷한 시기인 1990년대 초반에 태어났으나 고난의 행군 시기의 배고픔이나 주위의 죽음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거나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 주로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커서 부모님들에게 듣고 추체험하는 방식으로 고난의 시대를 간접적으로 기억화하고 있는 경우이다.

끼니를 거르지 않을 정도로 그냥 살았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유치원 이후부터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배고픈 기억은 별로 안 남았는데 이제 그 유치원 전에. (사례 39 구술녹취록, 2013 I/5)

이들은 배고픔이나 질병, 가족이나 주위 사람의 죽음 같은 직접적인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거나 기억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유년 시절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세대 안에서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대한 경험과 기억의 편차가 상당한 정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북한에 거주할 때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가 한국에 와서 배고픈 시기를 살았다고 자각하는 경우도 있다.<sup>55</sup>

한편 면접에 응한 이들 세대의 구술자들 중에는 희미하게나마 “구루마에 관도 없이 실려 나가는 사람”(사례 39)을 본 기억을 가지고 있는

---

<sup>55</sup> 이런 현상은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배고픔의 기억이나 신체적, 심리적 외상이 잠재되어 있다가 한국으로 온 후 쏟아져 나오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한국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육체적 고통으로 해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직접 보기보다는 거의 소문으로만 들은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어느 구술자의 경우, 고난의 행군을 사람이 ‘과연 굶어서 죽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하나의 소문이나 풍문으로 생각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물론 이것은 이들이 식량난이 극심했던 시기 실제 다수의 기아자들을 눈으로 보고 인식할 나이는 아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구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식량난으로 인한 죽음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보다는 영양 부족 상태의 지속에 따라 특히 노약자들에게 주로 시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굶어 죽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과연 굶어서 죽었을까?’ 그런 걸 겪어 못 봐서 그게 믿겨지지 않았던 거 같아요. ‘어떻게 굶어서 죽을 수 있지?’ 막 이런 정도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7)

면접에 응했던 고난의 행군 이후 태어난 세대에게서 육체적 고통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로는 대체로 이 시기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유사한 경제적 어려움과 상황에 있었다는 점에서 배고픔을 강렬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부모님의 말을 통해 듣는 간접적 경험 이외에는 이들 세대에게 경험적 비교의 준거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배고픔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 왔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빈부의 차이는 있으나 시장 중심의 생활을 통해 이전 세대의 자각보다는 배고픔을 특별한 고통으로 기억하지 않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새로운 세대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심한 배고픔의 시기 전후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육체적 후유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자신들의 세대가 주로 간이나 폐가 약한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시들시들”하다고 자기진단을 하기도 한다

I
II
III
IV
V
VI
VII

(사례 29). 또한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죽음의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이 어린 시절 자각적으로 상황을 분별할 나이에 경험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이들의 삶의 태도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가령 면담에 응한 어느 구술자의 경우 어린 시절 경험한 공개적인 총살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면담에서 다른 질문과 달리 매우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구술을 했다. 그만큼 유년 시기의 이 경험이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저희 집 앞에 공장 같은 데 있는데 거기에서 총살하는데-- (…)  
 그 어릴 때 무슨 왜 그 사람들 총살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  
 주일에 한 두 번은 총살했어요. 사람들을 한 세 명씩 데려다가.  
 네, 그 기억은 잊을 수 없어요. (…)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 실어  
 다가 그 나무에다 묶어놓으면 30분 어간에 다 썩 죽어요. 그럼  
 자루에다 그냥 처박고 실어가고 그랬어요. 가면 끝이에요. 우리  
 는 다 죽었나 일어나서 집에 와서 놓고 계속 그게 연장되고. 처  
 음에 언제부터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몇 번 목격했는  
 데--. (…)  
 어릴 때 그냥 다섯 살, 여섯 살 그때까지 그냥... 네,  
 그냥 목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봤는데 그냥 그 사람, 그거 죽으  
 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허리를 이렇게 툭 꺾었는데 몸하고 몸  
 사이, 사람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대 자루에다 넣어갖  
 고 차에다 탁 실어갖고 가는 그거 몇 번 봐서 그건 웬지 머릿속  
 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사례 33 구술녹취록, 2013 I/3-4)

이런 공개적인 ‘총살’의 목격이나 배고픔의 기억은 삶에 대한 태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시 ‘총살’을 당하는 사람들의 죄가 파렴치하여 그들의 죽음이 어떤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했지만, 죽음 자체는 그들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이런 죽음의 목격은 죽는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두렵고 소름끼치는 것이지만,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파리 목숨도 아

니구나.”라는 생의 가벼움을 느끼게 하고 “살아 있을 때 뭐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한다.”는 태도로 나타나기도 한다(사례 33). 큰 배고픔의 공포를 경험했던 어떤 구술자의 경우 쥐약을 먹고 자살한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차라리 배고픈 것보다는 그런 죽음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굶어죽는 것도 온가족이 이제. 북한에는 쥐약이 있어요. 쥐약을 먹고 죽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생각할 땐 저도 어려서 막 배고픔을 겪어봤고 해서 불쌍하고 막 그렇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렇게 죽으면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그것도 좋긴 하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배굶아 못 본 사람들은 뭐 모르지만 배 굶아보면 진짜 뭐 배를 며칠 굶으면 뭐 진짜 양반도 진짜 비렁질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공포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은-. (사례 39 구술녹취록, 2013 I/7-8)

이들은 이런 ‘죽음’을 목격할 당시 어쩔 수 없거나 당연한 죽음으로 받아들였지만, 한국에 온 후 이들 죽음들이 새롭게 인식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한다. 그것은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충격으로 바로 인식되지 않고 죽음의 장면으로만 기억되던 것이 탈북 후 체제 비교의 심성이 생긴 이후 공포로 새롭게 인식되고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억눌린 사회 분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죽음의 목격이 일순간 트라우마로 삶의 기억 전면에 등장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육체적 고통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이들 중 1990년대의 고통은 희미하게 기억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나, 2009년에 단행된 ‘화폐교환’ 조치로 인한 어려움과 죽음에 대해서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시장화가 일상화된 2000년대 들어 경험한 2009년의 화폐교환조치가 이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체제와

I

II

III

IV

V

VI

VII

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강렬하게 갖게 하는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생했던 사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1990년생들이 화폐교환 시기에 청소년기를 살았기 때문에 화폐교환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보다 강렬하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세대는 경험적 차원에서는 고난의 행군 세대로 서뿐만 아니라 시장화와 화폐교환조치를 경험한 세대로 의미화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화폐개혁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고 그런 게 되게 엄청 많았어요. 조금 살만 하니까 사람들을 막 못 먹게 해가지고 굶어죽고 막 두부 두 모에 집을 판다는 소리까지 날 정도로 사람들이 먹지 못해 막 죽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순진한 우리 집 사람들은 그냥 그렇거니 하고 있는 돈 아껴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르니까 먹을 것도 막 떨어지고, 막 저희보다도 시내 쪽에는 더 엄청나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그리고 제가 또 느낀 거는 화폐개혁 때 그렇고, 저희 집을 허물어버렸어요. 그게 엄청 싫었거든요. (사례 13 구술녹취록, 2013 I/4)

이와 같이 면접에 응한 구술자들의 기억과 구술에 근거한다면, 이들 세대의 배고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죽음과 같은 육체적 고통의 경험이나 기억은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화폐교환조치 등을 어느 나이에 경험했느냐에 따라 편차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육체적 경험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경험의 자각 나이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각 시기에 처했던 개별적인 집안의 경제적 상황도 이런 경험과 기억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험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들 세대를 식량난의 ‘비참’이나 ‘죽음’의 직접적 경험 세대로 단순하게 코드화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

다. 다양한 경험과 기억의 편차라는 측면에서 이들 세대를 배고픔, 질병, 죽음이라는 공통된 육체적 고통의 경험 세대로 특징화하고 단순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제한된 구술자의 경험에 의존한 조사의 한계도 있지만, 한편으로 거주했던 지역에 따라 육체적 경험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심각한 배고픔을 겪은 사람들이나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일반 주민들 사이의 생활 공간적 격리, 공개적으로 전시되는 죽음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은폐되어 처리되는 죽음이 많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험의 다양성과 편차들이 오히려 이들 세대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심성 및 의식세계, 행동양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경험과 기억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굴곡지고 격렬했던 사회적 변화의 시기를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경험의 역동성 자체가 다양한 실천으로 자신의 세대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보다 자신의 사회와 일상을 이념이나 관념적 차원이 아닌 보다 현실적이고 감각적으로 바라보고 인지하는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세대를 단순히 외부의 시선으로 ‘고난의 세대’라고 규정하기보다는 그들 경험세계의 측면에서 세대의 특징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나. 빈곤과 계층적 빈부 차이의 육체적 경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전후로 태어난 세대들은 빈곤을 일상적으로 보고 겪으며 자란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 세대들에도 빈곤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1990년대 전후로 태어난 세대는 유례가 없는 심각한 기아와 구조적인 경제침체, 장기화된 빈곤을 체험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 구조적이고 장기화된 경제침체와 빈곤을 일상적으로 겪으며 자란 세대의 공통된 경험 중 하나는 ‘꽃제비’이다. 꽃제비가 있는 거리는 이들 세대에겐 일상적 풍경에 해당한다. 자신들과 비슷한 나이에 거리에 방치된 꽃제비를 보고 자란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면담에 응한 대부분의 구술자에게 꽃제비는 태어나서부터 봐온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들에게 꽃제비는 비참함이나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계속 봐왔던 거고, 그냥 평범하게” 일상에 있는 풍경에 가깝다(사례 39).

면담에 응한 구술자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는 꽃제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다. 꽃제비는 분명 그들과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꽃제비들에 대한 연민보다는 그들을 자신들과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떤 면에서 꽃제비는 제도화된 정규교육으로부터의 이탈, 배제된 자들이고 정착할 장소를 잃은 사람들이란 점에서 정규교육 코스와 가족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런 공감대의 부족은 이들 꽃제비의 문제를 국가나 체제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불행 정도로 보려는 인식 기제가 작동한 결과라도 볼 수 있다. 또는 꽃제비들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비판의 결여나 현실 회피의 태도로도 볼 수 있다.

시장이랑 가면 꽃제비들이랑 막 옷도 못 입고 막 엄청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재네는 아빠 엄마가 없는데, 북한도 학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아빠 엄마 없는 애들, 학원에다 모다서 나라에서 밥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런 데서 주는데 왜 재네는 안 들어가고. 그런 애들한테 되게 그냥 되게 돈도 많이 쥐어주고 가서 뭐 사먹어라, 이렇게는 많이 한 거 같아요. (사례 18 구술녹취록, 2013 I/8)

그러나 이들 꽃제비들은 부모의 죽음이나 친척의 버림, 국가의 무관심을 통해 양산된 사람들이고 같은 세대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언젠든 일반 청소년들 역시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는 현실을 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 세대는 이런 빈곤의 긴장을 안고 사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 거리에 방치되거나 버려진 아이들은 커서 계속 거리를 배회하는 거친 생활이나 배를 지키는 샛별이와 같이 정규 노동으로부터도 지속적으로 소외된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sup>56</sup> 따라서 이전 세대와 다르게 이들 세대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된 또래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양산되는 현실을 경험하며 사는 세대라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꽃제비는 새로운 세대에게 투명인간처럼 인식되거나 자신과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이들 존재 자체가 이 체제가 갖는 모순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결코 새로운 세대의 인식 세계 밖에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세대가 경험하는 빈곤은 유년과 청소년기 학교생활에서도 그대로 투영돼 나타나고 있었다. 학창시절 같은 반 학생들의 생활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빈부 차가 일상적으로 경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에 응한 구술자들은 학급 내 빈부 차를 크게 상, 중, 하로 구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학생들 사이의 생활 형편을 근소한 차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큰 격차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상위와 하

I
II
III
IV
V
VI
VII

<sup>56</sup> 연구자: 그들은 자라서는 뭘 하나요? 계속 거리에 있나요?

구술자: 아니요. 계속 길거리는 아니고 이제 합숙생활을 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국가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를-. 우리는 진짜 바다 옆이라서 기본 쉬운 건 배밖에 없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 가서 샛별이를 하는 거죠. 자기 그물 살 돈은 없어도 나와서 얼마만큼 주면 받아먹고 살고 또 바다 나가고. (사례 39 구술녹취록, 2013 I/35)

위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었다. 하위에 속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출석을 잘 하지 않고 생활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학급 내에서 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물질적으로 영위하는 생활과 하위 계층 학생이 영위하는 생활의 차이는 생각보다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도시의 학교와 농촌의 학교 사이, 그리고 지역 내 학교들 사이에도 어느 정도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2000년대 후반 간부 자식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에 다녔던 어떤 구술자는 아예 ‘고난의 행군’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하위 계층의 생활과는 완전히 절연된 생활을 했었던 것처럼 구술하고 있다. 이 학생은 아버지가 청진에서 중개무역을 하는 무역회사를 했고 이후에는 ‘빙두’(마약)를 거래해서 큰돈을 벌었던 집의 학생으로 씩씩이도 크고 ‘노는 것’ 그 자체를 좋아하는 학생이었다. 이 친구는 아버지 덕택에 평양에도 몇 번씩 가보고, 원산의 국제송도원 등을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이 그 당시 생활의 즐거움이었다고 한다. 집도 60평 정도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대체로 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의 형편이 이 정도로 좋았다고 한다(사례 18).

1990년대 이후 시장활동의 활성화는 빈부의 차를 생각보다 급격하게 벌려 놓은 것으로 보인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한 학급 내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른 계층의 위계는 어느 정도 선명하게 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지역 내에서도 학교에 따라 계층적 위계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보통 고난의 행군이나 강행군, 그리고 이후 지속되는 경제 침체는 이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된 역사이자 경험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 경험의 차이는 매우 폭이 크고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 세대들이 학교라는 공간, 또래집단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빈부의 차이를 경험하

고 있는 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 세대들에 비해 물질적인 빈부의 계층차를 뚜렷하게 느끼고 자란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차이를 태어나서부터 당연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계층적 차이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다양한 비교를 통해 인식하긴 힘든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되게 어렵게 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은 이렇게 발 항상, 농사하러 다녔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학교 못 나오고. 학교에서 돈 같은 거 거두는 때 있거든요. 그런 걸 못 내서 못 나오고 이런 걸,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친구들도 있구나.’ 라는 걸 느꼈던 거 같아요.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7)

이런 학급 내 빈부의 차이는 출석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체적으로 학교 출석률이 이전 세대들과 비교했을 때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빈곤은 학생들의 잦은 결석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이런 결석률은 빈부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집안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수록 결석률이 높았다. 지역적·시기적 차이가 다소 있겠으나 면담에 응한 1990년대생의 중학교 시기 학급 출석률은 대략 60~80% 정도로 파악된다. 학급 내 장기 결석자들의 대부분은 집안의 농사일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해야만 하는 학생들이다. 출석률과 빈부 계층화 사이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성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성별의 측면에서 남자들의 결석이 많은 것으로 면접에 응한 구술자들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학급 내 경제적 형편에 따른 계층을 분류하면, 대체로 한 학급 30명 기준으로 집이 힘 있고 잘사는 학생은 5~10명, 중간에 해당하는 계층은 10~15명, 장기 결석자는 2~7명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들 계층에 따라 결석의 사유도 크게 차이

I
II
III
IV
V
VI
VII

가 났다. 중간층에 속했다는 한 무산군 출신 구술자의 경우, 보통 “늦잠 자거나 그리고 딱히 가기 싫은 날이 있거나 그럴 때 그냥 한두 번씩 안 나간 적”이 있는 반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엄마 도와서 밭에 가거나 장사 같이 하거나”하는 이유로 결석을 했다고 한다(사례 40). 또한 더 큰 이유 중 하나는 학교에서 내라는 과제(꼬마계획)나 세외부담을 내지 못해서 결석하는 경우이다.

구술자: 안 나온 친구들 되게 많았습니다. 한 개 학급이 40명이 라면 막 25명밖에 안 나왔어요.

연구자: 나머지 친구들은.

구술자: 그중에는-- 뭐 다 구실이 있다고 하는데, 다 한 마디로 집 사정이에요. 집 사정이고, 어떤 애들은 막 학교 나가면 축에 속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냥 자기 혼자 노는 게 또, 저도 그럴 때도 있었어요. 집이 막 바쁘고 그럴 때는 막 옷도 제대로 못 빨아 입고 그냥 주제가 말이 아니고 이러니까, 학교 나가면 막 부끄럽고 이러니까 학교 안 나갈 때도 있고 그랬고. 학교에서 내라는 거 못 내니까 못 나가는 것도 있고, 또 공부도 하기 싫어서 못 나가는 것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정말 학교 안 나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사례 29 구술녹취록, 2013 I/16)

평안남도 순천시에서 2000년대 중후반 중학교를 다닌 구술자의 경우 학급의 정원이 35명인데, 출석하는 학생들은 평균 20명 정도였다고 한다.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선생님이 학급 친구들을 보내 데리고 오면 선생님과 싸움을 하고 나가기도 했다고 한다. 심지어 이들 중 “웬간한 아이들은 다 칼 차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서우니까 선생들도 막 싸움하다가도 학생들한테 수그러들 때가 더 많았다.”고 한다(사례 30). 이들은 학교의 학습 분위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일반 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능력 수준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sup>57</sup> 학습능력은 일반 중학교 중에서도 농촌과 도시에서 일정한 차이가 나고, 일반 중학교와 제1중학교 사이에서 더욱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학교로부터 나가지 않거나 배제된 청소년들은 이후 소위 ‘노는 형들’, ‘목적 없이 사는 형들’로 살아간다. 같은 동네나 지역에서 이런 청소년들이 패를 지어 카드놀이, 주패놀이 등을 하며 지내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기도 한다.

그 형들도 이제 집이 어려워서 학교를 제대로 안 나가고 학교를 졸업 못하고 그런데 또 일도 안 하고 일 나가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무직. 무직을 오래 걸리면 교도소, 단련대를 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안 가고 지금 피해 다니면서 놀고 있고 그런 형들이었던 거 같아요. (사례 39 구술녹취록, 2013 I/21)

이들은 동네에서도 낙인이 찍힌 청년들로 학교나 직장이 아닌 무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일을 한다고 해도 정규 직장의 노동이 아니라 농사짓는 일을 돕거나 배를 타거나 장사를 돕는 등 소위 ‘삿별이’ 노동을 통해 살아간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버는 이유가 앞으로의 밑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이 뚜렷하지 못하고 그냥 그 순간순간을 그냥 아무 목적이 없이 그냥 살고, 막 사는” 것이다(사례 39). 이들의 부모들은 동네에서 자식 교양을 못한 부모들로 욕을 먹기도 한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로부터 배제를 당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로부터 배제 또는 소외를 당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57. “공부하는 게 없어요. 중학교 6학년이라는 게 계산, 나누기 곱하기도 못하는 게 많아요. 돌아다니면 아이들 께, 주먹 센 아이들은 돈 없어도 아이들 께 뺏 들고 그러는 게 많아요. 혁피도 뺏 들고, 옷티도 벗기고. 또 형이 달라 그러면 쥐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응당.”(사례 30 구술녹취록, 2013 I/18)

I
II
III
IV
V
VI
VII

흠치는 그런 것도 있어서 특별하게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다 같이 살다보면 누가 손버릇이 나쁘고 누가 좋고 이거 다 알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도적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 사람들부터 먼저 보는 그런 게 많거든요, 북한은. 그래서 그런 형들 하고 그냥 같이 다니기만 해도 옆에 사람들이 그냥 보는 눈길이. 제가 집을 나와서 온 목적도 그런 형들하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 벌써 사람 보는 눈길이 다 틀려지고. (...) 주패, 카드를 놓고 그리고 그냥 그때는 밤에는 같이 재미로 밤에는 과일 도적질도 많이 가고 그렇게 다녔던 거 같아요. 그때, 여전하긴 한데 북한에서 동을 많이 했잖아요. 옛날 북한의 개인집들은 안테나를 동으로 많이 했어요. 밤에는 남의 집 안테나를 도둑질하기도 하고. (사례 39 구술녹취록, 2013 I/22-23)

## 다. ‘청년되기’의 통과의례와 육체적 경험

청소년이란 주체의 호명은 국가가 설정한 다양한 통과의례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종의 ‘청년되기’의 통과의례들이다. 북한은 중학교 시기에 다양한 조직활동, 농촌지원활동, 답사활동, 군사활동 등 육체적 활동을 통한 청년으로서의 통과의례를 거치도록 해 놓았다. 구체적으로 소년단에서 청년동맹으로 조직 울타리의 변화를 통해, 농촌지원이라는 육체적 노동을 통해, 답사라는 의례를 통해, 그리고 청년근위대라는 군사훈련 등을 통해서이다. 국가는 이런 통과의례를 통해 국가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한편 ‘청년’이라는 공적인 인증을 부여한다. 이런 국가가 설정해 놓은 통과의례는 청소년 개인들에게도 어른이 되었다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우선 청년이 되는 것은 그들에게 ‘넥타이를 벗는 날’이다. 소년단에 속해 있을 때는 넥타이에 소년단 휘장을 달지만, 14세가 되어 청년동맹에 가입하게 되면 넥타이를 벗고 초상화를 달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년단에서 청년동맹으로 소속 조직을 바꾸는 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청년’이라는 인증을 부여하는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다.

넥타이를 벗으면 아, 나도 좀 그렇구나라는 걸 느껴요. 넥타이-- 일단 딱 오빠 언니들도 딱 보면 멋있는 게 넥타이를 안 매고 다니면 되게 어른스러워 보이고 멋있었거든요. 넥타이를 매면 아직 애 같고. 그런데 넥타이를 나도 벗으면--, 그리고 넥타이를 벗고 그 김일성 그런 초상화를 달고 다녀요. 그러면 나도 어른이란 생각이--.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39)

그러나 청년동맹 가입 이후에 있는 통과의례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눈길행군,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 평양견학, 백두산답사, 청년근위대 훈련 등 각종 활동이 경제적인 능력이나 부모의 지위에 따라 참여 여부가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있는 소수의 학생들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가령 평양견학의 경우 2011년에 약 30만 원 정도가 들었고 이 정도의 액수는 일반 북한 주민 4인 가족의 3~4개월 생활비에 맞먹는 액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부모의 사회적 성분이나 지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학생들은 가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일정 부분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보다 큰 격차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의 통과의례 참여는 집안 형편이 좋고 넉넉하며 지위가 있는 집안의 학생들에게 한정된다는 점이다. 사실상 모든 학생들을 위한 통과의례에서 계급적으로 부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통과의례로 변화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답사는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 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집이 좀 살아야 가는 거거든요. 그거 갖다 올려면은 진짜 경비 많이 들거든요, 여비가. 그건 좀 사는 애들이 추천받아서 가

I
II
III
IV
V
VI
VII

는 거고. 그리고 저희 필수로 거쳐 가는 게 뭐 청년근위대라고. 뭐 군사훈련 받는 거. 그거 한 번 받아요. (사례 21 구술녹취록, 2013 I/28)

답사활동도 또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답사라고 해가지고, 천리길이라고 해가지고, 배움의 천리길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가는 거 있는데, 그것도 뭐 평양까지 가야되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학교에서도 저래 의무적으로 안 가고, 갈 수 있는 애들은 말하라 해가지고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사례 29 구술녹취록, 2013 I/34)

그거((평양견학))는 진짜 가끔 모범학생들한테 내려오는 건데 그것도 다 돈 있고 백 있는 것만 보내지 안 보내요. 가보고 싶죠. 진짜 가보고 싶은데, 밥 제대로 먹고 학교생활하기도 힘든데 거기 한 번 갔다 오는 것도 돈이. (사례 39 구술녹취록, 2013 I/26)

따라서 경제적 능력으로 참여하기 힘든 공식적인 통과의례들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나 군사훈련에서 그들만의 또래관계와 문화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공식적인 농촌지원이나 군사훈련 활동을 그들의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함께하는 육체적 활동을 활용하여 그들 또래의 관계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들만의 비공식적인 통과의례로 볼 수 있으며, 공식적 통과의례를 재-전유(re-appropriation)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농촌지원 활동과 청년근위대 군사훈련이 있다.

우선 농촌지원 활동은 모든 학생들에게 일상적인 활동이고 농사 시기별로 부과되는 노동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지원 활동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 계절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 학생들이나 도시의 노동자 및 사무원들을 동원하는 체계이다. 봄의 모내기철, 여름의 김매기철, 가을의 추수철, 겨울에 퇴비생산이나 화목 등 최소한 1개월씩 일 년에 3개월 가량 농촌지원에 나가게 된다. 학생들에게 농촌

지원 활동은 고된 노동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학생들에게 약 한 달씩 집을 떠나 농촌에서 또래 친구들과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의 즐거움이기도 하다. 고된 농장 일이 끝나면 친구들과 “춤도 추고 놀기도 하면 그게 재밌”고 “중학교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다(사례 29). 또 부모들이 용돈도 챙겨주고 간식도 먹을 수 있고 그들만의 자유가 주어지는 시간이다. 농촌동원은 그들끼리의 또래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시간인 것이다. 한편으로 틀에 맞추어진 생활총화나 학교 일상으로부터의 벗어나는 해방감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래 부모들에게 받은 용돈을 모아 친구들과 담배를 태우기도 하고 숨겨둔 이사들을 술로 바꿔 마시기도 하는 등 그들만의 비공식적인 의례를 행하기도 한다.

5학년 때가 열여덟 살 쯤 된 거 같아요. 농촌동원 가서 담배를 배웠어요. 네, 농촌동원 가서는 뭐 김매고 할 일이 없으니까. 선생이-- 농촌동원 가면 생활총화가 없어요, 일단. 생활총화가 없어요. 그때는 뭐 하루 작업총화만 하고 끝내니까. 저녁이 되면 조금 그런 애들도 있죠. 중학교 6학년 되면 여자애들 친하고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농촌동원 가면 되게 산이고 공기 좋고 하니까, 나가서 막 그때 막 부모들하고 돈 달래가지고 담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담배를 많이 배우는 거 같아요. 그리고 농촌동원 가서 김 매주고 옥수수랑 이삭채로 숨겨가지고 와서 술 바꿔 먹고.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재밌어가지고 그때는 멋모르고 처음에 배우다가 담배를 또 입에 붙이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못 펴 정도, 밥만 먹고 나면 막 누가 볼새라 나가서 막 피우고 그랬어요. (사례 29 구술녹취록, 2013 I/27-28)

한편 2000년대 들어서는 이런 농촌지원 활동도 돈을 내고 안 나가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생겼다. 좀 잘사는 집 학생들 중에는 “가서 좀 뭐 그런 것도 고생해봐야 된다는 걸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사례

I
II
III
IV
V
VI
VII

29) 일이 힘들어 돈을 내고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또래 문화에서 안 좋게 보고 일정 기간 소외되기도 한다. 이런 소외는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공동의 노동에서 ‘돈’으로 의도적으로 빠진 것에 대한 응징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 끝나고 학교에 다시 개학하면 좀 이렇게 안 좋게 그렇게 봐요. 저희는 힘들게 일 했는데 돈 내고 안 나왔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며칠은 막 서먹서먹하고 그래요, 관계가.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16)

담당교사도 이렇게 돈이 있는 친구를 한두 번 빼주는 ‘조절’을 해주지만 다른 학생들의 눈이 있어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사례 40). 농촌지원 활동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학생들을 동원하는 하나의 제도이고 고된 노동과 육체활동을 요구하지만, 학생들은 나름대로 이것을 학교의 규율을 잠시 벗어나는 해방의 공간, 또래의 문화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전유해 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런 농촌지원 활동은 또래문화에서는 함께 땀 흘리고 즐겼다는 그들만의 체험적 ‘공감’이 형성되는 장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돈으로 이것을 회피하는 경우 또래의 관계적 응징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농촌지원 활동은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학생들이 행할 수 있는 그들만의 문화적 규율이기도 하다.

## 라. 유행과 저항의 장소로서 새 세대의 육체

최근 북한에서 많은 여성들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성들도 쌍꺼풀 수술을 간혹 하는 경우가 있는데, 쌍꺼풀 수술을 성형이라고 여기지 않을 정도로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치아교정,

문신, 코수술 등과 같이 외모를 교정하는 일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여학생들 중에는 쌍꺼풀 수술을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을 하기 전에 해야 할 통과 의례 중 하나로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되기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는 것이 여성의 외모이다. 북한의 새로운 세대의 경우에도 학생이 아닌 ‘성인으로서 여성’이 되는 과정을 쌍꺼풀 수술이라는 의례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북한과 같은 과도하게 남성중심화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수동적인 주체들이지만, 이런 질서에 적응해 나가는 측면에서는 능동적인 모습을 갖기도 한다.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의 외모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성형수술을 통해 자신의 몸을 남성중심적 사회가 요구하는 외모로 변형함으로써 여성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자원들을 획득하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자원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여성의 외모가 배우자 선택이나 직업에서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것을 학습해왔기 때문이다.

쌍꺼풀을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입술 짝고, 무슨 눈 요 아래 아이라인 짝고, 눈썹 짝고, 되게 많이 해요. 그거 거진 다, 진짜 북한여자치고는 안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이 어린 애들 이만 안하지 별로 다 했어요. (사례 18 구술녹취록, 2013 I/10)

구술자: 야, 우리 친구 남자인데 또 쌍꺼풀 해가지고, 저희 또 굉장히 놀렸어요.

연구자: 남자도 했었어요?

구술자: 네, 우리 친구. 국방대학 갔는데 그 놈이 쌍꺼풀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제가 굉장히 놀리고 했는데.

연구자: 그 친구는 왜 쌍꺼풀 한 거예요?

구술자: 부모들이 시킨 거예요. 왜 시켰는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도, 여자들 쌍꺼풀 하는 건 보편적이고, 남자들도 하더라고요.

I

II

III

IV

V

VI

VII

연구자: 그 당시 90년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구술자: 네. (사례 21 구술녹취록, 2013 I/34-35)

사실 쌍꺼풀 수술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비용의 문제 등으로 보편화되거나 대중화되지 않았었다. 과거에는 귀족자나 소수 ‘깡’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 면접에 응한 한 구술자의 경우 2004년까지는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만 했는데 2008년부터 대중화가 되었다고 얘기한다. 정확하게 수술비용의 저렴화와 대중화의 시기를 따지기는 힘들지만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된 것과의 연관성을 일단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쌍꺼풀 수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용도 저렴해졌고, 쌍꺼풀 수술을 할 수 있는 곳도 많아졌다. 면접에 응한 한 구술자에 따르면, 특히 화폐교환조치 이후 쌍꺼풀 수술을 해주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었다고 한다. 시장활동의 제약이 심해지고 장사가 불안정한 탓이기도 하다. 그래서 장사 대신 기계를 사들여 와 수술을 하는 것으로 돈을 번다는 것이다.

화폐교환을 딱 하고나서도 되게 많이 생겼어요. 개인들이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좀 비싼 거 같아요. 그때는 한 얼마 했지? 그런데 그때랑 비쌌는데, 화폐교환 하고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장사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계도 좀 사 들여와서 배워서 막 하고 이러는 거 같아요. (사례 18 구술녹취록, 2013 I/11-12)

둘째,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생존에 있어 여성의 외모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원화된 측면을 들 수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나 불황시에 개인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드러내는 자기계발이나 자원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질서에서는 육체나 외모보다는 당성·

혁명성 등 사상성 태도나 출신성분 및 사회적 성분이 보다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받아들여졌다면, 1990년대 이후로는 이런 자원들이 많은 부분 현실적인 설득력을 갖지 못한 부분이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것은 이런 자원의 획득 자체가 철저하게 제한돼 있고 폐쇄적이기 때문인 것도 있고, 돈의 가치가 보다 중요해지고 돈을 통해 다양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형수술은 시간과 금전을 투자해서 재구성할 수 있는, 자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여성들은 ‘여성다움’과 관련한 사회적 언설을 기반으로 성형수술을 통해 여성의 몸을 새롭게 재편하면서 여성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대중화의 원인으로는 우선 1990년대 이후 시장의 동선을 따라 외부 사조의 유입이 본격화된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외국의 드라마나 영화 등 매체를 통한 외부 세계의 접촉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아, 되게 그,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그냥 좀-- 그냥 아 이쁘다 이러면 무조건 쌍꺼풀 있는 사람이예요. 그런데 되게 옛날((1990년대))에도 쌍꺼풀 있는 사람을 아 이쁘다 이렇게 해줬는데, 좀 외국영화랑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또 외국영화 같은 영화랑 보면 거진 다 여자들 쌍꺼풀 있고, 쌍꺼풀 없는 여자들 별로 없는 거예요. (사례 18 구술녹취록, 2013 I/12)

많은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외국영화 등을 보면서 외모에 대한 감각적 평가를 하는 흐름이 존재하고, 또한 이런 추세 속에서 자신의 외모를 꾸밈으로써 자신의 젠더적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성형수술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면접에 응한 구술자들은 최근 북한 청소년들에게 있어 주요 관심 중 하나가 이성관계나 연애라고 하는데, 이

I
II
III
IV
V
VI
VII

들에게 외모 가꾸기는 한편으로 관계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 내부문건을 통해서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본주의 문화 행태로서 외모와 유행과 관련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이들 문건을 통해 국가가 요즘 세대의 육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들 문건 속에는 요즘 청소년들과 여성들에게서 나타난 자본주의적 문화 행태에 대한 우려와 심각성에 대한 언급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외부문화 유입에서 세대나 성별에 따른 차이와 당국의 젠더화된 시각 역시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 또한 이런 문화적 행태에 대해 간부들이나 일군들이 경각심보다는 무관심이나 당연한 것으로 묵인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있어, 이런 행태들이 매우 일상화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년들과의 사업에 보다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지금 일부 청년들 속에서는 머리도 자본주의나라 청년들과 같이 더부룩하게 하거나 옆으로 바짝 올려 깎고 있으며 끼리끼리 밀려다니며 남조선과 다른 나라 출판물과 록화테이프, 록음카세트, 다매체편집물들을 보고 듣거나 내들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여성들은 눈수술을 하여 쌍꺼풀을 만들고 눈썹과 입술에 입묵까지 하고 있으며 지어 어떤 여성들은 허벅다리가 다 들여다보일 정도로 길게 찌진 치마를 입고 다니고 있다.<sup>58</sup>

사실 적지 않은 일군들은 주위에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전혀 문제시하지 않았으며 보고도 못 본채 아닌 보살 했다. 그런가 하면 검열통제기관의 일부 일군들은 그대로 원칙을 쫓버리고 의례히 법적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할 문제까지도 별일이 아닌 것처럼 스쳐 보내거나 눈 감아 주었다.<sup>59</sup>

---

<sup>58</sup>. <세포비서>편집위원회, 『(당안에 한함) 세포비서』, 제10호(루계 제294호) (2002), p. 27.

이들 문건에서 나타나듯이 2000년대 들어와 북한에서 자본주의풍의 외모나 복식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단순히 유행의 차원 이상의 의식과 자아의 변화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복식, 외모, 화장, 성형수술 등 육체의 아름다움을 기호화하는 젠더로서의 ‘육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남성적 또는 여성적으로 멋있고 아름다운 몸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물질화된 기호로서의 육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으로 자아의 정체감을 재확인하는 장소로서의 ‘육체’가 북한에서 새롭게 재발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세대들은 남성적 또는 여성적으로 아름다운 몸의 이미지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태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육체가 국가에 대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 노동하는 육체로서 표상되는 측면이 강했다면, 지금은 보다 현실적인 사회적 자원이거나 자아의 만족감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장소의 의미가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드라마나 외부로부터 들어온 영상매체를 통해 육체와 동작의 ‘세련됨’이라는 감성을 갖게 된 측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세련됨’은 어떤 목적이나 기능의 측면에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세련된 외모, 사물, 제스처, 동작, 문화행태 등에 대해 갖는 호감과 모방의 태도에 해당한다. 이런 ‘세련됨’에 대한 감성은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이들 세대만의 특성으로 주목해볼 부분이다. 이런 세련됨에 대한 감성은 기존의 이데올로기나 당성·혁명성 등과 같은 정치적이고 관념적인 것과는 구별되는 감각적인 차원의 감

I
II
III
IV
V
VI
VII

59. “(당안에 한함) 간부학습제강 - 자본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릴데 대하여,” 주체9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2), p. 15.

수성에 해당한다. 또한 이런 세련됨은 하나의 육체적 양식으로서 스타일(‘풍’)에 대한 감각적 인지가 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아름다움이 사상적인 숭고미를 의미하는 매우 추상적이고 경직된 것이었다면 이들 세대가 세련되고 아름답게 보는 것은 새로운 것, 물질적인 것, 감각적인 것, 문화적인 것이다. 가령 어떤 머리 스타일이 갖는 시각적 아름다움에 대해 특별한 이데올로기적 잣대나 평가를 하지 않고 그 자체로 시각적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들 수 있다. 또는 ‘남조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촌스럽거나 어색한 것이고 ‘한국’이라고 하면 세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스타일’은 외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문물 또는 한국적인 것 등과 같은 ‘북한적’이지 않은 어떤 문화적 양식을 지칭한다.

구술자: 그리고 저희 친구... 남조선이라고 저희는 안 불러요. 꼭 한국이라고 불러요.

연구자: 한국이라고 불러요?

구술자: 남조선이라고 하면 어색하게 좀, “어색하게 뭐 남조선이야.” 그랬어요.

연구자: 어, 그래요? 그게 왜 어색한 건가요, 좀?

구술자: 아니, 남조선이라면 책에서나 나오는, 우리 회의나 이런 데서 나오는 딱딱한 소리로 이해했지, 우리 친구들끼리 모이면 사람들이 한국.

연구자: 한국이라고 그러는구나.

구술자: 네.

연구자: 그런데 요즘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남조선이란 말 안 써요?

구술자: 안 써요. 네, 남조선이란 말 다 한국이라고 그래요. 한국.

연구자: 그게 약간 이제 요즘 문화를 모르는 촌스러운 걸로 생각 되는 건가요?

구술자: 네, 그렇죠. 촌스러운 애들. 남조선이라고 하는 게 촌스러운.

연구자: 그런데 부모님 세대는 아직도 남조선이란 말을?

구술자: 네, 부모님 세대는 남조선이라고 하죠. (사례 21 구술녹취록, 2013 I/26-27)

구술자: 거기 뭐 할 일 없으면 거기 상점에 보편은 점원들, 이쁜 애들 아가씨들도 있고 왜. 그거 뭐 우리 총각들도 거기 몇 명 있으니까, 심심하면 가서 아가씨들하고 막 말하고, 농담하고 하면, 막 농담하는데 처녀들이 딱 있다가 이렇게 멋진 남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로 말하면 ‘스타일’이라는 말은 안 쓰고 북한에서는 ‘한국드라마’라고 그래요.

연구자: 스타일하고 비슷한 말을 뭐라고?

구술자: 좀 그냥 촌스럽긴 한데, 애들이 이 여자애들이 멋있는 남자 뭐 이런 걸 보면, 또 남자애들이 멋있는 여자애들 보면 “아, 한국드라마다.” 이래요.

연구자: “한국드라마다.” 이렇게 얘길해요?

구술자: 네, 멋있는 남자애들 지나가면 “아, 애네들 한국드라마다.” 막 나가서 구경하고 보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기분 나빴을 때가 있었죠. (사례 21 구술녹취록, 2013 I/32-33)

한편으로 세련됨은 경제적 소비 능력이나 그것을 과감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과 든든한 집안의 위세를 과시하는 징표이기도 하다. 과거 세대들이 소박함을 의복과 외모의 미덕으로 삼고 사상적 충실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의복은 자신의 계층적·계급적 위상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수단이기도 한 것이다.

구술자: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이렇게 머리를 풍치지 않고 탁 좀 자유롭게 뭐 풀어놓는다든가 좀 흉내 내고. 일단 그 청바지 입고 다니는. 청바지 입는 여자면 웬만한 좀 담력이 필요한데. 청바지 입고 다니는 애들 보면 멋있죠.

연구자: 청바지 입는 게 담력이 필요하다는 거는 뭐 어떤?

구술자: 단속이 심하니까. 아니 뭐 청바지 굵이 아니라도 바지가 좀 타이트하게 입는 것도 단속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중

I

II

III

IV

V

VI

VII

에 청바지까지 입고 다닌다는 거는 아주 집안이 권세가  
있단다가, 아 그런 징표죠, 그게. (사례 21 구술녹취록,  
2013 I/37)

이런 감각적인 유행을 쫓거나 외모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기존 북한 체제가 강제하던 젠더 질서의 규범화 방식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적 문화 수용을 통해 그들만의 방식으로 젠더 질서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존 체제의 젠더화 방식 - 남성은 어떠해야 하고 여성은 어떠해 한다는 규범적 담론들과 제도들 - 의 거부라기보다는 자신들만의 문화를 통해 그것을 재전유하는 방식이란 점에서 ‘전복적 수행’이고, 한편으로 국가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들만의 언어와 육체,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젠더화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전복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이들이 다양한 사물들과 외모 가꾸기를 통해 남성성과 여성성을 과시하는 것은 자신들의 육체를 통해 다양한 복수의 자아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sup>60</sup>

연구자: 화장은 몇 살부터 했어요?

구술자: 화장은 학교 졸업해서. 학교 열여덟 살에 졸업해서 한 스무 살부터 화장...

연구자: 학교 다닐 땐 안 하고?

구술자: 10대 때는 안 하고 한 스무 살부터 화장해요.

연구자: 친구들이랑 학교 다닐 때도 놀 때는 화장 안 했어요?

구술자: 화장하는 게 그냥 약간 바르는 거. 비비 같은 거 바르고 다니고. 네.

연구자: 그럼 졸업하고서 뭘 더 발라요?

구술자: 졸업해서 잘 안 하다가 스무 살 때부터 해요. 그러니까 틀리거든요, 애들마다. 졸업하자마자 하고 다니는 애들

---

<sup>60</sup> 린다 맥도웰 지음,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0), p. 102.

도 있고, 저는 스무 살부터 했거든요. 하면 파우더 더 바르고, 더 하얗게 하고 막 립스틱도 바르고, 뭐 눈 아이 마스크라도 하고.

연구자: 구두를 그렇게 높은 거 신는 거는 걸음걸이를 예쁘게 하려고 신었던 거예요?

구술자: 네, 걸음걸이도 예쁘고 키도 커 보이고. (...)

연구자: 몸은 어느 정도가 돼야 약간 좀 날씬하다고 생각했어요?

구술자: 그냥 엉덩이 안 크면.

연구자: 엉덩이 안 크면? 엉덩이가 어떻게

구술자: 옆으로, 뒤로 다.

연구자: 왜? 엉덩이가 중요했어요?

구술자: 그냥 살찐 사람들 보면 엉덩이가 크잖아요. 그 남자들이랑 애들이 말하는 거 보면. 이렇게 남자들 모여 앉으면 여자 말 하는데, 여자가 지나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엉덩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 보는 게 가슴이래요.

연구자: 그럼 엉덩이는 크지 않아야 된다고?

구술자: 너무 커서, 엉덩이 크면 엄청 막 엉덩이 너무 크다고 훔보거든요, 막.

연구자: 남학생들이. (사례 16 구술녹취록, 2013 I/56-58)

## 마. 계급적 표상으로서 세대의 육체

새로운 세대들은 육체나 외모, 의복을 통해 상대의 계급을 간파해 내는 데 익숙하다. 계급의 간파는 타인이 속한 계층적·계급적 위치를 외양을 통해 간파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만큼 육체나 외모, 의복, 사물 등을 통해 자신의 계층적·계급적 위치를 표현하는 것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새로운 세대들이 육체를 통해 전시되는 계층적·계급적 기호에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돈이 있고 힘 있는 집안의 청소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육체를 통해 물질적 능력을 표현한다. 옷과 장신구, 가방, 성형, MP3,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통해 자신의 소비능력, 문화적 기호, 계층·계급의 위치를 표

I

II

III

IV

V

VI

VII

현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세대의 특징은 적극적으로 소비를 통해 자신의 문화적 기호와 계급적 위치를 표현한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과거 세대들이 배급 중심의 국가 의존적인 경제생활과 노동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새로운 세대는 시장과 소비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자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것은 한편으로 소비를 통해 자신의 육체를 계급적 기호로 표현하는 데 익숙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고급 브랜드의 옷을 입은 몸과 그렇지 못한 몸의 차이는 그 브랜드가 지닌 가치를 통해 계급적 기호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새로운 세대들은 ‘가공’과 ‘기성’의 차이를 통해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한다. 기성은 일반 학생들이 입는 국내에서 만든 똑같은 치수의 옷들이라면, 가공은 원단 자체나 옷이 중국이나 외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치수를 몸에 맞게 재서 만든 옷을 말한다. 옷은 미의 판단 기준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경제력을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한 것이다.

남자들도 여자 볼 때 그러고, 여자들도 남자 볼 때, 아 쟈 줌, 북한에서 가공이랑 기성이라 그러거든요. “아 쟈 기성 옷 입은 애 꽤 집이 잘 살겠다.” (사례 18 구술녹취록, 2013 I/22)

막 이렇게 쩡바지 막 입고, 북한은 쩡바지라는 게 여기보다 좀 더 중국에서 생산하니까 화려하게 생산한 거 같아요. 더 막, 여기 주머니 같은 데도 쩡이 딱 박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 막 이렇게 보석으로 나비도 새기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입으면 “아, 쟈 돈 있는 애.”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오토바이도 막 타고 다니거든요, 오빠들이. 모자랑 쓰는 거 보면 기성이랑 가공모자가 있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기성모자랑 딱 쓰고 다니고 그러면 되게 돈 있다 막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쟈 돈 있네.” 이렇게 하고 그런 거 같아요. (사례 18 구술녹취록, 2013 I/22-23)

이처럼 옷을 보고 다른 사람의 집안과 경제력을 판단하는 데 민감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상대의 계층·계급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시선들이 발달하고 민감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인 것을 육체로 표현하고 기호화하는 것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계급적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익숙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간파 능력은 일상적으로 똑같이 입고 다니는 교복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학생들의 경우 교복 이외의 옷을 통해 자신을 드러낼 시간이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교복이나 신고 다니는 운동화 등을 통해서도 계층적·계급적 수준이 확연하게 구분이 가능하다고 한다. 가령 교복의 경우 보통 치수를 재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사는 학생들의 경우 그냥 입고 다니지만 잘 사는 학생들은 교복이 아닌 비슷한 검정 색깔의 옷을 몸에 맞춰 입고 다니는 식이다. 교복의 색깔과 원단을 통해 차이를 발견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운동화 역시도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의 차이를 통해 간파된다.

네, 보여요. 그냥 학교에서 주는 교복은 되게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볼품이 되게 없어요. 그냥 매 사람마다 그렇게 치수를 재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쪽 내려오면 비슷한 거 그냥 입잖아요. 그런데 못사는 애들은 그걸 그냥 입고 다녀요. 그런데 잘 사는 애들은 그 교복이 딱 아니래도 입어도 괜찮거든요. 그냥 색깔만 비슷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아닌 다른 검정 걸로 이렇게 맞춰서 딱 입고 다니고. 그 딱 그거만 입고 다니라는 그런 건 없어--. 비슷하면 되니까. 그리고 교복 색깔에서부터도 다 아예 그런 게 차이 나는 거 같아요. 잘 살고 못살고--.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40)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입는 거 있잖아요. 옷 입는 거. 그것도 있고 그냥 보통 애들 보면, 옷 입는 거 보면 다 알려요. 잘 사는 애들은 좀 멋있는 거 입고, 못사는 애들은 진짜 딱 신발도 찢어 진 거 막 신고 다니고. (사례 36 구술녹취록, 2013 I/41)

I
II
III
IV
V
VI
VII

저희 같은 거는 국내에서 생산한, 못사는 애들은 국내에서 생산한 운동화 이런 거 신었는데, 개네들은 벌써 외국에서 나온 거, 일본 아니면 중국산 이런 거 입고 다니고. 그리고 개네들은 이 교복도 학교에서 내주는 게 아니고 다 자기네들 좋은 천을 사 갖고 만들어서 입고. 도시락 싸온 것도 보면은 진짜 잘 싸오고. (사례 21 구술녹취록, 2013 I/30)

한편 이런 계층적·계급적 차이가 육체에 작용되는 사물을 통해 간파되기도 하지만 신체 그 자체로도 간파된다. 체격이나 얼굴 피부 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 집안의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과 신체 자체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면접에 응한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이런 차이가 존재하고 이것을 보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 이런 계층화·계급화된 신체적 차이는 경제적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계급적 좌절로 나타나기도 한다.

연구자: 딱 그걸 보면은 재네들이 잘 사는 집 애인 게 확실히 표가 나는군요.

구술자: 그리고 또 제일 큰 특징이 잘 사는 집 애들 체격이 남달리 우람, 컸어요, 애들이. 저희랑 대비하면 되게 컸죠. (사례 21 구술녹취록, 2013 I/30)

잘 사는 애들은 벌써 얼굴이 기름지고 얼굴이 하얘요. 못사는 애들 좀 얼굴이 까맣고 좀 까칠해 보이고 잘 사는 애들은 일단 집에서 잘 먹고, 자기 가지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못사는 애들은 하고 싶어도 참고, 실제로 가매에 들어갈 게 없는데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하고 싶은 거 많았는데. 꿈도 많았고 그랬는데, 생활이 경제적으로 따라 못가가지고. 가끔씩 학교 가면 평양 함흥 이런 데서 뽑으러 와요. 뭐 배우선발 그리고 무슨 5과라든가 뭐 이런 데--. 그런데 제가 배우로 될 수 있는데, 그게 배우로 나가자면 한 번 촬영하면 그게 개인부담이 다 된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엄청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엄마도-- 그래가지고 나는 엄청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돈을 못 대줘가지고. 뽕힐 데는 많이 뽕혔어요. 예술학원도 뽕히고 도에 있는 예술학원도 뽕혔는데, 돈이 엄청-. 거기는 달러만 쓰고 애들이. 그리고 집에서부터 거기 학원까지 가는 거 아빠랑 자가용 태워서 보내고 그래서. 진짜 어중간하면 엄마가 아빠 엄마가 보내겠는데 너무 생활이 그래가지고. 진짜 당장 가매에 들어갈 게 없어가지구. 그래가지고 못 갔어요. (사례 19 구술녹취록, 2013 I/6-7)

한편으로 계급적 기호로서 건강한 몸에 대한 인식 역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면접에 응한 구술자들은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어떤 몸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되느냐라는 질문에 대체로 살이 있고 통통한 몸을 선호했다. 살이 찐 통통한 몸은 잘 먹고 그만큼 윤택한 집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 나이든 남자가 뚱뚱한 것은 ‘간부체격’으로 권세와 지위를 보여주는 멋진 몸으로 여겨진다. 상대적으로 날씬한 몸이나 호리호리한 몸(‘비달비달한 몸’)은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이것은 요즘 세대만의 성향이 아니라 이들보다 나이든 이전 세대들에서도 동일하다. 이런 경향은 몸의 가늘고 뚱뚱함이라는 체격과 체중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는 기호라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호로 여겨진다.

아, 북한은 살빼기라는 게 없어요. 통통한 여자 좋아하는데, 날씬한 여자를 되게 싫어해요. 너무 마른 여자를 안 좋아해요. 여기로 말하면 여기 여자들은 뭐 엄청 말랐잖아요. 뚱뚱하면 별로 왜 뚱뚱하지 막 이렇지만, 그런데 북한은 날씬-- 그거 완전 반대예요. “아 재는 통통하고 이쁘다.” 이렇게 하지, “아, 재는 왜 빼쩍 말랐지.” 싫어해요. 그냥 시부모들이랑 나중에 결혼해서 들어오면 되게 아프고 막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냥 통통하고 막 그러면 되게 그런 거 같아요. 제 보기에는 그냥 그런 거 같아요.”(사례 18 구술녹취록, 2013 I/19-20)

I

II

III

IV

V

VI

VII

연구자: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도 있겠지만  
 뭐 젊은 사람들을 주로 생각할 때, 건강한 몸이라는 것  
 은 어떤 몸을 얘기하는 걸까요?  
 구술자: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좀 돼지.  
 연구자: 돼지?  
 구술자: 아 그러니까 살이 찐 사람을 건강의 징표로.  
 연구자: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이 다 똑같은 건  
 가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구술자: 네, 살찐 사람 멋있다, 건강하다, 이게 징표로 되거든요.  
 연구자: 그럼 선생님처럼 약간 호리호리하신 분은 건강하다고  
 생각 안 하나요?  
 구술자: 네, 안 하죠, 거기서는.  
 연구자: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이 찌고 이런 사람들  
 이 흔치가 않나요, 거기서?  
 구술자: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에 먹는 게 없다가니까. 살찐다는  
 게 좀 드물죠. 그 살찐다는 게 자기 남자의 능력, 경제력  
 이런 걸 대비해요.  
 연구자: 아니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제 흑간  
 찐 사람이 있긴 있어요?  
 구술자: 아, 저희 친구들 중에도 살찌고 그렇게 하면 와 멋있다  
 고. 개는 여자친구들이 많이 따르고.  
 연구자: 아, 그래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살찐 친구들은 집이 그  
 만큼 살고 해요?  
 구술자: 네, 좀. 뭐 경제력이야 있죠. 살긴 잘 살죠. (...)  
 구술자: 아 살이, 살찐다고 안 하고 표현이 몸 좋다, 건강해 보인  
 다 이런.  
 연구자: 그럼 우리 선생님 정도의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체격은 뭐라고, 그냥 건강하지 않은 몸. 그냥 이렇게 일  
 반적인 몸 그냥...  
 구술자: 네, 비달비달하다고.  
 연구자: 비달비달 (사례 21 구술녹취록, 2013 I/3-4)

이런 측면에서 외모를 가꾸는 육체에 대한 관심, 육체를 통해 계급  
 적 위치를 과시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자아의 형성 차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보통 개인의 육체와 관련한 소비는 자아의 개념, 몸의 이미지, 소비 아이콘 등과 밀접하게 관계를 갖는다. 현대 사회에서 육체를 통해 형성되는 자아관은 외모, 음식, 기호, 재화 등과 같은 개인적 소비의 관념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sup>61</sup> 따라서 북한에서 새로운 세대에 나타나는 육체에 대한 관심은 육체와 관련한 새로운 자아의 등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세대에게 자율적인 자아가 없었다거나 새로운 세대의 자아가 이와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자아를 지니고 있다기보다는 육체에 대한 감각적 관심과 소비 및 과시를 통해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는 측면이 보다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 바. 상징과 재현의 몸으로서 세대의 육체

새로운 세대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체를 통해 재현되는 육체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비공식적 매체인 한국드라마나 외국영화를 통해 시각적으로 접하게 되는 스크린 속의 육체와 그것을 모방하고 자신의 육체를 통해 재현하려는 욕구이다. 북한의 새로운 세대들은 비공식적 매체를 통해 보여지는 다양한 육체들의 이미지와 동작을 모방하고 재현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는다. 가령 한국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이 하는 말과 행동을 대화의 주제로 삼고 직접 모방해 보기도 하고, 그들만의 교감을 위한 제스처와 언어로 이들 드라마의 대사를 차용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있어 한국이나 외국의 영화·드라마는 세대 공감의 매개체이며, 이 속에서 등장하는 육체 이미지는 이들에게 상징과 재현의 대상이 된다.

<sup>61</sup> 브라이언 터너 지음, 박형신 외 옮김, 『현대사회이론의 흐름』 (파주: 한울, 2010), p. 797.

우선 이들에게 한국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육체들은 “야하고 세련된” 것이다(사례 18). 이런 세련됨과 야함에 대한 발견은 재현의 욕망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가령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액션 영화를 주로 보는데 영화에서 나오는 무술 장면을 보고 실제로 저렇게 싸움을 해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사례 39). 여성의 경우에는 머리 모양이나 의복, 장신구 등을 모방하기도 한다. 드라마나 영화라는 매체가 새로운 세대에 있어서는 유행의 척도가 된다. 특정 모양이나 장신구를 모방하는 것 이상으로 ‘스타일’이란 관점을 갖게 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타일은 전체적으로 파악되는 양식이나 느낌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한 특정 사물의 모방 행동을 넘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전체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일(‘풍’)을 간파하는 시선이 형성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액션은 이제 막 중국영화가 기본 액션이 많은데 무술 무예전 무당산 막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수호전이나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거 보면 막 산에서 막, 어릴 때는 막 산에서 패를 나눠서 뛰어 놀고 잡기 막 이런 거 많이 놀고. 그러면서 우리도 저렇게 날아 다니고 싸움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했지. 지금에 보면 막 로맨틱 해서 여자와 남자 사이 막 그런 거는--.(사례 39 구술녹취록, 2013 I/33)

한국드라마가 일상-- 제가 여기 한국 와서 보고, 신암구역 가서 그때 본 거는 보면 드라마에 나온 스타일이랑 여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뭐 드라마에서 이렇게 여자들이 목수건 흰 거를 갖고 다니면, 신암구역 도로에 나가보면 애들이 여자들 이렇게 갖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여자들 긴 생머리 다 풀어헤치잖아요. 그렇게 다니다가 앞에 규찰대나 단속하는 게 있으면 머리꽂지 준비하고 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사례 21 구술녹취록, 2013 I/33)

“야, 너 무슨 영화 봤어?” 딱 그 말부터 해요. “무슨 영화 봐서 이 머리 따라했냐?” 딱 그렇게 말해요. 본 거 없이 내가 하고 싶어 했다면 그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냥 무슨 영화를 보고 난 재 머리 따라하겠다 이렇게 하고 막 그 머리 하러 가요. 그 미용실에. 개가 계속 다니던 미용실 있으면 거기 가서 아 그거 무슨 비밀전쟁이면 그 비밀전쟁에서 나오는 이렇게 누구 머리 해달라 하면은 그 미용사들이 그 머리 해주거든요. 그럼 너 무슨 영화 보고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하면, 그 영화 말하면 그제 나라에서 보지말란 건데 또 걸리잖아요. 그냥 했다, 하고 싶어 했다고 딱 그냥 끊고 이렇게 말해요. (사례 18 구술녹취록, 2013 I/30)

그러니까 저희 청소년들이 이게 되게 진짜 물을 많이 먹는 게, 이런 들어오는 편집물이라든가 CD판 노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들어요. 저도 물을 먹은 게 남한드라마를 보고, 뭐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 이제 거기서는 만세, 만세 하던 걸 듣다가 되게 유연하고 막 감정을 잡잖아요, 음악이. 그 래가지고 그때는 되게 남한노래 좋다 그렇게도 느꼈고, 막 영화랑 보면 건물도 멋있고 그러니까 영화에는 되게 좋은 것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환상적인 것도 가졌죠. 내가 남쪽에 가면 나도 저렇게 생활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었고요. 그러면서 그런 걸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통해서… 배우들도 다 완전 멋지잖아요. 그런 걸 따라하는 네, 그런 풍도 있고 막 머리도 그렇게 멋있게 해볼려고 하고 (사례 29 구술녹취록, 2013 I/14)

이런 스타일의 모방은 단순히 머리 모양이나 외모를 따라하는 것을 넘어 드라마를 통해 전개되는 로맨틱한 사랑의 방식을 모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외모와 행동양식의 모방은 일종의 ‘코리안 드라마키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드라마에 몰두하는 경향으로도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드라마를 통해 갖게 되는 ‘세련됨’에 대한 감각은 드라마 속 공간에 배치돼 있는 한국적 생활양식 전반을 하나의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양한 사물과 외모, 건물, 집안

I
II
III
IV
V
VI
VII

풍경, 가구, 장신구, 대화방식, 표현법, 제스처, 남녀관계 등에 대한 동경이나 판타지로 나타난다. 물론 한국드라마를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은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소수의 본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들이나 행동양식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옛날 때 빠죽빠죽한 머리, 그런 머리도, 영화 보면서 많이 따라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상말 같은 건 되게, 우리 친구사이에도 상말 같은 건 되게 한국 아이들 쓰는 거 많이 따라 가는 거 같아요. 그 뭐 무슨 새끼-- 뭐 그런 게 많이 따라가는데-- 네. 사랑-- 사랑하는 방법도 술해 배우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더, 한국에 더 생각이 갈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 네, 그런 게 되게 많죠. 서울에 가고프다는--. 그러니까 가고프다는 거보다는 내놓고 말은 못하는데, 벌써 외국에 나간다고 하면 멋있는 사람으로 보거든요. 죽기 전에 한 번도 못 나가잖아요, 북한에선. 거기만 딱 갇혀있으니까. 한 번 나갔다 온 사람은 되게 신기하고. (사례 30 구술녹취록, 2013 I/74-75)

다르죠, 많이. 북한엔 되게 남자를 위주로 하거든요. 옛날 그런 게 많아가지고, 여자는 남자한테 뭐 복종해야 한다, 뭐 이런 게 되게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한국은 되게 여자들이 더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되게 막 그렇고, 여자들이 더 높고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보면은. 좀 많이 다른 거 같아요. (사례 18 구술녹취록, 2013 I/19)

한편 북한의 공식매체를 통해 보여지는 최고지도자의 몸에 대한 이들 세대의 시선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면접에 응한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북한 공식매체를 통해 등장하는 최고지도자의 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주저 없이 “멋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왜 멋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자체로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갖는 경외심 차원의 ‘멋있다’와 뚱뚱한 외모가 갖는 체격으로서의 ‘멋있

다’가 모두 담겨져 있었다. 특히 최고지도자의 몸은 외적 모양으로 판단되는 몸이 아니라 그의 절대 권력이 갖는 ‘경외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 그거 보니까 보면 좀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간?  
구술자: 북한에서 보면은 진짜 멋있다.  
연구자: 멋있는 그게 몸이에요?  
구술자: 진짜 네.  
연구자: 우리가 보기에는 뚱뚱해 보이는데.  
구술자: 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다 하면 진짜 그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다 하면 아주 하늘처럼 보는 거죠.  
연구자: 아니 그러니까 몸 자체가.  
구술자: 뚱뚱한 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툭 보면--.  
연구자: 멋있다. (사례 36 구술녹취록, 2013 I/62-63)

이런 연속선상에서 육체를 통해 표상되는 남성적 권력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세대에게 남성의 육체적 아름다움 또는 멋있음은 소위 ‘간부체격’이라는 전형적 모습으로 표현된다. ‘간부라면 응당히 갖추어야 할 몸’은 배가 나와 어느 정도 뚱뚱하고 머리가 벗겨진 모습이다. 이런 전형성은 미적인 측면보다는 권력이나 돈을 가진 자의 일반적인 육체적 스타일을 멋있는 몸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 외모 자체가 아름답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멋있다고 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에 대한 경외심 또는 욕망이 그들의 육체에 대한 호감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 거기서는 살집이 있고 좀 뚱뚱한 애를 좋아하는구나.  
구술자: 좋아하기보다 그런 게 좀 간부...  
연구자: 간부스타일.

I
II
III
IV
V
VI
VII

구술자: 네, 간부스타일. 간부들만 배 나오니까 북한에서. 그러니까 배 나온 사람이 보기 힘들어요, 다니면서. 없어요. 어찌다 한 번 배 나온 사람 있으면 중앙당에서 내려왔나 할 정도로. 도당이나 간부들이나 배 나오니까. (사례 30 구술녹취록, 2013 I/51-52)

그냥 북한에서 보면, 사람들이 보면 이마가 좀 보이잖아요. 이마가 벗어지면 진짜 간부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보통 북한 사람들 간부들 보면 다 이마가 벗어졌어요. (사례 36 구술녹취록, 2013 I/63-64)

이런 시각은 남성적 육체미와 여성적 육체미에 대한 젠더적 구분이 작동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의 육체는 드라마 속 아름답고 세련된 여성처럼 ‘예쁘다’라는 감각적 평가를 통해 발견되는 반면, 남성의 육체는 권력의 기호로서 일상에서 존재하는 ‘배가 나오고 머리가 벗겨진’ 모습을 통해 욕망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새 세대들은 감각적인 몸에 대한 재현의 욕망, 그리고 권력과 지위를 가진 몸에 대한 욕망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3. 국가와 내면 사이의 언어적 경험

#### 가. 공적 언어와 사적 언어의 사이에 있는 세대

새로운 세대의 특징은 언어 세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김일성, 김정일 등 최고지도자의 절대적 ‘언어들’을 배우고 학습하는 것은 예전 세대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런 언어들만은 그들 세계에서는 실질적인 일상의 고민과 생활을 해결하지 못하는 ‘죽은 말들’로서 매우 형식적으로 무감각하게 사용될 뿐이다. 뿐만 아니라 계층적으로 하층

에 속하는 학생들의 경우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학습 기회조차 갖지 못해 국가의 공식 언어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 일상에서 쓰는 언어, 내면의 생각을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의 언어, 그리고 공적인 국가 언어 사이의 괴리가 이들 세대에서는 클 뿐만 아니라 이들 세대는 이런 이중성을 매우 잘 활용하기도 한다.

새로운 세대는 실제로 국가의 공식 언어 학습 수준이 과거 세대와는 달라 보인다. 면접에 응한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김일성저작집’이나 ‘김정일선집’ 등도 거의 읽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교육과정에는 내용을 통해 지도자의 항일무장투쟁 역사나 혁명사상 등에 대한 학습을 하지만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 소수 학생들을 제외하면 학습 열의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습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학교의 공식 조직생활을 통해 이들이 인용하는 국가의 공식 언어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수첩’(생활총화록) 앞에 인쇄돼 있는 학생의 학습태도에 대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몇 가지 ‘말씀’, 교실 앞에 붙어 있는 두 개 정도의 ‘말씀’이 전부였다. 이들은 이들 몇 개의 ‘말씀’을 중학교 전학년 내내 모든 호상비판과 자아비판, 공식적 발언에서 재인용하면서 반복 사용한다. 이런 반복적 인용은 내용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재음미가 아닌 거의 형식화된 인용, 그들의 말로는 ‘각’(형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반복하는 과정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죽은 말씀’을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다. 이런 국가의 공식 언어와 일상의 언어적 수행 사이의 괴리는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세대의 언어 속에서 뚜렷

I
II
III
IV
V
VI
VII

하게 발견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공적 또는 사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세계의 특질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 이들이 갖는 의식 세계의 특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와 행동의 권위를 독점했던 초월적 발화체(김일성, 김정일)가 사라지면 그 말들은 형식적으로는 절대적 지위로 계속 남아 있지만, 그 언어 사용의 잘못을 수정할 존재, 지속적 재의미화를 수행할 존재는 없는 것이 된다. 만약 초월적 발화체가 살아 있다면, 모든 언어와 행동이 그의 검열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재의미화를 하길 꺼려하게 되며 오히려 언어 세계는 더욱 경직된다. 그러나 그런 언어를 조정하는 중심 발화체가 사라지면 그들이 남긴 말은 그대로 고정된 경구로 남고, 일상에서는 이런 말들을 현실의 필요에 따라 재의미화를 하게 된다.<sup>62</sup>

## 나. 국가 언어에 대한 반복적 인용과 냉소

새로운 세대의 언어생활이 갖는 이중성과 언어 수행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생활총화에서이다. 앞서 얘기했듯 최고지도자의 ‘언어들’은 죽은 말들의 세계이다. 규범화되고 경직된 원칙으로 고정불변한 데다 실제 일상의 모든 문제를 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나 모든 조직생활에서 인용과 반복을 통해 자신들의 일상을 반성하고 평가해야 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생활총화는 이 죽은 말들과 연출된 형식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검열해야만 하는 언어 수행의 공간이다. 이들 국가의 공식 언어, 최고지도자의 말들은 어떤 것이 혁명적이고 승

---

<sup>62</sup> Alexei Yurchak, *Everything Was Forever, Until It Was No More: The Last Soviet Generatio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p. 295.

고한 삶인가를 제시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현실이나 실제의 삶을 담지 못하는 죽은 말들인 것이다. 생활총화는 이런 형식적인 공적 언어를 통해 연출되는 하나의 연극무대라고 할 수 있다.

그 학교에 들어가면 교실에 들어가면 교실마다 김일성이라고 써서 김일성이 한 말. 뭐 학생은 학생의 기본 혁명과업은 뭐 학습이며 어떻게-- 또 김정일이 말한 게 그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총화를 시작할 때 위애다 무조건 “위대한 영도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학생의 기본임무는 공부인데, 그런데 나는 이렇게 못 했습니다. 나를 반성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례 39 구술녹취록, 2013 I/16)

일주일간의 생활의 일단 자기비판을 해요. 그런데 그 하기 전에 위에 말씀을 넣어야 돼요. 김일성, 김정일의 그런 말씀을 꼭 인용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뭐 어떻게 공부도 잘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비판하고 호상비판해야 돼요. 그런데 호상비판을 하면 상대방이 되게 기분 나빠지고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대개 친한 친구끼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짜고. 그런데 내가 할 테니까 다음에 너가 할 때 날 비판해라 이런... 이렇게 하면서 막 진짜 진심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항상 하다보니까 이전 비판할 것도 없어지고 하다보니까 서로 짜서 하게 되고.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27-28)

이렇게 형식적으로 연출되는 생활총화는 학생들에게는 고역이 아닐 수 없다. 면접에 응한 구술자들은 공통적으로 생활총화 시간이 싫어서 일부러 토요일에 결석하는 친구가 있었다고 말한다. 김일성, 김정일의 ‘말씀’들을 반복 인용하며 자꾸 ‘반성’과 ‘맹세’를 강요하는 것은 이들 세대에겐 힘든 일이다. 어떤 특정 제도가 운용된다는 것과 그 제도가 실제로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수용되느냐는 분명 다른 것이다. 생활총화는 요즘 세대에게는 학교로부터의 각종 요구사항이나 경제적 어려움

I

II

III

IV

V

VI

VII

으로 인한 결석 등이 추궁당하는 시간이자 끊임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화된 ‘말씀’을 반복 재생하는 지루한 시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암만 내가 한 주일 동안 뭘 했고, 학교 다니면서 잘못된 게 뭐고,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이진데, 맨날 생활총화 때마다 그저 똑같아요. 지각을 했고 학교를 뚜꺼 먹었고, 그리고 뭐 말씀대로 뭐,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대로 살지 못했고. 그래서 뭐 저의 결함은 뭐 말씀대로 무슨 뭐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지 못한 데로부터 온다는 거. 그래가지고 뭐 앞으로는 뭐 그 말씀대로 살 거라는—. 그냥 그게 쪽 똑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일을 자꾸 반성하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뭐 맹세하고 하는 게 정말 싫었어요. 생활총화를 한다는 자체가. 글쓰기도 싫었고 생활총화록을 또 한 4주되면 검열을 해요. 노트를 생활노트를. 그러니까 그 정리가, 학생들이 꼼꼼한 애들은 하는데 정리도 안 되고 하니까, 그 생활노트는. 그러니까 혁명역사랑 그 생활노트 점수가 높아요. 생활총화하는 게. 그래가지고 생활총화를 정말로 하기 싫었어요. (사례 29 구술녹취록, 2013 I/18)

연구자: 그런데 그렇게 토요일 날 생활총화가 있는 날, 생활총화에 참석하는 친구는 반 40명 중에 몇 명 정도 돼요, 보통?

구술자: 반도 안 돼요. 그때는 반도 안 돼요.

연구자: 20명도 안 된다?

구술자: 네, 20명도 안 돼요. (사례 29 구술녹취록, 2013 I/20)

소위 북한 모든 주민들이 암기한다는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의 경우도 이들 세대에서는 대학 갈 친구들만 외우는 것들이다. 아예 ‘10대원칙’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사례 29). 김일성, 김정일 혁명사상 등은 대학갈 학생들만 공부하는 내용으로 여겨진다. 대학갈 학생들이란 기본적으로 공부를 어느 정도 잘 하고, 대체로 집안의 경제적 능력이 되거나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이들에 한정돼 북한의 공식 언어들이 ‘진학’이나 ‘출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김일성, 김정일 혁명사상도 그런 게 없고, 그 대학갈 아이들은 그런 거 공부하고. 혁명사상이라고 세 과목 있어요. 어머님사상이라고 김정숙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뭐 김정일, 김일성. 이렇게 해 가지고 혁명사상 세 개 공부하는 거 있는데, 거기서 그저 뭐 혁명사상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했고 그런 거 공부하고. 그 다음 입, 입당할 때, 가맹할 때, 청년동맹 가맹할 때, 중학교 3학년 때 가맹하는 데, 이때 입당 심의할 때 10대원칙 외우라고 그러고. 그때 좀 외우고 특별히 암송할 필요가 없어요. (사례 30 구술녹취록, 2013 I/27)

#### 다. 새로운 세대만의 언어들: 내면을 기록하는 언어

공식적인 주체사상의 언어들, 말씀수첩, 생활수첩, 호상비판 등의 규범화된 공식 언어들과 달리 그들의 사적 세계는 다른 언어적 형식과 내용을 갖고 있었다. 새로운 세대들은 모이거나 만나면 시장에서 파는 새로 들어온 중고 옷에 대한 정보, 한국드라마와 노래, 누군가 중국에 갔다 왔다는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해 주로 대화를 나눈다. 체제에 대한 것도, 미래에 대한 것도 아닌 유행하는 드라마, 사물들, 노래, 외부세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 그들만의 언어세계를 공유한다. 사적인 이들만의 언어세계에서 정치나 사상과 관련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이들은 공적 언어 세계 밖에서 자기 내면을 기록하기도 한다. 면접에 응한 일부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일기 이외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혼자 쓰고 보는 일기를 가지고 있었던 경험을 얘기했다. 이런 일기장은 가족 내에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다. 이들은 일기장에 사소한 생활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거나 그날의 기분이나 날씨 등을 기록하곤 한다. 특히 친구들과의 관계에 관해 쓰거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맹세를 쓰기도 한다. 이런 일기장

I

II

III

IV

V

VI

VII

은 공식 언어 세계와는 무관한 일상적이면서 자기고백적인 내면의 기록세계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 그런데 왜 오빠 건 일기를 몰래 보고 그래요?

구술자: 그냥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일기 방학숙제 내주면 그냥 항상 안 쓰다가 그 한 달 쯤 미뤄서 하루에 써요. 그냥 생각도 안 나면서 막 이렇게 짧게 짧게 오를 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초딩 일기 그런 거 썼었는데, 이렇게 오빠 꺼 딱 보니까 막 뭐 계획 같은 것도 적고, 되게 너무 내가 쓰는 거랑 너무 성숙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버릇을 붙여야겠다라고 시작해서 그때부터 그렇게 썼던 거 같아요. 배워서며…

연구자: 오빠 일기장에는 뭐 계획도 있고 자기 속마음도 얘기하고 뭐 이래요? 어떤 내용이 있던가요, 좀?

구술자: 좀 그런 게 많았어요. 다짐 같은 거. 그러니까 뭐, 그리고 되게 좀 효자예요. 뭐 엄마가 자기 공부하는데 많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뭐 효도하겠단,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항상 보면 뭐 공부에 대한 그런 게 많았어요. 뭐 몇 시부터 몇 시간 무슨 걸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도 많았고.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43)

네, 혼자서. 그냥 기뻐던 일, 슬펐던 일, 이러며 써서 이렇게 뭐 내만의 서랍 있는데 거기다 숨겨 놔다가 기쁠 때 꺼내보고 슬플 때 꺼내보고 이렇게 하면서. 재미나던 친구들하고 놀던 얘기도 좋고, 뭐 엄마한테 욕먹던 얘기에서 슬펐다는 것도 적고, 그 다음에 학교 졸업할 때, 학교 졸업해서 뭐 친구들이 군대 나갈 때, 진짜 슬프고 네. 진짜 네, 그렇게 하고, 누구 생일이었는데 못 가서 미안한 거. 우리 형제가 누구가 며칠날 생일인데, 아 오늘은 정말 그래도 재밌게 놀았다 이렇게. 그리고 뭐 어느 누구는 중국에 갔는데 어떻게 잘 지내는지, 잘 지내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계속 썼어요. 이따만한 게 두 권이나 됐는데 오기 전에 다 불태워 버렸어요. (사례 33 구술녹취록, 2013 I/27)

## 라. 단출한 형제와 외로운 세대의 내면

새로운 세대의 특징은 형제 구성에서도 일정 부분 발견된다. 면담에 응했던 이들 세대의 가족력을 파악해 보면 대체로 두 명의 형제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다. 부모님의 나이를 따지면 40대 중후반들로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부모님들 세대는 한참 베이비붐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로 보통 형제가 대여섯 명 정도였다고 한다.<sup>63</sup> 이들이 부모님 세대와 갖는 차이는 형제 구성에서의 단출함이라고 할 수 있다. 면접에 응한 1990년대생 구술자들의 대부분은 두 명의 형제나 혼자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단출한 형제 구성이 이들 세대의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정 부분 분명해 보이는 것은 경제적 현실이 가족 구성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국가가 아닌 개인이 경제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서 많은 출산은 부양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연구자: 혼자였어요? 우리 선생님 세대의 같은 또래 친구들은 주로 형제들이 많지 않나요?

구술자: 네, 주로 없어요. 친구들도 다 혼자인 게 대부분 많습시다.

연구자: 그만큼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이 안 낳았다는 얘기네요, 아이들을, 어머님들이.

구술자: 네. 그렇게-.

연구자: 형제가 많고 이런 친구들이 별로 없었죠?

구술자: 네,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사례 29 구술녹취록, 2013 I/16)

I

II

III

IV

V

VI

VII

<sup>63</sup> 박경숙,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pp. 106~107.

살기가 힘들다 그러고, 몇 명 키우며 고생하느니 돈, 이렇게 먹이기도 힘드니까 굶기느니 차라리 한 명 알뜰하게 키우는 게 낫다. (사례 30 구술녹취록, 2013 I/21)

이런 단출한 형제 구성은 시장 중심의 경제활동과 맞물리면서 이들 세대의 독특한 정서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다. 가령 장사 나간 부모를 기다리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세대라는 특징이다. 짧게는 하루 종일이지만 길게는 열흘 정도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또는 형제와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 이외의 시간에는 대체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나 방과 후 친구들과 집에서 어울리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와 가정이라는 두 개의 축을 통해 영위되는 생활에서 가정이라는 축이 부모들의 오랜 부재로 고유한 정서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부모의 시장활동이 이들 세대에게 주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가정의 경제생활이 국가에 소속된 직장보다는 부모들의 시장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점이다. 면담 내용 중 특이한 점은 이런 부모의 오랜 부재에도 불구하고 기다림 끝에 부모님이 가져오는 물건들에 대한 기대가 이들의 구술에서 자주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부모님들의 시장활동으로 인한 부재는 결핍의 차원보다는 가정경제활동의 당연한 부분 또는 새로운 물건을 가져오는 기대의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네, 그 기대 엄청 많죠. 그러니까 엄마, 항상 갔다 오면 음식 거기 뭐 그런 음식 간식 같은 것도 사오고 옷도 많이 사와요. 그래서 그게 제일 기대가 많았던 거 같아요. 뭐 청진엔 또 옷도 싸고 하니까 그런데서 항상 사오는데 그때마다 너무 좋아요. 이번엔 또 뭐 사올까 뭐 사올까, 항상 기대감-- (···) 엄마는 일단 간식을 많이 사왔고, 엄마 자체가 간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집

에 간식을 안 떨구게 이렇게 사놓고. 그런데 나는 간식보다 옷, 옷이 되게-- 옷 사면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별거 아니래도 뭐 옷 사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빨리 자라나고 입고 싶고 막.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51)

시장에 대한 이들 세대의 인식은 국가를 위한 공식적인 노동은 아니지만 집안의 경제적 삶에서 절대적인 것이고, 국가로부터 인정되는 경제활동은 아니지만 부모의 고달픈 경제활동으로 인식된다. 부모의 노동이나 경제활동이 국가를 위해 직장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경제를 위해 시장이라는 공간을 통해 행해진다는 차이는 클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모든 부모들이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면접에 응한 구술자들의 부모들은 시장이나 무역에 많이 의존했다고 한다. 이처럼 시장활동으로 인한 가정에서의 부모의 부재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세대의 특성을 만들어 내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자식을 많이 낳지 않다보니 형편이 좋은 집안의 경우 자녀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사교육에도 관심을 갖는 계층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유하고 힘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의 경우,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투자와 부모들 사이의 경쟁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체로 관료적 지위가 있거나 시장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이들로, 보다 출세 지향적인 사고 속에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높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신분과 위세를 은근히 과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 북한의 부모들이 우리 때랑 달리 여기처럼 한 명, 많이 낳아야 애들 둘 낳고. 애 하나밖에 없으니까 투자를 좀 많이 하는. 여기처럼 사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애들이 자립이, 저희 생각하고 좀. 지금 어린 세대들 보면 자립성이 좀 없고. (사례 21 구술녹취록, 2013 I/3)

I

II

III

IV

V

VI

VII

거기는 모든 자식들이 뭐 도당 무슨 간부 다 이런 자식들이거든요. 그래 그런 데서 살다나니까 되게 친구들도 아직 그렇게 못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다 이렇게 잘 살고 막 완전 경쟁 그런 속에서, 막 도당간부는 아빠가 무슨 경제 무슨 부장이다 이런 부장이다 하면 막 개네 애들보다 더 잘하게끔 막 그런 경쟁 속에서 --. (...) 엄마들이 되게 막. 그리고 자식들도 누구네 집 애는 저런 것도 있고 나는 뭐 못해서 막 그런 것도 많았어요. (사례 18 구술녹취록, 2013 I/6)

#### 4. 소결

북한의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빈곤과 빈부의 계층화를 태어나면서부터 일상적으로 경험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빈곤과 계층화는 다양한 육체적 경험 형태로 그들의 세대 특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세대는 모두 고난의 행군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육체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 시장화 등을 경험한 세대이다. 이런 기근, 질병, 죽음, 시장의 경험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의 세계관, 정서,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빈곤과 계층적 빈부 차이에 대한 육체적 경험이다. 새로운 세대는 학교와 또래집단에서 일상적으로 빈부의 차이를 경험한 세대이다. 이전 세대들에 비해 물질적인 빈부의 계층차를 뚜렷하게 느끼고 자란 세대이다. 또한 출석률과 빈부 계층화 사이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성립하고 있었다. 한편 학교에 나가지 않거나 배제된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사회로부터 배제 또는 소외를 당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청년되기의 통과의례에 대한 육체적 경험이다. 북한은 중학교 시기에 다양한 육체적 활동을 통한 청년으로서의 통과의례를 거치도

록 해 놓았다. 국가의 통과의례는 어른이 되었다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그러나 이런 통과의례의 참여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상 부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통과의례로 변화된 측면이 있다. 새로운 세대들은 이런 육체적 활동을 활용하여 또래관계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들만의 비공식적인 통과의례를 형성하기도 한다.

셋째, 유행과 반문화적 저항의 장소로서 새 세대의 육체이다. 새로운 세대는 쌍꺼풀 수술, 치아교정, 문신, 코수술 등과 같은 외모를 교정하는 데 관심이 많은 세대이다. 외부세계와의 접촉은 외모에 대한 관심을 가져온 가장 큰 배경이다. 또한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생존에 있어 여성의 외모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원화된 측면이 있다. 한편 외모 가꾸기는 또래관계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자아의 정체감을 재확인하는 장소로서의 ‘육체’가 북한에서 새롭게 재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계급적 표상으로서 세대의 육체이다. 새로운 세대들은 육체나 외모, 의복을 통해 상대의 계급을 간파하는 데 민감하다. 그만큼 육체나 외모, 의복, 사물 등을 통해 자신의 계층적·계급적 위치를 표현하는 것이 많아졌다. 또한 육체를 통해 전시되는 계층적·계급적 기호에 민감하다. 그런 측면에서 외모를 가꾸는 육체에 대한 관심, 육체를 통해 계급적 위치를 간파하거나 그것을 과시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자아의 형성 차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징과 재현의 몸으로서 세대의 육체이다. 비공식적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스크린 속 육체를 모방하고 자신의 육체를 통해 재현하려는 욕구이다. 북한의 새로운 세대들은 다양한 육체들의 이미지와 동작을 모방하고 재현하는 데 많은 관심

I
II
III
IV
V
VI
VII

을 갖는다. 단순한 특정 사물의 모방 행동 이상의 스타일을 간파하는 시선이 형성돼 있다. 이런 스타일의 모방은 로맨틱한 사랑의 방식을 모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나아가 드라마 속 공간에 배치돼 있는 한국적 생활양식 전반을 하나의 감각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새 세대의 특징은 언어 세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첫째, 실제 일상에서 쓰는 언어, 내면의 생각을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의 언어, 그리고 공적인 국가 언어 사이의 괴리가 이들 세대에서는 클 뿐만 아니라 이들 세대는 이런 이중성을 매우 잘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국가의 공식 언어와 일상의 언어적 수행 사이의 괴리는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세대의 언어 속에서 뚜렷하게 발견된다.

둘째, 새 세대의 언어생활이 갖는 이중성과 언어 수행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생활총화에서이다. 생활총화는 김일성·김정일의 ‘말씀’과 연출된 형식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검열해야만 하는 언어 수행의 공간이다. 생활총화는 이런 형식적인 공적 언어를 통해 연출되는 하나의 연극무대라고 할 수 있다. 생활총화는 요즘 세대에게는 학교로부터의 각종 요구사항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결석 등이 추궁당하는 시간이자 끊임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화된 ‘말씀’을 반복 재생하는 지루한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새로운 세대만의 언어이다. 공식적인 언어들, 말씀, 생활총화 등의 규범화된 공적 언어들과 달리 그들의 사적 세계는 다른 언어적 형식과 내용을 갖는다. 체제에 대한 것도 미래에 대한 것도 아닌 유행하는 드라마, 사물들, 노래, 외부세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 그들만의 언어세계를 공유한다. 한편 이들은 자기 내면을 기록하기도 한다. 일기장은 공식 언어 세계와는 무관한 일상적이면서 자기고백적인 내면의 기록 세계라고 할 수 있다.

# IV

---

사물과 장소의 경험





# 1. 화폐세대의 물신화된 정체성

## 가. 계산적이고 인색한 세대, ‘돈의 맛’을 아는 세대

북한 청소년들은 부모님 세대가 자신의 세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순진하지 못하고 영악하고 계산적이며 인색한 세대라고 평가했다고 얘기한다. 이들이 대체로 시장이라는 것을 통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익숙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투명한 미래의 전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점, 부모들의 시장활동을 보고 자란 점 등에서 과거 세대와는 분명 다른 환경에 있다. 1990년대 시장을 통해 기초적인 삶을 영위하던 시기보다 구분되는 2000년대의 보다 진전된 시장화와 경제생활의 형식이 반영된 세대의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이 말하는 부모님 세대들의 자신의 세대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고 말한다.

### · 돈을 아는 세대

아버지 세대나 그런 세대는 그게 인공위성이 썩 올린다는 게, 돈을 하늘로 썩 올린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뭐 썩 올리는구나. 그런데 저희 세대는 저게 굉장한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례 21 구술녹취록, 2013 I/2)

### · 순진하지 못한 세대

순진하지 못하다고. 왜냐하면 고생을 많이 해보다나니까 빨리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계산을 많이 하고 어른들보다 더 계산이 빨라지고. (사례 39 구술녹취록, 2013 I/35)

I

II

III

IV

V

VI

VII

· 인색한 세대

일단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계산. 모든 걸 그냥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다 대가가 있어야 해주고. 먼저 이제 막 계산을 하는 그런 계--, 그러니까 사람이, 북한에서는 인색하다고 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생각을 먼저 하고, 대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계 있어서 그게 부모님 세대들하고 많이 틀리죠. (사례 39 구술녹취록, 2013 I/38)

· 계산적인 세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내가 너 나이 때는 이런 계산도 없이 그냥 살았는데, 우리 지금 그 나이와 그때 부모님들 나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완전 밧그라졌다고. (사례 39 구술녹취록, 2013 I/38)

· 국가에 관심 없는 세대

제가 아이들 교사 하면서 보면, 저희 세대는 뭐 국가, 수령 뭐 이런 게 저희까지만 해도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개네들 생각에는 그냥 멋있는 남자친구, 멋있는 여자친구, 오직 그런 생활적인 데 많이 치우쳐 있고,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사례 21 구술녹취록, 2013 I/2)

· 거미새끼 세대

거미라는 게 어미가 자기 살을 새끼들한테 다 뜯겨 먹히잖아요. 그렇게 좀 부모님들한테 많이 의지하는. (사례 21 구술녹취록, 2013 I/3)

이런 평가들은 이들 세대가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평가들은 부모님의 시선이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 자신들의 세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우선 이들 세대

들은 국가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세대란 점에서 국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개인적인 관심사나 즐거움에 몰두하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국가보다는 부모의 경제활동이 가정 경제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 의존적인 세대이기도 하다. 또한 부모들이 힘들게 경제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랐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경험해 왔다는 점에서 매우 계산적인 특성을 갖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시장과 화폐가 생활에서 갖는 중요성을 안다는 점에서 돈을 아는 세대이기도 하다. 시장활동과 일상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어려서부터 경험한 세대란 점에서 계산적이고 영악한 측면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과거 세대들의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이나 맹목적 충성의 경험에서 본다면 이들은 ‘순진하지 못한 세대’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세대가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과거 세대와는 다른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해 내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 세대와 달리 김일성, 김정일만 바라보면서 있지 않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열려 있는 세대’이며, 이전 세대의 관점에서 나쁘게 보면 자본주의 ‘물이 잘못 든 세대’이지만 그만큼 ‘깨어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그것은 과거처럼 그저 원칙대로 살기보다는 영악하고 융통성 있게 생각하는 ‘똑똑한 세대’라는 의미이다.

· 열려 있는 세대

구술자: 그냥 생각을 쭉 다 보면 많이 열려 있어요.

연구자: 열려 있다.

구술자: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많이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청소년들은. 한마디로 많이 깎죠.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그냥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우상숭배하면서 그때

I
II
III
IV
V
VI
VII

당시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나이 또래가 태어날 때부터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바뀐 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나마 살기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는 뭐 한 마디로 당에서 다 해주고, 그냥 우상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은 -- 네, 지금 세대, 우리 생각은 너무나 다르죠. (사례 29 구술녹취록, 2013 I/4)

· 깨어 있는 세대

물 잘못 먹은 세대, 깨어 있는 세대. “그냥 좀 한 마디로 말하면 당에 좀 충실한 사람들은 뭐야 “물을 잘못 먹는다.”고 “물이 잘못 든다.”고 말하고, 조금 그나마 생각이 다른 부모님들은 “지금 애들은 많이 깻다.” 깻다고--. (사례 29 구술녹취록, 2013 I/4-5)

· 발그라진 세대

연구자: 발그라졌다는 뜻이 푹푹하단 얘기에요?

구술자: 네, 깻다. 그런데 저희 때만해도 그냥 원칙대로 했는데 개들은 뭐 그게 뭐 이렇게 있잖아요. 법에 어긋나도 막 무슨 선생님들한테 막 대들고 이런 게 조금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례 33 구술녹취록, 2013 I/25)

이런 세대의 특성에서 본다면, 1990년대 초중반 이후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세대적 특성은 그들에게 유년기에 해당하는 ‘고난의 행군’보다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2000년대의 시대적 흐름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9년 화폐교환조치는 이들이 현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일정하게 형성돼 있던 시장 의존적 삶의 체계가 화폐교환조치를 통해 일대 ‘전환’ 또는 ‘굴절’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면접에 응한 대부분

의 구술자들은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화폐교환을 공통적으로 들었다. 물론 보다 현실 인식 능력이 높아진 고학년에서 경험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이 어느 정도 세상을 인식하는 눈이 생기는 시점에 발생하여 이 조치가 갖는 부조리한 측면을 충분히 인식하고 보다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냥 2009년도에 화폐교환 딱 했잖아요, 북한이. 화폐교환 딱하고 몇 달 한 5개월 동안은 진짜 바빴거든요. 그럴 때에 잠깐 아 밥도 못 먹고 이런 사람 있구나, 그때 알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모른 거예요. 정말 진짜. (사례 18 구술녹취록, 2013 I/5)

바뀐 건 없는데 그저 다 협잡 맞혔다 그러죠, 국가한테. 국가한테 협잡 맞혔다 말하는 게-- 지금도 많죠. 다 지금도 보면, 국가 칭찬하는 거 보면 머저리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되게. 그런데 제 주위에 사람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보면 국가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게 없어요. (...) 국가가 하란 대로 하면 살은 사람이 없으니까. 다 자본주의 해서 산 사람들이니까. (사례 30 구술녹취록, 2013 I/57-58,60)

또 화폐교환하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학교 들어가갖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졸업해서 내가 원하는 데 취업해갖고요, 일해갖고 간호사로 일하는 게 제 그냥 목표고, 그때는 그냥. 그 간호사를 하면은 돈 벌었어요, 돈. 주사 하나, 요 혈관 하나만 찔러 줘도 돈 5천 원 받고 그랬거든요. 쌀이라도 조금 갖다 준다가 이래갖고, 그런 침이라도 찔러 주고 이러면 돈 좀 받아갖고 간호사 같은 거는 진짜 괜찮은 직업이에요. 그래 그저 무조건 해갖고 돈 벌어갖고 엄마랑 가족을 이렇게 먹이고 살리는 그런 마음 있어가지고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처럼 살고 싶다 이런 건, 그냥 나는 내 대로 그냥 그렇게 공부하고 살다가. (사례 33 구술녹취록, 2013 I/21-22)

이들 세대는 전반적으로 시장활동을 중심으로 한 생활방식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태어나서부터 시장에서의 부모 경제활동을 일상적으로

I
II
III
IV
V
VI
VII

경험하며 자라고, 시장을 그들 세대의 만남, 소비 등의 중심 공간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장세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그들은 그 이전 세대와 달리 화폐의 경제적 가치, 화폐가 생활에서 갖는 중요성을 그 자체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대란 점, 그리고 화폐교환조치라는 굴절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화폐의 세대’ 또는 ‘화폐교환조치 세대’라고도 볼 수 있다. 화폐교환조치는 이들에게 아주 당연하게 일상으로 받아들였던 생활방식에 국가가 인위적으로 균열을 가한 사건이었다. 국가의 양면성과 경제 현실을 자각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고가 생기는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 나. 힘 있고 돈이 되는 직업에 대한 열망의 세대

면접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이들 세대는 미래 자신의 모습으로 투영하고 싶어 하는 뚜렷한 역할 모델(role model)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일상에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역할 모델이 없는 것도 있지만, 최고지도자라는 절대적 우상 또는 모델 이외에 다른 역할 모델이 특별히 강조되기 힘들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당국에 의해 선전 차원의 각종 영웅들의 모델들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현실과는 괴리가 많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이유로는 계층적·계급적 신분 이동이 차단된 폐쇄적인 사회체제도 역할 모델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역할 모델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의 차원이기도 하다. 역할 모델의 성취를 자기 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회적으로 열려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에서 이런 가능성은 출신성분과 사회적 성분을 통해 매우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청소년들에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물론 이런 구조는 과거 세대에도 동일했다.

다만 이들 세대의 특징은 성공한 특정 역할 모델이나 특정 직업보다는 지위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들 대부분이 안전원, 군관 등이나 간부로 통칭되는 지위에 대한 열망이 컸다. 이들이 열망하는 안전원, 군관, 간부 등은 직업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 실제 살아가는 데서 유용한 지위, 뭔가 받아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지위, 주민들 사이에 군림할 수 있는 사람 등에 해당한다. 이들이 일상에서 보고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간부로 통칭되는, 소위 주민들을 군림하며 통제하고 뇌물을 받으며 편하게 사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비롯한 가족의 일상에 가장 큰 통제와 억압을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들과 같이 군림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을 갖는다.

나의 리더를 삼고 뭐 이렇게 나의 뭐 해본 사람이 없어요. 저는 내는 내대로. 엄마, 내 가족, 내가 지금 현재 하는 공부. 졸업해서 이거에 맞게 취업해 갖고 돈만 벌면. (사례 33 구술녹취록, 2013 I/22)

친구 애들은 그 군, 이제 군관이 되고 싶다. 나도 그런 건 있었어요. 군대 나가면 군관이 돼서-. (...) 군관이 되고 싶은 거는 군관은 내가 우리 집 있는 데도 근처에 군부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군관들은 참 그때부터도 이제 상급 아니면 하급한테 받아먹는 그런 게 많잖아요. 좀 편하게 살고 있다. (사례 39 구술녹취록, 2013 I/41)

거기서는 보위부,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잘 나갔어요.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안전원이나 보위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되게 좋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잘 나갔던 거 같아요.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41)

I

II

III

IV

V

VI

VII

이들 세대의 현실적인 지위 열망은 국가가 제시하는 ‘영웅’에 대한 냉소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들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국가가 선전하거나 제시하는 영웅에 대해 어느 누구도 롤 모델로 삼거나 감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 영웅들이 과거 국가 중심, 직장 중심의 삶의 체계에서는 나름대로 형식적이지만 설득력을 갖춘 모델이었다면, 시장이나 외부 사조를 통해 현실 인식이 강해진 세대에게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주민을 위해 특별히 해주는 것이나 희생하는 것이 없는데, 주민들에게 국가나 노동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이 이들 세대에게 설득력을 갖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목숨을 걸고 희생한 영웅에 대해 ‘머저리’라고 냉소하는 부분에서 이들의 현실 인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이들 세대는 이런 희생을 통해 송고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이 또래 애들은, 내가 같이 있는 애들은 저렇게 죽는 게 머저리지 하면서. 막 열여덟 살에 김기성이라고 있어요. 막 개가 폭탄 그런 거 맞고 영웅 됐잖아요. 무슨 왜 그렇게 죽냐고 이렇게, 저런 게 바보지 이렇게 생각 많이 한 거 같아요. 그렇게 높은 걸 원하지 않아요. 잘 사는 걸, 그냥 내만 잘 살면 된다. (사례 18 구술녹취록, 2013 I/47)

이런 현실 인식은 군대에 가는 것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군대 가는 것을 “징병 끌려가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이다. 군대는 이들에게 잘못 가면 죽거나 병이 들고 영양실조에 걸려 돌아오기 쉬운 곳이다. 과거 팽배했던, 군대에 가야 남성성을 획득하고 사회적 출세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이들 세대에게는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구술자: 저희 친구들하고는 군대들 안 가려고 그러고 지금 다 그래요. 막 이 막말로 하면은 애들이 자기 친구 군대 걸렸잖아요. 그러면 “아우 재 또 징병 끌려간다.” 이런 식으로 농담하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저희 그 말 듣고 “아 저 새끼들 저거 죽을라고 저런 소리하나.” 그저 우리 때랑 또 틀리더라고요.

연구자: 그렇게 안 갈려고 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구술자: 그렇죠. 군대 가면은 진짜 잘못 가면은, 힘든 데 가면은 죽지 않으면 막 병신 돼 오고. 막 그렇게 영양실조 이렇게 걸려서 오니까, 아 그건 누가 가기 좋겠어요?(사례 21 구술녹취록, 2013 I/41)

이런 냉소나 기피는 청년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과 모범을 강조해 온 국가의 말들에 대한 불신과 피로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실에서 당장 경제적 삶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제일 어렵고 힘든 부문에 가서 앞장서고, “보수도 바라지 말고” 발전소 건설장이나 시골에 많이 나가라는 국가의 말은 이들에게 설득력을 더 이상 갖지 못한다(사례 21). 이들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출세하거나 계층 상승의 가능성이 없는, 즉 소위 ‘발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사회에서 썩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한다.<sup>64</sup> 시장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기존의 폐쇄적인 계층 상승의 우회로로 이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sup>64</sup>. 입당, 뭐 글썄 어떻게 열심히 해서 입당까지 하더라도 그제 별로 자기 출세하는 데 도움이 안 돼. 그런 타산이 선 애들은 안 가요. 나 그냥 사회에서 썩을래. 그런데 자기 집안도 좋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군대 가기 좋아하죠. 개네들은 가야죠. 군대 갔다 와야만 출세할 수 있으니까. (사례 21 구술녹취록, 2013 I/42)

## 다. 학교 내 계층적 차이를 일상적으로 경험한 세대

이들 세대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학교로부터 요구받는 세외부담의 압박을 일상적으로 느끼며 학창시절을 보낸다는 점이다. 세외부담은 1990년대 이전 세대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요구가 점차 증가해 왔다. 2000년대 중후반 중학교를 다녔던 탈북자의 경우 ‘금외화별이’(사금채취), 꼬마자금, 토끼가죽, 장갑, 파철, 파지, 공병, 시멘트. 자갈부터 광산이나 학교 건축 지원 명목의 돈까지 연중 과제를 부여했다고 한다(사례 30). 여기에 계절마다 겨울 화목(선생님용, 교실용), 겨울 퇴비(인분) 등도 요구한다. 파철이나 인분 같이 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과제는 돈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안 형편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은 돈으로 내곤 한다. 이런 학생들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는 세외부담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 아버지 때는 학교에서 내라는 게 없었다는 거 같아요. 그런데 내라는 게 많아지고 가운데서 떼먹는 게 많아지니까. 말로는 나오는 게 가정부담 없애라고, 그냥 세부담 없애라고 나오는데. 세부담 아니다, 그런 식이에요. (사례 30 구술녹취록, 2013 I/16)

그런데 세외부담은 단순히 학교와 국가가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많아졌다는 차원보다는 이런 세외부담이 학교 내 빈부에 따른 계층화, 계급화 현상과 그대로 맞물려 있고, 이들 세대가 이것을 고스란히 경험하며 생활을 한다는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도 요구하는 것이 많아 살림이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 창피를 당할까봐 학교를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가령 학급 30명 중 열 명 정도가 세외

부담을 못내는 학생들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학습 의욕까지 위축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학급 내 세외부담에 따른 결석률은 북한 전체의 계층화 정도 또는 거주지역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이제 뭐 토끼가죽 이런 파지,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내고 학교 꾸리는 데 돈을 내야 되고, 이제 매일과 같이 여러 가지를 내는 거 있어요. 그런데 집이 어렵다보니까, 그런데 그게 없으면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우리 집은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 둘 밀리기 시작하면 친구들 보기도 좀 그렇고. 네, 그러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단지. 실력은 저도 북한에서 초등학교 때도 공부를 못한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자꾸 하다보니까 공부도 더 못하겠고, 학교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사례 39 구술녹취록, 2013 I/8)

이처럼 학교 또는 국가로부터 부과되는 과제를 내지 못해 결석하는 친구들부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학생까지 계층화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세외부담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망신 주기, 체벌, 단체 벌칙, 욕설 등은 계층적 좌절감을 주는 한편 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급 내 계층화를 보다 고착화하고 있다. 학교가 돈 없는 학생을 위축시키는 계층적 위화감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단체로 이렇게 벌을 주는. 그런 거 있으면 또 친구들끼리 압박을 주게 만드는데, 그전까지는 그냥 안 해 오면, 우리 학교계획을 못하면 선생님들도 욕을 먹는다고. 그래서 가끔씩 맞기도 했던 거 같아요. (사례 39 구술녹취록, 2013 I/8)

그러니까 한 사람-- 그 학습반씩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속한 반을 수업이 끝났는데 집에 안 보내고, 제재를 줘서 뭐 청소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만드는. (사례 39 구술녹취록, 2013 I/9)

I

II

III

IV

V

VI

VII

일일이 일으켜 세워요. 못낸 학생들 일어서라고. 그래가지고 일어서면... 또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해요. 공병 수집해가지고 공병을 바치는 데 있어요. 그러면 공병 하나가 10원인데 그런 거라도 해서 뭐 니가 할 수 있지 않냐. 왜 노력을 안 하나. 그러니까 되게 자력갱생, 뭐 주체사상 같은 거 많이 투입시키죠.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뭐,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학교에서 그런 걸 내라고 하면 참 따분할 때가 많아요. (사례 29 구술녹취록, 2013 I/14)

내라는 거 안 냈다 하면 어떤 때, 때릴 때도 가끔-- 한 번 맞은 생각 있어요. 그 세멘트 내라고 했는데 그때 안 내가지고, 아이들 앞에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좀 샘한테 매 맞은 거 같아요. (사례 30 구술녹취록, 2013 I/14)

한편 세외부담을 많이 거두는 것은 선생님의 능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결국 이들 세대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이런 계층적·계급적 위계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학교 내의 계층적·계급적 위화감과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세외부담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여 이들 세대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외부담과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통해 학교 내에서 드러나는 계층적 위계는 학교생활의 여타 부분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확장되어 나타난다. 그중 대표적으로 생활총화를 들 수 있다. 생활총화에서 동료 학생들로부터 호상비판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돈이 없어 세외부담을 못내거나 출석을 자주 못했던 친구들에게 집중된다. 사실상 경제적 수준, 계층적 위계가 공식적인 생활총화에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집안이 좀 못살고 돈도 없고 또 약한” 친구들이 주로 생활총화에서 비판의 표적이 된다(사례 36). 물론 다소 집안은 못 살아도 주먹이 세고 힘이 센 학생들은 이런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그냥 대부분은 진짜, 진짜 못한 애, 학교 계속 결석하고 공부 진짜 안 하고 장난 많이 치고 이런 애들 진짜로 비판해요. 남자들이 많이 하죠. 누가 봐도 못하고 하니깐 개는 뭐-- 그러다보니까 힘도 되게 없어요. 학교에서 좀 그런, 좀 그런 애니까. 뭐 자기가 받아도 이렇게 반항을 못하고 그냥 뭐 그렇게 하고,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비판을 받아도 이렇게 못하는 친구들한테.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31)

연구자: 그래도 또 주먹이 좀 세거나 아니면 조금 집안이 힘이 있거나 이런 애들 건드려서 이야기하기도 또 힘들고?

구술자: 그런 건 비판을 못하죠. 그런데 그런 건 또 비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비판한다는 게 이제 반별로 저 사람 때문에 제재를 받아서 뭐 학교 늦어갔고 청소를 했다 이러면 그 사람한테, 물질적인 게 없어서 못 낸 사람도 비판을 받는 거예요. 학교생활을 딱 못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이 어렵고 못 내는 사람은 그 하나로 인해서 비판도 받고 선생은 선생대로 이렇게 하고, 학생들한테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눈 밖에 나고. 그러다보니까 그냥. (사례 39 구술녹취록, 2013 I/13)

그러나 면접에 응한 구술자들은 심한 ‘왕따’는 없다고 얘기한다. “여기(한국)처럼 왕따시키고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안 어울리게 되고 그럴 뿐이지 그렇게 따로 그렇게 하는 그런 용어는 없다.”고 한다(사례 40). 물론 약하고 돈이 없는 학생들에 대한 배제를 민감하게 인권의 차원에서 문제화하는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소외로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형식적이예요. 네, 그거를 소학교 때부터 해오다 보니까 그게 뭐 와 닿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형식적으로. 그리고 네 사람 하지 않으면 안 끝나요, 그게.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막 읽고 들어오면 또 다음 사람 나가서 막 그냥 읽고만 오는 거 같아요. 진짜 자기 잘못을 반성해서 한 사람은 몇 명 없는 거 같아요.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33)

I

II

III

IV

V

VI

VII

또 한편 대체로 이들은 같은 동네 10~15분 거리 내에 함께 거주할 뿐만 아니라 소학교(인민학교) 때부터 거의 같은 학급에서 생활을 해 와서 각자의 생활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위가 용인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이런 형식성은 남자는 항상 남자를 비판하고 여자는 여자를 비판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결국 세외부담이나 생활총화와 같이 학교의 주요 생활에서 드러나는 계층적·계급적 위계질서는 대부분 경제적 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들 세대가 과거 세대와 달리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한 세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 라. 끼리끼리 문화와 경제적 위계 속에 놓인 세대

‘패’는 학급 또는 학교 내 학생들 사이에 형성되는 일종의 비공식적 관계문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육체적 힘, 성적, 집안, 성별 등의 우열과 구분, 배경을 통해 형성되는 그들만의 구별짓기(distinction) 또는 관계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패’문화는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과거부터 존재했던 문화이다. 1990년대 이전의 과거 세대에는 소위 주먹이 세거나 공부 잘하는 친구를 중심으로 패가 형성되었다.<sup>65</sup> 그러나 1990년대 이후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세대의 패 문화에는 개별 학생들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구별짓기와 위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면접에 응한 대부분의 1990년대 출생의 구술자들은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소위 잘 사는 애들은 잘 사는 애들끼리, 중산층 애들은 중산층 애들끼리 어울리거나 상호 위

<sup>65</sup> 1990년대까지의 학생 패문화에 대한 미시적 연구로는, 조정아, “북한 중등학교 규율과 ‘반학교문화,’” 『한국교육사학회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교육사학회회, 2004), pp. 121~146 참조.

계 속에 공존하고, 못사는 애들은 출석도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패를 형성하기조차 힘들다(사례 29). 집안이 가진 경제적 능력이 명확하게 학생들을 가르는 패의 경계선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느낀 바로는요, 일단은 좀 이렇게 그런 그룹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항상 멍쳐 다니는 그런 걸 보면 좀 잘 살고 돈 많은 끼리가 멍쳐 다니고, 중산층은 또 중산층끼리로 멍쳐다니는... 또 되게 못사는 애들은 그런데 못 끼고 그래서 그냥 돈이 중요 -- 지금 북한에서도 되게 돈이 중요..., 돈이 있으면 일단은 잘 입고 다니고 그런 걸 되게. 어린 나이에는 그게 되게 부러웠거든요. 뭘 입었다 하면 되게 가지고 싶고 입고 싶고 했는데, 그렇게 너무 돈이 많아야 될 거 같아요.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20)

일단 집안의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대개 그런 애들끼리 딱 멍쳐 항상 멍쳐 다녀가지고 그룹”을 형성한다(사례 40). 우선 돈이 있는 학생들은 대체로 풍족하게 돈을 쓸 수 있고 놀 수 있는 물질적 여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고 패에서 중심에 설 수 있다. 둘째, 집안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학급반장이나 초급단체위원 등 학생 간부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교 측이 잘 사는 학생의 부모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물질적 지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간부 임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사례 40). 보통 학생 간부는 학급이나 학교 내에서 선생님 다음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패짓기의 중심에 서는 데 유리하다. 셋째, 이렇게 경제적 능력이 있는 집안의 학생들은 그 씽씽이와 향유하는 소비문화의 동질성 때문에 상호 소통이 되고 끼리끼리 어울리기 쉽다는 점이다.

이렇게 경제적 능력을 갖춘 학생들은 과거 학교문화에서 주먹(힘)이나 성적을 통해 형성되던 위계를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한다. 가령 경

I
II
III
IV
V
VI
VII

제적 자신감으로 인해 그들 자체가 주먹이 세고 공부를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먹이 센 친구들이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함께 패를 이뤄 학생들 사이에 형성되는 위계의 상층에 서는 방식이다. 주먹이 세거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패 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들의 패 속에 주먹이 세거나 공부 잘하는 학생을 함께 끼워주는 방식이다. 이들 주먹이 세거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돈이 많은 학생들의 보호막 역할이나 학습을 도와주는 형태로 상호 공생한다고 볼 수 있다.

주먹이 있고 줌, 주먹이 세잖아요. 그런 사람 애들 보면 집이 다 잘 살아요. 그리고 막 주먹이 좀 센데, 경제가 좀 안 따라주면 그러면 주먹이 세지 못한 애인데 경제가 좋은 애랑 이렇게 붙어요. (사례 18 구술녹취록, 2013 I/32)

반면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출석을 자주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대체로 학습의 수준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성적도 좋지 못할 수밖에 없고 다른 학급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유한 학생들이 못 사는 학생들을 구분짓고 경계하는 태도가 이들을 더욱 고립시키는 측면도 있다. 경제적으로 못사는 것을 학급 내에서 부정적으로 대상화하는 경우이다. 한 부유한 집안 출신 구술자의 경우 못사는 학생들에 대해 자신이 가졌던 분명한 경계 의식을 말해주기도 한다.

그냥-- 그 별로 사귀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그냥 재는 그냥 아빠 엄마가 로동자라든가, 아빠 엄마가 못사는 집 애잖아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학교도 딱 가면 잘 사는 애랑 못사는 애들 패가 짝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잘 사는 애들은 또 잘 사는 애들끼리 놀고, 못사는 애들은 이렇게 패가 갈라져가지고. (사례 18 구술 녹취록, 2013 I/32)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보면 제일 못살거나 제일 잘 사는 애들이 좀 못해… 안 해요. 못하는 애들은 그냥 가정형편 때문에 항상 빠지고 수업에 빠지고 일하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를 그냥 안 하더라고요.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20)

이런 ‘꽤’는 주로 소년단을 벗어나는 중학교 4학년을 기점으로 형성된다고 한다. “예전에는 돈, 돈 개념이 별로 없었던 거”(사례 40)에 비하면 학생들 사이의 위계와 관계문화가 경제적 능력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는 측면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면접에 응한 1990년대생 구술자들은 학교라는 장(場), 학생들의 관계문화에서 중요한 자본(자원)을 돈, 공부, 주먹, 외모의 순으로 꼽았다. 물론 순서가 고정된 것은 아니고 구술자들의 성장환경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돈(경제자본)이 이들 세대의 관계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온전히 경제자본만이 관계문화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관료적 지위에 해당하는 ‘정치자본’이 여전히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부모님의 관료적 지위가 높을수록 경제적 자본의 획득이나 접근성이 높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 사회에서는 관료적 지위와 경제자본의 결합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sup>66</sup> 소위 ‘돈주’들은 정치자본과의 공생 및 협력 속에서 경제자본을 축적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정치자본의 직접적 소유나 간접적 활용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 북한에서 경제자본이 학교라는 관계문화의 장에서 중

<sup>66</sup> 북한의 시장화 이후 다양한 관계자본(정치자본,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상징자본)의 교환 양상에 대한 연구로는, 홍민, “북한의 ‘관계자본’ 교환구조와 시장교환의 전유,” 『현대북한연구』, 9권 3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2006), pp. 57~72 참조.

I
II
III
IV
V
VI
VII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집안이 부유하거나 관료적 지위를 가진 학생들은 그런 자원과 배경에 기초하여 친구관계(사회적 자본)를 확장하는 능력을 다른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돈 있는 애들은 보통 애들과 다 친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도 있는데다 주먹까지 세다고 하면 진짜 센” 학생이 되는 것이다(사례 36).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돈이 있는 학생들이 학급의 간부직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보통 학급반장과 같은 간부직은 당연히 잘 살고 힘이 센 아이가 되는 것으로 여겼다. 이런 이유로 학급반장은 학급 내에서 소왕(小王)처럼 학생들에게 명령하듯 군림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학교 전체에서 몇 안 되는 청년동맹 간부들의 위세는 더욱 대단하다.

잘 사는 애들은 학급반장이랑 시키고 그런데 못사는 애들은, 못 살고 좀 약하면 그런 거 못 시키죠. 틀어줘어야 되니까. 북한에서 학급반장이면 학급에서 진짜 세요. 그냥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사례 36 구술녹취록, 2013 I/44)

한편 경제자본(돈)은 학습이나 성적, 외모 가꾸기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경제적 여유가 많을수록 외모에 신경 쓸 수 있고 유행을 따라가거나 주도할 수 있는 소비능력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여유에 기초해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적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외모나 공부는 모두 문화자본으로 볼 수 있는데 경제자본과 밀접하게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외모 중요해요. 외모에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되게 모두 신경을 많이 써요. 남자고 여자고 외모가 중요한 거 같아요. 이쁜 애들이 항상 잘 나가고--. 돈, 외모, 공부. 돈이 있으면요 되게 못생겼는데도 잘 입혀놓고 잘 꾸미면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못생겼는데 너무 잘 입고 그렇게 탁 튀면 이뻐 보여서 그런 거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이쁜 애. 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그렇게 인기 있고 그렇진 않아요. (사례 40 구술 녹취록, 2013 I/21-22)

이렇다 보니 이들 세대에게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 역시 일종의 ‘조건’의 차원에서 사고된다. 소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집안의 사람인가가 이성 친구관계를 설정하는 데서 중요해진 것이다. 여기에서 과거 세대와의 일정한 차이가 발견된다. 과거 부모님 세대들이 입당이나 개인적 능력을 우선적으로 따지는 방식이라면, 요즘 세대들은 분명하게 경제적 능력이나 외모를 우선적으로 따진다는 점이다.

조건을 되게 따지는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세대는, 지금 우리 세대 있잖아요. 북한의 우리 세대는 일단 돈이 많아야 돼요, 경제적으로. 그거 되게 막 늙은이들은 자기 딸 결혼한다면 남자가 입당했냐, 뭐 그 다음 이제 앞으로 결혼생활에서 이 가정을 운영할 수 있냐 막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인물은 못생겨도 괜찮아요. 그 늙은 부모들한테는. 우리 같은 거는 일단 잘생겨야 되고, 잘생기지 않으면 경제라도 많든가 막 그런 걸 되게 따졌어요. (사례 18 구술녹취록, 2013 I/21)

연구자: 여자친구는 뭐가 이렇게 좋았어요, 이렇게?

구술자: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아빠가 좀, 조금 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당에서 이런 반장 같은 거 했어요. 반장이면 보통 눈 가지고 있는 게 한 열세 정보씩.

연구자: 작업반장?

구술자: 네, 그렇게 가지고 있고. 분조장도 한 여섯 명씩 가지고 있으니까 좀 세요. 집안도 잘 살고.

I
II
III
IV
V
VI
VII

연구자: 그런데 그게, 여자친구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구술자: 아니 그게 아니죠. 여자친구 보면 좀 이쁘고 키도 크고  
 연구자: 아니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좋았냐고 물어보니까 작업  
 반장부터 애길하니까 이상해서 그런 거지. 여자친구가  
 그래도 집안이 좀 있다, 집안이 좀 능력 있다라는 게 약  
 간 중요한가 보네, 그래도?  
 구술자: 네, 중요하죠. 그게.  
 연구자: 너무 예를 들면 여자 자체만 보는 것보다는 집안 능력도  
 보고 하면은 더 좋은가 보구나 그게.  
 구술자: 네, 그냥 끝까지 갈 거면 집안도 보고, 그냥 조금 사귀다  
 가 그냥 끝내면 그냥 집안-. (사례 36 구술녹취록,  
 2013 I/52-53)

## 2. 사물의 경험과 문화 정체성 형성

### 가. 사물의 위험성과 청소년 오염에 대한 국가담론

국가는 전통적인 분류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것과 상징적인 경계선을 침범하거나 넘어서는 것들을 오염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무엇이 국가에 의해 더럽거나 또는 순수한 것으로 규정되는가는 이 사회가 어떠한 질서와 분류체계에 기초해 있는가를 보는 것과 같다. 독재적이고 강한 질서를 원하는 사회일수록 오염에 관한 담론을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다.<sup>67</sup> 특히 청소년들은 그런 오염에 취약하고 불안정한 존재로 가장 쉽게 지목된다. 북한에서 청소년은 국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외부의 사조와 문화에 쉽게 동화되고 몰들 수 있는 불안정한 대상이다.

1990년대 이후 불법 녹화물과 CD 등을 통한 자본주의 문화 유입을

<sup>67</sup> 메리 더글라스 지음, 유제분·이훈상 옮김, 『순수와 위험』 (서울: 현대미학사, 1997), pp. 286~289.

심각하게 우려하는 북한 당국의 목소리는 내부문건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의 외부문화 유입에 대한 우려는 그만큼 이들 사물이 갖는 위험성과 실태의 심각성을 북한 당국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북한 주민들을 비롯해 청소년들 사이에 녹화물과 CD를 통한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68</sup>

국경연선지대의 청소년들 속에 이색적이며 퇴폐적인 자본주의 사상과 생활풍조를 불어넣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최근 적들은 청소년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이색적인 CD녹화물을 우리 내부에 들여보내고 있다. 혜산시에서는 지난 8월 한달 동안에만 해도 이색적이며 퇴폐적인 CD판을 수 천 개나 회수하였다. (...) 학교와 직장에는 나가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일하기 싫어하고 공짜를 좋아하는 일부 청소년들 속에서는 끼리끼리 모여 다니며 이색적인 녹화물을 보거나 밀수행위로 이색적이며 퇴폐적인 CD녹화물과 종교선전물을 끌어들이어 류포시키고 있는 현상들도 있다.<sup>69</sup>

북한 내부문건의 내용들은 매우 세부적으로 북한 청소년들의 외부문화 수용 실태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우선 외국출장자와 여행자들을 통해 들어온 녹화 및 녹음테이프를 가족 및 친척, 가까운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돌려 보고 들으며 심지어는 돈벌이 수단으로 판매하고 있고, 그것이 시장과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내용 중에는 이런 현상이 예전에는 몰래 숨어서 하는 행동이었다면 지금은 공공연하게 아는 사람들끼리 집단적으로 모여 시청하는 상황까

<sup>68</sup> 이와 관련한 실태에 대한 연구로는, 이호규·곽정래, 『북한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미디어』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pp. 98~102.

<sup>69</sup> “(대내에 한함) 국경연선주민정치사업자료 - 국경연선지대의 청소년들을 견결한 수 령결사용위투사로 키우자,” 주체9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3), p. 2.

I
II
III
IV
V
VI
VII

지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물들의 유통·확산은 다양한 인적·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런 사물들을 접촉하거나 매개하는 사람들 사이의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낸다.

일부 일꾼들은 반동적이며 색정적인 록화물과 출판물을 비롯한 자본주의선전물을 가지고 못된 장난질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선전물은 그 어느 것이나 부르조아사상과 생활양식을 퍼뜨리는 마약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갔다가 이따위 너절한 선전물을 주어 모아서는 그것을 몰래 감추어 가지고 들여오고 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구역안의 외국출장자들과 려행자세대들을 검열하였는데 미국영화와 추잡한 화면들을 록화한 테이프, 이색적인 록음테이프와 사진첩, 화보, 소설책, 성격책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적지 않았다. 알아본데 의하면 이 시대들에서는 집안 식구들이 심심풀이 삼아 때 없이 보고 듣고 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제각기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돌리기까지 하면서 류포시켰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색적인 록화테이프를 혼자 보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복사해서 외화나 물건을 받고 팔거나 빌려 주는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출처가 없는 노래들이 들어 있는 록음카세트와 이색적인 록화물이 농민시장과 수매상점에까지 나돌고 있다. 그리고 지난 시기에는 사람들이 록화기를 놓고 미국영화나 일본영화 같은 것을 볼 때에는 남 몰래 숨어서 보다 싶이 했다면 지금은 내놓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씩 한데 모여서 보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어느 도의 전신전화국 일부 일꾼들은 지난 2월 음력 설날인데 록화물이나 보자고 하면서 2편의 불순한 일본영화를 본 것을 비롯해서 올해에 들어 와서만도 5차례나 집단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 이런 현상들은 일부 중앙기관 일꾼들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병균에 감염되었는가.<sup>70</sup>

---

<sup>70</sup> 조선로동당출판사, “(당안에 한함) 간부학습제강 - 자본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릴데 대하여,” 주체9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2), pp. 6~7.

다음으로 일부 청년들 속에서 이색적인 록화물, 출판선전물들을 몰래 보거나 류포시키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색적인 록화물, 출판선전물들을 몰래 보거나 류포시키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적들과 손을 잡고 그것을 도와 주는 행동이며 일단 유사시에는 총부리를 돌려 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역적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마땅히 인간쓰레기로서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준비되지 못한 청년들 속에서는 <설마 내가 계급적 근본이야 잊겠는가>고 하면서 승인되지 않은 록화물, 출판선전물들을 보는 현상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지어 일부 청년들을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비밀>을 지켜 가면서까지 록화물들을 계속 돌려 보고 있다. 어떤 청년들은 보지 않게 되어 있는 록화물 영화들과 도서들을 대대적으로 복사하여 가지고 그것을 돈벌이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sup>71</sup>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 - 사물의 유통 - 에 대해 북한 당국은 ‘병균’, ‘감염’, ‘독약’이라는 표현 등으로 ‘위험’을 매우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사물의 접촉이 청소년들에게 “유사시에는 총부리를 돌려 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역적 행위”라고까지 보고 사물을 통한 사상적 변화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정 개인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물의 유통을 통해 주민 전반이 ‘감염’되어 결국 체제를 위협하는 ‘독약’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언설은 결국 통제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된다. ‘독약’=‘사망’, ‘감염’=‘치료 또는 살균’ 등으로 등치될 수 있는데, 자본주의 문화를 접하고 유통시키는 이들은 ‘치료’해야 하고 감염을 차단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1990년대 이후 청소년들이 접하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물들이 과연 체제 전복적 의미를 담은 사물로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71. 금성청년출판사, “(대내에 한함)(강연제강-근로청년용) 자본주의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쓸어 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자,”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002), pp. 11~12.

I
II
III
IV
V
VI
VII

## 나. 사물을 통한 새로운 세대의 행위성 변화

이동하는 사물들(상품, 인공물, 서비스, 기호, 이미지 등)에는 인간적·사회적 맥락들이 반영되고 응축되어 있기 마련이다. 가령 동유럽에서 구매자, 관광객, 여행자, 암상인, 밀수업자 등의 흐름이 특정한 소비 대상이나 운송 양식과 결합되면서 엄격히 구획되고 격자화된 사회를 이완시키고 무너뜨렸다.<sup>72</sup> 국가는 상품, 서비스, 기호, 이미지, 사람들의 흐름을 통제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갖지만 그것을 온전히 막을 수 없었다. 이동하는 사물들은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행위성을 갖는다.

우선 사물은 단순히 고정된 속성을 갖는 물질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사물은 네트워크의 연쇄를 만들어낸다. 사물은 제작 때부터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담는다. 만들어진 이후, 여러 사람의 손과 운송수단을 거쳐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사물은 사람들의 행동, 정서, 의식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사람들이 사물들을 통해 새로운 행위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한국드라마나 외국 영화가 담긴 CD를 통해 사람들은 다른 세계의 생활모습을 보게 되고, 친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다른 세계를 동경하고, 그들의 생활과 언어를 모방하는 등 일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러 사물들을 통해 ‘세련됨’에 대한 미적 감각, 물질적 풍요에 대한 욕망, 정서적 공감 등을 갖기도 한다. 또한 이들 사물들의 유통 자체는 광범위한 비공식 시장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화폐와 사람들을 결합시키기도 한다.

둘째, 이동하는 사물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상되는

---

<sup>72</sup> 존 어리 지음, 윤여일 옮김,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 이동과 하이브리드로 사유하는 열린 사회학』 (서울: 휴머니스트, 2012), p. 114.

지도 중요하다. 사물들에는 다양한 사회의 문화와 정보가 담겨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물들을 통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속에는 지역적, 국가적, 초국가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지게 된다. 따라서 어떤 사물을 소비 - 보고, 만지고, 느끼고 - 한다는 것은 다른 장소나 문화도 소비하는 셈이 된다. CD에 담겨지는 영상과 스토리 속에는 여러 사회의 문화와 정보가 담겨 있기 마련이고, 이것을 시각적으로 소비할 때 문화와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 된다. 북한에서 외부의 사물들은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담고 은밀하게 돌아다니고 있으며, 북한의 청소년들은 이것을 통해 새로운 상품, 이미지, 상상력, 욕망을 시각적으로 소비, 모방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사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단과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는 북한의 경우, 이런 사물들은 새로운 욕구와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이런 점에서 사물은 단지 사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나들며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를 변화시키는 행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CD를 보거나 가진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행위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셋째, 사물은 새로운 감각, 감정, 정서를 낳고 발달시킨다. 그러한 감각, 감정, 정서들은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사고방식이 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직접 실천되기도 한다. 북한 청소년들이 한국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듣는 것은 기존에 발달되지 않았던 감각, 감정, 정서를 낳고 발달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런 감각들은 세계 인식의 변화, 보다 미세한 감정 발달, 자아에 풍부한 색채감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새롭게 습득한 감각, 감정, 정서는 다양한 복수의 자아를 발달시키고,<sup>73</sup> 국가가 요구하는 당성·혁명성과 같은 빈틈없는 사상적 숭고함이나 완결성과는 다른 질감의 정

I
II
III
IV
V
VI
VII

서 세계를 경험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새로운 감각, 감정, 정서 등이 곧바로 당성·혁명성과 같은 사상에 대한 균열이나 불신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이들 생활에서 공존할 수 있게 하는 다중적 사고체계를 발달시키거나 관점전환<sup>74</sup>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외부문화를 담고 있는 영상매체와 같은 사물들은 보다 내밀한 개인화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다. 영화나 드라마는 사물일 뿐 아니라 미디어이자, 문화라는 삼중의 기능을 갖고 있다. 가령 한국드라마 시청을 통해 북한의 청소년들은 그들 일상에서는 체험할 수 없고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내러티브를 소비한다. 그것은 삶의 패턴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한국드라마는 문화적 경험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경험인 것이다. 집 안과 일상으로 가져온 외부 세계(드라마의 세계)는 직접 접할 수 없지만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게 한다.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을 하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나누는 것은 담론을 개인화하는 동시에 공적인 무대 뒤의 비공식 이야기를 향유하도록 부추긴다.

#### 다. 사물을 통한 계층적·계급적 정체성의 확인과 자아의 구성

북한의 청소년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문화를 단지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재전유한다. 비공식적인 영상매체를 통해 보여지는 이야기, 등장인물의 외모나 옷차림 등을 감각적으로

---

73. 크리스 바커·다리우시 갈라신스키 지음, 백선기 옮김, 『문화연구와 담론분석: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담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pp. 153~154.

74. 한국영화나 드라마 시청을 통한 관점전환에 대해서는, 조정아, “자아와 내면세계,”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p. 69~73.

모방하고 재현하는 것을 통해 자기화한다. 이런 모방과 재현, 또는 사물의 소유를 통해 유행을 만들어 가기도 한다.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MP3, 휴대폰, 청바지 등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착용, 소비하면서 국가가 요구하는 정형화된 정체성 이외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고 이를 교묘하게 공존시키는 법을 배운다.

이들 세대는 청바지, 휴대폰, MP3 등의 소유와 소비를 통해 이전 세대와는 다른 세대 집단의 특성을 보여준다. MP3를 통해 듣는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노래, 휴대폰을 통한 정보와 의견 교환, 청바지 등과 같은 특정한 옷차림 등으로 자신들을 표현하고 또래의 문화를 공유한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런 모방과 재현은 이것을 소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거나 정치적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특정 계층의 청소년들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누구나 이러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경제적·정치적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런 유행을 선도하는 그룹을 나머지 청소년들은 다시 모방을 해 나간다. 따라서 이들에게 유행이란 계층적 위계에 따른 모방의 연쇄라고 할 수 있다. 유행은 상위 계층 청소년들의 중하위 계층 청소년들에 대한 상대적 구별짓기, 중하위 계층 청소년들의 모방과 확산이라는 사이클을 갖는 것이다. 지금 북한의 청소년 사이에서는 이런 문화적 취향과 모방 및 재현을 통한 계층적·계급적 구별짓기<sup>75</sup>가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좀 그러니까 중국에서 많이 옷이랑 들어오거든요. 그런 애들을 보면 항상 그런 멋있는 그런 유행이 있는데, 그게 이게 뭐 한 애가 입었다고 하면 북한에서는 그걸 다 따라 입어요. 여기서만 안

<sup>75</sup> 취향의 계급적 지표로서의 기능에 대해서는, 삐에르 부르디외 지음,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서울: 새물결, 1995), pp. 21~29 참조.

입더라고요. 똑같은 걸 별로 잘 안 입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똑같은 걸 다 입어요. 어느새 보면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애가 엄청 많고. 그런데 그걸 제일 처음에 입는 애가 제일 이렇게 그런 애고 그리고 한 중산층 경우에는 그런 걸 어느 정도 입어서 가격이 싸지면 입고, 그리고 못사는 애들은 그걸 이제는 유행이 거의 지나갈 때쯤 하나 이렇게 입어요. 그렇게 순위가 나뉘는 거 같아요.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23)

이런 측면에서 유행은 단지 외부세계의 사물이나 정보 습득을 통해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다른 것을’ 입거나 소유하느냐와 같은 유행의 주도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차별화될 수 있는가 하는 구별짓기, 또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것에 얼마나 빨리 동참할 수 있는가 등을 통해서 보다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청소년들 사이의 ‘유행’의 코드는 단순히 외부문화의 유입이라는 차원보다 더 복잡한 사회적 메커니즘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유행은 단순히 외부에서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면 유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소유하거나 착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것은 유행의 주도성이 단순히 어떤 새로운 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통해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유행이 단순히 사물에 대한 모방이나 소유가 아니라 계층·계급의 모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잘 살고 힘 있는 친구들이 입고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은 유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유행은 상위계층 학생들 사이의 경쟁과 차별화 전략 속에서 주도된다. 나머지 학생들은 그것을 모방하고 재현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다.

저는 자주 갔어요. 되게 학교에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가 무슨 어저께,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죠, 한 마디로 말하면. 어

면 애가 무슨 누가 입은 바지를 입었다 하면 애들이 “야, 오늘 오후에 저거 사자.” 이렇게 하면 다 나가서 그 바지를 다 입어요. 누가 그 바지를 입었다 하면 다 가서 그 바지 입고 막 이렇게, 좀 경쟁이 심한 거 같아요. 그리고 재가 저런 옷 입으면 나는 좀 재보다 특별한 옷을 입어야겠다, 막 이런 경쟁, 그런 게 많은 거 같아요. (사례 18 구술녹취록, 2013 I/33-34)

저희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머리핀 하나라도 다,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되게 민감했던 거 같아요. 요만한 머리핀도 그것도 재가 끼면 아, 갖고 싶다. 막 이런 게 항상 충동이 되고--.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24)

유행은 이들 세대들이 모방과 재현을 통해 공유하는 문화이다 보니, 결국 하나가 유행하면 나중에는 모두가 똑같아진다. 유행을 주도하는 학생들은 중국을 통해 보다 빨리 새로운 것을 접하고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학생들은 유행의 선도를 통해 자신과 다른 학생들을 구별 짓고 차별화하는데, 이것은 계층적·계급적 위치를 직간접적으로 과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계층적·계급적 ‘특별함’을 과시하는 것은 특별한 물건을 선별하는 감각과 이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전시(display)하는 것이다. 이들이 갖는 ‘특별함’의 감각과 차별화 전략은 이전 세대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학생들은 유행을 모방하고 재현하는 것을 통해 유행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 동참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이 가진 계층적·계급적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받게 된다. 이런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소유한 사물을 통해 계급적으로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딱 차림새하고 몸하고 이렇게 보면 재는 좀 집안이 잘 사는구나, 재는 못사는구나 이게 터나는” 것이다(사례 39).

I
II
III
IV
V
VI
VII

외모를 통해 상대를 계급적으로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곧 이들이 상대를 계급적으로 타자화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와, 재는 돈 있네.” 북한은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다양한 게 없어요. 그냥 딱 정해졌어요. 아 재는 저 신발 신으면 아 저건, 잘 사는 사람들은 저 신발 얼마짜리구나, 딱 알거든요. 막 그런 거 딱 보면 “아, 재는 돈 있는 집.” 그리고 스마트폰도 케이스가 따라 나와요. 여자들 막 메고 다니는 이쁜 케이스랑 있고 그렇거든요. 남자들은 막 여기 현대에다 막 차고 다니고 막 이래요. 벨트 여기에다 차고 다니고, 그러니까 다 티 나죠, 있는 게. 되게 웃겨요. (사례 18 구술녹취록, 2013 I/23)

유행을 과감하게 선도하는 청소년들은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집안의 정치적 위상도 함께 과시한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문화나 사물에 대한 단속이 있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옷을 입고 사물을 착용하고 외모를 꾸미는 일은 여간해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청바지를 입고 MP3를 귀에 꽂고 다닐 수 있는 것은 단속을 받더라도 단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부모의 정치적 지위나 사회적 네트워크의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단속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행을 주도할 수 있는 ‘담력’은 개인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이 소유한 자본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가령 위에서처럼 휴대폰을 ‘티’나게 들고 다니는 것은 휴대폰을 가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 엄격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또래집단을 형성하고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새롭게 들어오는 사물과 유행 정보의 공유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뒤떨어진 사람이 되지 않고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음악이나 영화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매체(USB)나 MP3가 필수품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저장매체가 갖는 매력은 휴대가 가능하다는 점과 어느 장소에서나 다른 친구들에게 과시할 수 있다는 점이기도 하다. 또한 이런 휴대가 편리한 저장매체를 통해 은밀한 장소에 친구들과 모여 함께 언제든 시각적·청각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사물이 또래관계를 매개하고 의사소통을 만들어내고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새로운 세대는 이런 사물을 통한 세대 공감과 문화 공유에 익숙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막 애들이 그 또 이렇게 우리 애들은 막 “야, 이 노래 되게 좋지.” 이러면 그 뭐야 그 USB 꽂고서리 다 이렇게 막, 그 친구들 끼리 돌면서 “야, 이 노래 좋대.” 막 집 전화 다 있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손전화 나오기 전에 집 전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집 전화로 “야 그 노래 좋대. 야 빨리 오라. 우리 집에 무슨 영화 한다.” 이러면 또 가서 보고 막, 그 노래 다운받고 막-- (사례 18 구술녹취록, 2013 I/28)

또한 북한 노래보다 외국 노래가 더 멋있고 자신들의 취향에 맞다고 생각하는 이들 세대에게 MP3에 대한 욕망은 단지 사물에 대한 소유 욕망일 뿐만 아니라 MP3를 통해 듣는 한국 노래 등과 같은 외부문화가 갖는 정서에 대한 취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MP3는 듣는 방식에서 개별적으로 혼자 이어폰을 꼽고 듣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우 ‘개인적’인 공간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MP3의 소유와 사용은 자신의 취향을 개별화하고 공간을 개인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나의 것이라는 소유의식, 집단적으로 듣는 것이 아닌 나만 듣는 청취행위라는 점, 취향에 맞는 음악 등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는 것 등은 개인적 소유와

I
II
III
IV
V
VI
VII

취향, 자율적 의지를 만들어내면서 ‘나’라는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MP3 있어요. 나오는데,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되게 부러워 --. 오빠한테도 있었는데 오빠는 항상 평양 가져가다 보니까 내가 가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노래 항상 잡아서 듣고 다녔어요. 그래서 단속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거 듣는 것도 단속하고, 아니면 진짜 북한노래만 그렇게 넣어서 듣는 거는 괜찮은데.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24)

## 라.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와 상상으로서의 사물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사물들은 특정 물건에 대한 소유 욕망이나 유행 차원을 넘어 외부 세계에 대한 상상과 동경을 불러일으킨다. MP3, 자전거, 청바지 등은 대부분 ‘일본산’, ‘중국산’, ‘한국산’이라는 생산지가 함께 붙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를 생산한 국가, 외부 세계에 대한 상상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사물을 통해 외부세계로의 상상적 경계 넘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물은 단순히 도구적이거나 소모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공간에 대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의 현실과 비교를 하게 만든다. 또한 MP3, 청바지, 악세사리, 핸드폰, 자전거 등 새로운 세대들이 소유하길 원하는 사물들은 그 사물 자체가 발산하는 정서를 또한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한다. 이들 사물들에 대한 사용 행위, 즉 듣고 입고 착용하는 행위는 기존 세대들이 하지 않았던 동작, 제스처, 움직임 등을 요구하고 이런 행위 속에서 새로운 정서들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 스타일, 세련된 행동, 세련된 외모가 무엇인가를 감각적으로 터득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되게 큰 나라고 잘 사는 나라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모든, 모든 물품이 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런 중고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들어와요. 시장에 가면 항상 중국 그런 중고만 파는 시장이 있거든요. 옷이랑 보면 되게 특이한 옷이 되게 많아요. 아, 저런 거 입을려면 여기서는 못 입으니까 중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희도 중국 친척이 한 번 나온 적 있었는데 막 짐이랑 이렇게 많이 가져오고 그런 거 보고, 음식이랑 아예 완전 전혀 못 먹어본 그런 걸 접하다보니까 그때마다 그냥 가고 싶단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52)

그 한국글자를 새긴 옷이라면 다 좋아했어요. 질도 좋고 그냥 우리나라 글만 쓴 옷이면 다 좋아했거든요. 한국 바지는 또 질도 좋아요. 기본 탄력 같은 거, 그냥 일자 몸에 붙는 거 좋아하거든요. 나팔도 좋아하고 일자도 좋아하고. 그런데 한 해 한 해 달라져요. 뭐 전 해는 나팔이 추세였는데, 지금은 또 일자가 추세라고 그렇게 네. 유행 따라. 화장품도 뭐 한국화장품. 그냥 우리 친구들 보면 그냥 한국 옷, 한국화장품을 진짜 고가로 고급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못하게 그거 단속하고. 그리고 일단은 MP3. 애들이 MP3 갖고 다니면서 한국노래를 듣지 못하게. 그리고 한국노래를 못 부르게. 그리고 한국머리스타일을 하지 않게. 네 여자들도 이렇게 거지머리라고 있어요. 이렇게 치는 머리. 그런 머리는 하지 못하게 하고. (사례 33 구술녹취록, 2013 I/9)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물은 북한의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물은 이들 사이의 유행 코드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유행의 주도과 모방·재현은 계층적·계급적 위계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물의 소유와 소비가 곧 자신이 속한 계층적·계급적 위상을 확인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들은 유행코드를 통해 계층적·계급적 위상을 과시하는 한편, 다른 계층과의 구별짓기와 차별화를 또한 수행한다. 새로운 세대들은 바로 사물을 통해 자신의

---

I

---

II

---

III

---

IV

---

V

---

VI

---

VII

계층적·계급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한편,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계급적으로 간파하는 능력을 지니게 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다양한 사물들을 통해 포래문화를 만들고 공유하기도 하고 외부세계를 상상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3. 장소적 경험과 공간적 정체성 형성

#### 가. 새 세대의 장소화된 정체성

장소(place)는 특정한 사람과 용도에 맞게 장소를 분류하도록 관념화된 문화적·지리적 규율에 따라 질서화/경계화된다.<sup>76</sup> 장소를 경험한다는 것은 장소가 주는 규율에 따른 질서화/경계화를 육체에 각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 문화는 전통적인 질서/경계 짓기 메커니즘에 순응하거나 저항하는 것이며, 장소로서 질서/경계를 넘나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가령 청소년은 그들에게 알맞게 질서화/경계화된 가정이나 학교 혹은 지정된 놀이 공간에서 부모나 선생님, 감시자의 보살핌 속에서 활동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청소년들은 이런 주류의 장소에서 적절하게 통제된다. 한편 그들은 자신의 장소를 스스로 창조하여 점유하기도 한다. 일종의 문화적·지리적 ‘회색지대(grey area)’를 만들어낸다.<sup>77</sup> 주류의 장소가 아닌 주변부 장소는 질서/경계 짓기가 불명확하게 이루어져 있는 곳이다. 청소년들은 경계부의 위치를 자신들만의 방식

---

<sup>76</sup> 존 앤더슨 지음, 이영민 외 옮김, 『문화·장소·흔적: 문화지리로 세상 읽기』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3), p. 213.

<sup>77</sup> 위의 책, p. 216.

으로 즐길 뿐만 아니라 어른의 장소를 점유하고 전용하려고 시도하거나 주류 사회의 질서/경계를 시험해 보기도 한다. 가령 북한에서 시장 (market place)은 어른들에게는 생존과 경제의 공간이지만, 청소년들에게 시장은 친구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또래문화의 공간이자 소비의 장소가 된다.

장소를 통해 새로운 세대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소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권력이 생성되고 재생산되는 장소다. 어떤 장소를 규정하는 질서/경계는 권력관계의 반영이자 산물이다. 가령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권력관계는 교단이라는 문턱의 경계를 통해 작동한다. 교단이라는 경계는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권력관계를 규정하고 학교라는 공간의 권력관계를 재생산한다. 다른 하나는 개인들이 주관적 경험 차원에서 의미화되는 장소이다. 가령 광화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인식되는 역사적인 장소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연인과 이별했던 고유한 기억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주관적 경험의 차원에서 의미화된 장소인 것이다. 따라서 장소는 공간을 규정하려는 권력의 차원과 공간을 개인화하는 주관적 의미의 차원, 이 두 차원의 교차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장소는 권력관계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공간적이면서 사회적인 것이다. 이런 경계들은 누가 어떤 공간에 속하는지, 누가 제외되어도 괜찮은지 등을 정해준다.<sup>78</sup> 사회라는 공간, 국가라는 영토적 공간은 이런 물리적 경계의 연속과 중첩을 통해 구성된다. 또한 개인들을 이런 경계들에 속박시키는 것을 통해 통치는 수행된다. 특히 사회주의체제는 이런 경계들을 통해 국가의 통제와 감시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골

<sup>78</sup> 린다 맥도웰 지음, 여성과 공간연구회 옮김,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p. 25.

I
II
III
IV
V
VI
VII

적으로 물리적·제도적 장치를 구현해 온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전에 북한에서 대부분의 공간들은 개인들의 실명성에 기초하고 있었다. 거리를 제외한다면 국가기관, 학교, 작업장 등 개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들은 실명화된 개인들을 조직화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익명화된 개인들의 장소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북한의 새로운 세대들은 바로 이런 ‘비-장소(non-place)’를 경험하는 세대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비-장소’의 개념을 통해 새로운 세대가 갖는 정체성의 한 단면을 엿볼 필요가 있다.

‘비-장소’란 거래와 상호작용이 익명의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장소들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개인에게 부여되는 공적인 정체성은 제거된다.<sup>79</sup> 공항이나 시장, 공원, 거리, 강변, 산 등과 같은 장소에 있는 개인들은 익명의 개인들로 존재하게 되며, 숫자나 통계, 익명화된 흐름으로서만 직원이나 상인 또는 기술적인 사물들과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개인의 사회적인 속성과 어떤 사회적 집단에 속해 있는지는 별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통제와 해방이라는 역설적인 공간이 펼쳐진다. 일시적으로 또는 몇 시간 동안 개인적인 관계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실명화되고 통제된 조직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의 세계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진동이 계속된다.

북한의 새로운 세대들은 이런 비장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경험하는 세대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공식적인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이들은 공적인 운동장이나 공원보다는 시장, 역 광장, 사적인 공터나 다리 밑, 산기슭이나 강변, 후미진 곳 등을 찾아 끼리끼리 모이기도 하

---

<sup>79</sup> 프랑스 인류학자 마르크 오제(Marc Augé)가 개념화한 비장소의 개념에 대해서는, Marc Augé, *Non-Places* (London: Verso, 1995) 참조.

고, 접경지대에 사는 경우 국경 등을 호기심으로 며칠 간 넘나들며 외부세계를 보고 오는 등 비장소를 일상적으로 만들어내고 경험한다. 이런 현상들은 하위주체들의 공적 대항공간(subaltern counterpublics)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해석이 가능하다. 즉, 주변화된 집단이 주류사회가 특정 공공장소에 부여한 본연의 기능에 저항해 자신의 필요에 맞게 전유하는 공적 공간을 의미한다.<sup>80</sup>

연구자: 온성에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온성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구술자: 온성은 그냥 어두운데-- 골목, 막 역전 앞에. 어두울 때. 전기가 잘 안 들어오니까. 북한은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냥 밤이면 다 어두우니까. 구석구석에서 연애하는 거 많이 봤고. 놀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돈은 그렇게 필요했던 거 같지 않아요. 돈 가지고 거긴 가서 뭐 식당도 없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담배 피고 술 마시니까 어차피 돈이 들어가지만, 여자들은 그냥 만나서 그냥 얘기하다가 들어오는 거니까 돈은 그렇게... 돈 썼던 기억이 안 나요.

연구자: 변화가, 뭐 청년들이 모이는 이런 데는 없었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데?

구술자: 네, 여기처럼 뭐 놀이공원 이런 게 없어요. 공원은 있는 한데, 다 죽어가는, 가지도 않는 데라서 그냥 뭐 마을, 골목 그런 데. 산 밑에 학교, 어두울 때, 그랬던 거 같아요.

연구자: 그러니까 저녁마다 모여서 놀고 이런 게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뭐 놀고 사먹고 이런 게, 옛날부터 그랬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구술자: 저희는 아니었어요. 저희 때부터 그랬던 거 같아요. 저희 때부터--.(사례 4 구술녹취록, 2013 I/18)

I
II
III
IV
V
VI
VII

<sup>80</sup>-Nancy Fraser,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Social Text*, No. 25/26, pp. 70~71.

## 나. 이동성과 네트워크로서 새 세대

이동과 관련된 사회공간적 실천들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람, 물건, 이미지, 정보는 끊임없이 이동을 한다. 그러한 이동들은 사회생활과 문화 형식을 생산하고 재생산한다. 문화는 유동적이며 여러 이동이 그러하듯 사회성의 다양한 패턴을 낳는다.<sup>81</sup> 북한에서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이런 이동성(mobility)에 익숙한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범위가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사람과 사물의 이동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측면이 강하다. 도시에서 새로운 세대의 이동성은 시장의 동선이나 상품의 경로 속에 놓여진다. 이들은 이런 장소들을 통해 다양한 물건과 이미지를 경험하고 정보를 나누고 다른 세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변화가-- 쇼핑한다기보다 그냥 쉬는 날이면 포항구역 시장, 또 저 수남구역에도 큰 시장 있거든요. 거기 가지 않으면 저희는 바닷가, 백사장. 수남구역이라고 해서 그게 또 크게 더 멋있는 건 없어요. 건물도 다 낡고 했는데. 특히 그 볼 거 있다는 게, 북한은 1층이 다 이런 판매망들이잖아요. 거기 좀 많이 개변을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고. (사례 21 구술녹취록, 2013 I/34)

연구자: 어디 가서 샀어요, 애들이?

구술자: 저희 같은 데는 온성이라는 데 다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 샀지 있을 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막 어디 놀러가고 싶으면 남양에서 막 청진으로 저쪽으로 놀러가고 막 그래요, 애들이. 돈이 있으면, 여기서도 돈이 있으면 사고 싶은 거 사는데, 북한도 다 해요. 잘 사

---

<sup>81</sup> 존 어리 지음, 윤여일 옮김,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 이동과 하이브리드로 사유하는 열린 사회학』, p. 91.

는 사람은 집에 자가용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그 다음  
오토바이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노트북도 있어요. 네,  
그렇게 잘 살아요. 낮낮이가 엄청 많아요. 저희 아는 오  
빠도 그렇게 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생활이 차  
이가 너무 많다고. 못사는 사람은 완전 죽물도 없어서  
그러는데,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이밥도 안 먹고, 쌀밥도  
안 먹고 막 그렇게--. (사례 19 구술녹취록, 2013 I/6)

도시 중심의 거리, 상점 같은 공공장소는 새로운 세대에게는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가정의 고립성과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  
는 기회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 공공장소는 국가의  
통제와 지배의 규범을 벗어나게 해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물론 북한에  
서는 거리조차도 국가의 남성적이고 권위적인 감시체계의 시선 - 여  
성들이나 학생들의 복장 단속 - 에서 자유로운 곳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대들은 감시로 가득 찬 거리를 문화적 경관 차원의  
'구경'이나 해방의 장소로 전유(appropriation)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이동의 경험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접촉하고 대화하며 다양한 사람  
들의 생각을 듣고 경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동성이 갖는 정치적 힘은 이동 자체  
에 있다기보다는 이동을 통해 경험하는 다양한 접촉이 청소년들의 정  
체성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자: 청진도 가보고 이렇게 돌아다녀본 게 어떤 영향을 준 거  
같아요?

구술자: 일단은 집에 있는 동안 다른 일도 보니까. 힘들고 어려  
울 때 많았지만 그래도 나가서 넓은 데서 보는 느낌은  
네, 달랐어요. 그냥 집에서 뭐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런  
것보다 그 사람들 말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 사람이 생  
각하는 각도가 다르고. 그래서 만나면, 뭐 좀 시내 있는

I

II

III

IV

V

VI

VII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자체가 다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달리. 그게 좋았고, 다니면 일단은 배우는 게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다니는 게 좋았어요.

연구자: 생각하는 게 어떻게 달랐어요?

구술자: 그냥, 제가 나도 집에만 있었으면 그냥 평범하게 있었었는데 그냥 집에서 일어나 하고 산에나 다니고 그랬는데, 장사를 하면서 저 사람은 내가 힘들 적에 도와준 사람도 있고, 내가 힘들 거 알면서도 뻔히 보면서도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사람 나름이 많고,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물질이 없어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다니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 같아요. 네. 사람의 심리를 좀 알 것 같다는 느낌. 네, 저 사람 어떤 생각할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이. 많이 사람을 접하면 그런 느낌.

연구자: 많이 다닌다는 거는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구술자: 네. (사례 19 구술녹취록, 2013 I/38)

한편 새로운 세대의 특징으로 장소의 상실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탈-장소화의 경험이 많은 세대라는 점이다. 탈-장소화(dis-placed)는 국가적 영토에 기초한 민족이나 계급, 지역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어중간한 상태에 속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가정, 학교, 조직 등에 속하지 않은 ‘장소를 상실한(placeless)’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도 고난의 행군 이후 일명 ‘꽃제비’로 지칭되는 장소를 상실하거나 탈-장소화된 사람들의 풍경이 일상화되었다. 부모를 잃거나 버려진 ‘고아’에 해당하는 떠도는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구제소나 임시 거처로 수용되어도 정주하지 못하고 다시 규율화된 장소들을 벗어나 거리를 배회하거나 도시들을 이동하며 살아간다. 이들은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북한 도시의 일상적 풍경으로 자리를 잡았다.

우선 외부에서 보았을 때, 새로운 세대들은 장소를 가진 정상적 청소년들과 장소를 상실한 비정상적 청소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장소를 상실한 청소년들은 불안정성과 비참한 인구의 한 부류로만 인식된다. 새로운 세대의 한 특징적 모습으로서 이들의 경험과 의식세계는 전혀 주목받지 못한다. 외부의 관점에서 이들은 단지 이 체제의 비정상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만 포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의 특징은 일반적인 대다수 청소년들의 정상성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이러한 정상성조차도 비정상성으로 분류되는 청소년들의 삶과 사회적 맥락과 긴밀하게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장소를 상실한 이들 세대 역시 1990년대 이후 세대에서 발견되는 전형적 모습이란 점에서 하나의 정상성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통제가 힘든 불량성과 유랑성, 불결함, 위험성이란 측면에서 외부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나 처치 곤란한 세대의 잔여물로 취급된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에 의해 은폐되고 일상에서 투명 인간처럼 취급되지만, 그 자체가 새로운 세대의 특징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은폐, 무시, 배제되는 사람으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통해 구성되는 정체성이다. 그것은 적극적인 타자화를 통해 나타난다. 요즘 세대들은 ‘꽃제비’들이 자신과 같은 세대임에도 그들을 연민하기보다는 구분 짓고 타자화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경향이 있다. 강한 타자화는 자신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강한 공포감의 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다. 공간 선호에서 나타난 새로운 세대의 특징

장소와 관련하여 북한의 새로운 세대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 중

I

II

III

IV

V

VI

VII

하나는 청소년들의 ‘어슬렁거림’, ‘목적 없는 도보’이다. 사실 이곳저곳을 목적 없이 어슬렁어슬렁 거니는 것은 크게 문제화될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가 ‘기존의 질서’에 전복적일 수 있다. 이것이 전복적일 수 있는 것은 국가에 의해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목표를 수행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목적 없는 어슬렁거림을 통해 어떤 장소나 연령이 가져야 하는 목적의식적 행동 규범을 소멸시키고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것은 목적 있거나 분명한 행동, 의무적으로 부과된 행동 및 신체활동만을 강요하는 세계에서는 전복적인 것이다. 북한의 새로운 세대들은 이런 목적 없는 어슬렁거림을 통해 가장 무력해 보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전복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례 3: 보통 저녁에는 골목에서랑 막 네, 연인들이 풍치는 거리도 있고 그래요.

연구자: 풍치는 거리?

사례 3: 그 여기로 말하면 홍대라든가 그런 느낌의 거리들이 좀 있어요.

연구자: 청년들이 잘 가는 거리가 있었어요? 아니면 특별히 청소년들만 모이는 장소, 롤러스케이트장 아니면 무슨 공원, 이런 것처럼 청년이 딱 좋아하고 모이고 이런 거리, 그런 장소?

사례 5: 광, 광장--

사례 3: 광장이라 그리고 그 장마당 그 길이-- 그 혜산 백화점 앞에.

사례 5: 양순백화점

사례 3: 응, 양순백화점 앞에. 혜산백화점. 명칭은 혜산백화점인데, 중국여자가 들어와서 그 회사를 차렸어요, 백화점들. 그 바로 앞에 시장이랑 그 백화점이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의 거리인데, 저녁이 되면 그쪽에서 많이 모이고 또 광장에서는 또 중국에서 들어온 폭죽이라든가 그런 거 가지고 노는 애들도 좀 있고 그래요.

연구자: 그 백화점 앞에서는 뭘 하고 놀아요? 뭐가 있어서 잘 모이는 거예요?

사례 3: 여기처럼 롯데마트처럼 많이 성장이 그러니까, 회사가 커요. 롯데마트 만한 규모이고 그 디지털카메라도 있고 MP3 같은 것도 팔고. 그리고 뭐 한국의 롯데마트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연구자: 그럼 친구들끼리 가서 쇼핑하는 거예요? 눈으로도 하고, 뭐 사기도 하고?

사례 3: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워낙 비싸가지고-- 될수록 안 가고. 네, 될수록 그냥 보고. 뭐 문구점, 문구 같은 거나 좀 사고. 청소년들은 거기 들어가서 큰 걸 못 사죠. 어른들은 뭐,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사서 지방을 가져간단다가 그런 걸 많이 해요.

연구자: 그런데 왜 청소년들은 그 근처에 모여요? 뭐 땀에?

사례 3: 시장이-- 그러니까 중심지라고 말해도 되죠. 그렇죠. 중심지고 또 거기에는 애들이 많고요. 또 친구들도 많은 데고. 거기에서 잘 모여요. 어쨌든 학교도 거기 주변에 좀 있고, 주변에 다 있고요. 거기 중심지 돼서.

연구자: 주로 또래 친구들이 거기 많이 있는 거예요, 어른보다?

사례 3: 네. 어른들은 올 필요 없어-- 어른들은 좀 안 오죠. 그저 학생들이 많아요.

연구자: 어른들이 가면 약간 왜 왔나, 이렇게 되는 분위기인가?

사례 3: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여기 홍대나 비슷해요. 네. 홍대처럼.

연구자: 홍대에 뭐 나이 드신, 나이든,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 노는 데 가면 다 쳐다보듯이 거기도 그런 식이에요?

사례 3: 좀 그렇긴 하죠. 거기 내가 있을 때 거기 케익 만드는 데까지 생겨났고. 네, 거의 뭐 야시장-- 야시장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밤에 막 한시 두 시까지 막 먹거리들이 있고 하니까 그쪽에 많이 모여요. (사례 3, 사례 5 FGI 구술녹취록, 2013 I/12-15)

북한의 청소년들은 주어진 자신들만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고 비공식화된 공간을 자신들의 공간으로 점유한다. 역 앞, 골목

I
II
III
IV
V
VI
VII

등 후미지고 어두운 곳에서 친구들과 놀거나 이성을 만난다. 이러한 새로운 공간의 창출은 이들에게 주어진 공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보유한 자원이 없다는 점과 이들이 그 공간에서 맺는 관계가 공식적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청소년 세대들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상점 등을 이용하는 기회가 제한된다. 그러다 보니 거리에서 주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다. 또한 공식적인 제재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성친구를 만나는 것이 그들 세대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것보다 담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거리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어슬렁거리는 청소년들의 행동은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가 개념화한 ‘도보’가 갖는 의미를 떠올리게 한다. 국가 또는 통치자가 각 공간 속에서 무엇이 적절한 활동인지, 그곳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고려하여 규율화와 조직화를 꾀하는 ‘전략’을 짜지만, 개개인들은 그런 공간과 거리를 임기응변적으로 전유하며 자신들만의 거리로 만드는 ‘전술’을 행한다.<sup>82</sup> 이들은 국가가 규정한 공간의 목적을 자신들에게 맞게 비틀고 균열을 가하고 재해석하고 재의미화하면서 공간을 개인화한다. 북한의 요즘 세대들에게 거리와 광장, 시장, 상점 등 공공의 장소들은 감시망에 펼쳐진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들 사이의 문화적 소통의 공간이자, 그들 세대의 정체성을 실천하는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그것은 주어진 공간의 규율과 제약 속에서 그 공간을 새롭게 재전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83</sup>

<sup>82</sup> Michel de Certeau,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Berkeley·Los Angeles·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참조.

<sup>83</sup> ‘걷기’를 통한 도시 공간의 재의미화에 대해서는, 미셸 드 세르토, “도시 속에서 걷기,” 박명진 외 옮김, 『문화, 일상, 대중: 문화에 관한 8개의 탐구』 (서울: 한나래, 1996), pp. 163~172 참조.

다음으로 장소에 대한 선호도는 이들 세대들이 주변 세계에 대해 갖는 인식과 이들이 처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준다. 면접에 응한 1990년대에 출생한 구술자들은 가장 편하고 기억에 남는 장소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대답이 다양하지 못했다. 그만큼 편하고 좋아하는 장소가 이들에게 많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산이라든가 멋있는 건물이 있는 곳을 그나마 편하고 좋은 장소로 꼽았다. 산이라는 장소를 좋아하는 이유로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을 감시할 시선이 없고, 자신들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 학교, 조직, 직장에서 늘 통제를 받고 규율을 강요받는 이들에게 산과 같은 ‘높은 곳’은 규율과 통제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인 것이다. 어떤 면에서 감시로부터 벗어난 자유에 대한 욕망이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희 그 집 앞에 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청년공원이라고 불렀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이런 정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네 같은 것도 몇 개 있고 이런 공원이예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면 되게 좋아— 되게 높은 데니까 올라가면 다 보이고, 바람, 공기도 되게 좋고 거기 올라가서도 자주 놀았던 거 같아요.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45)

또 다른 선호의 공간은 크고 멋있는 건물이 많이 있는 공간이다. 멋있는 건물들은 역사물이나 동상과 같이 깨끗하면서 관리, 정돈된 곳이기도 하고 ‘시내’라는 중심성을 상징한다. 반면에 보통 주민들이 거주하는 동네나 주택, 골목은 세련되지 못하고 낡은 곳으로서 주변에 해당한다. 북한 도시들은 보통 역 앞을 중심으로 대로변으로 주요 국가기관과 상점들, 아파트 건물들이 배열·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건물들은 주로 ‘도시미관’의 차원에서 도시 중심에 집중 배치된다. 반

면 일반 주민들의 주택은 이런 주요 건물들의 뒤편이나 언덕 등에 위치한다. 젊은 세대들에게 시내는 공간의 중심, 가장 변화하고 문명화된 사물들이 많은 곳, 거리에 익명의 사람들이 많은 곳이란 점에서 일상성을 벗어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주택가나 골목은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사적인 공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젊은 세대들은 일상성을 벗어난다는 측면에서 도시 중심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읍에 가면 장마당도 있고 장마당보다 읍에 쪽 내려가면 거기 역전 있어요. 셋별읍에 거기 역전인데 거기 김정일 그 동상 비스킷 한 거랑 좀 있고, 역사물 있고 하나까. 거기 건물도 좀 멋있죠. 거기 딱 가면 기분이 좋아지죠. (사례 36 구술녹취록, 2013 I/78)

반면, 가장 싫어하는 장소로는 보위부나 보안서와 같은 치안기관이나 단속기관이 있는 장소를 주로 꼽았다. 보위부는 사상적·정치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기관이란 점에서 이들 세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소였다. 물론 이들 세대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장소는 두려운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1990년대 출생 세대들은 경제난과 시장화 속에서 자라면서 이들 기관의 단속과 처벌을 일상적으로 보고 접했다는 점에서 이 장소에 대한 두려움은 이 세대가 갖는 장소감의 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직접적으로 가족이나 본인이 처벌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적개심’ 차원에서 이들 공간에 대한 공포를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전 세대들에 비해 유행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외부문화와의 접촉 기회가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통제와 관리하는 보안서나 보위부는 자연스럽게 싫어하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보위부나 그쪽은 그러니까 지나가도 무서웠어요. 네.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뭐 저 큰 죄는 아니지만 일단은 전화도 계속하고 불법적인 일을 조금씩 했다 보니까 그 괜히 막 찢려갔고 그런 쪽 지나다니기도 싫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엄청 무서우니까 저기는 들어갈 일이 없어야겠다 생각하면서--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45-46)

무섭게도 굴고 일단 밤색, 이런 밤색이라고 그런 옷을 입은 사람 보면 막 끔찍하게 싫었어요. 저희 이모도 교회소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안원들이라면 “그 새끼들은 심장을 두 개를 가졌다.” 이러면서 막... 서민들은 그렇게 욕했어요. 막 친하게 이렇게 도와주고 도움받다가도 자기한테 불리하면 일단 완전, 완전 돌아서 버리고 잡아넣고 그래요. (사례 29 구술녹취록, 2013 I/48)

이처럼 자신이나 가족을 언제든지 단속·검열하고 불법화하여 처벌할 수 있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보위부, 보안서를 두려워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단속과 처벌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여기에 저항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서 오는 공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장소가 더럽거나 불결한 장소와 같은 감각적 경험이나 주관적 장소가 아닌 치안기관이라는 공적 폭력성이 응집된 국가기관이란 점이다. 정리하면, 선호하는 장소가 다양하지 못하고 일관되게 싫어하는 장소로 치안기관을 꼽은 것은 장소에 대한 선호가 감시, 규율, 처벌이라는 국가의 폭력성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이들 세대는 국가의 폭력성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
II
III
IV
V
VI
VII

## 라. 시장 공간의 문화적 전유: 시장 세대의 탄생

북한의 새로운 세대들의 특성 중 하나는 시장의 풍경과 가족들의 시장 활동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자랐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시장에 대한 거부감을 특별히 갖지 않는 세대라는 특징을 갖는다. 면 접에 응한 구술자들 대부분은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주일에 1~2회에서 한 달에 보통 3~4회씩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구경하곤 했다고 한다. 물론 시장에 가는 빈도는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시장은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의 소비 및 문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보고 사는 소비의 공간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또래문화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들 세대는 시장에 진열된 물건들을 통해 새로운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소비의 욕구를 키우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 익숙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저희는 그냥 수다를 많이 떨고 그리고 항상 시장이나 이런 데를. 여자니까-- 그런 데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뭐 학생이니까 돈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하나 사 먹으러 가서 일단은 많이 그냥 구경만 하고 요즘 옷들이 어떤 게 나오나 그냥 구경만 한 거 같아요. 그리고 짬해 놓고 나중에 돈 생기면 이거 사야지.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36)

이런 측면에서 이들을 ‘시장 세대’ 또는 소비의 세대라고 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물론 이전 세대들도 시장을 이용하고 소비를 하지만 그것을 생계나 경제활동의 차원에서 주로 접근한다면, 새로운 세대들은 소비나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시장을 통해 보다 다양한 사물, 음식, 사람들을 접하면서 시각적이고 미각적인 감각을 이전 세대보다 많이 갖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북한의 시장을 경제적인 거래 공간으로만 보고 설명하는 방식에서 문화적 공간으로 확장해서 이해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들에게 시장은 단지 거래의 공간이 아니라 일상적인 문화 공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북한 가정경제가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필요한 물품을 시장을 통해 구매하고 소비하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들에게 시장은 일상적인 경제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시장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에게 시장은 부모들의 노동 장소이기도 하다. 이것은 시장이 단순히 사적 공간 외부에 있는 공적 공간이 아닌 부모들의 노동과 가정경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둘러보기도 하고, 저희는 보통 시장에서 장사하는 부모님들이 학부형,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서 부모님을 만난 다든가 시장 한 바퀴 돌아보고, 빵 같은 거, 그 완자 같은 거랑 인조고기밥 뭐 두부밥 이런 거 먹고. (사례 39 구술녹취록, 2013 I/29)

한편 시장은 다양한 문화적 공간을 향유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대체적 문화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특별히 이들이 갈 장소도 없고, 입시에 쫓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과 후 할 일도 없는 이들에게 친구들과 시장에 가서 구경을 하고 대화하고 소비를 하는 것은 문화적 여가 활동에 해당한다. 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물건들은 학교 안과 밖에서 이들 대화의 주제가 되고 상호 공감과 소통의 소재가 된다. 이런 청소년 사이의 유행은 대부분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과 먹거리를 통해서이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공간은 이들에게 소비의 공간, 소통의 공간, 감각의 공간, 욕망의 공간이다.

I
II
III
IV
V
VI
VII

딱히 뭐 북한은 놀 데도 없어요. 딱히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가끔은 서로 집에 가서 TV 보고 놀기도 하는데, 집에 또 아빠 엄마 계시면-- 놀 데가 없으니까 항상 가는 거 같아요. 시장 가서 구경-- 요즘 유행하는 거 구경도 하고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36-37)

친구들과 유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이 유행에 뒤지지 않거나 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들이 시장에 새롭게 나왔는지에 대한 빠른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직접 구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더라도 수시로 시장에 가서 유통되는 물품들을 보면서 유행 정보에 뒤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이들에게 시장은 자신이 욕망하는 모든 물건이 모여 있고 유통되는 곳이면서, 물건을 구매하고 물건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통해 또래집단과 소통하고 우월적 지위를 점할 수 있는 문화적 욕구의 공간이기도 하다.

#### 마. 시장화와 도시공간의 계층화: 차이와 욕망의 발견

북한의 새 세대를 시장에 익숙한 세대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시장 세대로서 이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장화의 자기 조직적(self-organized) 질서와 네트워크를 이해할 때, 시장세대로서 이들 세대의 특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시장의 이용 방식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기본적으로 계층적 위계를 드러내 준다. 어떤 시장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어떤 물건을 주로 사느냐를 통해서 계층적 위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어떤 시장이냐가 중요한 이유는 시장들마다 파는 물건과 이용계층, 소비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도시 내에 있는 시장들 사이에도 이런 차이와 위계가 존재한다. 가령 청진시의 포항구역 시장에서는 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비싼 ‘기성옷’을 구입한다면, 수남구역의 시장은 대체로 못 사는 사람들이 와서 ‘가공옷’을 구입한다. 여기에 더 나아가 신남구역의 시장은 이들보다 더 돈이 많고 위세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만큼 시장들 사이에 분화가 이루어져 있고 이런 분화는 계층에 따른 시장이용과 소비수준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런 분화는 한 도시 내에서 구역마다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입지에 따라 계층적 위계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들은 바로 이런 차이를 민감하게 인식하는 세대들이다.

많이 달라요. 그 수남시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도 잘 사는 사람보다 못사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가공 옷이 되게 많아요, 수남장은. 그러니까 그런 수남장은 그리고 싸고. 그런 옷을 막 이렇게 행방하는 행방꾼이라고 있어요. 행방꾼들이 막 채가지고 뭐 농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팔거든요, 좀 비싸게. 그런데 거기 옷은 되게 가공이 돼서 별로 안 이쁜데, 이게 포항시장은 도당간부들이 차를 타고 와서 딱 거기 가는 데거든요. 우리 딱 바로 앞에 있는 시장인데. 차를 막 대고서리 부인들이 막 이렇게, 도당간부 어디 집 부인들이 막 와서. 소채도 많이 달라요. 수남시장 가면 소채가 막 흙 묻은 대로 그냥 팔면 사람들이 와서 손질해서 가져가는데, 포항시장은 다 다듬고 집에 가서 딱 해 먹을 수 있게 해서 파는 게고. 포항시장의 옷은 그러니까 특별한 옷만 딱 있어요. 일본이라든가 중국에서 새 옷이 들어오잖아요, 기성 옷. 완전 특가라들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청진시에서 한두 명밖에 안 입고 다니다, 뭐 이런 옷만 거기에 다 있거든요. (사례 18 구술녹취록, 2013 I/33)

새로운 세대에게 시장은 계층적 위계를 현실적으로 느끼는 공간이다. 각 구역의 시장마다 진열된 물건의 수준에서 차이가 나고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외모나 차림새에서도 차이가 난다. 새로운 세대들은 이런 시장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각 구역에 사는 사람들의 차이를

I
II
III
IV
V
VI
VII

민감하게 인식한다. 소위 한국의 ‘강남’과 ‘강북’처럼 구역마다 계층적 위계에 따른 ‘경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경계’는 경제력에 따른 계층적 경계이기도 하고 상상된 문화적 경계이기도 하다. 상상된 문화적 경계란 곧 이들이 가서 살기 힘든 곳일수록 보다 욕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잘 사는 구역의 거리를 동경하고 그런 거리의 문화적 경관을 구경하러 가기도 한다. 흡사 한국에서 ‘강남’, ‘도곡동’, ‘압구정’을 어떤 욕망의 상상적 경계로 상상하고 동경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구술자: 무산하고 청진이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저 청진에 신암구역이라고 있어요. 그쪽에 가면 그 청진사람들 보통 농담으로 “야, 이쁜 애들 멋진 애들 보려면 신암구역 거기 대극장 앞에 앉아 있으면 돼.” 무슨 소린가 해서 심심해서 하루는 그냥 차 끌고 거기 그냥 가서 차 세우고 있었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저 일할 때 심심하면 가끔 거기 가서 차 세우고 한참 구경하고 그런 적 있었어요.

연구자: 청진에서 신암구역이 제일 그래도 변화한가요?

구술자: 거기가 좀 잘 사는, 여기로 말하면 강남.

연구자: 거기 그런 식이에요? 포항구역은 어느 정도예요?

구술자: 포항은 좀 신암보다 떨어지는.

연구자: 떨어져요?

구술자: 네. 그런데.

연구자: 옷이라든가 이런 걸 좀 사기 위해서 좀 비싸고 좋은 옷을 사기 위해서 가게 되면 어디 시장으로 가요? 어느 구역에 있는 시장으로?

구술자: 포항, 포항…

연구자: 포항이 제일 낫지 않아요?

구술자: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포항이 그런 시장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시장만 있을 뿐이고. 진짜 잘 사는 건 신암구역에 몰려 있어요. (사례 21 구술녹취록, 2013 I/32)

북한의 도시 내부는 정치적 구획선, 문화의 경계선, 계층·계급의 구분선 등이 그어지고 상호 중첩되면서 계층적 위계를 형성하고 있다. 도시는 고정된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부단한 구별 짓기, 경계 짓기 전략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시기를 달리하며 이들 ‘선들’, ‘경계’의 윤곽과 이들 선들이 만들어 내는 계층적 장벽의 높이도 달라져 왔다. 앞서 설명했듯이 새로운 세대들은 기존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강한 특징을 갖는다. 이들은 도시 내 여러 구역을 이동하는 것은 물론 도시와 도시 사이를 오가며 이들 구역들과 도시들 사이의 ‘차이’를 발견해 낸다. 이런 ‘차이’의 발견은 도시가 갖는 경제적 수준, 문화적 경관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각 지역 사람들이 갖는 생각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경험은 소위 다른 지역의 ‘물’을 먹었다고 표현된다. 이런 차이들의 발견은 새로운 세대의 인식 스펙트럼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의 사고 지대를 형성하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구술자: 네. 우리, 내가 사는 사람들은 다 순진하고 전부 그저 국가에, 당에 대한 그런 목소리, 그런 말만 하니까 인식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국경연선은 많이 국경물을 먹으니까 국가에 대해서 나쁜 발언도 많이 있고요. 우리는 무슨 국가를 나쁘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쪽에 오니까 많이 국가에 대해서 나쁘다고 비방중상도 하는 것도 있었고. 우리 쪽에는 그런 거 진짜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조금만 그런 티가 나는 말만 해도 가서 고해바치거든요. 그럼 안전부 가야 돼요. 그래서 감방 한 6개월 갔다 온 사람도 있고요.

연구자: 처음 무산에 와가지고 그런 거 봤을 때 어땠어요? 맨 처음에 그런 거 듣고?

I

II

III

IV

V

VI

VII

구술자: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또 감옥에 가고픈 모양이다,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거기서 다 대부분이 그런 말을 하니깐, 그런 걱정은 안 하죠. 막 내놓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요. 강성대국은 무슨 강성대국이냐고, 거지대국 만들라고 또 그런다고. 막 그렇게 막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맨 처음엔 멍 해가지고 봤어요. 저 사람 정말 담 있다. 그런데 다 같이 그렇게 말하니깐요. 누가 가서 고자질하고 그런 게 없죠.

연구자: 그렇게 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어땠어요?

구술자: 다시 돌아가면 또 그 생활에 그냥, 그런가 보다 또...

연구자: 약간 무산에 가기 전하고 무산에 갔다 온 후하고, 본인이 좀 약간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술자: 좀 많이 물 먹었죠.

연구자: 어떤 물?

구술자: 얼마는 안 있었지만 나쁜 물은 빨리 든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국가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국가에서 뭐 하려면 막 짜증나고요. 인상부터 썼고요. 그렇게 많이 달라져요. 진짜 나쁜 물은 빨리 먹는 거 같아요. (사례 26 구술녹취록, 2013 I/30)

새로운 세대들이 도시들 사이를 이동하는 기회나 능력은 경제적 능력이 있을수록 많다고 할 수 있다. 집안의 경제적 능력이 많고 여유가 있을수록 공간 경험이 보다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과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드러나는 차이는 주로 잘 사는 청소년들이 돈을 주고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공식적인 소비공간, 문화공간 등을 과감하게 이용하거나 장비가 필요한 영화를 본다면, 일반 청소년들은 주로 돈이 들지 않거나 많이 들지 않는 친구의 집, 상점 있는 거리, 시장, 후미진 골목, 산 등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점이다. 그만큼 도시 공간은 젊은 세대에게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가져다 준다. 면접에 응했던 구술자 중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던 학생의 경우, 도당급 간부 자식들의 데이트 장

소, 연애 공간으로 향유하는 장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트 하는 장소. 그냥 음 집에 가서 있잖아요. 좋은 CD알 같은 거 있잖아요. 좋은 CD알 있으면 거기 가서 막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막 북한, 청진에는 노래방이 딱 한 곳에 있어요. 갈매기각이라는 데 있어요. 그 갈매기각 같은 데 가서 거기에서 노래 이렇게 부르고 노래 부르다 점수가 적게 나온 사람이 돈 내는 그런 거거든요. 거기 가서도 놀고 막 계기가 있어요. 7월 27일은 뭐 그런 게 많죠. 조국해방 무슨 날. 그런 날이면, 차 타고서리 이렇게 청년공원이라든가 신진바닷가 같은 데 가서 바다 막 놀고 그 다음에 청년공원 같은 데는 물 위에 배 타는 거랑 있잖아요. 거기도 놀러가고 그랬는 거 같아요. 그 다음 저는 그 오빠가 평양에 있어갖고 많이 갔던 거 같아요. (사례 18 구술녹취록, 2013 I/38)

이들에게 도시 공간은 돈 많은 성인들의 놀이문화나 문화적 향유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보고 먹고 노래 부르고 배 타고 도시를 이동하는 것 모두는 일반 성인에게도 쉽지 않은 큰 돈이 드는 일들이다. 젊은 청소년들이 이런 정도의 문화적 향유를 한다는 것은 그만한 돈의 씬씀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의 놀이문화는 기성 세대의 놀이문화를 모방하는 성격이 강해 보인다. 그만큼 돈 있는 부모세대가 향유하는 놀이문화를 모방하기 쉬운 청소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시장화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차이를 발견하게 하는 계기를 주는 한편 그런 차이 속에서 욕망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비싼 물건을 파는 시장과 싼 물건을 파는 시장,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잘 사는 동네와 못사는 동네, 능력 있는 부모와 능력 없는 부모 등의 차이를 경험적으로 가르쳐 주고 그 차이의 발견을 통해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좌절과 욕망을 키우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차이와 욕망의 발견은 이

I

II

III

IV

V

VI

VII

사회가 평평하지만은 않다는 현실적 이해, 관념을 떠난 세상의 리얼리티를 가르친다는 점이다.

## 사. 공간 불평등과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

새로운 세대에게 각 도시와 지역은 결코 평평한 세계가 아니다. 이들의 이동성은 세계가 평평하지 않다는 현실을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측면이 있다. 빈부의 차이와 지역 사이의 불평등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은 물론 이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보고 느끼며 인식하게 된 것이다. 학교와 교과서를 통해 사상적으로 주입되던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경험의 차원에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간을 이동해 가며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 또는 다른 도시의 모습을 보게 되고, 각 도시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기도 하고, 접경지대에서 멀리 ‘불빛’으로 보이는 외부세계를 호기심 어리게 바라보며 동경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의 거리 ‘불빛’은 새로운 세대에게는 새로운 문화적 경험이면서 동시에 나아가 미지의 세계, 발전된 문명이라는 동경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199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한참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태어나 전기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을 당연한 일상으로 여기며 자란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거리의 가로등이나 빌딩의 불빛, 화려한 네온사인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도 하다. 이런 이들 세대에게 도시의 불빛은 일종의 일상을 낮설게 하는 하나의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서기도 한다. 면접에 응했던 한 구술자는 어느 날 등장한 도시의 가로등 불빛(불장식)의 경험을 하나의 놀라운 문화적 경험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불빛을 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연관 짓기도 했다.

구술자: 무산광산 책임비서가, 책임비서가… 그때 뭐 해입됐었나 그래가지고 당, 당중앙에 있던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한다고 하면서부터 조금 달라지고 그러기 시작한 게 가로등하고 지금 많이 변하는 게 불장식이예요. 불장식을 많이 하고.

연구자: 가로등이 설치돼가지고 밤에 불이 들어온 걸 좀 봤어요?

구술자: 네, 12시까지.

연구자: 불이 들어오니까 좀 어땠던가요?

구술자: 너무 환해요. 너무 환하니까…

연구자: 기분이 좀, 뭐가 좀.

구술자: 네, 밤에 또 나가고 싶고요.

연구자: 나가서 가로등 이런 것도 보고 좀 걸어 다니고 그랬었어요?

구술자: 네, 걸어 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북한은 자전거 타면 최고거든요. 자전거 타고 쪽—. 불 밑에서 앉아서 책도 보고. 그 재미가 또 재밌더라고요.

연구자: 아니 왜 그전까지는 껌껌했을 거 아니예요.

구술자: 네, 완전 껌껌했죠.

연구자: 그런데 불이 들어오니까 어땠어요, 기분이 좀?

구술자: 네, 그냥 좋았어요. 좋고, 그때 그렇게 변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감정은이 이렇게 바뀌면서 사람들 생각한 게 개방적인 걸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변한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와는 조금 달리 뭔가 변한다.’ 하면서 이렇게 좀 눈에 보이니까 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랬던 거 같아요. (사례 29 구술녹취록, 2013 I/45-46)

그들에게 도시의 ‘불빛’은 여러 관점에서 의미화되고 은유된다. 우선 도시의 불빛은 지역 또는 도시 사이의 차이로 인식된다. 특히 도시와 농촌의 차이, 큰 도시와 소도시의 차이는 이들에게 불빛이 있느냐와 없느냐의 차이이기도 하다. 일반 중소도시에서 밤거리의 불빛은 기껏해야 김일성 동상에만 있고 거리는 암흑에 가깝다. 돈이 있는 잘 사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전기 혜택에서 소외돼 있다. 나아가 평양과 여타 도시의 차이는 더

I

II

III

IV

V

VI

VII

육 분명하다. 평양은 밤거리의 화려한 불빛으로 여타 도시와 차별화된다. 반면 일반 중소도시나 지방 군(郡)의 경우 밤 외출을 하려면 손전등을 들고 나가야할 만큼 가로등 자체가 전무하다. 도시의 차이는 바로 이런 불빛이라는 시각적 차이로 이들 세대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인식된다. 함경북도 무산군에 살며 평양 방문 기회를 가졌던 한 구술자에게 불빛은 ‘신기함’ 그 자체이다. 또 평안남도 순천시에 살았던 구술자의 경우 불빛이 들어오면 ‘환성’을 지르곤 했다고 한다. 또 청진시에 살며 평양 방문 경험이 있었던 다른 구술자 역시 청진과 평양의 차이는 그 자체로 ‘불빛’의 차이로 우선 인식된다.

연구자: 무산에 살다 평양에 갔을 때의 느낌?

구술자: 진짜 너무 신기했던 거 같아요. 모든 게 다. 일단 불빛이 막 번쩍번쩍하는 게 있으니까-. 무산은 항상 껌껌해요. 전지 없이는 아무데도 못 나가고. 되게 번쩍번쩍 했던 게 멋있고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도 신기했어요. 아파트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신기했고. 그리고 그, 여기서 말하면 지하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연구자: 무산에는?

구술자: 가로등이라고 하면 그 제일 시내, 역전에 뭐 역전에 한 두 개 있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태양상이라고 김일성동상 크게 있는데, 거기에 가로등 두 개 정도 있고 그리고 여느 거리에는 하나도 없어요.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46,48)

그런데 단둥이-- 순천에 있을 때 좀 이렇게 기분 좋다 할 때, 단둥에 왔을 때가 제일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심한데 있다가 갑자기 왔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향취로 보면 순천이 더-, 암만 불 없어도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북한에서 이렇게 밤에 어디 갔다 오잖아요. 오면 아파트 같은데 불 켜놓으면 그게 되게 기분 좋아요. ‘불 왔다.’ 하고 생각하는. 없는 데서 불 왔다 하면 다 환성 지르고 그러니까. (사례 30 구술녹취록, 2013 I/73)

일단은 그 평양에 가면 일단 놀이공원이 다 있어요. 여기로 말하면 롯데월드, 에버랜드 같은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청진은 그게 없어요. 평양은 그게 다 있고, 그 다음에 평양은 딱 가면... 우리 청진 같은 거는 밤에 김일성이 동상밖에 불이 안 켜져요. 그런데 그리고 불이 거기밖에 안 켜지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느 공장하고 사업해가지고 24시간 전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전기 봐도 집, 집만 이렇게 환하게 비추잖아요. 그런데 일단 평양에 가면 거리들마다 다 불이 켜져 있고. 그 다음 막, 에 뭐야 이런 상점 같은 데도 막 좋은 게 있고 막. 그러니까 일단은 딱 데 없는 게 평양은 다 있어요. 어떻다할까, 막 엄청 좋은 곳이죠. 막. (사례 18 구술녹취록, 2013 I/39)

한편으로 불빛은 외부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접경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국경 너머 보이는 중국 도시의 불빛은 황홀함, 멋있음, 항상 밝은 데 산다는 부러움, 그리고 나아가 도대체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호기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그곳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호기심으로서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의 갈망으로 나아간다. 도시 불빛이 과잉된 속에서 사는 데 익숙한 우리에게는 이들이 갖는 불빛을 통한 동경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이들에게 불빛은 ‘밝다’라는 시각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되고 발전된 세계라는 심상적 상상, 일종의 세계에 대한 환타지와도 같다. 또한 상대적으로 어두운 자신의 도시와 불빛으로 반짝이는 국경 너머 도시 사이의 극명한 차이는 부의 수준을 판단하는 시각적 지표로도 여겨진다. 접경지역 함경북도 셋별군과 양강도 혜산시에 살았던 구술자들은 중국 도시들이 내뿜는 불빛을 통해 호기심 어린 세계에 대한 동경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다.

구술자: 그러니까 저희, 저희 집에서 내려다보면 중국이 보여요.  
중국 보면 불이 번쩍번쩍한 게 진짜 멋있고.

I
II
III
IV
V
VI
VII

연구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구술자: 그냥 가고 싶다.  
 연구자: 저게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번쩍거리나?  
 구술자: 네. 불도 이런 명절이랑 되잖아요. 그럼 한 일주일 동안  
     축포 쓰고 하니까 좀 멋있죠.  
 연구자: 굉장히 뭔가 저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러나. 이런 생  
     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구술자: 그냥 잘 사는구나. (사례 36 구술녹취록, 2013 I/61-62)

중국은 그냥 눈앞에 있는 거니까 잘 살고, 막 이렇게 좀 호기심  
 하고 저기 사람들 뭐 먹고 사나, 우리처럼 쌀 먹고 사나 뭐 이렇  
 게 호기심 가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2층짜리 건물집  
 에서 호화롭게 앉아서 진짜 그냥 하늘에서 돈이랑 떨어지는 거  
 처럼 그렇게 진짜 멋지게 잘 사는 그런 생각 갖고 그런 생각 했  
 어요, 그냥. 그런 환상적인 생각. 저도 여기 올 때도 그런 생각  
 --. (사례 33 구술녹취록, 2013 I/38)

이렇게 국경지역에서 중국 도시의 불빛을 보며 자랐던 청소년들 중  
 에는 동경을 넘어 실제로 그곳에 살고 싶다는 현실적 욕망을 갖기도  
 한다. 함경북도 온성군의 중국과 통하는 교두가 있는 삼봉에서 살았던  
 한 구술자는 중국의 불빛을 보고 자라면서 ‘저런 데 살고 싶다’는 욕망  
 을 갖곤 했다고 한다. 이런 욕망을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나름 진지하게 고민도 하게 된다. 주위 친구의 대부분이 이런 동경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아--, 다른 세계에 가고 싶다는 거는 제 친구애가, 친구의 아빠  
 가 이제 외국 다니는 배를 탔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런 배  
 라도 타고 싶고, 외국 나가는 배를 타보고 싶고, 그 외화벌이를  
 많이 하는 그런 데서 일하고 싶은.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막 한  
 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랬던 거 같  
 아요. ((친구들도)) 그런 거는 많이 가지고 있죠. 어디 가서 살고  
 싶다. (사례 39 구술녹취록, 2013 I/47-48)

한편 이런 욕망은 구체적으로 국경을 넘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북·중접경지역에 살았던 한 구술자의 경우, 중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친구 열 명 중 대부분이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이들의 도강과 탈북은 특별히 중국에 대한 정보나 구체적 삶의 계획에서 감행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금 사는 곳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함에 기댄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주위의 친구들이 넘어가는 것을 자주 보며 도강을 보다 쉽게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높다.

구술자: 그냥 저희 친구들도 같이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6학년 졸업해서 거의 한 90%는 다 없어졌어요. 다 중국가고. 남은 게--.

연구자: 90%가 없어졌다고요?

구술자: 네, 저희 친구들 거의 열 명이 되거든요. 내가 있을 때까지 네 명이 됐어요, 저까지. 저까지 오고 나니까 세 명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세 명도 있는지 잘 모르고 그 다음 나머지 일곱 명은 다 여기 왔어요.

연구자: 알고 있는 친구 열 명 정도 있었는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다 그럼 중국을?

구술자: 네, 다 가고 그렇게밖에 없어갔고 내가 졸업해서 명절날에 놀자 해도 놀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옛날에 알던 그 친구들. (사례 33 구술녹취록, 2013 I/24-25)

연구자: 이상한 생각이라면 어떤 생각?

구술자: 내가 여기 더 있어서 뭐 하겠냐. 진짜 뭐 이런 나라에서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뭐, 콧 죽어버리든 어디에 가든 이런 그런 생각 하는 거죠. 죽는 것보다 가는 게 더 나으니까.

연구자: 간다는 거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 보고 나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구술자: 뭐 주변의 사람들이... 한국에 간다는 건 모르고, 그냥 중국에 가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중국에 가면 어떻게 사는 방법이 나지겠지. 그래서.

I

II

III

IV

V

VI

VII

- 연구자: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하잖아요.
- 구술자: 당연히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어차피 중국에 가면 여  
기보다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죠.
- 연구자: 어떻게 해서 알게 돼서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거지?  
중국 가면 여기보다 낫겠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계기가?
- 구술자: 계기라기보다도 이렇게 TV 있잖아요. 그 중국채널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주파수를 잡아서 보니까. 자꾸 그  
런 거 보니까 생각이 좀 많이 가고. 그러니까 그 중국이  
저하고 또 가치이에 있으니까, 자꾸 보게도 되고. 강에  
나가서 진짜 빨래를 하고 물을 길고 수영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중국은. 다 수영장에 가고 물도 다 나오고 하  
니까. 생각하는 게 다 있죠. (사례 5 구술녹취록, 2013  
II/20-21)

이런 연속선상에서 청소년들은 여러 이동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사  
는 곳과 다른 도시와의 차이를 발견하고 다른 도시에서 살고 싶은 동  
경을 갖기도 한다. 이런 차이의 인식은 지역 및 도시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삶의 차이나 도시가 주는 문화적 경관의 차이를 통해서이다.  
일단 도시는 보다 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촌에서는 동  
경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도시가 젊은 세대들에게 주는 매력은 시장  
에 물건이 많고 생활경제의 편리성이 있다는 것도 크지만, 상대적으로  
농촌보다 넓고 반듯한 도시 경관 때문이기도 하다. 새로운 세대에게  
도시성(urbanity)은 바로 시장의 흥청거림, 상점의 진열장, 거리의 불  
빛, 세련된 도시적 옷차림, 큰 도로 등과 같은 시각적 스펙터클  
(spectacle)에 있다고 할 수 있다.<sup>84</sup> 이들 모두는 시장이 생활의 중심  
이 된 사회를 구성하는 기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각적

---

<sup>84</sup> 기 드보르 지음, 이경숙 옮김, 『스펙터클의 사회』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6), p. 12.

스펙터클 이면에 빈부의 차와 계층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들 세대도 인식하고 있었다.

구술자: 엄마는 너무 자주 거기서((청진에서)) 장사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 가 봤어요. 그런데 무산보다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은 좀 도시잖아요. 그리고 물건도 되게 싸요. 무산보다 항상 싸고 거기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보고 나도 여기서 이사 오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가 이사 계획도 세웠었는데-. (...)

연구자: 청진이 좋은 이유, 살고 싶은 이유는?

구술자: 일단은 넓은 거 같아서요. 그러니까 무산에 이렇게 너무 뻘뻘해요. 뭐 대충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알지는 못하지만 그 얼굴은 거의 다 알 거 같은 그 정도로 뻘뻘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사는 게 되게 좋았던 거-. 또 바다를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바다를 보니까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46-47)

무산하고 달리 청진은 이 빈부 차이가 진짜로 심해요. 잘 사는 집은 자동차 다 있고 그런 정도고요. 자가용차 그거 진짜 자동차 있고, 집도 여기로 말하면 저 개인 저택 정도 집에 뭐 큰 피아노도 다 독방에 있고, 그런 집이 많아요. (사례 21 구술녹취록, 2013 I/30)

이들에게 공간적 불평등은 평양과의 상대적 비교 속에서 이루어진다. 평양이라는 도시 위계의 정점, 정상성을 기준으로 자신들이 사는 도시나 지역이 갖는 결핍과 부족함, 한심함을 대비 차원에서 경험한다. 평양은 화려하고 깨끗한 외관, 그리고 경제적 풍요와 높은 정치적 위상이란 차원에서 여타 도시와 비교가 힘들다. 그런 평양은 여타 도시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사회적 인지거리에서 멀고 가기 힘든 곳이다. 1990년대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평양과 여타 도시 사이의 차이는

I
II
III
IV
V
VI
VII

보다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것을 인식하는 시선 역시 많아졌다. 다른 도시의 청소년들에게 평양은 자신들이 상상도 못하는 풍부한 먹거리와 키도 크고 몸집도 큰 육체적 차이로도 대비된다. 이런 거리감과 격차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평양사람들을 ‘재수 없는’ 사람들로 보는 심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은 막 외국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다 양복 입고. 그리고 평양사람들은 일단은 평양에 가면 우유랑 계란은 나라에서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개네들은 우유랑 계란 이랑 먹기 싫으면 막… 매달 내주니까, 먹기 싫으면 막 얼굴에다가 바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키도 엄청 크고, 평양 애들은 키도 되게 커요. 그리고 되게 양복 입고 다니는 거 많이 본 거 같아요-- 그 성분, 성분 차이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평양에서 살고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외국도 못 나가고 이러니까 좀 재수 없는 느낌. 좀 그런 느낌 들어요. 그리고 평양에 가는 사람들은, 평양에 아무 사람이나 거주 못해요. 거기는 딱 어떤 사람들만 거주할 수 있는가? 막 아빠가 무슨 뭐 항일혁명투사인가 백두산줄기라 해요, 그런 걸 보고, 그런 사람들만 저 평양에 살 수 있고, 그 다음 웬간한 사람 평양에서 못 살아요. (사례 18 구술녹취록, 2013 I/39)

깨끗해요, 일단. 평양에 막 회의 가서 평양에서 한 1주일씩 머물다가 청진에 오면 아 눈뜨고 못 봐주겠어요. 너무 더럽고. 평양 가면 인상이 깨끗해요. (사례 21 구술녹취록, 2013 I/45)

#### 4. 소결

새로운 세대는 다양한 사물과 장소의 경험을 통해 자신들만의 세대적 특성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첫째, 화폐(돈)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 물신화된 정체성이다. 이들은 부모 세대와 달리 김일성, 김정일만

바라보면서 있지 않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열려 있는 세대’, ‘깨어 있는 세대’이다. 그저 원칙대로 살기보다는 영악하고 융통성 있게 생각하는 ‘똑똑한’ 세대이다. 이들은 시장을 통한 소비와 관계에 익숙하다는 점에서 ‘시장세대’, 화폐의 중요성을 그 자체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대란 점에서 ‘화폐의 세대’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세대는 직업에 대한 인식에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사고를 한다. 힘 있고 돈이 되는 직업을 열망하는 세대이다. 안전원, 군관 등이나 간부로 통칭되는 지위에 대한 열망이 컸다. 이들 세대의 지위 열망은 국가가 제시하는 영웅에 대한 냉소로 표현되기도 한다. 셋째, 학교 내 계층적 차이를 일상적으로 경험한 세대이다. 세외부담은 학교 내 빈부에 따른 계층화, 계급화 현상과 그대로 맞물려 있다. 이런 학교 내의 계층적·계급적 위화감과 좌절은 세외부담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여 이들 세대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새로운 세대의 패문화에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구별 짓기와 위계가 작용하고 있다. 경제적 능력이 명확하게 학생들을 가르는 패의 경계선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 사이의 위계와 관계문화에도 경제적 능력이 중요한 자원으로 이용된다.

다음으로 외부세계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사물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새 세대의 특징이다. 첫째, 사물들에 대한 위험성과 청소년 오염에 대한 국가담론이 늘어났다. 자본주의 문화 유입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북한 당국의 목소리는 내부문건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외부세계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사물들이 새 세대의 행위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다른 세계의 생활모습을 보고, 이를 동경하고 모방하는 행동들이 일반화되었다. 사물들을 통해 ‘세련됨’에 대한 미적

I
II
III
IV
V
VI
VII

감각, 물질적 풍요에 대한 욕망, 정서적 공감 등을 갖기도 한다. 셋째, 사물의 소유와 소비를 통해 계층적·계급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아를 구성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모방과 재현은 소유와 소비 능력을 갖고 있거나 정치적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특정 계층의 청소년들에 의해 주도된다. 또한 또래집단을 형성하고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새롭게 들어오는 사물과 유행에 대한 정보의 공유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사물들을 통해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와 동경을 많이 하는 세대이다. 이들은 다양한 사물들을 통해 또래문화를 만들고 공유하기도 하고 외부세계를 상상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다음으로 장소에 대한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새 세대의 특징이다. 첫째, 1990년대 이후에는 익명화된 개인들의 장소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북한의 새로운 세대는 바로 이런 ‘비-장소’를 경험하는 세대라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 새로운 세대는 이동성과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세대란 특징을 갖는다. 이들은 장소 이동을 통해 다양한 물건과 이미지를 경험하고 정보를 나누고 다른 세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셋째, 새로운 세대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청소년들의 ‘어슬렁거림’, ‘목적 없는 도보’이다. 북한의 새로운 세대는 이런 목적 없는 어슬렁거림을 통해 가장 무력해 보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전복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이들은 시장 공간을 문화적으로 전유하는 세대이다. 이들은 시장을 통해 보다 다양한 사물, 음식, 사람들을 접하면서 시각적이고 미각적인 감각을 이전 세대보다 많이 갖는 세대이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공간은 이들에게 소비의 공간, 소통의 공간, 감각의 공간, 욕망의 공간이다. 다섯째, 시장화에 따른 도시의 계층화를 경험하여 차이와 욕망을 발견하는 세대의 특징이다. 이들은 도시 내 여러

구역을 이동하는 것은 물론 도시와 도시 사이를 오가며 이들 구역들과 도시들 사이의 ‘차이’를 발견해 낸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세대는 도시들 사이의 지역 불평등을 인식하는 한편 외부세계에 대한 동경과 탈주를 꿈꾸는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은 빈부의 차이와 지역 사이의 불평등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은 물론 이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보고 느끼며 인식한다. 한편 도시의 거리 ‘불빛’은 새로운 세대에게는 새로운 문화적 경험이면서 동시에 나아가 미지의 세계, 발전된 문명이라는 동경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런 욕망은 구체적으로 국경을 넘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

 I
 

---

 II
 

---

 III
 

---

 IV
 

---

 V
 

---

 VI
 

---

 VII
 

---



V

---

관계와 친밀성의 경험



## 1.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친밀성, 하위문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으로 표상되는 정체성은 ‘나’를 설명하고 구성하는 주요한 개념이다. 그리고 정체성은 취향, 신념, 태도와 생활 양식의 기호를 통해 의미화되는 본질로, 담론적-수행(discursive-performative)을 통해 구성된다.<sup>85</sup> 이는 정체성은 타고나는 것,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닌 맥락적이고 구성적인, 그리고 수행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체성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청소년의 대부분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타인과 맺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하나의 개인을 구성해나가기 때문에 청소년의 특성과 정체성은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설명 가능한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삶에서 관계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때문에 이들의 삶의 양식이나 태도, 심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사회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86</sup> 그리고 사회적 관계는 개별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집단의 전체적인 실체를 형성하고, 사회적 존재의 재생산을 제한하거나 변형, 규제한다.<sup>87</sup> 따라서 이 장에서는 북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새로운 세대의 특성을 설명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주로 학교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시간을

<sup>85</sup> 크리스 바커·다리우스 갈라신스키 지음, 백선기 옮김, 『문화연구와 담론분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pp. 46~47.

<sup>86</sup> Harold D. Grotevant and Catherine R. Cooper, “Individuality and Connectedness in Adolescent Development: Review and Prospects for Research on Identity, Relationship and Context,” in Eva Skoe and Anna van der Lippe (eds.), *Persona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A Cross National and Life Span Perspective* (New York: Routledge, 1998).

<sup>87</sup> 존 클라크·스튜어트 홀·토니 제퍼슨·브라이언 로버츠 지음, “하위문화, 문화, 그리고 계급,” 『문화, 일상, 대중: 문화에 관한 8개의 탐구』 (서울: 한나래, 2005), p. 212.

보내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이는 북한의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학교에서는 또래들과 어울리며 관계를 맺고, 학교의 교육과 규율을 통해 사회 및 국가와의 관계를 구성해간다. 그리고 가정은 일차적 소속집단으로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리매김해간다. 특히 북한 청소년의 경우 지리적 공간을 넘고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기회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적 관계는 가정과 학교라는 공간, 가족과 또래관계라는 틀 속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학교와 가족 또는 여타의 경험을 통해 국가와의 관계를 학습, 구성하면서 국가구성원이 되어 간다. 여기서는 북한의 새로운 세대의 관계적 경험을 또래관계, 가정, 국가라는 공간과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생애사적 맥락에서 십 대, 즉 청소년 시기는 ‘나’라는 ‘개인’과 ‘자아’를 구성해가는 중요한 때이다. 그리고 ‘자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며, 특히 개인적 자아가 다른 자아와 만나는 과정에서 ‘친밀성’이 중요한 관계적 성격이자 관계의 기제로 등장하게 된다. 청소년기에 친밀한 관계는 또래 또는 친구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생활을 함께 하고 공유하며 소통한다. 청소년기에는 상대에 대한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타자에 대한 이해, 자신에 대한 노출과 고백 등을 통해 친구와 관계를 맺고 친밀성을 형성해나간다.<sup>88</sup>

북한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또래 관계가 이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한다. 더욱이 태어나서부터 성장 과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지역적 공간에서 거주하고 함께

---

<sup>88</sup> 임영식·한상철, 『청소년 심리의 이해』 (서울: 학문사, 2000), p. 161.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들 또래관계의 친밀성은 ‘이미 많은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친구끼리 친밀성을 깊게 형성할 수도 있지만, 서로의 배경과 환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친구맺기가 제한적이기도 하다.

한편, 사회주의국가에서는 ‘혁명적 동지’관계는 강조하지만, 친구관계는 금지되는 특성을 보이는데, 전체주의 사회에서 모든 개인이 원자화되어야 국가의 통제가 용이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89</sup> 그리고 사회주의국가의 주민들이 제도적으로 제공된 관계망에서 정치적으로 용인된 담론만을 나눈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sup>90</sup> 그래서 사회주의국가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며 국가권력의 통제력이 약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개인으로서 자아를 인식하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래집단을 형성함으로써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담론과 공간을 창출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청소년의 하위문화가 그러하다.

윌리엄스(R. Williams)는 문화를 특권 계급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경험이 이해되고 반영되는 일상적 삶의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91</sup> 문화는 특정한 삶의 방식의 표현이고 어떤 의미의 가치의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집단이나 사회가 공유하는 ‘감성구조(structure feeling)’를 밝히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또한 문화는 특정 사회 집단이 특정한 양식을 발전시키고, 그들의 사회적, 물질적인 삶과 경험에 특정한 표현의 형태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는 집단이 그들의 사회적, 물질적 존재를 조절

<sup>89</sup>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p. 310.

<sup>90</sup> 남영호, “사적인 것, 개인적인 것, 사회적인 것: 사회주의 도시의 경험,” 『슬라보학보』, 제27권 3호 (한국슬라보학회, 2012), p. 41.

<sup>91</sup> Raymond Williams, *The Long Revolution* (Harmondsworth: Penguin, 1965).

하는 방법이자 형태로, 그 집단의 특징적이고도 분명한 삶의 양식이자 의미이고 가치이며, 제도, 사회관계, 믿음체계, 도덕이나 관습, 물질이나 물질적인 삶을 이용하는 데 있어 배태되어 있는 사고방식이다.<sup>92</sup> 그러나 모든 집단이 동일하고, 이들의 문화가 동등하지는 않은데, 사회적으로 지배받는 집단조차 고유의 문화적 자산이 있다.<sup>93</sup> 이때 특정한 집단이 형성하고 향유하는 문화를 하위문화라 할 수 있다. 하위문화(subculture)는 다양한 하위집단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위집단의 욕구가 반영된 지배적 문화에 대한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대응이다.<sup>94</sup> 그리고 이들의 문화는 부모문화의 연속선상에 있기도 하고, 단절되기도 하기 때문에, 하위문화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지배적인 문화와 상호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sup>95</sup>

북한의 새로운 세대의 삶의 양식이나 태도, 가치 등은 북한의 지배 문화를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그들만의 하위문화를 형성한다. 따라서 이들 세대가 경험하는 지배문화와 이에 저항 또는 타협하여 새롭게 구성한 하위문화를 분석함으로써 공식담론과 기성세대와 충돌, 경합하는 지점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또래관계가 청소년 시기 가장 중요한 관계이자 친밀함의 대상이지만, 일차적 소속집단이자 친밀한 관계는 가족이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더라도 친구가 부모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순위가 달라질 뿐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은 사회화의 첫 단계이며, 가족과 기존 질서의 가치와 규범, 담론을 습득, 내면화하는 공간이다. 북한은

<sup>92</sup> 존 클라크·스튜어트 홀·토니 제퍼슨·브라이언 로버츠, “하위문화, 문화, 그리고 계급,” pp. 211~212.

<sup>93</sup> 드니 쿠슈 지음, 이은령 옮김, 『사회과학에서의 문화 개념』 (파주: 한울, 2009), p. 114.

<sup>94</sup>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 한울, 2003), pp. 97~98.

<sup>95</sup> 요시미 순야 지음, 박광현 옮김, 『문화연구』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p. 78.

1986년 ‘가정의 혁명화’를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면서, 가정은 혁명의 최소단위이자 사회적 생존의 단위이기 때문에 사회 세포로서의 가족이 건강하고 제 기능을 다해야 전체 사회도 건강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sup>96</sup> 그리고 선군정치 하에서 가정은 후방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등 북한에서 가정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북한 가족의 역할과 기능은 북한의 체제유지와 안정성도모를 위해 강조되고 있고, 가족은 위기 극복의 단위이자 주체로서 위치지워진다. 그러나 가정의 정치적, 사회적 역할, 구성원의 정치화 및 사회화의 기능은 가정이 정상적으로 유지, 운영될 때 가능하다. 북한에서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가정에 대한 국가통제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의 기지로서 가정의 역할과 기능 역시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식량난으로 인해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과 헤어지는 상황이 야기되면서 안식처로서 가정의 의미가 상실되어 가고,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예전과 다른 방식과 의미로 구성되게 되었다. 따라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변화 속에서 북한 청소년들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녀로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가는지 그들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래집단 및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구조와 사회질서, 즉 문화적 가치와 규범, 법, 제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 전반의 의식 변화가 발견되는데, 자본주의를 체득하고, 체제 및 최고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며, 외부 문물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졌다. 특히 화폐개혁 조치 이후, 당과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커졌고,

<sup>96</sup>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가족의 사회적 재생산과 가족제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p. 79.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sup>97</sup> 이러한 경향성은 청소년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들 중에서도 국가와 관계, 최고지도자와 관계가 청소년에게는 어떻게 의미화되는지, 그들의 경험을 살펴볼 것이다.

## 2. 또래관계와 친밀성

### 가. 또래집단의 친밀성 형성

또래집단은 연령과 신분이 비슷하며 함께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형성된 모임으로, 청소년 세계의 근원지이며 기초단위라 할 수 있다.<sup>98</sup> 청소년 시기에는 주로 또래집단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비밀을 공유하며 친밀함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또래집단을 형성하는 모든 구성원과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여러 관계들 속에서 친구의 의미가 구성이 된다.

북한은 학교에 입학하면서 만난 같은 반 친구와 졸업할 때까지 한 반에서 같이 생활한다. 게다가 생활주거지를 중심으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기 때문에 모두 친구라고 여긴다.

연구자: 친구들은 어떻게 사귀게 됐어요? 친한 친구들은?

구술자: 다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태어나서도 같은 동네고

97. 임순희·이교덕, 『최근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화폐개혁 이후를 중심으로』, 통일정세분석 2011-5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3~15.

98. 조성남·이동원·박선웅, 『청소년의 하위문화와 정체성: 또래집단, 가족, 학교를 중심으로』 (서울: 집문당, 2002), p. 31.

이러니까 다 친구죠. 그리고 좀 마음이 맞고 이런 애들.  
 연구자: 마음이 맞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구술자: 내가 하는 거 다 알아주고, 내가 뭐라 해도 다 이해해주고 이런 애들. 어떤 애들은 내가 뭐라 하면은 좀 티끌게 --. 그런 애들은 멀리 하게 되죠. 자기, 아무튼 자기랑 같이 뭐 이렇게, 내가 개네가 하는 거 다 들어주고 이런 데 개가 나 하는 거 안 들어주고 이러면 친구 어떻게 해요? 못하죠.  
 연구자: 친한 친구라면 어떤 친구가 친한 친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술자: 제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내가 좀 우울할 때는-- 뭐 친구란 게 다 같은 거죠 내가 어디 가도 같이 가고 이런. (사례 37 구술녹취록, 2013 I/21-22)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앞의 구술자처럼 ‘어렸을 때’부터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모두 친구가 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 특별하게 ‘친한’ 친구에 대해서는 자신의 나름의 기준이 있다. 사례 37 구술자의 경우는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자신과 늘 같이 다니는 친구가 친한 친구라고 하였다. 이는 청소년 세대가 소통을 통해 관계를 맺고, 이해와 공감을 통해 친밀함을 구성해간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친한 친구의 의미가 대부분의 북한 청소년들에게 전제 조건처럼 공유되기도 하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친한 친구’의 의미가 다르게 의미화되기도 한다. 경제난을 거치면서 개인과 개별 가정들이 생존유지 수단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부를 창출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경제적 격차와 계층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민의 경제사회적 변화는 청소년 세대의 친구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구자: 그 친구는 어떤 점이 좋아서 친해졌어요?  
 구술자: 그냥 친구가 제하고 대화하는 데 불편 없고, 그리고 제

I
II
III
IV
V
VI
VII

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고 좀 순수했어요. 다른 애들은 좀 생활 있다고 그런 게 많았는데, 사람 낮가림이라든가 차별이 많았는데, 개는 그런 게 없고, 우선 재하고 잘 친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샤프라든가 없으면 다른 애 들은 빌려 안 줘요. 진짜 뭐지, 사람 낮가리고 엄청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개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대상하는 게 엄청 편했어요. (사례 19 구술녹취록, 2013 I/5)

친하다면은 대부분 좀 이렇게 같이 앉고, 같이 앉으면서 좀 이렇게 내 사정을 알고, 개 사정을 좀 잘 아는, 집안 생활부터 좀 아는 사이부터 더 가까워지고. (사례 22 구술녹취록, 2013 I/27)

앞의 두 구술자들처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경제적 생활수준이 친구의 기준이 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차별과 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경제적인 생활수준을 잘 알면서 이를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된다. 특히, 사례 19 구술자의 경우는 동네에서 반 친구를 마주쳐서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을 보고 소외감을 느꼈다. 자신이 가난해서 학교에 잘 못 갈 뿐만 아니라 외모에서나 생활에서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소외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친구들 사이의 배제와 소외는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구술자: 예전에는 돈, 돈 개념이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저희처럼 그렇게 안 했던 거 같아요. 그냥--

연구자: 돈 있는 애가 나름대로 반에서 인기 있고 이렇게 애들하고 잘 어울린다는 게 그만큼 뭔가 잘 쓴다는 애긴가요?

구술자: 잘-- 많으면 일단은 잘 써요. 그러니까 여러 친구들한테 뭐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또 더 많이 그렇게--.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23)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라 하더라도 취향과 관심의 유사성 등에 따라 친구집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최근 북한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생활수준의 유사성이 친구집단 형성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끼리,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끼리 집단을 만들어 그 안에서 친밀함을 형성하는 것이다. 사례 40의 구술자처럼, 이러한 과정은 단지 친구들 사이에 끼지 못하는 것의 문제뿐만 아니라 ‘돈’이 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친구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집단, 집단 사이의 위계는 사회적 수준의 계층화 현상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을 통해 계층화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친구들 사이의 차이와 배제, 소외를 통해 이들은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미래의 가능성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 세대가 또래집단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담합과 비밀, 정보와 생활의 공유라 할 수 있다. 친밀성은 비밀 공유, 충고, 위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의미와 실천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관계를 통해 다른 관계들과 구분을 짓고, 그 관계를 유지, 강화해 나가기 때문이다.<sup>99</sup> 북한 청소년의 경우도 또래집단 사이에서 자신들의 비밀과 고민을 공유하고, 담합하면서 친밀성을 유지하기도 하고 이들 집단만의 문화를 형성한다. 대표적인 담합의 예가 생활총화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친구끼리 생활총화를 짜서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드시 지켜야 할 규율이자 의례로서 생활총화는 피할 수 없지만, 할 이야기도 없고 형식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반 친

<sup>99</sup> 비비아나 A. 젤라이저 지음,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옮김, 『친밀성의 거래』 (서울: 예코라브르, 2009), p. 140.

I
II
III
IV
V
VI
VII

구들끼리 담합하여 생활충화시간을 넘기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통제에 반하는 행위를 실천하고 공유하는 행위는 내부적 친밀감을 느끼는 데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sup>100</sup>

그리고 이들 세대의 관계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집단주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활과 활동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면서 지낸다. 그런데 학교를 잘 나가지 못하거나 학교의 일정에 따라가지 못할 때 친구들로부터 소외를 느끼고 그들과 친밀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기도 한다. 1997년에서 2010년까지 함경북도에서 중학교 교사를 했던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에 따르면, 출석률이 40~50%대라고 하였다(사례 31). 구슬자들 중에서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아예 중단하거나, 결석을 빈번히 한 경우들이 있었고, 특히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느라 학교에 가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사례 19, 사례 37, 사례 23). 이처럼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해 소외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리고 방학이나 학기 중에 나가는 노력동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친구들과 친해질 기회를 잃기도 하였다.

북한 청소년에게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노력동원은 일상으로부터 탈출이며 부모로부터 한시적인 독립의 기회이다. 그래서 노력동원 기간에 행하는 노동이 어렵긴 하지만, 그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친구들과 친밀함을 돈독히 하게 된다.

연구자: 봄가을로 한 달씩 좀 멀리 나가서 하는 노력지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때요? 나간다 그러면은?

구슬자: 그거는 저는, 4학년 때부터 나가거든요. 중학교 4학년 때부터. 그전에는 어려서 안 내보내요. 그런데 그냥 함

---

<sup>100</sup>- 김래은, “북한의 ‘새 세대’ 특성 연구: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청년층의 형성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4), p. 65.

게 모여서 하니까 저는 좀 등산가는 기분으로 처음에는 갔어요. 간식도 많이 사갖고 갔는데, 그런데 정작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완전 힘들게 일하고, 또 그 재미가 났다면요, 오전하고 오후엔 되게 일만 시켜요. 그 햇볕 쬐이는데. 밥도 대개 다 옥수수, 강냉이밥만 주고. 그런데 저녁에는 또 애들끼리 모여서 그 오락회 같은. 그 재미로 가는 거예요. 저녁에 노는 그 재미로.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15-17)

어려운 노동을 함께 해냈다는 동질감, 통제로부터 자유를 느끼며 누렸던 유희들이 이들 또래집단이 공유하는 경험이고, 이것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 집단의 결속감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다보니 경제적 이유로 참석을 하지 못했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참석하지 않았건, 그 경험을 공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타적 의식이 생겨난다. 이처럼 함께 공유하는 경험이 또래관계의 친밀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또래집단 간에, 친구들 사이에 친밀성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공유 등과 같이 감정의 이입과 유사성 등을 통해 형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친밀감의 형성 과정은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수준이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학교생활이나 친구들과 나누는 경험이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달라지면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는 정도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수준 자체가 친구들 사이에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계층적 분화에 따른 또래집단의 형성과 친구맺기 과정은 이후 이들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전유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적 계층화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I
II
III
IV
V
VI
VII

## 나. 과잉됐지만, 가벼운 사랑: 이성관계의 확산

북한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세대 특성을 규정하거나 다른 세대와의 차별성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성관계이다. 기성세대와 달리 최근 청소년들은 이성친구를 사귀는 경우가 많고, 이성친구에 대한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다. 이러한 이성관계, 연애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차이가 청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느끼는 세대적 특성이다.

지금 일부 청년들 속에서는 올바른 사랑기준이 없이 오직 리해 타산으로 결혼을 하여 부당하게 리혼하는 현상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청년들의 사랑과 결혼은 철저히 혁명적동지애로 관통되고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위한데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sup>101</sup>

북한에서 연애는 사적 감정으로 여겨진다고보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반한 혁명적 관계로 담론화되었다. 결혼 역시 개인과 개인의 애정에 기반을 두었다기보다 혁명적 관계의 결합이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개인적 감정을 중시하는 연애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는 결혼에도 영향을 미친다. 북한에서는 1970년대까지는 전통적 결혼 관습에 따라 배우자 선택을 주로 중매를 통해 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야 연애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연애결혼이 더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

<sup>101</sup>- “자본주의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p. 14.

연구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땠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남자·여자애들 사귀는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구술자: 굉장히 많았었는데.

연구자: 굉장히 많았어요?

연구자: 굉장히 많았다는 건 어느 정도? 반 정도? 아니면 더 돼요?

구술자: 한 30% 정도면 많은 거죠.

연구자: 30%?

구술자: 네.

연구자: 30% 정도가 아무튼 자기 짝이 있는 거지?

구술자: 짝이 있거나 아니면 뭐 짝을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거나 뭐. (사례 38 구술녹취록, 2013 I/27-28)

연구자: 그런 ((연애)) 얘기를 친구들끼리 많이 해요? 편하게 해요?

구술자: 믿는다는 친구들끼리. 믿는다는 친구들끼리 하고. 애들이 뭐 사랑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뭐 이런 걸로 생각 하길래 뭐 숨기고 그러지 않아요. 저 강안에서 살고 저 중학교 3학년, 그때까지만 해도 막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 애들이 남자 여자 같이 걸어가면 영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6학년 돼가지고 그렇게 없는 애들이 더 민망스러운 거예요. 놀러가니까 가네 명절에 놀러가면, 남자친구 데려오는 거예요.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려오고. 그런데 혼자 가면 엄청 민망스러워요. 네, 없는 애들이 더 민망스러워요. 막 ‘자는 왜 없지’ 하면서 이상하게 보는 애들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놀러 갈 때는 좀 불편할 때도 있고. 혼자 걸어가는 애들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고. 좀 그런데 막 하는 애들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애들은. 저한테는 너무 그 애들이 남자와 여자고 좀 그런데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어린애들부터. (사례 19 구술녹취록, 2013 I/19-20)

북한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구술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많은 청소년들이 연애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이성이라고 한다. 구술자 본인이

I

II

III

IV

V

VI

VII

이성관계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많기도 하였고, 다른 친구들을 보았을 때 많은 수가 연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당장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연애에 대해 이야기하면 상대적으로 연애를 많이 하고, 관심이 많다고 느낄 수도 있다. 연애 증가에 대한 체감 정도와 인식이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청소년의 연애는 증가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연애관계에서 가족이나 조직의 뜻보다 개성과 취향이 중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sup>102</sup> 그런데 이러한 자유 연애의 증가는 결혼과 연애를 분리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 얘기까지 안 하고 그냥 학교 내에서 “재 좀 괜찮다.” 그런 정도까지. 결혼까지는 별로--. 또 북한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한 번 연애하면 결혼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요, 되게.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내가 재랑 결혼도 할 거 아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재는 참 -- 그러네. 그런 데 개가 깎던 거죠.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41)

사례 40 구술자의 이야기처럼, 결혼과 연애를 분리하는 것은 ‘깡’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북한 청소년의 생각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연애하면 결혼까지 가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쉽사리 연애하지 않고, 또 남학생의 경우 군대를 가야하기 때문에 연애를 선불리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연애와 결혼을 분리하는 것이 ‘깡’ 생각으로 여겨질 만큼, 연애와 결혼의 분리가 새로운 가치관이자 의식으로 여겨지고

<sup>102</sup> 이인정, “1980년대 이후 북한 ‘새세대’의 가치 변화 연구: 『청년전위』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박사학위논문, 2004), pp. 190~191.

있다. 연애, 사랑이라는 감정의 대두와 연애관계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 졌다는 것은 근대적 개인으로서 자율성에 대한 인식 확대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자유연애는 단순한 사랑타령을 넘어 자신만의 개인성을 획득하는 사건이고, 사회 질서에서 규정된 위치에서 벗어나 개인과 개인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sup>103</sup>

그런데 이성친구를 사귀는 것이 보편화되고, 어렵지 않게 이성친구를 사귀다 보니, 그 관계의 깊이는 알아지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사례 5는 주위 남자친구들 중 여자친구를 2, 3년 정도 오래 사귀는 친구들도 간혹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평균 한 달, 짧을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사귀고 여자친구를 바꾼다고 말한다. 본인도 제일 길게 사귀어 본 것이 석 달인데 “자꾸 보면 질리기” 때문에 한창나이 때 “실컷 놀려고” 많은 여자친구들을 사귀었다고 말한다.

사례 5 구술자의 이야기처럼, 청소년 세대에서 나타나는 연애 풍토 중 하나가 짧은 기간의 연애와 많은 연애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성친구를 사귀는 것이 일상화, 보편화된 것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친구 또는 이성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놀이 등이 제한적인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 이성친구와 함께 갈 수 있는 곳, 할 수 있는 놀이 등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 반복되는 만남에서 지루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만남의 방식을 다양하게 하지 못하는 대신, 상대를 바꿈으로써 새로움을 찾는다. 이 경우, 연애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행위라기보다 관계를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는 하나의 형태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볼 수

<sup>103</sup> 권수현, “삶의 정치로서의 친밀성,” 『한국여성철학』, 제15권 (한국여성철학회, 2011), p. 103.

있다. 다시 말해, 연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상대를 바꾸어 연애를 함으로써 또래들 사이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성과의 연애가 확산되는 현상과 함께, 연애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에서도 변화가 보인다. 연애관계의 유지는 애정을 표현함으로써 가능한데, 이들 세대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가 선물이다. 사랑을 확인하고, 이성이 자신에게 잘해준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이 선물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선물의 양과 질이 애정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기도 하고, 이성관계의 목적 자체가 선물과 같은 물질적 이유가 되기도 한다.

연구자: 남자가 어떻게 하면 잘해줬다고 그래요? 사랑하고 이러면?

구술자: 사랑하면 같이 많이 다니고, 자기 해달라고 하는 거 해주는. 잘해준다.

연구자: 뭐 해달라고 하는데?

구술자: 주로 뭐 옷 사 달라든가, 그리고 핀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는 보석핀이랑 그냥 비싸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린 데서는 보석핀이랑 엄청 비싸거든요. 반짝반짝 하는 거. 그런 거 막 사달라고 막 하고. 자기 해달라는 거 잘해주면 잘해준다 해요.

연구자: 남자애들도 연애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네.

구술자: 있어야죠. 못사는 애들 못해요. 잘사는 애들 하고 (사례 19 구술녹취록, 2013 I/31)

구술자: 잘 꾸미고 다녀도 여자애가, 여자애가 막 꾸미고 다니고 좀 생활이 좋다면은 그런 애들은, 여자애들한테도 좀 이렇게 빼먹으려고 그런 남자들이 막 붙거든요.

연구자: 있는 집 여자애들 빼먹으려고 사귀다고 하더라고.

구술자: 네, 지금은 남자애들도 빼먹으려고 사귀고 여자애들도 빼먹으려고 사귀고. 다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살려구 친하는 사람도 있고. (사례 5 구술녹취록, 2013 II/34-35)

이들 세대에서는 관계의 친밀성, 애정의 정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물질이 중요해졌다. 개별적으로 생일선물을 주고 받는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고, 사귀는 사이에서 선물을 사달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례 19 구술자의 이야기처럼 연애편계도 경제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회 자체가 차단되거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기도 한다. 경제적 이유로 연애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례 19와 사례 26이 그러하다.

구술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관심 가져야 가질 수 없어요.

연구자: 왜?

구술자: 잘 사는 애들이랑 그런, 오직 생각하는 게 사랑. 아니면 뭐 그러러한 데밖에 생각 안 하는데, 그런데보다도 어떻게든 하루라도 먹고살 수 있는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돈 있으면 엄마가 언제 또 병이 올지 모르니까, 약도 사놔야 되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하고 싶어도 뜻하지 못하는 사랑에 대해서 하고는 싶지만은 그런 조건이 없었어요. (사례 19 구술녹취록, 2013 I/14-18)

구술자: 그냥 자기하고 사귀재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사귀자고 해서 그냥 웃고 쓱 지나쳤어요. 설마 나 같은 사람을, 그런 생각이었겠죠. 저는 못 살았으니까. 설마 나 같은 사람을 그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걸 세 번을 반복하는 순간에 감정이 상한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놀리냐고 막-. 오빠 소리도 안 하고 막, 야자하고 막 막말했어요.

연구자: 어떻게 쫓아다녔어요?

구술자: 그 집에서 일하니까 저녁 땀 집에 갈 거잖아요. 저녁 때, 그 다음에 집에 누구도 없을 때, 계속 내가 일하는데 와서 그냥 말하고, 말 시키고 그런 게 되게 짜증나고 인상도 쓰고 (···) 계속 따라다니니까 저도 귀찮죠. 일은 해야 하는데 계속 말하고 하니까. 그 집에 오기도 불편하

I
II
III
IV
V
VI
VII

잖아요, 그래서 막 인상을 쓰고… 마지막에 계속 따라다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오빠하고 나하고 사귀다면 오빠네 아버지 엄마가 가만 안 있을 거라고. 그건 자기가 다 막는대요, 일단은. 그런데 그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에는 내가 너 같은 여자를 왜 좋아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 그런데 마지막에는 알게 돼가지고, 끝나긴 끝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다 들은 거예요. 그 오빠가 방에서 말하는데 큰엄마가 나갔다가 어떻게 해서 들어온 게, 우리 둘이 말하는 거 다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상을 쓰면서 나한테는 못 그러지만 그 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빨리 군대 가라고. 그 오빠는 마지막까지 싫냐고 그러고 갔어요. 싫다고, 난 싫다고 했어요, 끝까지. 안 될 거니까. 괜히 됐다가 그 상처라는 게 얼마나. 싫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되게 너는 잘난 것도 없고, 너네 집 가풍도 잘 사는 것도 아는데 너는 왜 그렇게 그러냐구. 그 소리에 너무 열 받았어요. (사례 26 구술녹취록, 2013 I/21-23)

사례 19와 사례 26의 구술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친구관계를 맺는 것에서도 소외와 배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연애관계에서도 그러하였다. 그들에게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물질적 수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연애를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고, 식구들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애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설사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좋아하는 상대가 있다하더라도 자신의 처지가 연애 상대나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연애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맺기가 그러했듯 이성관계에서도 계층적 특성이 나타난다. 연애를 할 당시에든 유사한 경제적 수준의 상대끼리 만나기도 하지만, 연애와 결혼을 분리하면서 연애관계에서는 상대의

경제적 수준이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결혼을 선택할 때는 경제적, 사회적 수준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물질교환이 동반되는 연애관계, 계층화된 연애관계가 북한 청소년의 연애관계를 모두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경향은 외부문화의 확대와 주민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의 심화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3. 또래집단과 하위문화

#### 가. 놀이문화

청소년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위치에서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특정한 형식으로 자신들만의 놀이문화를 창출, 향유한다. 친구들과 끼리 모여 놀거나 패싸움을 하고, 연애를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된 조건 내에서 그들의 문화를 형성하고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북한 청소년들은 출신성분 등과 같은 구조적 제약과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투자에 관심이 없는데, 부모 역시 그러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공부나 진로에 대한 부담보다 현재의 즐거움에 대한 관심이 크고, 이것이 놀이문화로 형성된다.<sup>104</sup>

구술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시내에 나가 구경을 하거나 축구와 같은 운동을 하거나 친구 집에 모여 노는 것이 놀이의 대부분이다.

<sup>104</sup> 조정아, “북한 중등학교 규율과 ‘반학교문화,’” 『한국교육사회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교육사회학회, 2004), p. 134.

I
II
III
IV
V
VI
VII

연구자: 거기 있을 때 가장 고민은 뭐였어요?

구술자: 2학년 때까지 고민이 없었어요. 3학년 때까지도. 4학년 되니까 학교 끝나고 할 짓이 없으니까. 중3까지는 축구하고 막 뛰어놀고 그랬는데 4학년이니까 뛰어놀기도 싫고. 어린애들처럼 방방 뛰기도 싫고. 싸움질도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이상 안 하게 되고.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이 뭐지 여자친구에 대한 말음--.

연구자: 할 게 없는 게 고민이야?

구술자: 네, 할 게 없는 게요, 진짜로 할 게 없는 게 고민이에요. 토요일 되면 아, 오늘 뭐하지, 그게 고민이에요.

연구자: 일요일에는 뭐 했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땐?

구술자: 거기서는 토요일까지 학교 나가고 일요일만 쉬거든요. 그런데 일요일날 집에서 전기 오면 TV나 보고, 안 되면 나가서 애들하고 그냥 돌아다니고.

연구자: 어딜 돌아다녔어요, 주로?

구술자: 좀 이상한 게 애들하고 만나면 놀 게 생겨요. 그냥 닥치는 대로 논 거 같기도 하고.

연구자: 닥치는 대로 뭐하고?

구술자: 장난도 치고 중학교 3학년 때는 폭죽을 좀 많이 사가지고 폭죽 장난을 많이 했어요. (...) 붙이면 빵 터지게. 진짜 재밌었어요. (...) 그런데 4학년 되니까 그것도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사례 35 구술녹취록, 2013 I/32-33)

소비를 할 수 있는 자원이나 친구들과 모여 놀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다 보니 청소년들은 일상에서 무료함을 느끼기도 했다. 사례 35 구술자의 이야기처럼 “할 게 없는 게 진짜 고민”일 만큼 휴일과 같은 시간에 할 일이 없었고, 그래서 ‘닥치는 대로’ 놀기도 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이 더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는 단지 사례 35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 듯하다.

구술자: 방학 때, 방학 때는 매일 매일 그냥 놀러다니고.

연구자: 주로 어디 갔었어요?

구술자: 주로 간다면 이렇게 뭐 끝에서 끝까지 막 다니고. 뭐 못 가본 데 그러면. 우리는 혜산시라면 그 시에서도 이렇게 구역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역인데 내일은 저쪽 가자. 거기 가서 또 그쪽에 애들하고 막 --. 순 그저 걸어만 다니니까, 걸어만 다니는 시간만 해도 서너 시간 걸리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빨리 가요. (사례 5 구술녹취록, 2013 I/43-44)

연구자: 혹시 시장이나 이런데 가가지고 옷을 산다든가 뭐 물건을 보러 간다든가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좀?

구술자: 가끔 했죠.

연구자: 가끔 한다는 건 한 달에 한 몇 번?

구술자: 한 달에 몇 번이 아니고.

연구자: 일주일애?

구술자: 아니요. 몇 달에 한 번.

연구자: 몇 달에 한 번 정도? 왜 이렇게, 보통 이제 조금 관심 있고 이런 친구들은 가서 옷도 사고 막, 옷은 못 사더라도 구경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구술자: 구경은 많이 하죠. 사는 거는 몇 달에 한 번씩.

연구자: 아니 그러니까 구경하는 거.

구술자: 구경하는 거는 많이 해요.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

연구자: 서너 번 정도 가서 어떻게 뭘 그냥 둘러보는 거예요, 그냥?

구술자: 둘러보기도 하고, 저희는 보통 시장에서 장사하는 부모님들이 학부형,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서 부모님을 만난다든가, 시장 한 바퀴 돌아보고. (사례 39 구술녹취록, 2013 I/28-29)

사례 5는 방학 때 친구들과 다른 동네에 놀러가곤 했는데 그저 목적 없이 걸어서 다른 동네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이러한 배회하기, 무작정 걷기 등은 최근 북한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시내에 나가 물건 구경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등 걷거나 배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배회, 걷기,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등은 방과 후나 휴일, 방학

I

II

III

IV

V

VI

VII

에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학교를 가야 할 시간에 친구들끼리 담합해서 학교를 빠지고 놀기도 하는데(사례 5, 사례 37), 학교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의 틈새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시간을 만들어낸다.

북한 청소년의 또다른 놀이문화는 친구 집에 모여 노는 것이다. 개별 친구와 모여 수다를 떨거나 같이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내는 시간과 방법은 제한적이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끼리 모여 노는 경우도 있는데, 친구네 집에 모여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식을 해 먹으면서 시간을 보낸다. 이들이 ‘집’에 모여 노는 것은, 놀이의 공간, 문화적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집’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 및 조직생활을 하다 보니 저녁에나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고 불을 밝힐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 외부 공간이 아닌 집에 모여서 놀 수밖에 없다. 친구네 집에서 노는 경우, 개별적으로 친한 친구네 집에 가기도 하지만, 무리를 지어 어울리는 경우들이 많다. 이는 전 세대로부터 이어지는 집단적 문화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고, 농촌지원활동, 학교행사 등에서 무리지어 집단적으로 노는 경험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돈을 얼마씩 걸어서 누구네 집에서 막 이렇게 밥이랑 해 먹고 막 그렇게--. 여기는 여기 애들 보면 막, 1차 2차 이러면서 그냥 여긴 다 조건 있잖아요. 돈만 가지고 가면 술집 가서 먹고 노래방 가고 그런데, 저희는 진짜 그런 게 없고 그냥--. 그런데 진짜 그렇게 놀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면 또 진짜 혼나거든요. 그래서 누구네 집 그러니까, 누구네 큰, 그러니까 누구네 집이 크잖아요. 그럼 개네 집을 정해 놓고 여자애들 막 밥하고 남자애들 이거 주패를 치고 놀고 먹고 그러고, 막 저희 노래방 없으니까 그냥 기타치고 그냥 노래 부르고 그래요. (사례 16 구술녹취록, 2013 I/16-17)

친구들끼리 집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음식을 해먹으며 놀기도 하고, 같이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기도 한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모여 노는 것도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친구들이 모여 놀 때 먹을 것을 가지고 오거나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자: 친구들하고 놀면 주로 노는 게 뭐하고 노는 거예요?

구술자: 그냥 자기들이 이제 도시락이랑 싸가지고, 그 교육절이니까나 음식이랑 해가지고 와가지고 먹고, 그리고 음악 쳐놓고 놀고, 그리고 헤어지고. 그런데 그때 학교 다닌 중에서 제일 네, 좋았던 게 그날인 거 같아요. 교육절. 그날이 제일 좋았어요. 편하게. 학교 다니면서 진짜 편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가서 애들이랑 어울려서 많이 놀고. 그런데 대개는 그 일단 놀음판일 때 뭐 잘 사는 애들이 막 이렇게 하진 못했어요. 조직적인 거니까나. 그때가 학교 다닌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날이.

구술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조직적으로 같이 노는 거니까?

연구자: 네, 따로 놀면 저는 못 놀아요. 잘 사는 애들은 잘 사는 애들끼리 노는데. 그리고 놀고 싶어도 뭐, 애들이 놀면 돈을 걷어요. 그래서 뭐 음식도 사고 두루두루 사요. 와인도 사고 포도주도 사고 막 이런 거 사 가지고. 그런데 뭐 돈 걷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는 못나갔어요. (사례 19 구술녹취록, 2013 I/22)

청소년은 생산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제한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친구들과 만나 놀거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 의존해야 하고, 부모님들로부터 돈을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조차 없다. 결국 광범위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사람은 그만큼 부모로부터 풍족한 용돈

I

II

III

IV

V

VI

VII

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친구관계의 범위와 폭도 물질적 부의 수준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 청소년들의 놀이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중 하나가 주패놀이이다. 주패놀이는 이들에게 일상적 놀이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친구들끼리 내기를 해서 진 사람이 먹을 것을 내거나 술을 사기도 한다. 이들에게 주패놀이는 도박이 아니라 단순한 놀이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연구자: 친구들이랑 모여서 주로 뭐하고 놀아요? 아까 공차고 이려고 논다고 했는데, 또 주로 어디 가는 데 있었어요? 가는 장소, 모이면?

구술자: 네, 친구 집에. 친구 부모님들 일 나가고 없을 때. 밤일 나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밤에 경비 같은 거. 그러면 그때 친구가 “야, 우리집 가자.” 그러면 거기 가서 놀고 주패, 카드놀이 있잖아요.

연구자: 주패. 주패 몇 살 때부터 했어요?

구술자: 저 중학교 올라가서요.

연구자: 늦게 한 편이죠?

구술자: 네.

연구자: 주패 하면 돈 가지고 했어요?

구술자: 그때는 제가 처음 배우다나니까 그냥 재미로 하고요. 재미가 좀 정도 벗어지면 돈 내기는 아니고요, 하고 그냥 뭐 사주고 이런 거 했어요.

연구자: 많이 진 사람이 사주고 뭐 이런 건가?

구술자: 네, 진 사람. (사례 37 구술녹취록, 2013 I/21)

그때 그 형들이, 형들이랑 같이, 그때 형들이 하지 않겠는데도 담배 이렇게—. 그때 중학교 형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수영 같은 거 하잖아요. 저희 두만강에서 수영하거든요. 그런데 수영하고 끝나고 이러면 딱 형들은 담배 피우고 이러니까 “너도 한 번 해봐.” 이라고 줘요. 안 하겠다고 이러면 딱 “그래도 형들을 따라 왔는데 같이 해야지.” 이라고요. 그럼 또 하잖아요.

그냥 집에 갔다가 그때 아빠한테 혼났죠. 아버지--.(사례 37 구술녹취록, 2013 I/25).

주패놀이처럼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남학생들의 흡연과 음주이다. 흡연 자체가 하나의 놀이이기도 하고, 흡연을 하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놀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담배를 피기도 한다. 그런데 흡연과 음주는 중학교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규율 위반행위이다.<sup>105</sup> 음주와 흡연은 성인에게 허락된 습관이자 기호로, 이를 즐기는 것은 자신을 성인으로 정체화하고,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더 성숙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흡연이 그러한데, 술은 친구들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마시는 음료의 하나로 여겨지는 반면, 흡연은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규율과 통제를 위반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우월감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 된다.

이와 유사하게 여학생들이 규율을 위반하는 것은 화장을 하는 것이다. 남학생들에게 흡연과 음주가 성인을 표상하는 것이라면 여학생들에게는 화장이 그러하다. 더욱이 이들 세대의 여학생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그 나이에는 할 수 없는 화장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친한 친구와 화장을 하고 지우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하나의 놀이인 것이다. 그리고 옷 구경을 다니고 옷을 사고 입어보는 것들을 하면서 놀기도 한다.

연구자: 친구들 모이면 뭐하고 놀았어요?

사례 4: 아, 거기서 막 화장도 하고

연구자: 화장하고 어디 가요?

<sup>105</sup>- 조정아, “북한 중등학교 규율과 ‘반학교문화,’” p. 134.

사례 4: 화장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지는 못해요. 집에서 친구들 있으면 친구들이랑 막 그렇게 꾸미고 놀다가 나갈 때는 또 바로 하고.

연구자: 지우고.

사례 4: 네, 다 지우고 바로 하고 나가고. 아침에 학교 갈 때는 단정하게 하고 갔다가 오면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또 붙잡혀서 이거 뭐지, 비판서 같은 건가, 그런 거 쓰고 막 그랬던--. (사례 4 구술녹취록, 2013 I/11)

구술자: 저희 학교 때랑 보면 돈 벌려고 막 방학 때는 막 그런 것도 해요. 여기서는 알바인데 저희는 뭐 배철이면 배과수원에 가서 막 배 이렇게 싸게 싸가지고 다른 어디 시내 같은 데 가가지고 비싸게 팔고 뭐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그런 거랑 볼 때 막-- 그러니까 돈 맛을 안다고. (...)

연구자: 밑돈 얼마로 해서 시작했어요?

구술자: 10만 원 가지고.

연구자: 얼마 벌었어요?

구술자: 그냥 저 옷이나 사 입을 정도로 벌었어요.

연구자: 응, 엄마한테 갖고 그 다음에?

구술자: 네.

연구자: 그거 해서 뭐하고 싶었길래?

구술자: 다 저희는 그냥 옷 사 입는 거.

연구자: 예쁘게 꾸밀려고?

구술자: 네. (사례 16 구술녹취록, 2013 I/9-10)

그런데 여학생들의 치장은 놀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사와 같은 돈벌이로 이어지기도 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사례 16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형편에서 생활했지만, 자신을 꾸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사탕장사를 했다. 사례 16과 그 친구들은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방학 같은 때 장사를 해서 용돈 벌이를 했고, 번 돈을 자신을 꾸미는데 쓰기도 했다. 이처럼 여학생들은 화장이라는 놀이문화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용돈벌이 장사를 해서 경제적인 수완을 습득하기도 하였다.

친구 집에 모여 늦게까지 놀고 흡연과 음주를 하고, 치장하고 결석을 하는 등의 청소년 놀이문화는 사회적 규범과 규율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일탈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들의 놀이에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처한 구속적 한계 상황에서 자발적 참여를 통해 특정한 문화를 형성하고, 이것이 저항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이다.<sup>106</sup> 이들 놀이문화 자체가 저항문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들 세대가 공유하는 문화의 하나이기는 하다. 그리고 이들의 놀이는 이들 세대가 거부하고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조건의 한계를 드러낸다. 때문에 이들의 놀이문화는 의식의 변화와 새로운 문화창출의 한계와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소소한 규범의 위반과 일탈의 집합이 기존의 가치체계나 규범들을 전복시킬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나. 패문화

북한의 청소년들이 형성하는 문화 중 대표적인 것이 패문화이다. 패문화는 주로 남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학생들도 끼리끼리 모여 놀긴 하지만, 패 안에서 위계를 정하고 역할을 구분하는 것은 남학생들의 패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북한의 남학생들은 주로 패를 이루어 시간을 보내고, 패 안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인맥을 쌓기 때문에 패에 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패 안에서 친한 친구를 만들기도 하지만, 패에 속하느냐의 여부가 그들의 위치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기도 한다. 누구나 패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이 좋거나 힘이

<sup>106</sup> 윤선희, “북한 청소년의 한류 읽기: 미디어 수용에 나타난 문화정체성과 사회변화,” 『한국언론학보』, 제55권 1호 (한국언론학회, 2011), p. 446.

세거나,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패를 유지하려면 다른 패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중심이 되는 패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구술자: 힘 센 아이 주위에 모이죠. 그 패거리에 속하는 아이들은 대개 일반중학교에서 보면, 그 패거리에 든다라고 하면 반에서 딱 어떤 힘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상위권, 혹은 중상위권 애들까지. 거기에 못 드는 애들은 그냥 중위권이나 하위권이죠.

연구자: 그 힘이란 게 어떤 힘이에요?

구술자: 글썄 어-- 일단 세다라고 생각하면 애들이 덤비지 못하는 거죠.

연구자: 힘이 센 거예요?

구술자: 힘이 세고, 주먹이 세죠.

연구자: 주먹이 센 애들.

구술자: 특별히 너무 돈이 많다거나, 너무 돈이 많은 집 애들이 대체로 주먹이 세거든요.

연구자: ○○ 씨는 속했어요, 그런 패에?

구술자: 저도 물론 속했었죠. 왜냐면 거기 속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니까. 그냥 속했어요.

연구자: 왜 바보가 돼요?

구술자: 그냥 네, 바보가 돼요.

연구자: 어떻게 되는 게 바보가 되는 건지?

구술자: 막 애들이 교실에서 막 떠들어요. 패거리에 속한 애들. “내가 오늘 영화를 뭘 봤는데.”라고 하면 그 패거리 애들 모여가지고 패거리라고 인식은 못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나 그것도 봤어. 그것도 봤어.” 막 말하는데, 거기 속하지 못한 애들이 일단 바보꼴이라는 그런 것같이 우울해 보이고. 그런 애들이 있죠. (사례 28 구술녹취록, 2013 I/20-21)

패문화가 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위계문화이다. 패 내부에는 위계와 서열이 존재하는데, 패가 보호를 해주는 대신, 패 내부의 권력에 복종

해야 한다. 패 내부의 위계문화가 싫지만, 이를 거스를 수 없는 것은 그 권력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싸움이 일상화되고, 물건을 뺏는 행위들이 빈번하다 보니, 패에 속하지 않으면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 그리고 폭력을 당하게 되면 같은 패의 동료들이 이에 대한 복수를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패는 안전장치이자 보호장치로 기능한다. 그로 인해 패의 구성원들은 보호에 대한 대가로 복종을 수행하는 것이다.

연구자: 그럼 그런 친구들 사이에도 서열 같은 게 있어요?

구술자: 오른팔, 왼팔. 네, 그런 거 당연히 있죠. 오른팔, 왼팔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오른팔, 왼팔 그 밑에 또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 한 다섯명으로 묶어진 핵심 같은 그런 애들 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진 그런 애들이구.

연구자: 심부름 같은 거 시키고 이리진 않아요?

구술자: 심부름 같은 거 시키면 당연히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뭐 옳다구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래애들 시키고. 그냥 해요. 자기가 싫어도 할 수 없죠.

연구자: 싫어도 왜 해요?

구술자: 뭐 어차피 뭐, 그렇다고 우리 학교에서 자기가 이렇게 튀어나갈 수 없으니까. 튀어나간다 해도 갈 데가 없다 --. 갈 데 없는 건 아닌데, 그냥 튀어나가면 앞으로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체면도 좀 있고 하니까. 그런 애들은 나가서 막 자기가 짱이 돼가지고 막 나가는 애들도 있고. (사례 5 구술녹취록, 2013 II/37-38)

일상화된 패문화는 패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패에 속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이나 자질, 그리고 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등이 정형화되고, 그들의 남성다움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그 세대의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I

II

III

IV

V

VI

VII

연구자: 남자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떤 친구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약간 이렇게 우리러 보고 하는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구술자: 일단 힘이 좋고 주먹이 센 친구.

연구자: 일단 주먹이 세고, 그 다음에?

구술자: 그거 같아요. 힘이 세고 주먹이 세고. 그리고-- 다른 애들은 그냥 학급에서 놀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동무들이 많이 모이다보니까, 대가리라고 해가지고 대가리 선정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이렇게 먼저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 선정해가지고, 우리 동무들 중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무슨 일 있으면 서로 또 이렇게 의논도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사례 29 구술녹취록, 2013 I/26-27)

연구자: 그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친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술자: 그냥 뭐 이제 말한 거 같이 좀--. 아, 우리 남자들 사이에요? 그냥 뭐 짱 같은 그런. 우리가 보기에도 ‘재는 남자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재는 아무 데 가서나 이렇게 친구들을 진짜 끝까지 믿는다, 그냥 재는 좀 어디서나 친구들을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개는 무조건 돼요. (사례 5 구술녹취록, 2013 II/37)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특정 집단의 남성들이 권력과 부를 갖는 지위를 점유하는 방식 및 그들의 지배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관계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이다.<sup>107</sup> 이들의 패문화를 통해 구성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세대 내에서 이상적이고, 친구들 사이에서 지위를 결정짓는 장치이자 정체성이다. ‘힘이 세고’, ‘주먹이 센’, 즉 물리적 힘을 가지고 친구들을 보호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이들 경험에서 나

---

<sup>107</sup>-Tim Carrigan, Bob Connell and John Lee, “Toward a New Sociology of Masculinity,” *Theory and Society*, Vol. 14, No. 5 (1985), pp. 551~604.

타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주요 내용이다.

남학생들의 경우, 자신들의 친분, 우정의 정도를 싸움을 통해 확인하기도 한다. 우정을 나누거나 결속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패싸움을 벌이고, 패에 속한 친구들이 다른 패에게 맞거나 돈을 빼겼을 때, 그 패와 싸움을 벌인다. 싸움을 통해 패 안에서 우정과 의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패문화 속에서 남학생들은 자기들의 우월한 정체성을 집단적으로 확보하고, 자기들 나름의 세계관을 공유한다.

그러나 패에 속한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친구인 것은 아니다.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 패에 속하지만, 자신의 속을 드러낼 만큼 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오히려 패에 속한 친구들은 속내를 드러내는 친구라기보다 필요에 의해 맺는 관계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구술자: 일단 힘센 애랑, 개 입으론 친구라고 했었는데, 제 입장은 친구는 아니에요.

연구자: 왜요?

구술자: 친구 선택하는데 되게 까다로워. 그래가지고 거기 있을 때 친구 한 명밖에. 그 친구는 진짜. 네, 그 친구가 뭐 하면 다 해줄 거예요. 그 친구는 되게 어려울 때 만나가지고, 나보다 1년 위였는데 진짜 친했어요.

연구자: 어떤 점이 잘 맞았어요?

구술자: 글썄요 서로 뭐 이해해 주는 것도 있었고 개는 일단 부모가 없었는데, 어떤 점이 잘 맞아-. 어, 일단 친구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친구편인 거죠.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내가 “힘들어.”라고 하면 내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난 니 편이다.” 또는 충고는 해주지만, “너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고 해주지만 아무튼 완전한 내 편.

연구자: 그 친구가 특별하게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구술자: 네, 저랑 성격-- 성격인가? 어쨌든 딱 보기에 애는 진짜

I

II

III

IV

V

VI

VII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계--.

연구자: 힘센 친구는 ○○ 씨를 친구라고 생각했잖아요.

구술자: 말로만 친구인 거죠. (사례 28 구술녹취록, 2013 I/21-22)

한편, 패싸움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다른 구역의 패를 만나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싸우고 나면 서로 얼굴을 알게 되고, 친구가 되어 교류를 하기도 한다. 패싸움이 적을 만들기도 하지만, 패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가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연구자: 다른 구역들은 왜 가는 거예요?

구술자: 거기 있는 애들을 만나러 갈 수도 있고, 또 거기 있는 애들이 우리 놀러 올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초청하거든요. 이렇게 뭐 놀러오라고.

연구자: 그곳 친구는 어떻게 알아요?

구술자: 거기 친구들은 그냥 학교-- 여기 짱이라면 거기도 짱이 있잖아요. 그럼 같이 만나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싸움했다가도 같이 친구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사례 5 구술녹취록, 2013 II/43-44)

청소년 세대에서 나타나는 패싸움은 하나의 놀이문화이기도 하면서, 자신에게 유의미한 소집단을 구성하고,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 사이의 힘겨루기를 통해 타인과 나를 구별하려는 욕구의 표현이기도 하다.<sup>108</sup> 그리고 패 내의 규칙 등을 만들어가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북한 청소년의 패문화는 단지 그들 세대에 독특하게 형성된 문화라기보다 예전부터 있어온 문화를 이어받은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기존 문화와 만나는 지점이다. 그리고 패문화를

---

<sup>108</sup>- 조정아, “북한 중등학교 규율과 ‘반학교문화,’” pp. 137~138.

통해 형성된 가치관이나 남성다움 등이 세대 전승되면서 북한 남성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구성해간다고 할 수 있다.

#### 다. 외부문화의 향유와 모방

1990년대 중반 이후 외부문화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북한 주민들은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문화를 영화나 음악, 드라마, 게임 등을 통해 접하고 있다. 청소년들 역시 이러한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많아졌는데, 친구들끼리 드라마, 영화, 게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CD알을 교환하면서 외부문화를 접한다. 그러다보니 청소년에게 있어 또래관계는 ‘너무나도 서구화되어 있는’ 형태로 자본주의의 대중문화를 추구하며 즐기는 ‘은밀한 장소’가 되고 있다.<sup>109</sup>

CD알을 친구들끼리 공유하거나 시장에서 사고, 친척을 통해 얻어 보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의 청소년 세대들은 외부문화를 접하고 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외부문화는 주요 관심의 대상이자 대화의 소재가 된다. 또래사이에서 외부문화 즉, 한국이나 미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것은 ‘자랑거리’가 되고 친구들 사이에 끼기 위해서라도 그런 영화 등을 보아야 한다. 한국이나 미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이것이 ‘새로운’ 문화를 상대적으로 먼저 접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력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련’되고 ‘선진적’, ‘발전적’인 것으로 표상되는 외국의 문물을 접하면서 스스로도 세련되어지는 것으로 동일시되는데, 이는 적극적인 모방을 통해 더욱 강

<sup>109</sup> 이영란, “통일 이후 독일 청소년문화 변동에 대한 연구: 동독지역 청소년의 여가문화 변화를 중심으로,” 『독일연구: 역사·사회·문화』, 제12호 (한국독일사학회, 2006), p. 167.

I
II
III
IV
V
VI
VII

화된다.

북한의 청소년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재현되는 도시의 광경이나 배우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외형과 생활양식 등을 자신의 수준에서 모방하며 이를 전유한다. 등장하는 배우들의 화장이나 옷차림, 스타일 등을 따라하고 특정 시기에 유행으로 만들어어나가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이를 문제시 삼고 교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만큼 외부문화의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 청년들은 남조선노래를 부르다 못해 좋지 못한 노래를 제멋대로 지어 부르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좋은 노래가사를 색정적이며 쌍스러운 나쁜말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 일부 청년들은 머리를 더부룩하게 하고 다니는 것을 멋으로 여기고 있으며 녀성들속에서는 머리를 길게 길러 뒤통수까지 드리우고 화장도 과장망측하게 하며 외국식으로 입술과 속눈썹을 입묵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거리로 되어 가고 있다.<sup>110</sup>

그런데, 이러한 유행의 흐름, 유행을 따라가는 모습들 속에서 계층적 차이가 발견된다. 경제적 자원이 있어야 유행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선도적으로 외부 문물을 접하고 이를 유행화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잘 사는 집 아이들로부터 시작된다.

구술자: 한 애가 입어서 되게 멋있다 하면 그걸 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모방해서 나오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 저희는 모방 같은 걸 많이 사 입고 그 원래 입었던 그 잘 사는 애들은 진짜 그런 걸 많이 사 입고 그런데서 나뉘는 거 같아요.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23)  
외부문화에 대한 모방은 단지 외형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

<sup>110</sup>- “자본주의사상문화적 침투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릴데 대하여,” p. 7.

성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남학생이 여학생을 집까지 데려다 준다가 나 다정한 말투로 여자친구를 대하고, 선물을 하는 등의 모습은 외부문화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외부문화가 선진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를 자신의 이성관계에서 재현해낸다.

연구자: 아, 데이트 이런 것도 영화에서 나온 거예요, 다?

사례 3: 네, 그리고 또 한국드라마에서 나오는 멘트라든가 그런 좋은 말들을 여자친구한테 해주면, 한국드라마 그걸 못 본 여자친구는 진짜 감동 먹는 거죠.

연구자: 예를 들면 어떤 건데요?

사례 3: 그런 거 좀-- 제가 로맨스라는 드라마 봤는데. 옛날에 그런 건데. 뭐 무슨 선생이 학생을 좋아하는 그건데. (...) 학생이 그 마지막에 뭐 “사랑해서 미안하고 있어서 고맙고.” 뭐 이런 말들 등등 해주니까, 내 그걸... 되게 좋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한 여러 번 돌려가지고 그 말 외었다가 여자친구한테--.(사례 3 구술녹취록, 2013 I/18)

외부문화를 수행하는 것은 기존 젠더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는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모방과 수행을 통해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행은 젠더관계에서 이중적 효과를 낳는다. 외부문화에서 나타나는 평등한 젠더관계를 인식, 습득, 수행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재편하기도 하는 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화된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여과없이 습득, 수행함으로써 가부장적 젠더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외부문화의 습득과 모방, 수행이 직접적인 외부세계에 대한 동경과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듯하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재현되는 다른 세계를 처음 접했을 때는 신기함과

I
II
III
IV
V
VI
VII

놀라움, 자신이 속한 세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만, 너무 다른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부세계와의 거리두기가 생겨난다. 게다가 외부세계를 접하게 되는 도구가 매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연구자: 그럼 그런 걸 보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한국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걸 보기 전에는? 한국이 어떨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한국은 학교에서 가르쳐 준 대로 못살고 험벗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

구술자: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진짜 아무 생각 없을 때 아마 그렇게 생각한 거 같고, 점점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도 좀 달라진 거 같아요. 아마 드라마 보면서 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드라마 보면서 처음에는 그리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취미로 본 거 같아요.

연구자: 취미로.

구술자: 재밌다 보니까. 남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본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아 이렇구나 하고, 두 번째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뭐 북한에는 사랑에 대한 영화도 없고 보기도 좀 약간 좀 막 그렇고 하니까. 남한 영화 보게 되면 좀—.

연구자: 미국이나 홍콩 영화나, 그냥 남의 나라 어쨌든 재미난 이야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구술자: 네, 더 좋으니까. 그래서 그, 그 다음엔 취미죠, 뭐. 싸움하는 영화도 많고 하니까. 북한영화는 진짜 볼 게 없어요. 한 마디로 말하면.

연구자: 재밌어서 보는 거구나.

구술자: 네. 그러니까 북한영화는 할 수 없이 보는 거고. (사례 38 구술녹취록, 2013 I/33-35)

사례 38 구술자가 밝히고 있듯, “재미로” 외국의 영화를 보는 경우들이 많다. 영화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영화가 주는 ‘재미’ 이상을 넘어서질 않는다.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체에서 보이는 세계가 너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매체를 통해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 남학생은 액션 등과 같은 재현되는 배우들의 모습과 행동이고, 여학생은 배우의 외모와 로맨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례 35 구술자는 “그냥 재미로 봤죠. 그거 뭐 생각을 해요.”라고 말하며, 자신이 관심 있는 영화의 장르만 미리 확인하고 영화를 골라서 보고, 그러한 장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영화의 배경이 되는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북한 청소년들이 보이고 있는 외부문화의 공유와 모방은 이들 세대가 갖는 문화적 특성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공유와 모방이 자신들의 생활 영역 안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체제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부 문물을 통한 이들의 변화 가능성의 정도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화의 수행을 통해 기존 문화나 담론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들 세대는 기존 세대와는 다른 방식의 문화적 공간을 창출해나간다는 점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4. 가정의 해체와 재구성

### 가. 생계유지 책임의 확대

가정은 개인의 생활을 유지하는 일상적 공간으로, 특정한 사건이나

외부적 충격이 없으면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된다. 청소년 세대에게 가족은 애착집단이면서도 자신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반항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것이 가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사례 28).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보호, 돌봄을 받으면서 청소년은 생활을 유지해 간다. 특히 청소년은 생산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경제적인 자원을 부모에게 의존해야 한다. 이러한 가정생활의 일상성이 북한의 경우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변동하게 되었다. 급격한 경제난으로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거나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야기된 것이다.

흩어지고 사망한 가족의 빈자리를 대신해 청소년들은 먹고 살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리고 가족이 헤어지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아버님이 이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님이 이렇게 좀 생계를 챙기셨는데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병원으로 입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둘, 이걸 책임져야 되니까. 제가 소년가장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돼서 열심히 해서-- 그땐 꽤 잘 됐었는데. 제가 벌어들인 거 충분히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경기가 악화되면서 나중에 그냥 확 그렇게 되고 말죠. (사례 28 구술녹취록, 2013 I/34-35)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은 학교에 가는 것 대신 집에서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는 등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되어야 했다. 사례 37 구술자는 북한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농사”라고 할 정도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애들이랑 신나게 놀아야” 할 나이에 일만 했다고 했다. 사례 26의 경우는 어머니가 16세에 행방불명되고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친척집과 외지에서 생활해야 했다. 더부살이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계를 위해 직접 돈을 벌러 다녔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연구자: 그런데 왜 내가 공부 안하고 동생 공부시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구술자: 제가 공부하게 되면 잘하지는 못할 거잖아요. 아 잘할 수는 있는데, 내가 일단 잘해도 내 성적 가지고 대학 좋은데 갈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가재도 뒷받침 있어야 대학 가는데, 공부 못해도 대학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는 돈도 없는데 누가 대학 보내 줄 사람도 없지 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못할 바치고는,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그거를 못 써먹을 바치고는 동생을 공부시켜서 내가 벌어서 뒷받침해서 동생을 보내자 그런 생각 가졌어요. 그래서 동생이 중학교 4학년인 걸 1학년으로 내려놨어요. 다시 기초부터 시작해서 좀 배워가지고 보내자고. (…)

연구자: 결혼은 왜 할지 말지 생각했어요?

구술자: 저 결혼할지 말지는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생이 있으니까. 여자는 아무렇게나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생은 남자니까 갈 수가 없어요. 가기는 가겠지만 힘들겠죠. 가시집에 간다 해도 가시집에서 잔소리도 많이 들을 거고, 자기가 능력이 안 되고 또 자기네 집에 뭐이 없으면 능력이-- 아무래도 죄 지은 사람처럼 수구리고 들어가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일단 먼저 보내는 거예요. 내가 능력껏 하여튼 동생이 짝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제가 갈 수 있을지 그거는 장담 못하는 거잖아요. 동생은-- 눈물 나는 일이고, 개 때는 엄마도 없이 자랐는데. 그런 소리 듣게 되면 더할 거잖아요. (….) 아무튼 동생이 많이 신경 쓰였어요. (사례 26 구술녹취록, 2013 I/12-19)

사례 26은 장사를 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도 중요했지만,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자신은 돈을 벌고 동생

I
II
III
IV
V
VI
VII

을 뒷바라지 하였는데, 본인의 결혼을 미루면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동생을 공부시키고 동생에게 좋은 혼처를 찾아주겠다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동생을 제대로 공부시키기 위해서 원래 있던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생년월일을 속여서 다른 학교에 재입학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자신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생이라도 고생시키지 않고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도리라고 생각하였고, 이것이 자신의 중요한 삶의 목표였다. 자신의 삶에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을 통해 보상받고, 동생의 발전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 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몇 명의 구술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구술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고, 또는 부모 모두가 없어서이거나 갑작스레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부모들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기도 하였다.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은 가정 경제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생계부양자로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단지 어려움으로만 의미화되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경제적인 의식이 빨리 생기고,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보다 자신이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살아갈지를 정하고, 구체적인 자신의 미래 모습을 기획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접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나 장사 수완 등을 배워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다.

## 나. 미래의 준거점으로서 부모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부모의 삶은 자녀들로 하여금 진로를 결정하고 미래의 자신을 생각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직접 직업이나 학업의 진로를 선택하여 지시하기도 하고, 부모의 사회적 자본, 정치적 자본이 간접적으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경우는 부모의 출신성분과 직업에 따라 자녀들의 직업의 범위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구술자들은 북한에 있을 때 장래희망에 대해 그다지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였다. 실제로 그들 세대가 미래에 대해 특별한 꿈과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 결정되었다는 것을 부모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꿈을 꾸지 않았을 수도 있다.

구술자들의 경우, 진로를 선택할 때 부모가 직접 개입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오히려 부모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부모에게 승인을 받는 정도로 부모의 개입의 정도는 크지 않았다.

연구자: 그런데 그거는 학교 왜 옮겼어요? 엄마가 가라고 그랬어?

구술자: 아니 시험 본 게 붙었으니까. 어차피 우리 지금 제가 원래 다니는 학교가 좋다는 건 아니까. 좋은 학교니까 봐야죠.

연구자: 시험 왜 봤는데? 갈려고 본 거 아냐?

구술자: 그냥 밀져야 본진이라고 쳐볼까하고 그냥 뭐지, 취미로 쳐봤나. 그냥 그런 시험이 있다길래 그냥 쳐봤어요.

연구자: 그냥? 진짜? 부모님이랑 의논은 하고?

구술자: “엄마 나 이거 쳐볼래.” 하고. 그렇게 하고 쳤는데 “어, 그래.” 쳤는데 붙었어요. (사례 35 구술녹취록, 2013 I/26)

I

II

III

IV

V

VI

VII

사례 35는 제1중학교를 다닌 사례이다. 일반중학교를 다니다가 시험 공고 소식을 듣고 시험을 보았다. 단지 좋은 학교니까 가 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결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모와 의논을 하거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지는 않았다. 부모에게는 자신이 결정한 내용을 알리는 정도였을 뿐이었다. 사례 5는 자신이 살던 지역과 부모를 통해 접한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막연하게 가졌던 사례이다.

구술자: 글썄요. 저는 일단 처음에는 딱히 전공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냥 물리나 할까, 이 생각.

연구자: 아버지 영향 때문에?

구술자: 네.

연구자: 그럼 대학을 가고 싶단 생각을 어떻게 돼서 하게 된 거예요?

구술자: 딱히 없었던 거 같아요. 그냥 북한에서 그때 당시 제 생각으로는 그냥 두 길이 있다. 하나는 군대 가서 막노동자로 사는 길, 두 번째는 대학 가서 간부는 못해도 그냥 좀 더,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사는 거. 결국에는 토대가 굉장히 나빠가지고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몽땅 다 여기 남한출신이어가지고 저는 간부로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느꼈던 게 뭐냐면 대학졸업하신 분이랑 안 졸업하신 분의 언어, 대화 중에, 일단 대학 졸업하신 분들은 대화 중에 그러니까 알아듣기도 쉽고, 뭔가 말하면 이해해줄 줄도 알고 자기주장만도 고집하지 않고 타협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들, 다 그렇지 않지만 자기주장만 고집한다거나 막 터무니없는 말을, 제 그때 생각은.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유행하는 말이 뭐냐면 “남자는 배워야 된다.” 우리 살던 곳이 향학열 뭐 이런 것이 강한 곳이라서. 네. (사례 28 구술녹취록, 2013 I/4)

연구자: 내가 좀 뭐 일을 잘해서, 아니면 뭐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당에 충실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구술자: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냥 네, 어떻게 돈을 벌

어서 잘 살아야겠다. 잘 살아가지고 간부들 지배하고 살고 싶은 이런 생각 밖에 없었어요. (...)

연구자: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구술자: 네, 있고. 그런데 대부분 그런 애들은-- 로동자 집 자식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진짜 백에 하나는 할 수 있는데, 50%는 그냥 집안이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세계 애들이랑 안 놀았어요, 저는. (사례 24 구술녹취록, 2013 I/36-37)

사례 24나 사례 28처럼 부모의 삶은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할 때 중요한 준거점이 된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부모나 주변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려지게 된다. 동시에 부모의 삶이나 친구와 친구 부모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체득하게 되기도 한다. 미래를 꿈꾸지만 이미 잘 사는 친구와 그 친구의 배경을 보았을 때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게 된다.

연구자: 부모님은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구술자: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 그런 음악 쪽 아니면은 그런데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예술학원에서 지도원이 저를 봤거든요. 제가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연락하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집에서 대줄 힘이 없으니까 못 했어요. 엄청 아빠 엄마한테 마음 아파하고 나도 하고 싶은 게 그거였는데 못해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투정 많이 했어요.

연구자: 뭐라고 투정했어요?

구술자: 다른 애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우리는 왜 못 살아가지고 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고. 그때는 아빠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여기 오는 것도 몰라요. (사례 19 구술녹취록, 2013 I/27-28)

I

II

III

IV

V

VI

VII

경제난을 거치면서 북한 내부의 계층화가 심각해지고, 청소년 세대의 학생들도 이미 학교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다. 그러다 보니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 자신이 고생한다는 원망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원망스러운 말을 쏟아 부을 때도 종종 있는데,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속상함을 표현할 대상과 그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부모에 대한 애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연구자: 부모님 사시는 거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구술자: 아빠랑 사는 거 보면 너무 힘들게 살아요. 너무 힘들고, 정말 어떤 때는 막 화풀이도 하고. 그리고 내 마음 먹으면 그래요. 아빠 엄마처럼 살 바에는 시집 안 가겠다고. 막 그렇게도 말했어요.

연구자: 왜 시집을 안 가, 아빠, 엄마처럼 살면?

구술자: 아빠 엄마처럼 살면 자식 고생시키고 본인도 엄청 힘들고. 아빠가 누워있고 하는데. 그렇다 할 때는 앓싸리 혼자서 살고 자기 혼자서나 챙기고. 자식들 낳고서리 챙기지 못할 바엔 낳아서 뭐하겠는가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 하고서리 생각하면 아빠 엄마 되게 엄청 가슴 아팠겠다, 말해놓고서야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언니하고 나는 시집 안 갈거야 그랬어요. 시집 안 간다고 그런 말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떤 때는 아빠보고 우리를 왜 낳았냐고 투정질 했어요. (사례 19 구술녹취록, 2013 1/27-28)

사례 19는 부모처럼 살 바에야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자식이 하고 싶은 것을 뒷바라지해주지 못할 바에야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자신을 뒷바라지해주지 못한 부모에 대한 원망이면서 부모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비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사례

26의 경우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고생스럽게 키우지 말고 저기 학교 다니는 아이들처럼 부럽지 않게” 키우면서 “내가 못 누리본 거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다짐들이 직접적으로는 사례 26처럼 동생을 돌보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열심히 사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원망은 외부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부족과 국가 정책과 조치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자신과 부모가 왜 어렵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구조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현재의 어려움의 원인이 부모가 수완이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사례 22는 다른 친구들이 잘 사는 이유가 아버지가 간부이고, 어머니가 장사 수완이 좋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장사를 잘 하는 어머니가 계속 살아있었다면 자신도 잘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이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은 국가나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다.

물론 장사를 하면서 지역을 돌아다니고 다른 문화나 외부의 정보를 접하면서 이러한 인식이 변하기도 한다. 단지 어려움을 ‘부모 탓’, ‘팔자’로만 돌렸던 사례 26은 장사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국가에 대해서나 정책에 대한 어른들의 불만을 접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틀렸고, 체제와 국가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생겨나기도 했다.

연구자: 그때는 왜 이렇게 못산다고 생각했어요?

구술자: 그때는 부모 탓. 그냥 내 팔자라고 생각했죠. 나는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 팔자로구나.

연구자: 부모 탓이라면 어떤?

구술자: 그러니까 남들 부모들은 이렇게 자식 다 학교 보낼 거 보내고, 고생 안 시키고 부모들이 다 벌어서 먹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내가 동생을-

I

II

III

IV

V

VI

VII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불만, 좀 있었죠. 그런데 국가에 대한 불만이라는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무산에 갔다와서부터 자연히 나한테서 막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저도 좀 되게 조마조마한 거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없는데다가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 되게 의심 많이 받거든요.

연구자: 그럼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못살지 할 때, 왜 못산다고 생각했어요?

구술자: 그거는 엄마가,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안 살았다고 생각했죠. (사례 26 구술녹취록, 2013 I/31-33)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북한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의 제약을 경험하면서 부모와 자신의 삶을 거리두기를 하고 부모와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미 주어진 조건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장사를 하거나, 탈북을 하는 등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 탓만 하던 생각이 변화하게 되고, 체제나 국가에 대한 비판 의식이 싹튼다.

## 다. ‘가족’의 의미 확장

고난의 행군 이후 가족 구성원의 사망과 이별이 빈번해짐에 따라 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기면서 가족이 재구성되는 현상이 발견된다. 특히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외에 친척과 장기간 동거하거나 이웃이 자녀들을 돌보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심층면접을 수행한 10대와 20대 총 34명의 구술자 중 친척이 돌보거나 혼자 또는 동생과 둘이 생활한 사례가 11명이다. 외할머니 집에서 생활한 경우가 3명(사례 18, 사례 22, 사례 4)이고, 이모와 거주한 사례가 4명(사례 29, 사례 26, 사례 27, 사례 30)으로, 모계 친척이 이들을

돌본 경우가 많다. 이들 중 고모와 이모 집을 전전하다 동생과 둘이 산 경우(사례 26)도 있고, 외할머니가 사망하여 재가한 아버지 집을 오가다 혼자 살게 된 경우(사례 22)도 있다. 이들 대부분은 계속 친척 집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살다 혼자 살거나 탈북하였다. 그 외에도 혼자 살며 이웃의 돌봄을 받거나(사례 15, 사례 39), 동생과 둘이서만 산 경우(사례 28)도 있고, 가족 전체가 할머니 집에서 살면서 어머니는 장사를 떠나고 혼자 남겨진 경우도 있었다(사례 5). 이처럼 상당한 비율의 청소년들이 주거와 양육이 불안정한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척에 의한 양육의 계기는 주로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질병, 탈북, 수감 등의 생애사적 사건에 의한 것이며, 간혹 빈곤이나 장사의 몰락으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외조부모 등에게 보내지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처럼 원가족의 해체나 가정 경제의 어려움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범위를 넓히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가족 범위의 확대는 단순히 가족 구성원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부양의 의무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미 1993년 북한은 1990년에 개정된 가족법을 재개정하여 “미성인과 노동능력이 없는 자의 부양”(제37조)에 대한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가족유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개별 가정에 그 책임을 전가한 바 있다. 결국 가족의 해체는 가족을 확대하는 결과와 더불어 가족의 부양의 의무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의지할 가족이 없는 북한 청소년의 경우는 일을 하는 공간에서나 장사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과 유사가족 관계를 맺게 되기도 한다. 사례 26의 경우 자식이 없는 부부와 동거살이를 하였는데, 그 부부를 ‘큰엄마’, ‘큰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I
II
III
IV
V
VI
VII

연구자: 그 딸처럼 대해준 큰엄마는 어떤 분이었어요?

구술자: 자식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남편하고 둘이 사는데, 그냥 장사도 안하고 농사만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농사라는 것도 땅이 계속 퇴화되면 못 짓게 되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비료도 많이 넣어야 되고. 그런데 못 사니까, 못 넣고 하니까. 그 다음엔 내가 장사하니까 거기다 퇴비도 넣고, 비료도 사 넣고 하니까. 같이 지내게 됐는데 되게 좋은 분이었어요. 딸처럼, 저는 그때 엄마라는 그런 느낌 많이--. 되게 잘 챙겨주셨고요. 내가 조금만 힘들어 할까봐. 장사하면 힘들긴 힘들잖아요. 난 아직 젊었으니까 힘들다는 생각 안 했는데 그래도 힘들다고 나이 있는 늙은이 자기가 다 하구.

연구자: 같이 살았어요? 어떻게 친해진 사람이에요?

구술자: 그녀가 아버지네 직장에서 살았는데요. 아버지네 직장에서 살다가 아버지네 직장에 3대혁명붉은기운동 하면서 직장을 다 다시 개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휴게실을 다 내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집에 동거살이를 왔어요. 동거 살면서 그 집에서 일도 해주고, 그러니까 8시부터 시간이 있을 때, 그 집 밭일도 해주고. 이렇게 가까이 다니면서 아마 일하는 거 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거 같아요. 제 말루는, 큰엄마가 나는 너한테 마음 들었던 게 좀 성실함, 그런 게 마음에 들었다고 저한테 말해줬죠.

연구자: 이분한테는 속에 있는 말도 다 편하게 했어요?

구술자: 네. 되게 엄마처럼. 그 큰아버지도 자기도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큰 재 누구냐고. 조카냐고 물어보면 딸이라고. 그렇게 편하게 대했어요. 그리고 뭐 생기면 서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누가 뭘 주잖아요. 그럼 그걸 가져다가 큰아버지 큰엄마를 주고. 또 큰엄마랑 큰아버지랑 또 어디 갔다 뭐 생기면 서로 이렇게 나누어먹구. 그저 제 자식이죠. 제가 믿음 있는 사람이죠. (사례 26 구술녹취록, 2013 I/37-38)

사례 26은 동거살이 하는 집에서 일을 도와주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비료도 넣어주고 하면서 부부와 관계를 만들어나갔다. 부모 없

이 생활하는 사례 26에게 그 부부는 ‘엄마처럼’ 돌봐주었고, 구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사례 26은 장사를 하러 다닐 때 함께 다니던 언니들과도 그런 관계를 맺었는데, 함께 장사를 하러 다니는 시간이 많다 보니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특히 구술자는 동거살이를 한 집의 부부를 자신의 삶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준 사람으로 꼽을 만큼, 비혈연가족에 대한 친밀성과 의존성을 보였다.

구술자 중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사례 28의 경우도 일하는 집에서 먹고 일하며, “그 집의 금고까지 알” 정도로 거의 ‘준식구’ 처럼 생활을 했다고 했다. 이처럼 학교를 중단하고 공식적인 직업을 갖지 않은 채 일을 하면서 개인 간의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들이나 장사를 하러 다니는 경우,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과 유사가족의 형태를 띠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 5. 국가 및 최고지도자에 대한 인식

### 가. 지배이데올로기와 국가통제력의 약화

북한에서 청년은 “주체 혁명 위업의 계승자”로 사회주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완성해야 할 주체로 규정되고 있다.<sup>111</sup>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의 붕괴, 김일성의 사망과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북한은 체제 유지에 대한 내부의 경각심을 높이게 되었다. 위기 극복과 관련한 공식 담론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한 원인 중 하나를 ‘부르조

<sup>111</sup>- 김정일, “청년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을 데 대하여(1993.2.26),”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40.

I
II
III
IV
V
VI
VII

아 사상'의 오염으로 제시하였고, 사회주의가 '변질붕괴'되면 '최대의 피해자'가 청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sup>112</sup>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새 세대의 사적 자율성이 증대되는 데 대해 제도적, 사상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새 세대를 강조하는 것은 이들이 국가 혁명을 완수하는 동력이며서도 외부 세계와 새로운 사상에 대해 민감하여 체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sup>113</sup>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육의 강조와 함께 '청년중시' 정책의 하나로 '청년절'을 제정하는 등, 청년들을 독려하고 내세우기 위한 능동적 대처를 국가적 차원에서 행하고 있다.<sup>114</sup> 이러한 통제와 담론의 강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청소년 세대들이 보이는 변화가 위기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sup>112</sup>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김정일의 연설문이 그에 해당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 사상의 원리에서 출발하여 청년들을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참신하고 전투적인 부대로,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위력한 역량으로 규정하시였습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대표하는 새 세대들입니다. 혁명위업의 명맥을 잇고 그 장래를 걸머질 담당자는 다름 아닌 청년들입니다. 세대를 이어 가며 수행되는 혁명위업을 중단없이 줄기차게 전진시키고 완성해나가자면 새 세대 청년들이 전 세대의 혁명정신을 이어 받아 선행세대가 이룩한 투쟁업적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끊임없이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양육성하는 사업을 청년문제해결의 관건적 고리로 보시고 이사업을 청년운동의 기본으로 내세우시였습니다. 청년들은 사상정신적으로 성숙과정에 있는 세대들이며 청년시기는 세계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행복의 요람이며 사회주의의 이 길에서만 청년들의 희망도 미래도 꽃피어나갈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변질되고 부르조아자유화바람이 밀려 들면 누구보다 먼저 젊은 세대들이 사상정신적으로 병들고 부패타락의 길을 걷게 되며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최대의 피해자로 되고 가장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변질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여러 나라의 력사와 현실이 뚜렷이 실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김정일,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자(1996.8.24),”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211~222.

<sup>113</sup> 김래은, “북한의 '새 세대' 특성 연구: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청년층의 형성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p. 31.

<sup>114</sup> 김종수, 『북한 청년동맹 연구: 체제 수호의 전위대, 청년동맹』 (파주: 한울, 2008), p. 369.

북한은 ‘유일체제확립 10대원칙’을 통해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절대적인 충성을 제도화하고 규범화하였다. 10대원칙은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신념화, 신조화 해야 하며, 김일성의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10대원칙의 내용을 포함한 혁명 및 역사, 정치사상교육과 관련하여, 농촌 지역의 청소년 중에는 혁명역사수업을 열심히 들었거나 학교에서 실시한 사상교육의 영향이 남아 있기도 했는데, 사례 22나 사례 20이 그러하였다.

넘어오기 전까지도, 솔직히 중국에 와서도 그게 되게 많았어요. 그 사상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뭐 수령님 장군님 그것밖에 몰랐죠. 그냥 그 사상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게 아주 진짜 여기 머릿속에 인이 배겨가지고. 넘어왔지만 그쪽에 대한 욕을 하기 싫고. 그리고 이름, 다른 사람들 막 이름 부르고 그러지 못했어요. (사례 20 구술녹취록, 2013 I/22)

그러나 북한의 청소년은 학교교육의 비정상적 운영으로 인해 정치사회화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존 세대처럼 일방적 ‘충실성’을 강요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시장이나 외부문화를 통해 변화한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기란 쉽지 않다.<sup>115</sup> 이미 경제중심적 사회구조와 분위기, 돈에 대한 관심이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압도하는 것이다.

구술자: 사상학습 같은 건 혁명역사나 그런 게 있긴 있는데요, 그것도 그냥 과목 중에 하나긴 한데, 중요하긴 한데 주관적으로는 안 좋아해요.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sup>115</sup> 이기동, “‘고난의 행군’ 세대의식과 체제변화,” 『북한학보』, 제36집 2호 (북한연구소, 2011), p. 30.

I
II
III
IV
V
VI
VII

연구자: 주관적으로?  
 구술자: 네, 그리고 딴 애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  
 연구자: 그때 그러면 사상학습 같은 거 할 때 꼭 이걸 외워야 된  
 다는 거 뭐 있었어요?  
 구술자: 네, 그런데 그걸 하나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주체사상.  
 연구자: 10대원칙은?  
 구술자: 10대원칙은 그게 소년단에서 청년동맹이라고 이전할 때  
 요. 그때 다 외우긴 하는데 까먹어요.  
 연구자: 까먹어요?  
 구술자: 네, 공부할 때만 하고 다 안 해요. 모르는 애들 많을 걸  
 요. (사례 35, 구술녹취록, 2013 I/3-4)

위의 구술에서 나타나듯, 시험을 보고 외워야 하니까 10대원칙 등을 공부하기는 하지만, 혁명역사나 정치사상을 실제 생활과는 전혀 무관하게 생각하였다. 남들과의 경쟁에서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더 관심이고,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더 컸던 것이다. 혁명역사나 사상교육 등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깼”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상과 혁명역사는 이들의 삶을 규정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주체사상 자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주체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삶의 주체는 자신’이라는 점 때문이다.

연구자: 그러면 끝까지 믿었던 건 뭐예요?  
 구술자: 주체사상이요.  
 연구자: 주체사상의 어떤 내용?  
 구술자: 주체사상이 어떤 내용이나면요,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그게 주체사상이요. 내가 주체라는. 그런데 그 말뜻은 맞는데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왜 계속 시비 거냐고요. (...) 네, 내 운명의

주인은 난데, 그건 맞죠. 혁명과 사회를 이끄는 힘이 인민대중에게 있다.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의견을 내줄 기회를 안 줘요. 자기네들끼리 다 해가지고 결정 팡 하고 도장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저희들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언제 한 번 물어본 적이 없고. 그게 너무 싫었어요. (사례 35 구술녹취록, 2013 I/54-55)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내용에서 그 ‘사람’을 개인화된 주체로 인식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수령의 영도가 핵심이라는 점을 삭제하면서 주체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북한 청소년들이 집단이 아닌 ‘개인’을 인식하고, 자신을 발견해가는 모습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체사상에 대한 자기식의 변용은 주체사상 자체는 문제가 없고, 이를 현실에서 허용하지 않는 당과 간부들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진다. 사상은 훌륭한데 이를 당과 간부가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 현재의 어려움과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에 대한 각성과 통제를 계속 강화해나가고 이들의 의식 및 문화 변화에 민감하지만, 현실적인 통제력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교육 자체가 정상화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현실에서 목도하는 주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은 당과 사상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이 집단 속의 자신을 인식하기보다 개인으로서 자아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면서 통치이데올로기는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과 국가를 비판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I
II
III
IV
V
VI
VII

## 나. 최고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인식

북한에서 국가의 최고지도자와 주민의 관계는 ‘혁명적 수령관’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수령, 즉 최고지도자의 위치와 역할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인민의 역할과 의무는 혁명적 수령관으로 압축된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호혜담론으로, 수령은 인민에게 은혜를 베풀고, 인민은 이에 대해 충성으로 보답해야 한다. 이러한 호혜관계에서 청소년 세대는 무상교육과 같은 제도적 혜택과 ‘선물’을 통해 수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배급이 정상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더 이상 무상교육과 같은 수령의 시혜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더욱이 학교교육에서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을 직접 학생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상교육의 의미는 상실되어갔다. 그리고 꼬마계획 등과 같은 물자동원, 노력동원이 반복되면서 감사의 마음보다는 국가를 위해 자신들이 더 많은 것을 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연구자: 그러면 그런 건 있지만, 무시하거나 이러한 않았지만 감사하다, 이런 감정은 있었어요, 혹시?

구술자: 감사하다고요? 전혀요. 무슨 선물 같은 거 준다고 해도 “아이 씨, 이 잘난 거 왜 또 주냐.” 뭐 이렇게 생각 좀 했어요.

연구자: 왜?

구술자: 그게 어차피 우리가 다 해서 바친 건데, 그걸 다시 받는 건데, 왜 그렇게 감사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 다 한 게 더 많은데, 왜 우리 이거밖에 안 주냐고. 그런 생각 좀 했어요. (...)

연구자: 그럼 그런 선물 받으면 반응은 어때요?

구술자: 반응--, 어린애들은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선물이

열 살까지 받아? 더 이상 되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크  
니까 어차피 못 받으니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연구자: 그럼 어릴 때 받을 땐 어땀어요? 좋았어요?

구술자: 어릴 때 당연하죠. 좋았죠. 선물인데 그래도. 명색이 선  
물인데,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았죠.

연구자: 그런 선물을 받으면 감사, 그러니까 선물을 받으니까 좋  
은 거 하고 받으면 감사의 마음도 있어야 되잖아요.

구술자: 그런데 그 감사의 마음은 커서야 알지 어릴 때는 그냥  
좋아할 따름이지 그 감사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  
이 있을까요? 열 살짜리 애가 선물 받았는데 아 내가 선  
물 받아서 좋구나 하지, 선물 받아서 감사하구나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건 커서 좀 사람  
에 대해서 알고, 뭐 적어도 한 중학생은 돼야. 그런데 그  
중학생은 넘어가기 전에 이미 잘리니까. (사례 35 구술  
녹취록, 2013 I/51-56)

사례 35의 사례는 국가로부터 무언가를 받더라도 자신들이 국가에  
낸 것을 돌려받는 정도이지, 국가가 자신들을 위해 해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 세대는 국가로부터 받는 것보  
다 국가에 내는 것이 생활적으로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  
에 이들에게 국가나 최고지도자는 더 이상 감사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학교에서 정치사상과 혁명역사 교육을 받지만, 이들에게는 그  
러한 교육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는 약  
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의 효과가 저하되어 최고지도자나 체제에 대한 충성도는  
약화되었지만, 오래된 학습의 효과로 최고지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  
난은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여전히 최고지도자였던 김일성과 김정일  
에 대한 존경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sup>116</sup>

I

II

III

IV

V

VI

VII

원래 그 기록영화라는 거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막 밤에도, 우리 잘 때 있잖아요. 우리 딱 자고 일어나면 TV 같은 거 나오잖아요. 저녁 같아 보여요. 그때 보면 밤에도 차타고 현지도 다니고. 밤에도 다른 군부대 찾고 막 이려고 이러니까, 우리가 잘 때도 막 다닌다고. 좀 그런 게--. (사례 37 구술녹취록, 2013 I/44)

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막 전쟁 때 췌기밥에 쪽잠을 그러면서 전투를 했다. 이런 거 들으면 아, 진짜 우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다 그분 덕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고. 항상 그런 걸 배우면서 위대하게 더 점점 그렇게 생각했던 거 같아요. ‘너무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김정숙 그 분에 대해서 뭐 할 때도 뭐 꿇는 가마를 그걸 이고 뭐 달렸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거 같아요. (사례 40 구술녹취록, 2013 I/34)

방송에서 나오는 최고지도자의 현지도 모습이라든가 관련 영화 등을 통해 여전히 최고지도자가 인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느끼고 존경심을 가지기도 했다. 선전 내용을 의심없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당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은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 권력인 간부들의 문제라고 여겼다.

사례 37은 체제에 대해서나 지도자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고 존경심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군인들의 약탈을 직접 경험하면서 더 이상 나라

---

<sup>116</sup> 박정란·강동완의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수령’은 김일성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수령 김일성에 대해서는 반항심이나 의심이 없이, 위대한 혁명가이자 고마운 존재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에 비해, 김정일은 자질이나 인격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일성 사망 이후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김정일에 대한 신뢰는 상당 부분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박정란·강동완, “북한의 정치사회화 및 수령관에 대한 인식 변화 연구: 1990년대 경제위기 전후 북한이탈청소년의 인식변화를 중심으로,” 『정치·정보 연구』, 제12권 1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09), pp. 13~17.

에 대해 기대할 것이 없다고 여겼다.

연구자: 그럼 그 전까지는 좀 정말 여기서 못살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었어요?

구술자: 네.

연구자: 그 사건이 계기가 됐어요?

구술자: 네. 그래서 저 군대들을, 군인들을 막 진짜 싫어했어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막 주민들 받을 막 다--.

연구자: 그래서 못살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구술자: 네. 실망감이 너무 컸죠, 이 나라에 대한.

연구자: 그게 왜 나라에 대한 실망감이었을까?

구술자: 나라 지키는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저렇게 생각하는데 간부들은 더 하겠죠. (사례 37 구술녹취록, 2013 I/34-35)

사례 37 구술자는 간부들이 중간에서 최고지도자의 눈과 귀를 막고 있고 간부가 제대로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간부의 부패와 약탈은 너무 당연하고 익숙해서 이들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간부에 대한 불만이 체제와 국가에 대한 실망이나 직접적인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군이 약탈을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는 체제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약탈로 인한 피해 때문이라기보다, 나라를 지키고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군인이 ‘사민’을 괴롭혔다는 점이 충격이었고, 군대의 약탈을 국가 폭력으로 느끼면서 결국 체제를 이탈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특히 사례 37은 광명성 발사나 핵개발과 같은 사건을 보면서 국력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고, 자신들의 생활 보장보다 체제 유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지켜야 할 체제를 수호하는 군대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들에 대한 믿음이 실망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군인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군대 자체가 국가의 존립과

I

II

III

IV

V

VI

VII

국가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성립된 조직이기도 하지만, 선군정치하에서 군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는 담론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체제와 최고지도자, 국가에 대해 뚜렷한 자신의 생각을 갖기보다는 일상과 경험하게 되는 현실, 직접 대면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갖는 정도였다. 또는 개인의 능력 문제로 치부하기도 했다. 최고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북한 청소년의 인식은 과거부터 축적되어 온 학습의 효과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과거 교육의 결과로 남아 있는 정도일 뿐, 교육적 효과가 지속성을 띠고 축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교육 기능과 체제 통제력의 약화, 외부문화의 유입 등으로 인해 최고지도자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 6. 소결

이 장에서는 북한 청소년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이들의 의식과 경험세계를 살펴보았다. 또래관계와 가족관계, 국가 및 최고지도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이들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험을 통해 이들 세대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북한 청소년의 관계 경험은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북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험들도 있다.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자신의 생활세계를 이루어간다는 점에서는 자본주의국가의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경험과 유사성을 띤다. 그리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들만의 하위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그러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험과 내용에서는 차이가 나타나고, 보편

적인 경험이라 하더라도 예전에는 없었던 현상들이 최근의 청소년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또래관계에서 친밀성을 형성하게 되는 기제가 유사성과 취향 등이라고 할 때, 최근 북한 청소년에게는 경제적 생활수준이 중요한 유사성의 기준이 되고 있다. 동성친구뿐만 아니라 이성친구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서도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 그리고 외부문화를 접하면서 이성친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유지하기 위한 수단 등을 습득하게 되고, 연애 방식을 모방, 수행하면서 자신들의 연애문화를 만들어내고, 기존 젠더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들의 또래집단은 하위문화를 형성한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놀이를 하고, 패를 만들어 그들 사이의 위계와 역할을 정하는 등 패문화를 만든다. 그리고 외부문화를 접하면서 새로운 문화에 눈을 뜨고 모방하거나 전유하면서 자신들의 문화정체성을 만들어나간다. 이들이 형성하는 하위문화는 패문화와 같이 기성세대의 문화와 연속선상에 있기도 하고, 그들과 구별되는 문화이기도 하다. 이들의 하위문화가 지배문화와 구별된다 하더라도 지배적 질서와 담론이 하위문화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들 세대의 위치가 갖는 한계 때문에 지배문화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하위문화는 전적으로 전복적이고 일탈적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저항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하위문화가 갖는 저항의 가능성은 반복과 확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이 청소년 시기를 벗어났을 때 그 문화를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세대에서 중요한 또 다른 관계인 가족은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관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가정의 해체라는

I
II
III
IV
V
VI
VII

비정상적 상황이 많고, 청소년의 가족 내 역할과 위치가 달라졌다. 이들은 학교생활보다 가정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고, 일차적인 생계책임자가 되기도 했다. 한편, 정상적인 가족관계가 와해되면서 비혈연관계의 사람들과 유사가족을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부양과 책임이 우선적으로 원가족에게 있었던 것과 달리 친족까지 확대되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부재와 가정 해체는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만,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면서 미래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삶을 기획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최고지도자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은 다층적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의 비정상성으로 인해 국가와 최고지도자에 대한 혁명 의식과 교육 효과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지배이데올로기에 충성스러운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부모 탓을 하거나 간부 탓을 하거나 최고지도자를 비난하는 등 다양한 층위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원인에 대한 인식은 한 개인에게서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외부 정보를 접하면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았을 때, 외부정보의 확산과 정보 공유의 정도에 따라 체제에 대한 인식 변화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여러 경험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식 변화 속도는 빠를 것으로 여겨진다.

전반적으로 이들 세대의 관계 경험은 과거 세대와는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고, 이들이 청소년 시기를 벗어난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이들 세대보다 어린 세대들이 청소년기를 경험할 때는 이들이 보이는 경험의 특성들이 더 확연하게 발견될 가능

성이 높다. 최근 발견된 경험들이 지역과 연령, 계층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가지며 나타나지만, 향후 세대가 교체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의 양상들이 유사한 수준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축적되고 반복됨에 따라 북한의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I

---

II

---

III

---

IV

---

V

---

VI

---

VII

---



# VI

---

## 생애사적 체험과 세대의 특성





## 1. 사례 재구성

이 절에서는 북한 청소년들의 세대경험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들의 생애체험을 살펴본다. 연구자가 생애사 면접을 실시하였던 열한 명의 탈북청소년 중 네 명의 생애사를 재구성하여 서술한다. 생애사 분석의 주요 대상이 된 네 사람의 사례는 전체 사례들 속에서 생애경험의 특성을 중심으로 최대비교 및 최소비교<sup>117</sup> 사례를 선정한 것이다. 김정훈과의 최소비교 사례는 조성훈, 윤해일이며, 최대비교 사례는 한아름이다. 최대비교 사례와 최소비교 사례는 청소년들의 주요 경험들과, 경험들이 상호 연계되면서 만들어내는 특정한 가치체계와 행태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구술자들의 신분 공개의 위험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거나 수정한 경우도 있음을 밝혀둔다.

### 가. 김정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연구자의 연구실로 찾아온 김정훈은 막 20대에 들어선 남학생으로, 그의 첫인상은 씩씩하고 붙임성 있어 보였다. 그는 아버지의 사망과 그로 인한 고통, 어머니와의 이별에 관한 이야기로 자기 삶에 관한 이야기를 열었다.

구술자: 제가 열세 살에 아빠가 돌아갔어요. 열세 살에 아빠가 돌아가서 엄청 힘들었어요. 2년 동안 엄청 힘들어서 그

<sup>117</sup>- 사례의 구조적 특징이 상호 공통점을 보이는 경우를 최소비교의 사례, 차이점을 보이는 경우를 최대비교의 사례라고 한다. 이희영,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제44집 1호 (한국사회학회, 2010), p. 217.

냥 학교 다니며 말며 하며 다녔어요. 공부는-- 학교는 나가는데, 학교는 나가는데 공부가 된다고보다도 뭐 한 주일 치고서 하루나 나가면 잘 나가고, 이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 나머지는-- 아빠가 이상하게 돌아갔거든요.

연구자: 어떻게?

구술자: 정치범으로 잡혀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을 회수당하고 이렇게 다른 데 이주를 이렇게, 거기 내가 살던 데서 조금 떨어져서 시골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러다나니까 학교도 옮기게 됐고, 그러다나니까 공부도 제대로-- 안 착이 안돼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 가정환경이 너무 어려워져서 그래서. 엄마 형제가 무산에 있어요. 그래 무산으로 이사 들어왔거든요. 무산으로 이사 들어와서 거기서 살다가 엄마는 살다가, 저하고 엄마가 헤어졌어요. (김정훈 구술녹취록, 2013 I/1)

함경남도 도시 지역에서 태어난 김정훈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큰 배의 기관장을 하여 “다른 집 부럽지 않게 살았다.” 태어나서 몇 년 되지 않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지만 부모님이 생활력이 강하여 고생을 모르고 살았다. 돈도 “부러움 없이 썼다.”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는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수용소로 끌려가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어머니가 이혼을 선택하여 남은 가족은 수용소행을 면했지만 집이 몰수되고 시골로 강제이주 당하면서 고생이 시작되었다.

김정훈은 면담이 진행되는 과정 내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대화 중간에 연구자가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질문하자, 정치범으로 체포된 후 소식을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아버지의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황을 아버지의 죽음과 등치시킨 것은 정치범으로 체포되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북한 사회의 현실을 말해줌과 동시에, 아버지의 체포 이후 그의 삶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는 고아의 상태와 마찬가지로 짐작케 한다. 김정훈은 아버지에 대

해 이야기하면서 “정치범으로 갔다는 누명”을 썼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친하게 지냈다고 진술했다. 또, 기억나는 정치적 사건을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아버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웃 사람이 정치범으로 잡혀갔던 사건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때는 그 사람을 ‘반역자’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김정훈에게 있어 아버지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반역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체포되었다는 것은 열세 살의 어린 그가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후 청소년기의 삶에 대한 김정훈의 구술은 고통과 두려움, 외로움으로 가득차 있다. 시골로 이사한 후에 어머니는 장사를 해서 생계를 이어갔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잠깐씩 집을 비우는 정도였으나,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돈을 벌면서부터는 한 번 장사를 나가면 한두 달씩 계속 집을 비웠다. 1년에 3개월 정도만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었다. 어머니가 장기간 집을 비우면 보안원이 찾아와서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를 찾아온 보안원에게 잡혀가 매 맞고 구금되었던 일은 가장 힘들었던 일로 기억된다.

구술자: 힘들고 어렵고 그랬던 건, 엄마가 장사가고 엄마가 장사 갔다 한 번 두 달을 안 들어왔어요. 두 달 안 들어오다니까, 엄마가 있으면 이렇게 무산이랑 다녔거든요. 큰엄마가 있으니까 뭐 어차피 방문도 왔다가고 하다다니까. 한 번은 있는데 집에서 보위지도원이 왔어요.

연구자: 응, 혼자 있는데?

구술자: 네. 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엄마가 두 달째 안 들어오고 하지 하니까 이젠 뭐 먹을 것도 떨어졌지 하니까 힘든 거예요. 집에 있는데 한 번 온 거예요. 와서 가자는 거예요. 어리니까 갔죠. 갔는데, 이만한 데다 가 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한 방에다. 네.

연구자: 조그만 감옥, 방 같은데?

I

II

III

IV

V

VI

VII

구술자: 네. 그게 아버지가 아빠가 다니던 기업소거든요. 보위, 보초가 있잖아요. 정문, 정문 밑에 보면 그렇게 창고가 있어요. 뭐 노랑 거뒀놓고 하는 창고가 있어요. 물품, 배를 짓는 노 있잖아요. 그거랑 거뒀놓고 하는 물품창고 있거든요. 그 밑에다가 그 문 열고 거기다 거뒀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어디 갔는지 대라고. 그 아낙에서 제가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굶어 봤어요. 그러니까 햇빛도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한 때기 창문인데 거기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칸살이 다 된 건데,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데, 그 밑에서 제가 3일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와서 이 가족 혁명 있잖아요. 그걸로 때리는 거예요.

연구자: 어-- 힘들었겠다.

구술자: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김정훈 구술녹취록, 2013 I /26-27)

어머니가 장사로 장기간 집을 비우면 김정훈은 어머니가 두고 간 식량으로 밥을 해먹으면서 혼자 생활해야 했다.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것은 배고픔과 무서움이었다. 혼자 지내는 게 무서워 가끔씩 이웃 형들과 함께 지내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정치범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늘 감시를 받아, 친구들이나 동네 형들과 가까이 지내기도 쉽지 않았다.

무서워가지고 같이 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몇 번 잔 적은 있는데 많이 거부했어요. 되게 꺼려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도. 느낌 들었는데 할 수 없죠. 뭐 그게 제가 강요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한니까. 전 그냥-- 낮에는 그럭저럭 보는 눈이 있으니까 같이 다니는데, 밤에는 뭐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다 떨어져 있거든요. 뭐 주위 환경이 그렇게 막 감시하고 한니까, 저도 뭐. 그때 사고수준 상태 가지고는 그렇게밖에 이해 못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가만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거의나 있지 않다니니까 집에 와서 물어보거든요. “엄마가 어디 갔냐?” 뭐 이렇게. 어디 갔냐고 막 얼려도 보고 때려도 보고 하는데, 장사간 거는 뻔한데, 막 그런. (김정훈 구술녹취록, 2013 I/8)

가정환경의 변화는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학교 다닐 때는 학급반장도 하고 “나가지 말라 해도 학교에 저절로 나갔”으나, 아버지가 정치범으로 체포된 후에는 학교 친구들도 자신을 경계했다. 학교에서 외톨이로 지내야 했기 때문에 학교 나가는 재미를 느낄 수 없었다. 장사일로 바쁜 어머니의 부재로 집에서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누추한 옷차림이나 외모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다. 학교에서 소풍을 갈 때면 혼자서 도시락을 못 싸가 막 울었던 기억도 있다.

구술자: 학교 가라 하는데, 솔직히 정치범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뻘었으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왕따 같은 게 뻘었어요.

연구자: 학교 가도?

구술자: 네. 모두 다 경계하고 그랬거든요.

연구자: 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

구술자: 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울증이 생기고 말하기도 싫고. 남이 멀리하는데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막 죽어, 수그러들고 하니까. 이렇게 힘쓸리기도 좋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있다가니까 그냥 학교 나가기도 싫고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안 나왔어요. (김정훈 구술녹취록, 2013 I/5)

아버지가 체포된 후 2년간 “다니며 말며 하며” 다녔던 중학교를 5학년 때 중퇴하고, 아는 형들을 따라서 돈을 벌러 돌아다녔다. 형들을 따라 잠수를 해서 성계, 섭 등 수산물을 채취하며 “자기 벌이는 자기가 해서” 먹고 살았지만, 본격적으로 돈을 벌려고 했다가보다는 “재미를 즐기며 살았다.” 자유롭게 편했다. 또래 친구나 형들과 같이 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꼬리잡기, 술래잡기 같은 놀이를 하면서 놀고, 이성에 관한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 것이 가장 즐거웠던 추억으로 남아있다. 한국영화나 외국영화를 보고 친구나 형들과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생활총화 하는 것도 없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아 보여서

I

II

III

IV

V

VI

VII

저런 곳에 나가서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품기도 했다.

열여섯 살 때 이모가 살고 있는 함경북도 무산으로 이사를 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이모집에 얹혀살았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아버지를 무서워했으나, 청소년기 들어서 어머니와 같이 산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려,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갈등을 많이 겪었다. 함께 사는 친척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도 싫었다.

큰엄마네<sup>118</sup> 집에 있다는 게 눈치 보이잖아요. 눈치 보이고 모든 비위를 다 맞춰야 되니까 저도 짜증난 거 같아요, 거기서. 그렇게 하고 엄마가 자꾸 날 단속하지 하니까. 솔직히 3년 동안에 제 혼자 있다시피 했는데, 내 마음대로잖아요.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그게 습관이 된 거 같아요. 몸에 배가지고. 엄마가 시켜도 막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니까 이렇게 엄마하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저는 내대로, 저대로 나와 살고, 그러니까 엄마는 큰엄마네 집에 그냥 얹혀살고.(김정훈 구술녹취록, 2013 I/9)

결국 10개월 만에 이모댁을 나와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게 되면서 김정훈은 삶의 전환기를 맞게 된다. 집을 나와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하게 된 것이다. 이전 시기에 대한 이야기와는 달리 열일곱 살 이후의 삶에 대한 김정훈의 이야기 속에는 고통이나 상실감보다는 경제활동을 비롯해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자 했던 노력과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는 집을 나와서 처음 한두 달간 역전, 대합실 등에서 잠을 자고 시장에서 음식을 훔쳐 먹으면서 꽃제비 생활을 했다. 꽃제비들끼리 모

---

<sup>118</sup> 북한에서는 어머니보다 나이 많은 이모를 큰엄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 광산의 정광을 훔쳐서 기업소에 팔아 돈을 만들었다. 정광을 훔쳐 운반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뇌물을 주고 풀려나곤 했다. 그러다가 그는 친척 형의 도움을 받아 중국과 장사를 하는 상인들의 장삿짐을 날라주는 일을 하게 된다. 이후 자신도 장사를 배워 다른 도시를 오가면서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하였다. 아버지가 체포된 후 김정훈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돈에 대한 지배심”이 컸다고 회상한다. 돈에 대한 관심은 “집의 환경이 다 돈으로 이루어지고 돌아간” 어린 시절의 풍족했던 가정 환경과, 이와는 정반대였던 아버지 체포 이후의 고통스럽고 곤궁했던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 돈이 그런 이렇게-- 돈이 다 아니고, 뭐 이런 교육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해서 혁명역사를 배워주고, 그런 사상이, 오직 그것밖에 모르죠. 김일성이랑 김정일이라는 그 생각뿐이지 다른 사회생활이나 이렇게. 집안환경 많이 따르면 그냥 뭐 돈맛을 들였으니까 그냥 저한테 돈에 대해서 지배심이 컸던 거 같아요. (김정훈 구술녹취록, 2013 I/19)

장사를 해서 돈도 좀 모은 김정훈은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을 샀다.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서 함께 살려고 어머니를 찾아갔으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는 장사를 계속하는 것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해서 배급을 주는 직장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도 해보았으나 여의치 않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치범의 자식으로 북한에서 살아가는 것의 한계를 절실히 알게 되었다. 강 건너 중국을 보면서 ‘저기 넘어가서 살면 뭐 그냥 이런 생각 안 들고 그냥 살겠지.’라는 생각을 하던 참에 아는 형이 중국에 가자고 권유를 하였다. 2011년에 그는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중국으로 건너갔고, 결국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I

II

III

IV

V

VI

VII

김정훈은 현재 그룹홈에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처음에는 정규학교에 편입을 해서 다녔지만 결석이 잦아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다.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던 것이 버릇이 되어, 한국에 와서는 그룹홈과 학교의 규율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참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룹홈에서 자신을 돌봐주시는 분을 존경하고 따르면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 나. 한아름: 사회주의 가정의 열성자

한아름은 1990년대 초반 중국과 국경을 접한 한 도시에서, 당에 “완전 충실”한 노동자인 아버지와 인민반장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외동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2년간 병을 앓다가 한아름이 중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다. 그때까지는 아버지에 비해 그래도 융통성이 좀 있었던 어머니가 장사를 해서 생활이 “좀 괜찮은 축”에 속했기 때문에 본인은 경제적 걱정을 별로 하지 않고 지냈다. 인민학교 입학 전에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었지만 크게 고생했던 기억이 남아있지는 않다. 반에서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 결석을 하면, 모범생이었던 아름은 친구들 집에 가서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필요한 물품을 걷어다 주기도 했다. 친구들이 정상적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데는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했다. 학교에 결석하는 친구들은 부모가 아프거나 생활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이었다.

이 시기에 굶어죽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크게 남아있지 않다. 대신 취학 전의 어린 나이에 목격된 총살 현장은 그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한아름의 기억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 경제난이 시작될 무

렵 그녀가 살았던 국경지역에서는 공개처형이 일주일에 한두 번 꼴로 일 년간 지속되었다. 총살 목적은 취학 전의 어린 나이에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한아름은 당시의 정황이나 총살의 이유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처형이 행해졌던 장면만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런 공개적인 총살의 목적은 한아름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각인시킨 동시에 생명이 경시되는 풍조 속에서 현재의 욕망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한아름은 아버지가 병석에 누운 2004년경부터 자신의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상한다. 휴일에는 어머니의 장사를 돕거나 약초를 캐러 다니기도 했다. 중학생이었던 그 시절의 한아름에게 각인되어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겁에 담아 파는 해바라기씨의 가격이 올라 사먹기 어려워진 것이었다. 이와 비교하여 기억되는 어렸을 적의 경제적 풍요는 당기관 소속 노동자였던 아버지가 명절 때마다 국가에서 공급받았던 기름, 고기, 과일 같은 것이었다.

한아름의 가정은 화목했다. 아버지는 존경받는 가장이었다. 식구들은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께 먼저 드렸다. 어머니는 아름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을 늘 당부하셨다. 한아름의 가정은 정치사상적으로도 모범적인 가정이어서, 인민학교 때 4·15와 같은 경축일에 학교에서 선물을 타가지고 오면 부모님이 “아버지 장군님께 고맙다고 인사드려.”라고 교육하셨다. 선물로 과자를 받더라도 늘 학교에서 바로 먹지 않고 집에 와서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 앞에서 인사를 하고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먹는 것이 순서였다.

한아름은 인민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줄곧 학급 간부를 도맡아했다. 공부도 잘 했지만, 무엇보다도 학교일에 열심히 참여한 ‘열성자’였

I
II
III
IV
V
VI
VII

다. 중학교 때 자신이 해왔던 사상위원을 계속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가정 형편이 더 좋은 다른 친구를 사상위원으로 지명하자 그 친구와 다투고 전학을 가겠다고 학교에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 학급을 옮겨 사상위원을 계속했던 일도 있었다.

제가 거기서 초급단체 그런 거 할려고 사실 다 했어요. 그런데 하기 전 다음날에 바꾼 거예요. 그래 제가 완전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 역할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른 학생이 온 거예요, 여자애가. 그런데 걔가 아버지가 소련도 갖다 오고 이런 애라서 잘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잘 사는 애를 또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 기분 나빴어요. 아, 나 이 학교 안 다닌다고, 학급 안 다닌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 저 주위에 친구들이 학급 친구들이 다 제 편이에요. 제가 학교 안 나가면 걔들도 안 나가요. (...) 그러다가 네, 학교를 옮기겠다고 학교는 안 된다. 학급을 옮겨라 그래갖고. 네, 그러면서 그 단위원 하던 게 그냥 쪽 이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학교에서 조금 켜 줘 이렇게 막 쉰 애라고 줘 그랬어요. (한아름 구술녹취록, 2013 II/5-6)

한아름은 학급 간부 활동을 통해 모든 면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했다.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학교 시절의 주된 고민이었고, 공부도 학급 활동도 모두 친구들이 자신을 보면서 “더 따라 배울” 수 있도록 잘 하려고 노력했다. 학급 간부 활동은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었다.

학생들을 뭐 규칙대로 덧신발도 신고 학교 수업에 떠들지 않으며 또 무슨 매일 초상화 관리, 초상화 청소, 뭐 이렇게 그런 거 매일 아침마다 관리하고 딱딱 하나 하나 체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아침 수업시간 한 30분 전에, 10분 전에 학급마다 돌아다니며 초상화 먼지 있나 없나, 청소 했나 안 했나, 학급에 출석 다 됐나 안 됐나, 이렇게 다 장악해갖고 또 공부 끝나면 학급마다 열성자들 모여갖고 너 학급은 무슨 학급에서 너네 학급은 지금 꼴찌다. 학생들 출석률도 낙후하고 위생

사업도 낙후하고 뭐도 낙후하다. 너 학급은 조금 괜찮다. 제일 모범적인 학급은 누구누구다. 이러니까 열성자들도 우리 학급이 재네보다 낙후하다 이러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고. 애들보고 “우리 학급은 뭐 누구 학급보다 못하고, 이렇게 말 듣는데 그래서야 되겠어? 더 열심히 하자.” 뭐 이러면서. (한아름 구술녹취록, 2013 II/25)

학교 규율을 지키고 학급생활의 일상적인 규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을 대신해서 급우들을 통제하는 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과업’이라고 생각했다.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 급우들의 집을 방문해서 학교에 나오도록 설득하는 것도 한아름의 과업 중 하나였다. 친구들이 옷과 신발이 없어 학교에 못 나온다고 하면 학급의 다른 친구들에게 말해서 옷과 신발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학교의 규율을 지키고 자신이 맡은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열성자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한아름은 자신에게 맡겨진 과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 한아름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이와 같은 태도는 대학에 진학해서까지도 이어졌다.

한아름은 대학 다닐 때 가장 보람있었던 일을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도로공사 같은 작업동원에 참여하여 분조장으로서 자기 분조를 잘 독려하여 작업을 완수했던 일이라고 답하면서 그때의 상황을 그림 그리듯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그냥 우리가 먼저 다 하고서 제일 먼저 1등하고서 끝내고 검열마치고, 다른 애들은 막 하는데 우리는 딱 가는 거예요, 도구들 매구 집으로 가잖아요. 그럼 엄청 기분 좋고 애들이 “우리 오늘 진짜 수고했다.” 뭐 이러매 “우리 뭐 분조장 수고했다.” 이러매, “반장 수고 했어.” 이러매. 애들보고 “음료 같은 거 갖다 마셔. 수고했다.” 뭐 이렇게 그런. 마음도 뿌듯하고 또 우리가 다른 애

I

II

III

IV

V

VI

VII

들보다 먼저 끝내서, 우리 뭐 분조만 빨리 집에 가니까, 우리 애들만 집에 가니까 좋죠. 가다가 음식 이렇게 파는 게 있으면 같이 앉아서 사먹고. 히하하하 하면서 좀 힘든 것도 마지막 총화 지어요. “좀 힘들었지만 너네 적극적으로 함께 해줘서 너무 빨리 끝냈고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인사하거든요. 그러면 개들은 앉아 있고 내가 서서 총화 지으며 얘기 막 해요. “수고했고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또 하면 좋겠다.” 이렇게. “다른 애들 보라. 지금도 일 하잖아. 우리가 먼저 끝내고 집에 가서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다는 그게 얼마나 기뻐.” 이러면 애들이 아 막 이래요. 좋다고. “이제 집에 가서, 하루 수고했으니, 집에 가서 푹 자고 학교에서 보자.” 하면은 다른 애들이 “네.” 하고 이렇게 막 농질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또 그러고. 그리고 또 조금 간식이랑 가지구 간 애들 있으면 노나줘요. 먹으라고. “수고했으니 너네 내가 가지고 온 간식 먹어.” 이렇게 노나주고. 그렇게 끝내고 가고. (한아름 구술녹취록, 2013 II /27-28)

그는 자신이 책임지고 할 일을 우선적으로 마치고, 자신이 통솔하는데 친구들이 잘 따라주고 도와주었다는 데서 큰 보람을 느꼈다. 그는 당시에 “우리 장군님께서 뭐 여기로 오신다, 뭐 이러면서, 저희는 이쁘게 해야 된다, 멋있게 해야 된다 뭐, 흠이 없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심으로 작업에 임했다. 길을 닦아도 “진짜 이쁘게 모래알로 그냥 차가 덜렁덜렁대지 않게” “일떠세워야 된다는 의지와 각오”로 진흙물 똑똑 떨어지는 뗏장을 머리에 이고 앞장을 섰다. 그는 북한의 학교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성을 잘 구현한 모범적인 청소년이었다.

한아름은 학교교육을 누구보다도 충실히 내면화했다. 탈북 후 중국 체류 중에 뉴스에 김정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중국 사람들이 욕을 하자 그들과 싸워 “머저리 뻔뻔”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학교 수업시간에 한국에는 “미국놈들”이 판을 친다고 배웠고,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한국에) 가면은 미국에다 팔아 안 먹겠나?”라는 걱정

도 했다. 탈북 후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류한 다른 국가에서 김정일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하고, 아픈 마음이 들었다. “우리 아버지 장군님께서 서거, 돌아가셨다.”고 말하자, 주위의 다른 탈북자들은 자신을 쳐다보면서 “야, 재같은 애들이 바로 가정교육 잘 받은 애들이야.”라고 비웃었다. 그때까지도 한아름은 주위의 그런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역시 여느 청소년들과 다를 바 없이 또래문화를 조금씩은 경험하였다. 열성자들이 하는 규찰대활동을 하면서도, 자신이 외출할 때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일자바지, 나팔바지와 같은 유행 옷차림을 단속의 눈을 피해가며 입기도 했다. 중학교 때 친구들과 가끔씩 어울려 놀았던 일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명절날이나 친구들과 생일날 남녀 학생들이 친구집에 이십 여명씩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노는 모임은 자주 있었지만, “놀이에 가면 이상한 물을 먹는다.”고 어머니가 허락을 잘 해주지 않아서 자신은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만 참석할 수 있었다. 친구들과 모여 놀 때 다른 친구가 MP3에 담아 갖고 온 한국 노래를 틀고 놀았다가 그 사실이 탄로가 나서 비판서를 쓴 적도 한 번 있었다. 중학교 6학년 때는 남자친구를 사귀기도 했다. 남자친구와는 집 앞에서 같이 얘기하고, 아이스크림 사먹고, 생일날 작은 선물을 나누곤 했다. 그는 탈북 전 딱 한 차례 한국 영화를 시청한 적이 있다. 사랑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감동적이어서 영화를 보는 내내 울었다. 영화 속의 한국은 “모든 게 좋아 보였다.” “불쌍한 남녘동포야, 어서오너라.”로 시작하는 소학교 때 배웠던 시 속의 한국과 영화 속의 한국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지만 어떤 것이 진실에 가까운지 고민하기 보다는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여겼다.

청소년 시절을 전형적인 모범생으로 생활했던 한아름은 중학교 줄

I

II

III

IV

V

VI

VII

업을 일 년 앞두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입당을 해서 당간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업을 갖고 시집을 잘 가서 엄마 도와주고 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북한에서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자신만의 꿈을 추구하는 것이기보다는 “시대 흐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계통의 직업은 돈도 벌 수 있고 사회적으로 대접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되었다. 한아름은 원했던 대학에 진학해서 여전히 학급간부 역할을 수행하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자신의 대학 진학에 따른 어머니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방학이면 약초배낭을 매고 돈벌이를 다니기도 했다.

탈북은 그때까지 그녀가 살아왔던 삶의 경로에 비추어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었다. 그녀가 탈북이라는 의외의 선택을 했던 것은 단짝친구와의 약속 때문이었다. 한아름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접경지역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강을 건너 중국을 오고갔다. 중학교 때 친구들 중 절반 가까이 다양한 이유로 탈북을 했거나 탈북했던 경험이 있을 정도였다. 2010년 여름, 중국에서 장사를 하던 한아름의 단짝친구가 중국에 건너와 한 달만 장사를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왔다. 돈도 벌고 싶고 중국에 한 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방학을 이용해 잠깐 건너갔다 오자고 마음먹었다. 장마철이라서 강물이 불어 겁이 났지만 중국에 있는 친구가 자신이 온다고 들떠서 기뻐하고 있는데 약속은 지켜야겠다는 생각하고 강을 건넜다. 그런데 도강을 한 지 한 달이 채 못 되어 중국 내 정세가 험악해지면서 북한에서 온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고, 한아름은 “오도가지도 못하는 쥐 신세”가 되어 중국에서 숨어지

내야 하게 되었다. 몇 달만에 통화하게 된 어머니는 북한에 잡혀들어와도 탈북했다는 딱지를 붙이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게 될 것을 염려했다. 어차피 좋은 직업을 잡고 간부집에 시집가려는 꿈은 좌절되었으니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오지 말고 행복을 찾아 떠나라고 당부하였다. 한아름은 몇 달의 고민 끝에 친구와 함께 한국행을 택하게 된다.

그녀는 예기치 못했던 한 순간의 선택으로 북한 땅을 떠나오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살 때는 생활에 만족하고 살았다고 회상한다. 북한에 남아 있었다면 10년 후에는 “돈 열심히 벌어들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에, 아파트에 가서, 세탁기, 냉장고 다 해놓고, 자식 낳아 공부도 열심히 시킬 것이고, 내집을 내 손으로 꾸리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매일매일 빠닥빠닥 그냥 힘들게 월급으로, 월급쟁이처럼 살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10년 후에 자신이 한국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상상해보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데려와 같이 살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 “조그만 전셋집에 아담한 가정을 꾸리고 그냥 그시그시 일하면서 돈 벌며, 저축하면서 그냥 쪽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에서 계속 살았다면 “세계를 볼 수 없어서 내 눈이 찌른 눈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다. 윤해일: 정해진 궤도대로

북한에서 모범생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을 찾으려 애쓰던 중 연구자는 심층면접을 했던 한 탈북청소년으로부터 20대 중반의 청년 윤해일을 소개받았다. 국경부근의 군 지역에서 태어난 윤해일은 북한에

I

II

III

IV

V

VI

VII

서 중앙대학급의 명문대학 재학 중에 탈북하였고, 한국에 와서도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윤해일은 자신의 삶에 대한 초기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시작했다.

저는 공부밖에 안 한 거 같아요. 정해진 대로 살아왔으니까. 유치원 다니고 이제 그냥 정해진 궤도대로 살아온 거죠. 고등-- 그러니까 인민학교-- 이전에, 소학교로, 후에 소학교로 개편됐지만은 저 다닌 때는 인민학교였거든요. 인민학교 그 다음에 고등중학교 다니고. 그때까지는 공부를 좀 잘 했었죠, 그 학교에서. 그렇게 다니다가 뭐, 그 다음에 졸업하고 대학에 갔었고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고등학교도 다니면서 최우등생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받아 봤었고,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에 대한 그런 상 같은 거 많이 받아봤던 거 같아요. 특별히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윤해일 구술녹취록, 2013 I/1)

윤해일은 초기 생애 이야기에서 “공부밖에 안 한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면서, 자신을 설명하는 유일한 요소인 공부가 북한의 학제를 따라가는 “정해진 궤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길게 설명하고 있다. 공부와 관련하여 그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인민학교 입학 이후 줄곧 공부를 통해 사회적 인정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어느 사회건 공교육 제도는 사회화와 선발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자신의 초기 이야기를 통해 드러난 윤해일의 자화상은 북한의 공교육 제도 속에서 가장 잘 사회화되고, 학업 능력을 인정받으며 제1고등중학교<sup>119</sup>와 명문대학 입학이라는 선발의 과정을 차례로 통과한 엘리트 청년의 모습이다.

---

<sup>119</sup>- 윤해일이 고등중학교에 입학한 2000년대 초반에는 제1고등중학교를 졸업하지 않고서는 실력을 통해 대학에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1고등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었다. 이러한 서열화 정책이 일반 중학교의 교육 수준 저하, 사교육 활성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자 북한 당국은 2000년대 중반에도 제1중학교와 일부 시제1중학교만 남겨두고 군·구역 제1중학교는 폐지하였다.

윤해일의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로 일하셨다. 아버지의 직장이 부수입이 많은 곳이어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겪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계속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병을 얻게 되자 연로 보장을 받고 집에서 어머니의 장사일을 도우셨다. 어머니는 사무직 노동자로 일하시다 경제난 시기에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였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았고, 세 살 터울인 누나와도 화목하게 지냈다.

윤해일의 할머니가 중국 출신이었기 때문에 윤해일의 가정은 출신성분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그는 공부에 관한 노력으로 자신의 앞길을 열어갔다. 윤해일의 학창시절의 추억은 공부와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룬다. 인민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윤해일은 초중등학교 시절 결석 한 번 하지 않고 성실하게 학교를 다녔다. 학습담당위원으로 선생님을 대신해서 친구들의 방과후 학습지도를 하기도 했다. 그는 선발을 거쳐 우수한 학생들만이 진학할 수 있는 군제1고등중학교에 입학했다. 제1고등중학교는 “공부를 포기한” 친구들이 다니는 일반 중학교와는 “급수가 다른” 학교였다. 윤해일은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수학올림피아드 대회 출전을 위해 도제1고등중학교에 가서 합숙교육을 받기도 했다. 공부는 잘했지만 특별히 대학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공부를 잘하니 당연히 제1고등중학교를 진학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추천을 받아 시험을 봐서 합격했고, 고등중학교 입학 후에는 공부가 재미있어 “그저 다른 생각 안 하고 공부만 했다.” 학교 게시판에 1등으로 이름이 나붙고 학부형회에서 부모님들이 칭찬을 받으시는 것이 공부에 열중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고등중학교 3학년 때 잠시 컴퓨터게임에 빠져 성적이 떨어졌던 적도 있었지만 한두 달만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부에 몰두했다.

학과공부는 좋았지만 반복되는 사상교양과 조직생활은 싫었다. 고등학교 4학년 무렵에 정치사상적 충실성과 성적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입단도 제일 마지막 순서로 했다. 청년동맹에 일찍 가입한 친구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저기나 백날 다녀서 뭘 하지? 오히려 내 공부나 하는 게 낫지.”라는 생각을 했다. 자신은 공부를 하기 위해 학교를 다니는 것이지 조직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10대원칙’도 “심장에 와 닿지는 않았지만” 암송을 못하면 “망신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암송했다.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정치강연은 “내 공부에 상관없는 것”이어서 빠지거나 참가해서 즐기기도 했다. 생활총화 시간에 김일성, 김정일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수행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는 생각했다. 아버지 말씀은 당연히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처럼, 선생님 말씀도 당연히 들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왜?”라는 질문보다도 그냥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섰다.

구술자: 당과 수령-- 생활총화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나가서 김정일이 말씀 뭐 그런 거 암송하고 막 하는데, 솔직히 뭐 마음에 와 닿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연구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 중학교 다닐 때도?

구술자: 네, 그냥 해요. 나와서 이렇게. 김일성이, 김정일이 말씀을 막 낭독하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런데 뭐 이거 하려면 무조건 해야된다고는 생각해요. 김정일이 뭘 하려면 투기가죽이라든가 뭘 하려면 무조건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진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윤해일 구술녹취록, 2013 I /19-20)

위의 구술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그가 학교 일과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반복적 생활총화나 작업동원을 수행함에 있어 ‘의미’의 차원과 ‘행위’의 차원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와 같은 활동들은 공부를 좋아하는 그에게 의미있는 활동이 아니었지만, 그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통과의례와 같은 것이었기에, 무조건 수행했다. 그는 당과 수령을 위해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행동했던 자신을 스스로 개인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sup>120</sup> 그는 경쟁적으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정치사상교과를 통해 배우는 내용은 상당히 내면화된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었다. 김일성 혁명역사 과목은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배우면서 교육내용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순 강철의 영장”이라는 교육을 통해 김일성의 위대함을 느끼고 존경심을 가졌다. 후일 탈북 과정 중 중국에서 누군가가 김일성을 존칭 없이 부르는 말이 귀에 거슬리기도 했다.

반면, 한국 주민들이 험벗고 굶주린다는 말은 인민학교 때는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한국 영화를 보게 되면서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투깝스, 올인, 북경 내사랑, 첫사랑 등 고등중학교 2학년 때 보기 시작한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재미있었다. 북한에서는 “남한이란 말은

<sup>120</sup> 이후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윤해일은 자신이 북한에서 개인주의적으로 살았던 것은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개인주의적이라도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할 때가 많았고 집단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데 비해, 한국에서는 집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자신의 행동을 상대방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I
II
III
IV
V
VI
VII

입에 올리지 말고, 모른 척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호기심이 많아져서 친한 친구들과 CD도 돌려보고 영화에 관한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친구들에게 한국 영화를 봤다고 자랑삼아 얘기하면 “좀 있어 보이고”, 그런 것을 절대로 보지 않는 친구들은 무리에 끼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제1고등중학교는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일반고등중학교에 비해 방과 후의 작업동원도 적고 면학분위기가 좋은 편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는 편이었지만, 생일이나 명절 등 한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면서 친구집에서 모여서 십여 명씩 같이 노는 것을 즐겼다.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함께 모였고, 생일날은 학용품을 선물하기도 했다. 고등중학교 고학년 때는 반 친구 중 삼분의 일 정도가 이성친구를 사귀고 있었지만, 자신은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야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학창시절에 심각한 고민거리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공부나 성적과 관련된 것이거나, 본인이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는 것 정도가 고민거리였다.

대학 진학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한 것은 아니었고 추천을 받아 입학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해서 진학하게 되었다. 윤해일은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전기·전자 관련 학과에 진학하기를 원했지만, 화학 전공으로 배치가 되었다. 기업소 경영도 공부해보고 싶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단 졸업증만 받아 놓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공부했다.

어차피 뭐 난 나라에서 가라면 가라는 대로 정해진 사람이니까, 한 마디로 포기했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나라에서 잘 되기를, 잘 해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고. 아니면 옆에 좀 지인들 있어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아니 회사 아니고 말하자면 어떤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기업소 같은 데서 이 사람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업소하고 사업을 해서 나름에 그렇게 또 하려고 했었어요. (윤해일 구술녹취록, 2013 I/49)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또 대학생활을 하면서는 고등중학교 때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제약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한 제약은 전공 선택과 같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도 있었고 기숙사 생활 여부 선택이나 복장 규정 등과 같은 생활과 관련된 일상적인 것도 있었다. 제대군인 출신 대학생들이 자신처럼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진학한 ‘직통생’들에게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여 갈등을 겪기도 했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작업동원이 많아졌고, 졸업을 한 달 앞두고 대학생들이 주택 건설사업에 대거 동원되면서 졸업이 6개월 연기되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나라가 힘드니 대학생들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했지만, 그는 공사현장에 나가 망치질하고 철근을 나르면서 자신이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노동자가 된 것처럼 생각되어 정체성에 혼란이 왔다. 졸업을 하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배치를 받아 원하지 않는 직장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면서 윤해일은 “정해진 궤도”가 아닌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게 된다. 2년 전 탈북한 누나가 한국에 정착했다는 소식은 그에게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인생 경로를 제시해 주었다. 윤해일은 고민 끝에 2011년, 대학교 졸업을 눈앞에 두고 한국행을 선택하게 된다.

우선 나는 공부밖에 없는데, 전기공학부 가고 싶은데 거기 못하고. 하여튼 대학생활하면 여러 가지 굉장히 엄매이는 게 많아요. 뭐 인간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진짜. 저 그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냥 사는데, 한국이라는 그런 자유세계가 있으니까, 가고 싶다는, 그런 일이 부딪힐 때마다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죠. 더구나 누나가 갔으니까 얼

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정 기대하게 된  
거죠. (윤해일 구술녹취록, 2013 I/22)

탈북을 단행하기 전까지 윤해일의 생애 궤적은 외형적으로 북한이라는 사회체제에 잘 적응한 모범청소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부모님이 다 생존해계시는 가운데 화목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으며, 기아, 죽음의 공포, 극심한 고통과 같은 트라우마적 체험을 겪지는 않았다. 오히려 일반적인 청소년들보다 뛰어난 지적 능력과 성실성으로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며 누구나 입학하고 싶어하는 제1고등중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정치사상교과나 조직생활을 통해 부과된 정치사회화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내면화하거나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열성자’는 아니었다. 외형적으로는 북한의 교육기제가 청소년들에게 요구하는 사회화의 과제를 잘 수행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자신이 추구하는 진정한 꿈과 의미의 세계가 존재했다. 이 둘의 괴리가 결국 그로 하여금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 자발적 탈북이라는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다.

## 라. 조성훈: 놀기도 잘 놀고 할 건 다 하고

조성훈은 고난의 행군기가 막 시작되었던 1990년대 중반, 접경지역의 한 도시에서 태어났다. 10대 후반의 조성훈의 생애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장사를 하던 아버지가 중국에서 체포된 일이었다. 그는 자기 생애 이야기를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장사를 하다가 중국에서 체포되고, 그 일로 인해 살던 곳에서 추방당하고 집을 빼앗긴 일어난 얘기로 시작한다.

그냥 태어나서 그냥, 그 당시는 뭐 별로 어렸을 적이니까 잘 모르는데 그냥 생각한다면 제가 한 여섯 살, 그냥 초등학교 1학년 그쯤 돼서 그냥, 그때 되면 저희 아버지가 중국에 이렇게 다니며 장사를 하고 살았으니까 그냥 괜찮게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남들보다 잘 입고 다니고 먹기도 잘 먹고 그러고 있었는데-- 중학교, 중학교 한 1학년, 그때 2006년도니까 그때부터 좀, 좀 많이 힘들었죠. 아버지가 갑자기 중국에 이렇게 훌 잡혀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많이 힘들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잡혔으니까, 또 그 뭐지 보위부 이런 쪽에서는 추-- 추방시키겠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는 어머니가 또 많이 그런 데다 돈 찢러주고-- 괜찮은, 몇 달은 괜찮았는데. 그리고 한-- 그리고 갑자기 이런 영장 들고 와서 가야된단니까 할 수 없이 그 집을 내놓고 나갔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들어와서 그렇게 집을 내줄 수 없다고 집을 한 1년 반 동안 지켰거든요, 엄마가. 지켰는데, 그러고 다시 또 와서 다시 추방 내보내서 그래 이제 번엔 집을 내고 나갔다가 할머니 집에, 할머니 집에 저희 엄마, 저, 동생 그리고 삼촌, 그 다음에 삼촌, 이렇게 식구 여섯 명 같이 살았거든요. (조성훈 녹취록, 2013 III/1)

그가 북한에서 살았던 삶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시절과 이후로 뚜렷이 구분된다. 아버지가 체포된 중학교 1학년 이전 시기에는 “남들보다 잘 입고 잘 먹고” “그냥 괜찮게” 살았다. 아버지는 노동자로 회사에 적응을 걸어놓고 중국을 오가며 장사를 하셨는데, 시에서 “진짜 돈을 번다는 다섯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돈을 많이 버셨다. 어머니는 잔소리가 많아서 싫었던 반면에, 아버지는 말 한마디를 해도 “완전 위엄이 느껴지게” 말을 하셨다. 아버지는 늘 바쁘셔서 함께 있었던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아들을 엄격하게 훈육하셨다. 조성훈은 아버지에게 많이 맞기도 했지만,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랐다. 사건 후에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삼촌이 자신을 훈육했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울 수는 없었다. 그는 청소년기 내내 아버지가 없어서 고민이었고, 아버지가 없어서 외로웠다. 어렸을 때는, 유치원에서 김일성, 김정일 생일을 맞아 하는 집단체조

와 같은 행사에 참가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연습하는 과정에서 다치기도 하고 힘이 많이 들어서 싫었던 기억이 남아있다. 소학교에 다닐 때는 동네 친구나 학급 친구들과 축구나 장난을 하면서 놀았던 것이 가장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아버지가 체포된 이후에는 살던 곳에서 추방되어 외할머니 댁에서 외삼촌네 식구들과 같이 살게 되었다.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이 많이 힘들었지만 엄마와 외삼촌이 장사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지는 않았다. 중학교 때부터는 친구를 사귀는 일이 중요한 일이 되었다. 길을 지나가다 또래와 싸움이 붙어 싸움을 하다가 친구가 되기도 했다. 중학교 4학년 때부터는 “엄청 싸움을 하면서 돌아다녔다.” 패싸움을 하다가 적발되어 청년동맹의 경고를 받고 전교생 앞에서 비판무대에 서기도 했다. 남학생들의 경우 이성교제나 한국 영상물 적발로 비판무대에 서는 것은 창피한 일이지만, 싸움을 해서 비판무대에 서는 것은 창피한 일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것은 남자다움을 과시하는 것으로, 오히려 “남들이 서지 못하는 데” 서는 “좀 멋있어 보이는” 일이었다.

당시 고향의 중학생들 사이에는 패문화가 많이 퍼져 있었다. 길을 지나다니면 또래 청소년들이 “누구 친구냐?”고 묻는데, 누군가 이름을 알만한 친구를 대지 않는 경우에는 싸움을 걸기 일쑤였다. 조성훈도 다른 친구들에게 “뺨힐 수 없어서” 패거리에 끼고 싸움도 하고 돌아다녔다. 남학생들에게는 자기패를 만들어 패의 ‘대거리’가 되는 것이 “이름이 알려지는” 길이었다.

“대거리가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데. 뭐 밖에 나가서 “누가 공부 잘해?” 이렇게 물어볼 순 없잖아요. 그런 걸 바라지 않죠, 저희들한테. 학교에서 뭐 하는 대로 그냥 하니까. 공부를 뭐 잘한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돈만 있으면 가는 거니까 공

부에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그냥 그런 데 신경 많이 쓰고 연애질 하는 데도 신경 많이 쓰고요. (조성훈 구술녹취록, 2013 III/12)

조성훈은 자신의 중학교 생활을 “놀고 싸움하고 연애하고”로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우리 친구”라고 부르는 친한 친구들이 일고여덟 명 정도 되었는데, 이 친구들은 늘 같이 다니고 같이 놀고 자신이 다른 친구들에게 맞으면 편을 들어 같이 싸워주는 친한 친구들이었다. 4·15 행사장에서 패싸움을 벌여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 처벌을 받기도 했다. 조성훈은 친구들과 같이 운동을 하기도 하고 광장과 공원을 쏘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서로 집이나 맥주집에 모여 놀기도 하면서 중학교 시절을 보냈다. 시내에 노래방이 생겼을 때는 친구들과 같이 가보기도 했다. 친한 친구들과는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 서로 얘기하기도 하고 성(性)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적발시 큰 처벌을 받게 되는 ‘야동’을 함께 보기도 했다. 지루하고 무의미한 작업동원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재미가 있어 참석하곤 했다.

김정일이 죽고 김일성하고 김정일이 그런 동상 같은 거 두 개 만들었어요, 길에. 길에 두 개. 그런 두 개 만들었는데 그걸 막 작업하러 이렇게 막 나오라 했거든요, 밤마다. 밤마다 일하러 그런데 나오면 좀,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중학교 졸업할 때면 점수가 좀 높게 나온다고 그래갔고. 그런 데 일하러 나오면 좋다고 해서. 저는 어차피 그런 데 나갈 필요는 없는데, 친구들이 나가니까 저도 재미로 그냥. 여자친구도 나오고 하니까 재미로 나갔었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저도 몰랐었는데 친구하고 그 학교 대가리 애가 내하고 너무 잘 다니니까 저 때문에 어떻게 싸움 붙은 거예요. 그럼 뭐 저는 몰랐었는데, 애가 하나 뛰어와서 싸움한다 해서. 저희 같은 거는 밤 같은 경우는 칼을 많이 차고 다니거든요, 애들이. 저도 그 당시엔 차고 다녔었는데, 싸움한테서 막 나갔는데 진짜 막 뭐 돌을 들고 머리를 까기도 하고 뭐 몽둥이 들고 막 까기도 하고. (...) ((여자애들하고)) 농담하고

I

II

III

IV

V

VI

VII

하니까. 그런 게 재밌으니까 자주 저녁마다 나가고 했어요.(조성훈 구술녹취록, 2013 III/23, 26)

패싸움을 하거나 규율을 위반하면 사상교양을 받았지만, “어릴 적부터 계속 듣던 말, 뻔한 말”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담아두었다.” 패싸움이나 비사회주의적 영화를 보는 행위를 금지하는 지시문이나 김정일, 김정은의 ‘말씀’이 자주 내려왔지만 본인이나 “우리 친구들”은 그런 교육 내용이나 지시문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다. 규찰대 단속에 걸려도 돈이 있으면 풀려나기 때문에, 지시문이 내려와서 단속이 강화돼도 “저런 게 또 내려왔구나.”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정치나 국가지도자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TV 기록영화에서 김정일이 쪽잠에 췌기밥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막 한 나라의 지도자고 수령인데 진짜 뭐 저렇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조성훈이 학교에서 교육받은 바와는 달리 이런 의심을 품게 된 데에는 외삼촌을 비롯해서 주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영향을 미쳤다.

구술자: 옆에 사람들한테 들은 건, 삼촌이나 뭐 이런 다른 여느 사람들한테, 여느 사람들 집에 와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실지는 저렇지 않으면서도 진짜 저렇게 하면은 뭐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그런 소릴 들으면 막 헛갈리거든요.

연구자: 헛갈리지.

구술자: 막 머릿속에서. 왜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지? TV에서 나오는 건 정말 사실이겠는데, 다 이런 생각 들고 TV에서 나오는 건 다 사실이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사실인데, 이런 생각 드는데.

연구자: 사실이라고 생각된 거야? TV에서 나오는 게 사실인데 왜 저렇게 애길할까?

구술자: 네, 사실인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달리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차피 뭐 TV에서 나오는 건

사실이니까 저걸 믿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 들 때도 있고 삼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달리 자꾸 말하니까. 그러니까 또 그걸 많이 깊게 생각하게 되고. (조성훈 구술 녹취록, 2013 III/28)

조성훈은 ‘연애질’을 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썼다. 힘이 세고 이름이 알려지면 예쁘고 잘 사는 여자친구를 사귀는데도 유리했다. 얼마나 주먹을 잘 쓰느냐에 따라 사귀는 여자친구의 “레벨이 차이가 났다.” 여자친구가 없으면 완전히 바보 취급을 당했다. 한 달에 두세 번 꼴로 명절 날이나 친구들 생일날이면 여자친구들과 남자친구들이 이삼십 명씩 같이 친구들 집에 모여 음식을 사놓고 게임이나 주패놀이를 하거나 한국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고 놀았다. 밤을 새우면서 놀았던 적도 많았다. “내 나이 때가 한때다.”라고 생각하고 “실컷 놀았다.”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다가 청년동맹 지도원에게 적발되어 전체 학생 앞에서 경고를 받기도 했고, 여자친구를 두고 싸움을 하기도 했다.

제 여자친구 좋다고 자꾸 따라다녀서— 제가 한 번 경고를 했는데, 자꾸 따라다니면 다친다고 했는데. 그런데 처음엔 알겠다고 안 따라다니겠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엔 또 그렇게 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 이렇게 찾아갔거든요, 개네 집에. 찾아가서 그 형하고 동생이 둘이 있는 거예요. 저보다 우인데 그 형은. 형하고 동생을 다 때려냈거든요, 둘을. 둘을 다 때려냈는데, 생각 없이 그 상태에서 때려냈는데, 그런데 전 집에 왔는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랑 같이 온 거예요. 뭐 그 다음에 들어와서 내 아들 때려냈다고. 거기서 엄청 당황했는데, 여자친구 때문에 때려냈다고. 엄마가 그걸 듣고 너무 어이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조성훈 구술녹취록, 2013 II/27)

조성훈은 주위 사람들의 영향으로 소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았고, 아버지가 잡혀가신 사건 이후에는 더욱 즐겨 보

게 되었다. 학교에서 배운 한국의 모습과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짜 저런가? 저게 다 개뽕이겠지. 저 미국 놈들이 들어와서 저런 영화를 하나 찍어놨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중학교 다니면서부터는 중국 TV와 비교해보기도 하고, 주위의 어른들이 하는 말도 들으면서 생각의 혼란을 겪게 되고, 차츰 “저게 사실이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반대로 배워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될 거 아니까. 그러니까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애들끼리 말하거든요. “저 영화는 그런데 왜 우린 이렇게 배워주지?” 이런 말은 완전 많이 해요. 대놓고는 말은 못해도 우리끼리 있을 때는 말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뭐, 선생님들이 있다든가 그렇게는 말은 못하는 데, 우리끼리만 있고 다른 친구들 있어도 그런 말은 많이 하고. 우리 어제 그런 거 봤잖아. 그런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는 이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진짜 이게 무슨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그런 소리도 많이 하고. (조성훈 구술녹취록, 2013 II/48)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영화를 통해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면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대국’의 영화를 금지하고 단속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한국 영상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입장을 이해하기도 했다.

결국 한국 영화 시청은 조성훈이 탈북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는 친구에게 한국 영화가 담긴 USB를 빌려주었다가 친구가 단속에 적발되는 바람에 “죽도록 맞고” 처벌을 받게 되었다. 경고를 받고 비판무대에 서는 것이 싫어서 도망을 쳤다. 어머니가 1년 전에 탈북하여 한국에 정착하셨기 때문에 본인은 “언제든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한국에 와서 어머니를 만나 함께 살면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조성훈은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탐색하면서 삶의 새로운 목표를 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한에서 부모님은 조성훈이 의사가 되기를 희망했지만 본인을 별다른 꿈을 갖지 못했었다. 아버지가 체포된 이후에는 “앞길이 막혀”, “장사를 해서 돈이나 벌자.”고 생각할 뿐이었다. 부모가 수용소에 간 친구들끼리 서로 “넌 여기서 필요 없는데, 여기서 뭐하냐?”며 자조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었다. 이제 그는 새로운 땅에서 청소년기의 인생과업을 하나씩 해결해나가고 있다.

생애 이야기를 마친 후 조성훈은, 얘기를 해보니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되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남들보다는 청소년기를 잘 보낸 거 같아요. 남들보다, 다른 애들보다 놀기도 잘 놀고, 할 건 다 하고, 해보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놀기도 하고 남자로서 싸움도 해보고, 그리고 뭐 남들이 겪지 못한 것도 겪어 봤으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이나 성장했겠다고 생각해요.”라고 대답하였다. 아버지의 체포와 부재, 그로 인한 좌절이라는 상실과 결핍의 외로운 공간을 채운 것은 때로는 패싸움이라는, 때로는 ‘연애질’이라는 형태로 학교와 당국의 통제를 비껴나며 행해지는 또래들과의 유희와 소통이었다.

I
II
III
IV
V
VI
VII

## 2. 세대경험의 특성과 세대의 분화

### 가. 경험의 단층

만하임의 세대 개념에 의하면, 세대는 수많은 동시출생집단, 즉 세대 위치들 중에서 특별한 사회역사적 사건에 대한 공동경험을 통해 세대 연관을 형성한 집단을 뜻한다. 따라서 세대는 역사적으로 다시 반복되

지 않는 사회적 사건을 통해 ‘우리정서’를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테스(J. Matthes)에 의하면 이러한 만하임의 세대개념은 첫째로, 지식사회학적 관점에서 인식론적 오류를 갖는다고 비판된다. 그는 세대단위가 세대 내의 이질성을 드러내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세대위치의 ‘자연스런 특성’이라고 본다. 모든 개별자에게 상호 구별되는 이질성이란 자연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본질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별적인 것이 갖는 서로 간의 이질성(세대단위)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한 사회적 사건을 매개로 하여 정서의 병목현상과도 같은 공통의 정서(세대연관)가 형성됨으로써 탄생하는 세대가 사회역사적으로 특수한 현상이 되는 것이다.<sup>121</sup>

그렇다면 북한 청소년들을 그 이전 세대와 구분 짓는 ‘정서의 병목 현상’은 무엇인가? 앞의 장들에서 살펴본 북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경험과 생애사래 속에 나타난, 이들을 하나의 세대로 결속하는 ‘정서의 병목현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생애경험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경제난 시기와 2000년대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경험한 궁핍, 죽음, 상실의 고통과 그로 인한 존재의 불안이다. 둘째, 국가와 가정 내에서의 절대적, 가부장적 권위의 하락과 이로 인한 규율의 해체, 형식화된 규율의 수행이다. 셋째, 또래관계, 외부문화, 돈 등 기존의 국가규율과 가부장적 규율을 대신하는 새로운 규율 권력의 등장이다. 이 절에서는 이 세 가지 주요한 생애경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경험의 단층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경험들은 북한 청소년들의 평균적 경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경제난 이후 북한 사회의 청소년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

<sup>121</sup>- 이희영, “독일 ‘68세대’와 과거극복: 나치과거에 대한 세대경험의 연속성과 단절에 대하여,” 『한국사회학』, 제40집 제3호 (한국사회학회, 2006), p. 37.

변화의 궤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 청소년들의 정서적 기저를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생애경험은 궁핍, 상대적 빈곤감, 죽음, 상실의 고통과 그로 인한 존재의 불안이다. 성장에 따라 어린 시절의 경험에는 다른 경험의 단층들이 겹쳐이 쌓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통과 상실의 경험은 의식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해 있어 그 위에 누적된 다른 질의 경험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정적이며 생생한 영향력을 행사한다.<sup>122</sup>

북한 청소년들의 유년기 경험에서 고통과 불안의 원인이 되는 것은 다양하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요소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극대화된 형태로 나타났던 물질적 궁핍과 배고픔이다. 고난의 행군은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모든 주민들에게 큰 정신적 외상을 남긴 사건이었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의 경우 고난의 행군은 유아기나 학령 전 아동기 때의 일이지만, 배고픔의 기억은 때로는 아주 선

---

<sup>122</sup> 매슬로우(A. H. Maslow)는 욕구위계이론에서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요인을 욕구라고 보고 강도와 중요성에 따라 욕구를 5단계로 구분했다. 1단계는 생리적 욕구(배고픔, 목마름의 충족), 2단계는 안전 욕구(세계가 조직되어 있고 예측 가능하다고 느끼는 욕구, 안전, 보호, 안정성의 욕구, 3단계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고, 소속, 수용의 욕구, 고립과 소외를 피하고자 하는 욕구), 4단계는 인정, 자존의 욕구(자기존중감, 성취감, 효능감, 독립의 욕구,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 5단계는 자아실현 욕구(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매슬로우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충족됨에 따라 차츰 상위 욕구로 나아간다. 이와 같은 욕구 위계에서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위 단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 즉,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만이 상위단계의 욕구인 자존의 욕구와 자아실현 욕구 충족을 추구할 수 있다. (D. Myers, *Psychology* (New York: Worth Publishers, 1993), p. 355.) 북한 청소년들의 생애경험을 살펴보면 유소년기에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의 1, 2단계에 해당하는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불안정한 가정환경으로 기본적으로 가족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충족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 형성의 핵심이 되는 자존의 욕구나 자아실현 욕구 충족을 위한 동기화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명하게 남아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초반에 함경북도 농촌지역에서 태어난 사례 27은 고난의 행군기였던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한 나이 때 쌀알 없는 미역국만 몇 달을 계속 먹었던 기억과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었던 기억을 생생하게 갖고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 배고픔의 기억은 그 시기에 목도했던 죽음의 기억과 연결된다. “역전에 쓰러져 있던 주검과 꽃제비들”(사례 30)이나 생존을 위해 불법행위를 하다가 총살을 당해 포대자루에 담긴 채 실려가는 주검(한아름)처럼 그 의미를 파악할 수도 없었던 가난과 죽음의 기억은 청소년들의 무의식속에 또렷하게 각인되어 있다. 죽음을 목격한 경험은 한편으로는 죽음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다른 한편으로는 무감각함을 낳는다. 어린 시절 목격한 총살에 관해 한아름의 구술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죽음에 대한 무감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sup>123</sup>

연구자: 그래서 혹시 그런 거를 보다가 나중에 혹시 어느 순간에 죽는다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구술자: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 같아요.

연구자: 두렵지 않게 오히려 생각이 들어요?

구술자: 네, 두렵지 않아요.

연구자: 총살을 보기 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총살을 보고 나니까.

구술자: 아, 두렵기야 두렵죠. 가만히 누우면. 만약에 죽는다는 생각만 들면 소름이 끼치고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뭐 볼 수도 없잖아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내가 지금

<sup>123</sup>-극단적인 외상적 경험은 때로 무의식속에 잠재해있거나 의도적으로 망각되기도 한다. 사례 23의 경우에는 누나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사망했는데, 구술자는 누나가 사망한 연도와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러한 외상적 경험이 장기적으로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향후 밝혀야할 과제이다.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살아 있을 때, 내가 숨 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하는 게 그래 들으면 죽는 게 아무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는구나. 파리 목숨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냥 살아 있을 때 뭐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거기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사는 게 좀 안타깝죠. (한아름 구술녹취록, 2013 I/3-5)

청소년들은 또한 가족의 죽음을 통해 그 고통을 보다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도 한다.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993년과 2008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보면, 경제난에 노출되었던 인구의 손실은 경제난 시기에 태어났던 인구, 가임기에 있던 젊은 여성, 군대와 산업부문에 조직되었던 남성층에서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임기 여성의 경우 이주 효과가 결합되었으며, 젊은 남성의 인구손실은 사망률의 증가에 기인한다. 경제난 시기 성인 남성의 사망률 증가와 가임기 여성의 탈북이라는 거시적 인구동태의 특성은 청소년들의 삶 속에서는 영유아기 아버지의 죽음과 질병, 어머니나 이모, 누나의 탈북이라는 생애사적 사건으로 나타난다. 청소년들의 삶에서 가구주인 아버지의 질병이나 부재는 곧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가족 질서의 해체를 낳고,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의 탈북은 가족의 이산과 해체,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불안정<sup>124</sup>과 외로움, 미래 전망 상실의 원인이 된다.

<sup>124</sup> 예를 들면 함경북도 농촌지역에 거주했던 20대 초반의 여성 사례 22의 가족관계 변화를 살펴보자. 사례 22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부모가 이혼을 하고 본인은 외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6세 때 어머니가 병으로 사망하자 다시 아버지에게 옮겨가서 살았으나, 계모가 동생을 낳고 자신을 홀시하자, 중학교 때 다시 외할머니와 함께 생활한다. 사례 22가 홀로 살고 있는 현재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목은 어렸을 적 그녀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이 깜깜한 밤에 집에 홀로 남겨져 낯선 이가 찾아올까 걱정하던 것이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연구자: 외롭지는 않았어요, 아무도 없는데?

구술자: 네. 지금은 좀 외로운 게 뭐지? 그런 거는 모르고. “무섭지 않니?” 작은

I
II
III
IV
V
VI
VII

경제적 궁핍과 가족의 사망, 가족구성 변동이 주는 삶의 불안정성은 경제난 시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대 들어 시장질서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빈곤계층이 양산되면서 새롭게 생겨나기도 한다. 김정훈과 조성훈의 생애사에서 아버지의 체포나 죽음은 1990년대의 경제난 시기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이후 시장활동이 확산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사회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 공간에서 학생들의 옷차림과 외모, 교우관계, 교사들의 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수준에 따른 계층의 위계가 외현화되면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김정훈의 사례에서 그를 학교에서 이탈하도록 만든 것은 누추한 옷차림을 통해 표현되는 상대적 빈곤감과 그로 인한 소외감이었다. 김정훈 사례에서 나타나는 같은 극단적인 상대적 빈곤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들 또래는 학교생활과 또래문화 속에서 친구들과 간의 경제적 격차를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전후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도 절대적 빈곤은 경험한 바 있지만, 새로운 세대는 절대적 빈곤과 함께 이전 시기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던 상대적 빈곤을 절실하게 경험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빈곤과 고통의 경험은 이전 세대와 구분된다.

이들 세대집단이 유년기에 경험한 고통과 존재의 불안정성은 2000년대에 이들이 학령기나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처한 가정과 사회 환경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지속되거나 확대되기도 하고 해소되기도 한다. 김정훈과 조성훈의 경우 가족 내 권력의 중심이었던 아버지의 부재는

---

엄마가.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섭니?” “여기 아파트인데, 누가 들어오겠나요? 누가 들여다 볼 사람도 없고.” 아파트라도 깜깜하지 않잖아요. 밤에 들어올 때 보면 불을 끈다 해도 환하고, 바깥에 불 다 들어오니까 환하고,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사례 22 구술녹취록, 2003 I/32)

이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동시에 이들을 국가와 가정의 규범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든 요소가 되기도 했다. 두 사례 모두 아버지는 생존 시에는 권위와 존경의 대상이었다.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유능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자식들이 생계에 대한 고민 없이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었고, 교사들에 대한 영향력도 있어서 자녀들이 기를 펴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었다. 아버지의 체포와 사망으로 인해 아버지가 제공했던 삶의 안정성과 함께 가정 내 가부장적 권위와 규범도 상실되었다.

고통의 경험이 청소년들의 생애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단순히 물질적 궁핍과 불안정성, 외로움을 겪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이 국가와 가정 내에서의 절대적, 가부장적 권위의 하락과 이로 인한 규율의 해체와 연결되면서 의식적, 수행적 차원에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의미 있는 차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sup>125</sup> 이것이 북한

<sup>125</sup> 이와 관련하여 독일 68세대의 세대경험과 특성을 분석한 이희영의 연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68세대는 어린 시절에 전후의 궁핍한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한 물질적 고통 속에서도, 어린이들의 교육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던 데서 비롯된 부모들의 허술한 통제를 비껴 자신들만의 자유와 상상의 세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1950년대 전후 시기에 청소년기를 맞은 이들 세대에게 전쟁의 참화 속에서 퇴각한 패잔병,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돌아온 병든 독일병이거나 혹은 탈나치화에 의해 과거의 죄를 인정해야 했던 부모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가족 내의 비밀로 강요하면서 낡은 도덕과 권위에의 복종을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모순적인 경험의 층위는 이 세대가 이후 사회적 질서에 저항하는 행위지향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 ‘원형질’로 작용하였다. 이들의 세대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전쟁으로 인해 단순히 물질적 궁핍이나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일상적 규범 사이의 모순을 자신의 생활세계를 통해 체험했다는 사실이다. 한편에서 이미 경협한 자유와 다른 한편에서 규범적인 행동 및 언어를 통해 준수되는 표준적인 일상 사이의 괴리를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 68세대의 중요한 세대경험이었다. 이와 같은 세대경험을 한 집단들은 1955~1960년 시기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 지역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다양한 무리를 이루며 사회적 규범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였던 할프스타르크운동과 1960년대 후반 학생운동의 주역으로 역사에 등장하게 된다. (이희영, “독일 ‘68세대’와 과거극복: 나치과거에 대한 세대경험의 연속성과 단절에 대하여,” pp. 41~44.)

I
II
III
IV
V
VI
VII

청소년의 세대경험의 또 다른 층위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이전 세대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가족 내의 규율과, 국가가 후속세대들에게 내면화하는 규범과 신념의 체계를 이전 세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수용하지 않고 그로부터 벗어나거나 그것을 형식적으로 수행하거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전유하는 현상들이 청소년들 속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난 시기 이후로 국가가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고, 국가가 아닌 부모의 시장경제 적응 능력에 따라 청소년들의 생존과 경제적 조건이 좌우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과 관련이 있다. 사회주의 배급체제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붕괴되면서 부모가 사망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나 장사일등으로 떠돌며 생존의 기반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안한 삶의 상황을 이어가야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가정에서 규율의 원천인 아버지가 부재하듯 사회에서도 권위와 규율의 원천인 당과 국가가 부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 구술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1990년대 전후로 태어난 20대 중반 이하의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스스로 경험한 국가에 대한 기억은 “가난의 기억”일뿐이고, 국가의 권위와 시혜는 이들에겐 한 번도 피부로 느껴보지 못한 부모님 세대 때의 흘러간 옛 이야기일 뿐이다.

상점에 가면은 막 무슨 왕눈알사탕이라고 팔았대요. 막 그렇게 컷대요. 사탕이 컷는데 그게 막 몇 전을 했대요. 막 10전 막 그랬대요. 10전짜리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10전인가 해 가지고 1원인가 가져가면 엄청 많이 샀었대요. 그리고 막 월급이 김일성이 살았을 때는 막 몇 십 원에서 몇 백 원인데 그걸로 막 저축까지 했대요. 그런데 그게 저희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막 명태 같은 걸 엄청 많이 잡았나 봐

요. 김일성이 살았을 때 명태 같은 걸 상점에서 막 후불로 줬대요, 막 집에. 돈 지금 안 내도 되니까, 가격도 엄청 싼데, 어차피 몇 전인데도 사람들이 안 가져가서, 그냥 두면 다 썩으니까, 엄청 가져가서 그냥 먹으라고, 나중에 돈 받겠다고. 막 그랬다고 엄마랑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80년대 후반인데, 야 북한에 그런 적이 있었는지. 그러다보니까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잘 살아왔던 기억이 한 번쯤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없어요. 태어나서부터가 힘들었으니까. 저도 뭐 89년도에 태어나서 어-- 거의 바로 고난의 행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딱 94년도 이후로 태어난 애들은 더 힘들었겠지만, 어 저는 뭐 잘 살았던 기억은 없는 거 같고요. 북한이란 나라는 그냥 가난하다는 기억밖에 없는 거 같아요. (사례 25 구술녹취록, 2013 I/29)

국가의 권위가 저하된 상황은 또한 사회화의 핵심적 기제인 학교의 기능 약화와도 관련된다. 어느 사회에서나 통일된 규범과 지식을 가르치는 보편적 학교제도는 한 사회의 공통적 감성과 신념, 즉 집합의식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내면화시키고 그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다.<sup>126</sup>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로 여서 학교교육의 효율적 작동여부는 후속세대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한 당국은 2012년 9월 학제개혁과 이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등의 노력을 통해 경제난 시기에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던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고 있지만, 경제난 이전 시기에 비해 학교교육의 효과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곧 현재 북한에서 학교 공교육을 통한 후속세대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의 내면화와 태도 형성이 이전만큼 전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up>126</sup> 김신일, 『교육사회학』 (파주: 교육과학사, 2003), p. 130.

I
II
III
IV
V
VI
VII

학교교육의 효과성 저하는 일차적으로는 학교교육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경제난 이전 시기에 비해 출석률이 낮다는 데 기인한다. 앞의 생애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주로 빈곤이나 부모님의 탈북으로 인한 가정해체 상황에서 학교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유인도 제공하지 못한다. 빈곤과 가정해체는 이들을 공교육의 기회에서 배제시키고, 그러므로 국가구울망에서도 배제시킨다. 함경북도 산골에 살았던 20대 초반의 여성인 사례 19는 부모님이 모두 생존해계셨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본인이 일을 하느라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걸어서 한 시간 넘게 걸리는 소학교도 한 달에 한두 번밖에는 나가지 못하고 기초적인 공부는 집에서 아버지에게 배웠다. 체육을 잘했던 그녀는 중학교도 다니며 말며 하다가 졸업장을 받은 뒤 도체육단에서 선수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생활총화를 해보게 되어 당황스러웠던 일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토요일마다 생활총화할 때 보니까. 전 진짜 못해봤는데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처음 애들 앞에서 말하는 게 엄청 떨렸어요. 뭐지 애들이 내만 못하는 게 아니라, 청진사에서 살은 애들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저도. 재는 내보다 어린데, 청진에서 살거든요, 도시에서 사는데 왜 못했을까 막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개도 학교 못 다닌, 네 학교 못 다녀서. (사례 19 구술녹취록, 2013 I/36)

학교교육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공교육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북한의 무상의무교육제도는 의무교육의 틀 안에서 전 국민을 국가가 요구하는 특정한 인간형으로 형성한다는 실질적인 기능 이외에도 수령과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공부시킨다.”고 인식하도록

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1980년대 말에 고등중학교를 다녔던 한 북한이탈주민의 다음과 같은 구술은 북한 사회에서 무상의 무교육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잘 보여준다.<sup>127</sup>

매해 무료교육에다가, 무료 교육을 우리가 받는데다가, 매 해마다 교복을 말이에요, 학생 교복을 무료로 전 국가가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주니까, 돈 일푼 안 받고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에는 그 선물, 계속 해마다 받구. 10년 동안 매 해 매 년마다 교복을 새로 딱딱 주니까요. 그 새 교복 받을 때마다, 그렇지요, 경애하는 아버지-- 우리가 받는 모든 혜택을 다 김일성 김정일의 무상혜택으로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충성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죠.

이전 시기에 학교에서 무상으로 지급되었던 물품들이 “국가에서 하는 모든 것을 법으로 받아들도록”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면, 지금은 국가의 시혜를 몸으로 느끼도록 하는 교복, 학용품, 선물 등과 같은 물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동원노동, 각종 세 부담 등의 형태로 교육 외적 부담이 증가하여 학생들이 그러한 인식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생활총화나 조직생활과 같은 학교 내 규율 기제의 작동이 교란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정치사상교양의 효과도 저하되고 있다.

학교라는 교육의 장에서 당과 수령의 대리물인 교사의 권위도 실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 사회에서 모든 진리와 선이 수령에 의해서 제시되는 것처럼 교실에서 모든 진리와 선은 교사에 의해서 제시된다. 교사의 권위에 대한 복종은 믿음과 존경의 표현이며, 이 교사-학생 관계의 연장선상에 충성과 효성에 대한 보살핌이라는 인민-수령의

<sup>127</sup>- 조정아, “김정일 시대의 북한 교육 정책,” 『아시아 교육연구』, 5권 2호 (아시아태평양교육발전연구원, 2004), p. 51.

관계가 놓여진다.<sup>128</sup> 그러나 지금은 이전 시기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교사들의 지시에 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 예로 북한이탈주민들은 학급반장 선거 사례를 들고 있다(사례 11, 사례 12). 북한에서는 학급 반장이나 학급 위원 선출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추천을 한 학생에 대해 학생들이 찬성을 하는 방식으로 형식적인 선거가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이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구술자: 저희 조카가 열 살인데. 학급에서 무슨 선거 같은 거, 위원 같은 거 하는 선거를 하는데, 다 끼리끼리 패가 있어 가지고 선생 한마디면은 다 이렇게. 선생이 다 안을 짜 가지고서 형식에 맞춰서 진행하는 건데, “찬성하는 동무들은 손을 드세요.” 하면은 100% 다 손을 들거든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연구자: 응, 그렇지.

구술자: 저희 위에도 다 그랬었고 그런데 이제는 애들이 아니에요.

연구자: 아니야?

구술자: 다 패당이 갈라져가지고. 재네 뭐 적수 쪽이다 하면 안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애들이 민주주의가 먼저 실현되네 하고 네, 열 살짜리 애들이 그러고 있어요 (사례 11 구술녹취록, 2013 I/44)

북한 청소년들을 하나의 세대로 묶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생애경험은 국가규율과 가부장적 규율을 대신하여 이들의 문화와 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래관계, 외부문화, 돈 등 새로운 정보 원천과 규율 권력의 경험이다. 북한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강력한 국가권력에 의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된 지식과 가치, 태도가 정당화되고 부과

<sup>128</sup> 조정아, “‘직업적 혁명가’와 ‘동요하는 인텔리’ 사이에서: 북한의 교사상과 교원의 사회적 위치,” 『현대북한연구』, 제7권 제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p. 144.

된다.<sup>129</sup>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공적 지식(official knowledge)의 공신력이 2000년대 이후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공교육 자체의 부실화에도 기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교육 이외에 청소년들의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원천이 만들어지고 확산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또래집단 문화, 탈북한 친척이나 중국에 다녀온 이웃 주민들 속에서 유통되는 정보, 중국을 통해 유입되는 한국의 영상매체, 돈의 위력 등이 공적 지식을 대신하는 새로운 규율 권력으로 작용한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들에 대한 국가와 가정의 통제-보호망이 상대적으로 허술해지면서 또래집단의 문화적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옷차림 등 또래집단간의 문화동조 현상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깡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가치관을 지향하는 가치관 동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전 시기에 당국의 견해나 다수 측의 견해와 같이 주류의 정보가 동조 압력으로 작용해왔다면<sup>130</sup>, 현재는 조성훈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들의 패 문화나 ‘우리 친구’라 불리는 또래집단이 주요한 동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모의 보호 또는 통제에서 벗어나 또래와 같이 무리를 지어 다니거나, 집이 없는 상태에서, 또는 가출하여 꽃제비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은 조성훈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집, 학교 등의 강력한 통제구조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꽃제비 생활의 핵심적 특징이며, 이러한 자율성은 조직적인 통제 속으로 복

I
II
III
IV
V
VI
VII

<sup>129</sup>-이한규, “북한 학교의 교과 지식,” 『현대북한연구』, 제3권 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0), p. 256.

<sup>130</sup>-이인정, 『북한 ‘새세대’의 가치지향 변화』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 p. 57.

귀했다가도 다시 뛰어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sup>131</sup>

또한 가족해체로 친척들과 동거하게 되는 경우 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청소년들의 사고 형성에 영향을 주거나, 가족 구성원들의 생각이 서로 달라 복합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sup>132</sup> 특히 청진, 온성, 회령, 무산, 혜산 등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가구 구성원 중에 탈북자가 있는 가구가 상당히 많고 탈북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들의 사고에 특정한 방향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해진 궤도’를 따라 모범생으로 성장했던 윤해일의 경우에도 2년 전 탈북하여 한국에 정착한 누나가 ‘궤도’로부터의 이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의미 있는 타자로 존재했다.<sup>133</sup>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계’와 ‘국경’은 일상생활의 장벽이기보다는 확장된 소통과 교류의 채널로 작동한다.<sup>134</sup>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

---

<sup>131</sup>- 김혁, “북한의 꽃제비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 51.

<sup>132</sup>- 함경북도 농촌지역에 거주했던 20대 중반의 여성인 사례 16의 경우, 전쟁노병인 할아버지는 자본주의 물이 들어서 나라를 배신하지 말라고, 탈북하면 본인이 죽고 만다고 평소에 항상 말씀하셨으나, 탈북한 이모는 자신에게 한국행을 권했고, 사례 16은 이모의 말을 듣고 결국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탈북하였다.

<sup>133</sup>- 또한 윤해일의 누나보다 먼저 탈북한 후 한국에 정착해 종종 송금을 해서 이들의 생계를 돕곤 했던 이들의 이모가 윤해일 누나의 탈북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윤해일의 누나는 탈북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학 아니면 못해도 전문대까지 갈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전부터 계속 이모한테 여기 오라는 제의를 받다보니까 좀 갈등을 했어요. 졸업해서 거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 이모가 한국에 있다 보니까 되게 한국에 대한 그런 정보를 많이 줬어요. 여기서는 진짜 막 죽을 때까지 뭐 잘 살게 하구. 저를 오게 할 때도 그런 말에 제가 훌 넘어가서 왔는데. 드라마에 보여지는 건 되게, 저는 항상 그런 부잣집 이런 것만 많이 봤었어요. 회장님 집. 아, 나도 가면 저런 데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왔어요. 딱 나왔는데 이모네 집 들어갔는데 아닌 거예요. 북한 집보다 오히려 더 못한 그런 집이더라고요. 북한엔 다 개인집 가지고 있고 되게 커요, 다. 그리고 뭐 잘 꾸러만 놓으면 진짜 멋있는 그런 집들인데, 좀 그런 환상이 많아서 왔던 거 같아요.”

<sup>134</sup>- Alan K. Henrikson, “Border Regions as Neighbourhoods,” Doris Wastl-Walter (eds.),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Border Studies* (Surrey: Ashgate

에게 있어 강 건너 바로 눈앞에 존재하는 중국은 존재 그 자체로 비교의 준거가 되기도 한다.

저희 마을 같은 데는 진짜 밤 되면 정말 껌껌하거든요. 불 다 타고 이러니까. 그런데 앞에 보면 도문이라고 있어요, 중국에. 진짜 밤에도 대낮같이 환하고 아파트마다 다 불 켜고 도로 옆까지 다 그거 하나씩, 벌써 저기는 천국 같고 여기는 지옥 같다. (사례 37 구술녹취록, 2013 I/15)

접경지역을 통해 유입되는 영상물은 청소년들에게 흥미와 호기심, 낯선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공적 지식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하고, 때로는 북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성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효과이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특히 북한에서 중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중기청소년기는 정체감 형성의 핵심적 시기이고, 사회적 조망을 수용하면서 도덕적, 사회관습적, 개인적 문제 간의 갈등을 보다 풍부하게 추론하게 되는 시기라는 점에서,<sup>135</sup> 그 효과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교과서 속의 지식을 대신하여 청소년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돈의 위력이다. 생계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것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 벌어들이는 돈이다. 생계의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어려서부터 돈의 위력을 실감해왔다. 이들은 생계의 해결과 소비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교우관계에서도, 이성

---

Publishing, 2011); 김선경, “경험되는 북·중 경계지역과 이동경로: 북한이탈주민의 경계넘기와 초국적 민족 공간의 경계 확장,” 『공간과 사회』, 제40권 (한국공간환경연구원, 2012), p. 120에서 재인용.

<sup>135</sup>- F. Philip Rice and Kim Gale Dolgin 지음, 정영숙 외 옮김, 『청소년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2), p. 92.

I
II
III
IV
V
VI
VII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돈의 위력을 체감한다. 그 결과 이들은 ‘돈맛’을 알게 되고, 돈에 대한 관심이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공적 지식에서 가장 중요시되었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도 교과서 속의 박제된 교리가 되고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목숨을 걸고 자신을 희생한 ‘영웅’에 대해 ‘머저리’라고 냉소하면서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10대 후반의 한 여학생의 말은 기존의 당과 수령이 차지하였던 가치의 규정력을 지금은 돈이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청소년의 의식과 태도를 형성하고 규율하는 힘은 교과서 속의 ‘수령님 말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관계와 현실세계에서도 나온다. 두 가지 규율 원천의 상충은 이에 대응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전략을 만들어낸다.

## 나. 하나의 세대, 다른 목소리들

앞에서 북한의 청소년 세대가 공통으로 체험하는 시대의 경험적 요소로서 궁핍, 죽음, 상실, 불안 등의 고통과, 국가와 가정 차원에서 체험되는 규율의 해체 또는 전유와, 돈, 또래관계, 외부문화 등의 새로운 규율 권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은 북한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정도로 지각되고 체험되지 않는다. ‘동시대의 비동시성’<sup>136</sup>은 서로 다른 세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

---

<sup>136</sup>-핀더는 동시대의 비동시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모든 사람은 완전한 동시대적인 가능성 속에서 나이가 같은 사람들과 나이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다. 각 개인에게 동일한 시간은 다른 시간, 특히 그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공유하는 자기 자신만의 다른 시대이다.” 카를 만하임 지음, 이남석 옮김, 『세대 문제』, p. 29.

니라 ‘경험의 병목현상’을 경험하는 동일한 세대 내에도 나타난다. 앞 절에서 기술한 네 명의 북한 청소년의 생애사례를 통해서 북한 새로운 세대 내에 존재하는 ‘동시대의 비동시성’을 읽어낼 수 있다.

만하임은 동일한 세대 내에서 세대경험을 각각 서로 다른 방법으로 소화하는 집단을 ‘세대단위’라는 개념으로 설명함으로써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세대뿐만 아니라 하나의 세대 내에도 비동시성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1800년경에 존재했던 합리적이며 자유주의적 청년 집단과 낭만적이며 보수주의적 청년 집단은 동일한 실제 세대에 속하지만 서로 다른 세대단위에 속한다. 낭만적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적 합리주의는 그들이 모두 마주치게 되는 역사적, 실제적 운명에 대한 두 개의 양극적인 형식들의 정신적 토론이자 사회적 응답이다.<sup>137</sup> 동일한 실제 세대라는 범주 안의 양극에서 적대적으로 다투고 있는 다수의 세대단위들이 형성될 수 있다. 다수의 세대단위들이 서로 다투면 서로 서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 세대단위들은 하나의 ‘실제 세대’를 구성한다.<sup>138</sup> 만하임에 따르면 세대단위는 동일 사건에 대한 유사한 반응, 구성원들에게 더욱 구체적이며 결속력 있는 속박을 부과하는 경향, 창조된 당파적 통합적 태도들을 특징으로 한다.<sup>139</sup>

북한 청소년들 속에서 세대단위의 맹아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첫 번째 집단은 유소년기에 물질적 궁핍이나 가족해체의 경험 속에서 조기 노동, 조기 진로 결정을 한 청소년들로 구성된다. 앞의 사례에서는 김정훈이 이에 해당된다. 이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국가의 권위를 부정하고 조직규율의 통제에서 벗어나거나 부적응하는 특성을

137- 카를 만하임 지음, 이남석 옮김, 『세대 문제』, p. 67.

138- 위의 책, p. 71.

139- 위의 책, p. 123.

지닌다. 두 번째 집단은 국가와 가정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북한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청소년들로 구성된다. 앞의 사례에서는 한아름이 이에 해당된다. 세 번째 집단은 학교나 사회의 지배질서에서 벗어나거나 눈에 띄는 저항을 하지는 않고 이에 형식적으로 참여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다른 행위에 몰두하는 집단이다. 앞의 사례에서는 윤해일, 조성훈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각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자. 첫 번째 집단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삶 속에서는 주로 가정사나 경제적 문제로 인한 유년기나 청소년기의 고통의 경험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교에서 소년단이나 청년동맹 등 조직생활을 경험한 기간도 짧다. 경제적으로 일찍 독립하여 부에 대한 강한 욕망과 독립성이 두드러진다. 김정훈의 사례에서는 열세 살 때 아버지가 정치범으로 체포되고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어머니와도 헤어져 살게 된 일이 가장 중요한 생애 사건이다. 이는 김정훈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진로를 모색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한 후 이른 나이에 경제활동에 뛰어들도록 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사회주의 국가와 김정훈의 부모는 그가 성장기에 당연히 누렸어야 할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 경험한 생존의 고통과 상실감, 외로움은 가정이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규율에 대한 거부로 연결된다. 그는 열세 살부터 보호자 없이 방치된 생활을 해야 했고, 이 후에도 꽃제비로, 또는 스스로 먹고살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떠도는 불규칙한 생활을 해야 했다. 그는 북한의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조직생활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그의 삶에서는 국가나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나 규율의 공간이 존재할 수 없었다.

함경북도 농촌 지역 출신인 20대 초반의 여성인 사례 6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특성이 나타난다. 그녀에게 가장 큰 고통은 경제적 궁핍이었다. 그녀는 부모와 함께 생활했지만 풀죽도 못 먹을 정도로 집이 가난해서 일곱 살 때부터 농사일을 해야 했다. 학교는 소학교 3학년까지만 다녔다. 아버지가 직장에 다니셨지만 직장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없어서 생계유지가 어려웠고, 어머니는 편찮으셔서 그녀가 가사일을 하고 생계도 도와야 했다. 처음에는 부모를 원망했지만, 이는 곧 국가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다.

학교 때는 그냥 부모들만 싫어했어요. 못산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라가 못사는 게 또 싫어서 그 다음부터는 원망하기 시작하고 막. 그런데 학교 다닐 때는 내가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있으니까 집에 부모만 싫어했어요. 부모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고생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 텐데 왜 이렇게 낳아가지고 부모도 고생하고 자식도 고생하고 이러지. 막 그러며 부모들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열여섯 살부터는 그 다음엔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생각하는 게 나라를 원망하면서 이 체제가 틀렸구나. 왜 일도 날 보고 ((대가도 주지 않고)) 그냥 하라지. 참 이상하다. 그게 들었어요. (사례 13 구술녹취록, 2013 I/20)

함경북도 국경 지역의 도시에 거주했던 20대 초반의 남성인 사례 23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도 궁핍과 가정의 불화와 같은 고통으로 얼룩져있다. 어린 시절의 궁핍의 기억은 경제난 시기 가족을 잃은 상실의 경험과 중첩되어 있다. 그는 학교를 소학교 3학년까지만 다니고 이삭줍기, 나무하기, 석탄 흙쳐 팔기, 오징어잡이 등의 노동을 하다가 열여섯 살 때부터 목선을 타고 뱃일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다가 가정에 무관심했고, 어머니는 장사를 하다가 빚을 많이 져서 사례 23은 자신이 돈을 안 벌면 형제자매를 비롯한 식구들이 다

짧다고 생각을 했다. 이혼한 부모 사이를 오가며 일 년을 살다가 아버지의 재가 이후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가정사로 인한 상처가 많이 남아있다. 그는 소학교에서 소년단 조직생활을 시작하는 3학년 무렵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어, 조직생활을 해 본 경험이 없다. 그는 학교의 규율에서도 가정의 규율에서도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았다. 어린 나이에 시작한 뱃일로 돈을 좀 벌었고 좀 더 열심히 벌어서 배를 사서 선장을 하겠다는 꿈을 꾸다가 한 국으로 오게 되었다. 그는 한국에 들어와서 적응하기 어려운 점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싫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것도 옆에서 혼시질 하는 거. 혼시라는 거 알죠, 뭘 뜻인지? 그런 게 진짜 싫어요. (...) 아직 내가 태어나서부터 그 누구도 나한테 잔소리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진짜 싫거든요. (사례 23 구술녹취록, 2013 I/19-20)

부모의 이혼, 사망, 경제적 몰락 등의 이유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직업세계에 뛰어들어 본격적인 노동을 하게 되는 이 부류의 청소년들은 물질적 궁핍이나 부에 대한 욕망 등으로 인해 직업적 정체성, 가치관을 일찍 형성하는 경향을 지닌다.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은 자의식의 기초가 되는 정체감 형성이다. 인간 발달의 여덟 가지 단계를 제시한 에릭슨(E. Erikson, 1950, 1968, 1982)에 의하면 11~20세 사이의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의 단계이다. 청소년기는 심리사회적 유예상태(psychosocial moratorium)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기간이며, 이 기간에 청소년들은 특정한 역할을 수행할 책임을 지지 않고 다양한 역할의 분석과 시도를

통해 사회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류의 청소년들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짧은 유예기를 가짐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역할 실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체성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성취를 이룬 청소년의 경우에는 독립성, 자기효능감,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 등 긍정적인 인성 요인이 나타난다. 특히 바람직한 효과를 산출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과 독립성이 두드러진다. 반두라(A. Bandura)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의 주요 원천은 성취 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이다. 이 집단에 속하는 북한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기에 장사 등의 생계활동을 시작하여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과정에서 경험한 성취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청소년의 구술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을 엿볼 수 있다.

구술자: 저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 부딪히면, 부딪히면 그것 때문에 많이 실망하진 않아요. 내가 일단 그거 퍽 부딪히면 일단 내가 그거 부딪히면 남이 시켜서 했다 그러면 내가 실망하면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한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심정만 먹으면 그게 그렇게 쉽게 포기 안돼요.

연구자: 응, 그럼 굉장히 독립적이겠어요?

구술자: 그렇죠, 뭐. 옆에 사람 시킨 일보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면 더 빠르니까. 옆에 사람이 시키면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진짜 일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내절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면 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정 힘들다 할 때는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죠. 그때도 그게 도움이 되고, 내 생각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훌 말할 때는 그게 진짜 안 되거든요. (사례 23 구술녹취록, 2013 I/24)

I
II
III
IV
V
VI
VII

두 번째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첫 번째 집단의 청소년들과는 대조적 특성을 나타낸다. 이들의 삶 속에서는 가정과 학교의 규율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그 결과 이들은 사회의 공식적 질서에 순조롭게 동화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자아성취를 도모하는 특성을 지닌다. 다른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 목격한 죽음의 기억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단편적 기억들을 지니고 있고,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상 또래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통해 바깥 세계에 관한 소식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아름은 북한 교육이 기르고자 하는 인간형에 가까운 사고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 학교교육을 통해 배우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가정에서 선물을 받고 초상화에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는 부모님의 훈육을 통해서 체화되었다. 학교의 규율을 남보다 한걸음 앞서 지키는 것을 스스로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고, 국가가, 당이, 학교가 자신에게 부여한 과업을 완수하고 친구들에게 모범이 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단 한 번 시청했던 한국영화에 나타난 한국사회의 모습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달랐지만, 그로 인해 기존의 신념체계에 대해 의심을 품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속해 있었던 사회적 환경은 그녀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탈북이라는 선택이 그녀의 곁에 상존했던 하나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아름이 탈북하기 전까지 그녀와 절친했던 중학교 친구 열 명 중 여섯 명이 중국으로 건너갔다. 친구들의 소식과 이웃 사람들의 얘기, 외국 영상물 등을 접한 그녀의 마음에는 북한 밖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한국에 대한 환상이 이미 들어와 있었다. 상상 속에서 그려왔던 다른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것은 방학 때 약초를 캐러 다른 지방으로 다녔던 것처럼 잠깐 강을 건너면 되는 일이었다. 한아름

의 사례는 ‘열성자’ 부류의 청소년들이 북한의 공식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이들이 공식적 이데올로기와 다른 방향의 행위 지향성을 취할 가능성 또한 이들의 삶속에 늘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함경북도 농촌 지역 출신 20대 중반의 여성인 사례 34의 이야기도 이와 같은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특성과 사고방식을 잘 보여준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무렵 인민학교에 진학한 그녀는 “북한의 전 지역이 다 힘들었던 시기니까 저희도 다 힘들었다.”고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을 에둘러 표현한다. 당원인 아버지는 당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높았으며”, 어머니는 어려운 시기에도 “무조건 학교에 가야 한다. 아파도 가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교육을 중시하셨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례 34는 탈북하기 전까지 거의 결석하는 일 없이 성실히 학교를 다녔고 성적도 우수했다. 그녀의 의식 형성에서 학교교육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학교생활은 친구들과 방과 후에 학교 밖에 가서 일하고 같이 내려와 밤늦게까지 농구를 하고 놀았던 기억, 시험기간에 난로 주변에 모여앉아 김일성, 김정일 혁명역사를 같이 외우면서 시험공부를 했던 기억, 생일날 친구들과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었던 기억, 고난의 행군기에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 댁에 가서 일을 도왔던 기억 등과 같은 것들이다. 방과 후 작업이나 혁명역사 암기와 같은 일들은 그녀에게 지루하고 고된 과업,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의무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소학교 때 반에서 가장 먼저 소년단에 입단하면서 소년단 넥타이를 댄 기억도 생생히 남아있다. 입단선서를 하고 소년단원의 의무를 외우면서 충성심을 가지고 “의무를 충실히 잘 수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기억하는 또 한 가지 일화는 중학교 때 김일

I

II

III

IV

V

VI

VII

성 생일날 꽃을 꺾어 초상화 앞에 바치면서 충성을 다짐했던 일이다.

그때 이제 꽃을 꺾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3층 건물이었는데 학교가, 1층 건물에 보면 가장 중 가운데, 한 굉장히 크게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와 함께 김일성 김정일이 있는, 사람이랑 이제 아이들이 짝 있는 이런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꽃을 놓거든요.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꽃을 놓고 묵념을 하면서 눈물이 막 나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눈물이 다 나고. 일부러 막,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충성을 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죠. (사례 34 구술녹취록, 2013 I/39)

사례 34에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은 진리 그 자체였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중국과 한국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지만, 북한 교과서의 내용과 주변에서 들은 것이 다를 때에도 국가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주위 사람들에게서 듣는 이야기도 신빙성이 있어 보였지만, “배운 건 배운 거고, 내가 직접 들은 건 들은 것이다.”라는 식으로 두 가지를 서로 분리해서 생각했다. 김일성, 김정일 역사를 배우면서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당연히 다 맞다. 항상 위대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다. 모범생이었던 사례 34가 탈북하게 된 배경에는 친척들의 탈북과 이로 인한 진로에 대한 고민, 이웃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 갖게 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자리하고 있다.

세 번째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첫 번째 집단의 청소년들처럼 학교나 사회의 규율체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두 번째 집단처럼 주어진 질서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면서 공식 규범을 내면화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례에 형식적으로 참가하면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다른 행위에 몰두하거나 체제

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일상의 저항을 수행한다.

앞의 사례에서 윤해일에게 있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은 공부였다.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청년동맹 가입을 또래 중에 가장 늦게 했다는 그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에게 있어 강제된 규범과 규율의 수행은 마음을 담아 행하는 것이기보다는 형식화된 의례였다. 조직생활과 정치사상교양, 동원을 싫어했지만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활동에는 다 참여하였고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율도 잘 준수하였다. 그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는 공부”에 몰두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은 “의미 없는” 작업에 묵묵히 참여하는 행위였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한아름과 다를 바 없는 모범생이었지만 그의 내면세계는 학교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내면화했던 한아름과는 달랐다. 내면세계와 현실과의 괴리가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러 그는 다른 종류의 행동방식을 선택했다.

조성훈에게 의미 있는 행위는 또래 친구들과의 놀이였다. 동원된 작업에 참여한 것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서라기보다는 친구들을 만나 함께하는 재미에서였다. 수령의 동상을 세울 터를 닦는 신성한 작업의장에서 그는 여자친구와 농담을 하고 친구들과 패싸움을 벌였다. 사회 전체에 만연한 체제의 권위적 담론 형식을 수행적으로 반복하는 과정이 오히려 그에 대한 창조적 일탈 및 전유의 계기를 제공하는 역설!<sup>140</sup> 그는 윤해일에 비해 학교 규율로부터 좀 더 자유로웠다. 그렇지만 그는 생존을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이 세 번째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알렉세이 유르차(Alexei

<sup>140</sup> 김수환, “소비에트 마지막 세대의 눈으로 본 후기사회주의: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알렉세이 유르차 저 <서평>,”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4권 (한국러시아문화회, 2012), p. 195.

Yurchak)이 소련의 마지막 세대에 대한 분석에서 주목했던 “svoi”(우리들)이라고 불리던 ‘정상인’<sup>141</sup>과 같은 범주의 청소년들로 생각할 수 있다. ‘정상인’들은 이상주의적 열성자나 반항아들과는 달리 정치사상적 과업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의례적, 자발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그들의 수행은 과업의 내용에 대한 동의와 내면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라고 부르는 서로에 대한 일종의 임무, 문제를 일으켜 서로를 곤란에 빠뜨리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체제의 구조 속을 보행하면서 체제의 완전한 지배를 피해나가고, 그 메커니즘을 교묘하게 속이면서 자신들만의 시간, 공간, 목소리를 지켜내는 주체<sup>142</sup>들의 전략에 다름 아니다. V장에서 예를 들었던 바대로, “내 운명의 주인은 나”라는 주체사상의 테제를 “내가 주체”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이에 반하는 학교의 억압적 질서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사례 35의 사례는 국가의 공식담론을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변용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공식규범의 적극적 내면화와 규율기제로부터의 이탈 사이에서, 한편으로는 국가담론 수행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식규범을 변용하고 전용하면서 창조적 일탈을 일삼는 청소년들! 이들은 현재 북한 사회에서 새로운 세대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새로운 세대에서 ‘정상적인’ 범주에 속한다. 유르차코는 소련의 마지막 세대를 분석하면서 권위적 체제 담론

---

<sup>141</sup>- Alexei Yurchak, *Everything Was Forever, Until It Was No More: The Last Soviet Generation*, pp. 108~109.

<sup>142</sup>- Michel de Certeau,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translated by Steven Rendall.

의 불변의 형식이 도처에서 재생산될수록 체제는 심오한 내적인 전환을 경험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중들이 상대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불명확하며 정상적인, 다양한 형태의 의미 있고 창조적인 삶의 여지를 내포하는 체제의 권위적 형식과 재현의 재생산에 더욱 많이 참여한다는 것은 체제의 전치(轉置)를 예측해주는 것이다.<sup>143</sup> 소련의 마지막 세대에 대한 유르차크의 통찰이 북한 사회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효하다면, 이 세 번째 집단이 북한 청소년 코호트의 중심적 세대단위로 등장하고 이들이 국가의 공식 규범과 학교 규율을 전용하고 해체하는 방식이 전면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은 북한체제변화의 전조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대단위의 맹아를 살펴봄에 있어, 한 개인은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하나의 세대단위에 고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가족으로부터의 자율성이 증가하고 개인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청소년기에 체험한 중요한 생애경험은 개인의 지향성을 변화시켜 다른 세대단위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20대 초반의 남학생인 사례 27의 생애 속에서 그 전형적인 예를 찾을 수 있다. 함경북도 농촌 지역에서 태어난 사례 27은 성장과정에서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사회주의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시기에 체제의 혜택을 받고 성장한 “체제의 선봉장”이었다. 아버지는 사례 27이 소학교 다닐 때 매일 노동신문을 강독시키면서 아들을 엄격하게 훈육했다. 공무원이었지만 고지식하고 사익을 챙길 줄 몰랐던 아버지로 인해 사례 27은 여덟 살 때까지 쌀밥을 먹어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중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I
II
III
IV
V
VI
VII

<sup>143</sup>- Alexei Yurchak, *Everything Was Forever, Until It Was No More: The Last Soviet Generation*, p. 283.

학교를 빠지지 않고 다녔고 “공부로 승부”를 했던 모범생이었다. 이후 그는 중학교 때, 장사를 하러 중국에 간 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를 찾아 중국에 건너갔다가 잡혀오게 된다. 그는 환한 불이 켜있는 중국의 거리 풍경을 보면서 “노동신문에 있던 내용들은 진짜 너무나 뭔가 이런 허황된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아버지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아버지가 가르쳐주셨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2004년에 제가 중국에 한 번 네, 가서 딱 일주일 만에 제가 잡혔는데, 일주일 동안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진짜 새로운 세상을 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진짜 모든 것이 풍족한 세상이고 그 길옆에 전구가 다 켜져 있는 것이 너무 신기한, 그런 세상을 보면서 너무-- 우리 아빠 같은,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는 너무 진짜, 진짜 너무 뭐랄까, 아무튼 좀 비교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갔다 오고 나서 더 비교가 되는데, 잡혀오고 나서 더 진짜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고, 다른 가정들도 보게 되었고. (사례 27 구술녹취록, 2013 I/4)

이후 이모가 듣는 한민족방송을 통해 그동안 학교교육과 노동신문에서 접해왔던 것과는 상반되는 한국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는 기존의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게 된다. 이로 인한 고민은 결국 탈북으로 이어졌다. 청소년 초기까지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서도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면서 사례 27은 기존 사회에 안정적으로 동화되어 왔다. 그러나 어머니의 탈북에 따른 본인의 탈북과 일주일간의 중국 생활, 한국 방송 청취 등 청소년 중기에 이루어진 일련의 생애사건은 그를 다른 세대단위로 이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세대경험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화하는 이 세 집단을 명확히 구분되는 세대단위라고 명명할 수 있으려면 일정 정도의 기간에 이와 같은 집단의 구분과 집단별 특성이 유지, 발전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집단들을 세대단위의 맵이라고 잠정적으로 규정한다. 이 세대단위의 맵아들 중에서 어떤 것이 주도적인 세대유형<sup>144</sup>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 탈북청소년들 속에서는 첫 번째 유형이나 세 번째 유형의 청소년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두 번째 유형의 청소년들은 드물었다. 그러나 이는 탈북이라는 결과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쩌면 북한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라면 두 번째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계량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이전 세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유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세대의 중요한 특징이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유형의 문화적 경험과 특성을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모범적인 청소년들조차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앞의 사례에서 전형적인 모범생이었던 한아름도 다른 친구들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통제하는 옷차림하기, 포래들과 몰려다니며 놀기, 한국 노래 청취와 한국 영상물 시청, 남자친구 사귀기 등 포래들이 경험하는 문화를 공히 경험했다. ‘열성자’로 살아왔던 그녀가 결국은 탈북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점은 북한에서 모범 학생으로 산다는 것과 탈북을 시도하는 ‘자유주의자’가 된다는 것 사이의 간극이 그다지 깊지 않고, 세대단위의 맵아로 분류한 서로 다른 유형들 간의 경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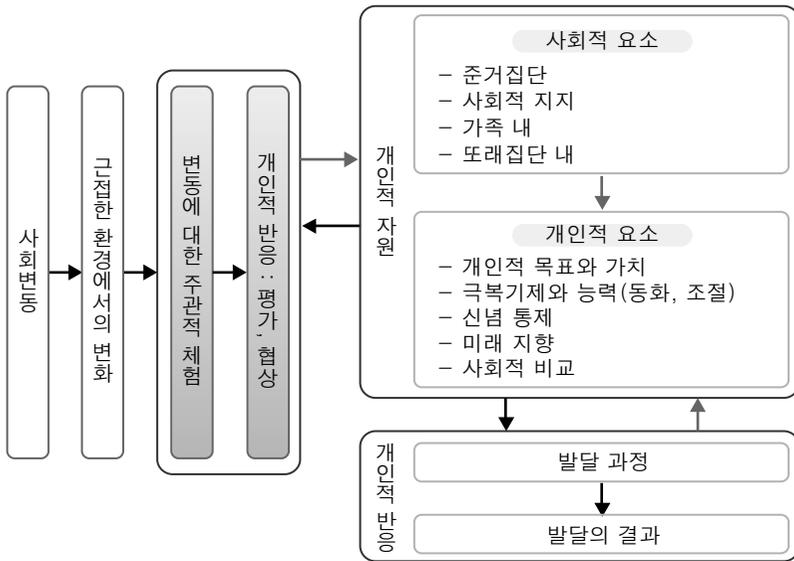
<sup>144</sup> 페터슨은 세대유형을 주도적 세대유형, 선회적 세대유형, 피억압 세대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대정신과의 조우 덕분에 개인의 성향의 고양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주도적 세대유형, 서로 다른 경향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개인이 그 시대정신의 진영에 포섭되는 경우가 선회적 유형, 자신의 성향과 반대로 시대정신에 굴복하여 아무런 결실도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한물간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가 고유한 토대에 근거해 완강하게 저항하여 시대의 외톨이로 남는 경우가 피억압 세대유형이다. 이남석 옮김, 『세대 문제』, p. 86.

I
II
III
IV
V
VI
VII

모호하고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한 개인의 생애에서 의미 있는 경험들을 연결하면서 각자를 특정한 세대단위에 정치(定置)시키는 사회경제적, 개인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 청소년들의 발달에 관한 트롬스도르프(G. Trommsdorf)의 연구결과는 북한 청소년 세대에 존재하는 비동시성의 스펙트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사점을 준다. 트롬스도르프에 의하면 사회변동의 주관적 체험과 개인의 발달의 상호관계는 아래의 <그림 VI-1>으로 요약된다.

● 그림 VI-1 사회변동의 주관적 체험과 개인적 발달<sup>145</sup>



<sup>145</sup>-Gisela Trommsdorff, "Subjective experience of social change in individual development," in J. Bynner and R. K. Silbereisen (eds.), *Adversity and Challenge in Life in the New Germany and in England*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2000). p. 91.

트롬스도르프에 의하면 사회변동은 변화된 환경이 개인에게 새로운 주관적 의미를 가질 때 그 효과를 나타낸다. 사회변동의 주관적 의미, 즉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사건과 사회적 변화의 의미는 가족, 친구, 준거집단, 당 등의 의미 있는 타자들에 의해 수정되거나 조정된다. 개인의 목표와 가치 및 신념체계, 지향성 등의 개인적 요소 또한 사회변동에 대한 개인의 반응과 주관적 체험에 영향을 미친다.<sup>146</sup>

북한 청소년 세대 속에서도 개인의 타고난 성향뿐만 아니라 계층, 지역, 가족 구성 등의 요소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세대단위로 소속될 것인지에 영향을 준다. 도시에 거주하는가 농촌이나 산골에 거주하는가, 국경지역에 거주하는가 내륙지역에 거주하는가, 경제적으로 부유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배급 등 국가의 경제적 혜택을 받는가 전혀 받지 못하는가, 출신성분으로 인한 진로의 제약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정상가정인가 한부모·재결합·조손가정인가 등이 같은 시대 안에서도 한 개인이 특정한 경험을 하고, 그러한 경험에 특정한 방식으로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결정한다. 후속연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회적 요소들과 개인적, 인성적 요소가 유사한 세대경험을 해석, 수용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규명해야 한다.

I
II
III
IV
V
VI
VII

<sup>146</sup>- Gisela Trommsdorff, "Subjective experience of social change in individual development," p. 94.



# VII

---

결론



이 연구에서는 경제난과 시장화가 진행된 시기에 유년기와 성장기를 보낸 북한 청소년들이 특정한 사회·역사적 과정 속에서의 ‘세대’로서 어떠한 공통의 세대경험을 하였고, 그 결과 어떠한 공통의 특질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초점을 둔 연령집단은 ‘고난의 행군기’에 유아기와 소년기를 지낸 연령대, 즉 고난의 행군기를 전후해서 태어나 경제난 상황 속에서 유아기를 보내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소학교에 입학한 연령집단부터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나 중학교 학령기 때 고난의 행군을 맞은 연령집단인 1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까지의 연령집단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장 경험과 그러한 성장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주관적 세계, 이들이 자신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와 해석방식과 같은 주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심층면접과 생애사 연구 등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탈북청소년들을 주요 면접 대상으로 삼았고, 이들 집단과의 비교를 위해 20대 후반, 30대, 40대 북한이탈주민도 포함하여, 총 4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II장에서는 북한의 청소년들이 태어나 성장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들 세대가 태어난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1990년대 이후의 중요한 정치경제적 사건과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기억,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북한에서 1993년과 2008년 두 차례 실시된 인구조사 결과 분석에 의하면, 10대 중후반 연령집단은 경제난으로 인한 인구손실이 가장 큰 집단이다. 이들 연령집단은 경제난 시기에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영양상태가 불량하여 신체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가

능성이 크다. 또한 경제난 시기와 그 이후의 성인 남성 사망률 증가, 가임기 여성의 이주, 출생률 감소 등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족 구성원의 사망이나 탈북으로 인한 가족 구성의 변화와 가족해체로 이어지면서 청소년 가정환경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1990년대 이후 주요 정치경제적 사건과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기억을 살펴보면, 20대 중반 이후의 연령대에서는 주요 사건들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10대와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은 화폐개혁과 같은 최근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국가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는 편이었다. 이는 경제난이나 2000년대 초반의 경제개혁 조치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이들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일상과 직결되어 있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이들 세대의 특성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의 세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환경으로는 생존 방식의 변화, 가족 구성과 학교교육의 변화, 외부문화의 유입과 정보 유통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의 배급이 아닌 부모 또는 자신의 장사활동을 통해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은 이들 청소년 세대의 세대공간을 기존 세대의 세대공간과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다. 기성세대는 배급제와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제와 같은 사회주의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고 자란 세대인데 비해, 젊은 세대들은 이와 같은 제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제한적으로만 경험하였다. 또한 이들은 가정의 해체와 학교교육 부실화로 인해 적절한 교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있다. 2000년대 들어 시장의 급속하게 팽창하면서 중국과의 접경지역을 통해 외부정보와 영상매체가 유입되어 전국으로 유통되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북한 외부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학교교육이나 공식적인 선전매체를 통해서도 접할 수 없는 사고방식과 문화,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1990년대를 경유하며 등장한 새로운 세대의 특징은 청소년 시기라는 일정한 생물학적 연령대의 일반적 특성이 아닌 1990년대와 2000년대가 갖는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의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형성된 그들만의 독특한 의식세계, 문화적 전략, 사회적 관계를 경험의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 범주로 이들 세대의 공통적 세대경험에 접근하였다. 첫 번째는 그들의 의식세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육체적 경험과 내면을 표현하는 언어적 경험의 측면으로, III장에서 이를 다루었다. 두 번째는 그들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그들의 존재와 세계를 매개하는 장소와 사물의 경험의 측면으로, IV장에서 이를 분석하였다. 세 번째는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하는 관계문화의 측면으로, V장에서 이를 다루었다. 세 가지 범주는 각각 개인 내면세계, 사물들을 통한 세계와의 접촉,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나, 청소년 개개인에게 이러한 경험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구성적으로 결합되어 경험되는 것이다.

먼저 육체적, 언어적 경험의 측면을 살펴보면, 북한의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빈곤과 빈부의 계층화를 태어나면서부터 일상적으로 경험한 세대이며, 이런 빈곤과 계층화는 다양한 육체적 경험 형태로 그들의 세대 특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세

I
II
III
IV
V
VI
VII

대는 모두 고난의 행군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육체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 시장화 등을 경험한 세대이다. 이런 기근, 질병, 죽음, 시장의 경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의 세계관, 정서,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물론 이들 세대의 육체적 고통의 경험과 기억은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화폐교환조치 등을 어느 나이에 경험했느냐에 따라 편차가 존재한다. 경험의 차원에서 이들 세대를 식량난의 ‘비참’이나 ‘죽음’의 직접적 경험 세대로 단순하게 코드화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지역 및 집안의 경제적 상황, 육체적 경험의 자각 나이에서 나타는 차이가 그런 편차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러나 경험의 다양성과 편차들이 오히려 이들 세대가 이전 세대와는 구별되는 지점이다. 경험의 역동성 자체가 다양한 실천으로 자신의 세대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기초가 되고, 보다 현실적이고 감각적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세대를 외부의 시선으로 ‘고난의 세대’라고 규정하기보다는 그들 경험세계의 측면에서 세대의 특징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 결과, 육체적 경험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빈곤과 계층적 빈부 차이에 대한 육체적 경험이다. 새로운 세대는 학교와 또래집단에서 일상적으로 빈부의 차이를 경험한 세대이다. 이전 세대들에 비해 물질적인 빈부의 계층차를 뚜렷하게 느끼고 자란 세대이다. 출석률과 빈부 계층화 사이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성립하고 있다. 학교에 나가지 않거나 배제된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사회로부터 배제 또는 소외를 당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둘째, 청년되기의 통과의례에 대한 육체적 경험이다. 북한은 중학교 시기에 다양한 육체적 활동을 통한 청년으로서의 통과의례를 거치도

록 해 놓았다. 국가의 통과의례는 어른이 되었다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그러나 이런 통과의례 참여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위에 따라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부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통과의례로 변화된 측면이 있다. 새로운 세대들은 이런 육체적 활동을 활용하여 또래관계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들만의 비공식적인 통과의례로 공식적 통과의례를 재전유한다.

셋째, 유행과 반문화적 저항의 장소로서 새로운 세대의 육체이다. 새로운 세대는 쌍꺼풀 수술, 치아교정, 문신, 코수술 등과 같은 외모 교정에 관심이 많은 세대이다. 외부세계의 접촉은 외모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생존에 있어 여성의 외모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원화된 측면이 있다. 한편 외모 가꾸기는 또래관계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자아의 정체감을 재확인하는 장소로서의 ‘육체’가 북한에서 새롭게 재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계급적 표상으로서 세대의 육체이다. 새로운 세대들은 육체나 외모, 의복을 통해 상대의 계급을 간파한다. 그만큼 육체나 외모, 의복, 사물 등을 통해 자신의 계층적·계급적 위치를 표현하는 것이 많아졌다. 또한 육체를 통해 전시(展示)되는 계층적·계급적 기호에 민감하다. 계급적 기호로서 건강한 몸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이다. 외모를 가꾸는 육체에 대한 관심, 육체를 통해 계급적 위치를 간파하거나 그것을 과시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자아의 형성 차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징과 재현의 몸으로서 세대의 육체이다. 비공식적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스크린 속 육체를 모방하고 자신의 육체를 통해 재현하려는 욕구이다. 북한의 새로운 세대들은 다양한 육체들의 이미지와 동작을 모방하고 재현하는 데 많은 관심

I
II
III
IV
V
VI
VII

을 갖는다. 단순한 특정 사물의 모방 행동 이상의 스타일을 간파하는 시선이 형성돼 있다. 이런 스타일의 모방은 로맨틱한 사랑의 방식을 모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나아가 드라마 속 공간에 배치돼 있는 한국적 생활양식 전반을 하나의 감각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새 세대의 특징은 언어 세계를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실제 일상에서 쓰는 언어, 내면의 생각을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의 언어, 그리고 공적인 국가 언어 사이의 괴리가 이들 세대에서는 클 뿐만 아니라, 이들 세대는 이런 이중성을 매우 잘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국가의 공식 언어와 일상의 언어적 수행 사이의 괴리는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세대의 언어 속에서 뚜렷하게 발견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공적 또는 사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세계의 특질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 이들이 갖는 의식 세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새 세대의 언어생활이 갖는 이중성과 언어 수행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생활총화이다. 생활총화는 김일성·김정일의 ‘말씀’과 연출된 형식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검열해야만 하는 언어 수행의 공간이다. 생활총화는 이런 형식적인 공적 언어를 통해 연출되는 하나의 연극무대라고 할 수 있다. 생활총화는 요즘 세대에게는 학교로부터의 각종 요구사항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결석 등이 추궁당하는 시간이자 끊임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화된 ‘말씀’을 반복 재생하는 지루한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새로운 세대만의 언어이다. 그들의 사적 세계는 공식적인 언어들, 말씀, 생활총화 등의 규범화된 공적 언어들과는 다른 언어적 형식과 내용을 갖는다. 새로운 세대는 체제에 대한 것도 미래에 대한 것도 아닌, 유행하는 드라마, 사물들, 노래, 외부세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 그들만의 언어세계를 공유한다. 한편 이들은 자기 내면을 기록하기도 한

다. 일기장은 공식 언어 세계와는 무관한 일상적이면서 자기고백적인 내면의 기록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세대는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계층 간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물과 장소의 경험을 통해 자신들만의 세대적 특성을 보여준다. 첫째, 이들은 화폐(돈)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 물신화된 정체성을 보여준다. 부모님들의 세대는 새로운 세대를 순진하지 못하고 영악하고 계산적이며 인색한 세대라고 평가한다. 반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세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해 내고 있다. 부모 세대와 달리 김일성, 김정일만 바라보면서 있지 않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열려 있는 세대, ‘깨어 있는 세대’이다. 그저 원칙대로 살기보다는 영악하고 융통성 있게 생각하는 ‘똑똑한’ 세대이다. 이들은 시장을 통한 소비와 관계에 익숙하다는 점에서 ‘시장세대’, 화폐의 중요성을 그 자체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대란 점에서 ‘화폐세대’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세대는 힘 있고 돈이 되는 직업을 열망하는 세대이다. 이들 세대는 특정 직업보다는 지위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크다. 안전원, 군관 등이나 간부로 통칭되는 지위에 대한 열망이 크다. 이러한 직업은 그들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 실제 살아가는 데서 유용한 지위, 뭔가 받아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지위, 주민들 사이에 군림할 수 있는 지위를 표상한다. 이들 세대의 지위 열망은 국가가 제시하는 영웅에 대한 냉소로 표현되기도 한다. 군대에 가는 것 역시 이들에게는 징병 가는 것과 같은 회피하고 싶은 일이다. 이런 냉소나 기피는 청년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과 모범을 강조해 온 국가의 말들에 대한 불신과 피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I
II
III
IV
V
VI
VII

셋째, 이들은 학교 내 계층적 차이를 일상적으로 경험한 세대이다. 이들 세대는 학교로부터 요구받는 세외부담의 압박을 일상적으로 느끼며 학창시절을 보낸다. 이런 세외부담은 학교 내 빈부에 따른 계층화, 계급화 현상과 그대로 맞물려 있다. 이런 학교 내의 계층적·계급적 위화감과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세외부담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여 이들 세대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새로운 세대의 패문화에는 개별 학생들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구별짓기와 위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집안이 가진 경제적 능력이 명확하게 학생들을 가르는 패의 경계선으로 작동하고 있다. 학생들 사이의 위계와 관계문화가 경제적 능력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는 측면이 강해졌다.

다음으로 외부세계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사물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세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런 사물들의 위험성과 청소년 오염에 대한 국가담론이 늘어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 불법 녹화물과 CD 등을 통한 자본주의 문화 유입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북한 당국의 목소리는 내부문건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외부세계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사물들이 새로운 세대의 행위성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드라마나 외국 영화가 담긴 CD를 통해 청소년들은 다른 세계의 생활모습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다른 세계를 동경하고, 생활과 언어를 모방하는 등 일련의 행동을 한다. 여러 사물들을 통해 ‘세련됨’에 대한 미적 감각, 물질적 풍요에 대한 욕망, 정서적 공감 등을 갖기도 한다.

셋째, 사물의 소유와 소비를 통해 계층적·계급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아를 구성하는 측면이다. 비공식적인 영상매체 속의 이야기, 등장인

물의 외모나 옷차림 등을 감각적으로 모방하고 재현하는 것을 통해 자기화한다. 중요한 점은 이런 모방과 재현이 이것을 소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거나 정치적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특정 계층의 청소년들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유행이란 계층적 위계에 따른 모방의 연쇄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세대 사이에서는 이런 문화적 취향과 모방 및 재현을 통한 계층적·계급적 구별 짓기가 작동하고 있다. 한편 또래집단을 형성하고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새롭게 들어오는 사물과 유행에 대한 정보의 공유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사물들을 통해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와 동경을 갖는 세대이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사물들은 특정 물건에 대한 소유 욕망이나 유행 차원을 넘어 외부 세계에 대한 상상과 동경을 불러일으킨다. 이들은 다양한 사물들을 통해 또래문화를 만들고 공유하기도 하고 외부세계를 상상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장소에 대한 경험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세대의 특징을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다. 장소를 경험한다는 것은 장소가 주는 규율에 따른 질서화/경계화를 육체에 각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 문화는 전통적인 질서/경계 짓기 메커니즘에 순응하거나 저항하는 것이며, 장소로서 질서/경계를 넘나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첫째, 익명화된 비-장소와 대항공간을 전유하는 새로운 세대의 장소화된 정체성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익명화된 개인들의 장소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북한의 새로운 세대들은 바로 이런 ‘비-장소’를 경험하는 세대라는 특징을 갖는다. 공식적인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이들은 공적인 운동장이나 공원보다는 시장, 역 광장, 사적인 공터나 다리

I
II
III
IV
V
VI
VII

밀, 산기슭이나 강변, 후미진 곳 등을 찾아 끼리끼리 모이기도 하고, 접경지대에 사는 경우 호기심으로 국경을 며칠 간 넘나들며 외부세계를 보고 오는 등 비장소를 일상적 만들어내고 경험한다.

둘째, 새로운 세대는 이동성과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세대라는 특징을 갖는다. 도시에서 새로운 세대의 이동성은 시장의 동선이나 상품의 경로 속에 놓여진다. 이들은 이런 장소들을 통해 다양한 물건과 이미지를 경험하고 정보를 나누고 다른 세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이동성이 갖는 정치적 힘은 이동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이동을 통해 경험하는 다양한 접촉이 청소년들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새로운 세대는 꽃제비와 같이 장소를 상실한 세대이기도 하다.

셋째, 국가나 사회가 공간을 통해 규율하고 요구하는 것을 역으로 이용하고 전복하는 것 또한 새로운 세대의 특징이다. 북한의 새로운 세대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청소년들의 ‘어슬렁거림’, ‘목적 없는 도보’이다. 이것이 전복적일 수 있는 것은 국가에 의해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목표를 수행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목적 없는 어슬렁거림을 통해 어떤 장소나 나이가 가져야 하는 목적의식적 행동 규범을 소멸시키고 무의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북한의 새로운 세대들은 이런 목적 없는 어슬렁거림을 통해 가장 무력해 보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전복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들은 장소 선호도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감시가 없는 산이나 후미진 곳을 꼽았고, 가장 싫어하는 장소로는 보위부나 보안서와 같은 치안기관이나 단속기관이 있는 장소를 주로 꼽았다. 가장 싫어하는 장소가 치안기관이라는 공적 폭력성이 응집된 국가기관이라는 점은 장소에 대한 선호가 감시, 규율, 처벌이라는 국가의 폭력성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

큼 이들 세대는 국가의 폭력성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시장 공간을 문화적으로 전유하는 새로운 세대의 특징이다. 이들은 시장을 통해 보다 다양한 사물, 음식, 사람들을 접하면서 시각적이고 미각적인 감각을 이전 세대보다 많이 갖는 세대이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공간은 이들에게 소비의 공간, 소통의 공간, 감각의 공간, 욕망의 공간이다.

다섯째, 시장화에 따른 도시의 계층화를 경험하여 차이와 욕망을 발견하는 세대의 특징이다. 시장들 사이에 분화가 이루어져 있고 이런 분화는 계층에 따른 시장이용과 소비수준의 차이를 보여준다. 도시 내에서 구역마다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입지에 따라 계층적 위계가 형성돼 있다. 새로운 세대들은 바로 이런 차이를 민감하게 인식하는 세대들이다. 또한 새로운 세대들은 기존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강한 특징을 갖는다. 이들은 도시 내 여러 구역을 이동하는 것은 물론 도시와 도시 사이를 오가며 이들 구역들과 도시들 사이의 ‘차이’를 발견해 낸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세대는 도시들 사이의 지역 불평등을 인식하는 한편 외부세계에 대한 동경과 탈주를 꿈꾸는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은 빈부의 차이와 지역 사이의 불평등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은 물론 이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보고 느끼며 인식한다. 한편 도시의 거리 ‘불빛’은 새로운 세대에게는 새로운 문화적 경험이면서 나아가 미지의 세계, 발전된 문명이라는 동경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런 욕망은 구체적으로 국경을 넘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타인과의 관계와 친밀성의 경험 측면에서는 또래관계와 가족관계,

I
II
III
IV
V
VI
VII

국가 및 최고지도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이들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험을 살펴보았다. 먼저, 북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친밀성과 하위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들의 또래관계에 있어 친밀성은 동질성과 유사성을 통해 구성된다. 청소년 세대의 특성상 학교에서 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적 측면에서 많은 동질성을 갖는다. 생활과 비밀의 공유, 생활 총화와 같은 조직생활을 이반하는 담합 등도 또래관계에서 친밀성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경제난을 거치면서 경제적 생활수준이 북한 청소년들의 친구집단 형성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문제로 인해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고, 학교생활조차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 청소년 세대에서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는 연애관계의 보편화이다. 기성세대와 달리 최근 북한 청소년은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경험이 많고, 애정 표현에 있어서도 적극적이다. 동시에 연애관계가 일상화, 보편화되면서 짧은 연애 기간과 많은 연애 경험이 또래관계에서 우월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이성관계에 대한 관심은 연애와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개인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북한 청소년의 또래집단은 제한된 공간과 조건하에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형성해나간다. 이들이 형성하는 하위문화는 놀이문화, 패문화, 외부문화의 전유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친구의 집에서 모여 놀거나 거리를 배회하고, 시장을 구경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놀이를 한다. 그리고 친구들과끼리 패를 만들어 그들 사이의 위계와 규율을 정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패문화를 형성한다. 이들 패에서

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위계문화로 꽤 내부에서 위계와 서열을 정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청소년들은 꽤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꽤에 속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이나, 자질, 그리고 꽤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능력 등을 정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세대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외부문화에 대한 수용과 모방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의 문화, 즉 영화나 드라마 게임 등의 정보를 또래관계 안에서 공유하고 모방한다. 외부문화가 주요 관심과 대화의 소재가 되고, 새로운 문화를 상대적으로 먼저 접함으로써 자신이 세련돼진다고 여긴다.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외부문화를 모방하는데, 이는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수행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외부문화를 통해 다른 세계를 인식하기도 하지만, 외부문화에 대한 수용과 지향이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자신이 처한 현실과 문화를 통해 전해지는 외부세계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북한 청소년의 가족관계는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예전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일차적인 소속집단이자 친밀성의 대상인 가족이 경제위기로 인해 해체됨에 따라 가족 내에서 위치나 가족관계 등에 변화가 일어났다. 북한 청소년들은 어려운 가정 경제로 인해 학교를 가는 것 대신 집에서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는 등 가족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한 활동을 했다. 더욱이 부모가 부재한 청소년들은 부모 대신 자신과 형제, 자매의 생계와 삶을 책임져야 했다. 그로 인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화되고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친족집단과 유대가 강화되기도 하는 한편, 비혈연관계의 사람들과 유사가족을 만드는 등 가족의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도 보인다. 청소년들은 어려운 가정 상황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기

I
II
III
IV
V
VI
VII

도 하지만, 가정 경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면서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워 자신의 삶을 기획·실천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최고지도자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은 다층적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함에 따라 국가와 최고지도자에 대한 혁명의식이 약화되는 반면, 여전히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충성심을 내재하고 있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보다 정치적인 사안에 무관심한 특성을 보이면서도 외부정보를 통해 국가와 최고지도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북한 청소년의 관계 경험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된다. 친밀함의 대상이 확장되었고, 친밀함을 유지하는 방식이 달라졌으며, 관계를 구성, 유지하는 데 미치는 요인에서 경제적인 수준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관계에 대한 책임이 대상에 따라 강화되기도 하는 한편, 약화되기도 했다. 현재 이들이 보이는 삶의 양식은 온전히 체제 순응적이지만은 않을뿐더러 또래집단 내에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형성하면서 기존 질서에 도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 세대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준에 따른 사회계층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한계를 일찍 인식·경험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경험들은 지역과 연령, 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향후 세대가 교체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의 양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변화가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VI장에서는 북한 청소년들의 세대경험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네

명 청소년의 생애사례를 살펴보았다. 생애사례 분석과 앞장에서 다룬 청소년들의 경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청소년들을 하나의 세대로 결속하는 공통의 경험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새로운 세대의 세대경험은 첫째, 궁핍, 상대적 빈곤감, 죽음, 상실의 고통과 그로 인한 존재의 불안, 둘째, 국가와 가정 내에서의 절대적, 가부장적 권위의 하락과 이로 인한 규율의 해체 및 형식화된 규율의 수행, 셋째, 또래관계, 외부모화, 돈 등 기존의 국가규율과 가부장적 규율을 대신하는 새로운 규율 권력의 등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 청소년들의 정서적 기저를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생애경험은 궁핍, 상대적 빈곤감, 죽음, 상실의 고통과 그로 인한 존재의 불안이다. 고통의 경험이 청소년들의 생애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단순히 물질적 궁핍과 불안정성, 외로움을 겪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이 국가와 가정 내에서의 절대적, 가부장적 권위의 하락과 이로 인한 규율의 해체와 연결되면서 의식적, 수행적 차원에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의미 있는 차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 세대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가족 내의 규율과, 국가가 후속세대들에게 내면화하는 규범과 신념의 체계를 이전 세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수용하지 않고, 그로부터 벗어나거나 그것을 형식적으로 수행하거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전유하는 현상이 새로운 세대 속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 청소년들을 하나의 세대로 묶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생애경험은 공교육 부실화와 가정해체 등의 영향으로 인해 국가규율과 가부장적 규율의 규정력이 약화되고, 또래관계, 외부모화, 돈의 위력 등이 이들 세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힘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청소년의 의식과 태도를 형성하고 규율하는 힘은 국가의 공식담론이나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I
II
III
IV
V
VI
VII

일상적으로 접하는 관계와 현실세계에서도 나온다. 두 가지 규율 원천의 상충은 이에 대응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전략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 요소들은 북한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정도로 지각되고 체험되지는 않는다. 북한 청소년들 속에서 세 유형의 세대단위의 맵아를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집단은 유소년기에 물질적 궁핍이나 가족해체의 경험 속에서 조기 노동, 조기 진로 결정을 한 청소년들로 구성된다. 이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국가의 권위를 부정하고 조직규율의 통제에서 벗어나거나 부적응하는 특성을 지닌다. 두 번째 집단은 국가와 가정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북한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청소년들로 구성된다. 이들의 삶 속에서는 가정과 학교의 규율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그 결과 이들은 사회의 공식적 질서에 순조롭게 동화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자아성취를 도모하는 특성을 지닌다. 세 번째 집단은 학교나 사회의 지배질서에서 벗어나거나 눈에 띄는 저항을 하지는 않고 이에 형식적으로 참여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다른 행위에 몰두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공식규범의 적극적 내면화와 규율기제로부터의 이탈 사이에서, 한편으로는 국가담론 수행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식규범을 변용하고 전용하면서 창조적 일탈을 일삼는다.

여기에서 한 개인은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하나의 세대단위에 고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가족으로부터의 자율성이 증가하고 개인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청소년기에 체험한 중요한 생애경험은 개인의 지향성을 변화시켜 다른 세대단위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들이 공유하는 포래문화나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

는 사회문화적 변화의 영향력은 모든 유형의 청소년들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점에서 각 세대단위의 맵아들 간의 간극은 그다지 깊지 않다.

한 사회의 세대적 경험은 해당 사회변동의 단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한편으로는 세대경험에 관한 고찰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사회의 심층적 변화에 관한 고찰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 사회의 변화는 새로운 세대의 의식세계, 문화적 행태, 사회적 관계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한편으로 새로운 세대의 특성은 북한 사회의 변화를 특징짓는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새로운 세대의 특징은 단순히 특정 시기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역으로 그들의 특성을 통해 북한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더군다나 새로운 세대의 인구규모를 생각하면, 이들의 세대 특성이 북한 사회에 지각 변동을 초래하게 될 시점이 그리 멀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현재 본 연구의 대상인 1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 연령대의 청소년은 전체 북한 인구의 1/4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10년 후인 2023년에는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연령집단은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의 나이가 되며, 이 이하 연령대까지를 포함한 40세 이하 연령집단은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이들의 세대가 기성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그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작용할 때, 북한 사회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앞의 장들에서 살펴본 북한 청소년들의 세대경험과 생애사 속에 나타난 이들의 세대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I
II
III
IV
V
VI
VII

세대는 물질과 부, 권력에 대한 욕망을 내재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를 표출하고 표현한다. 물질에 대한 욕망은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겪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동시적 경험 속에서 나온다. 또한 이는 이들이 학교와 또래집단과 사회 속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부의 위력에 대한 자각에서 나온다. 이 세대가 사는 세계는 더 이상 비슷한 수준에서 먹고사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물질적 부의 소유 정도가 한눈에 파악되고 그에 따라 무리지어지고 위계화된 사회이다. 이들은 일상생활세계 속에서 부, 때로는 권력의 소유 정도에 따른 계층의 차이를 늘 접하고 이를 몸과 마음속 깊이 체화한 세대이다. 부의 위력에 대한 자각은 그것에 대한 욕망으로 진화한다. 이들은 끊임없이 물질을 소비하고, 부의 기호들을 자신의 몸과 말과 행동 속에서 재현하고, 이를 통해 자아를 표현한다. 외부로부터 유입된 영상매체와 여가와 데이트를 즐기는 장소이자 즐거움이자 생활의 일부인 시장이 이러한 욕망의 재현을 돕는다. 이들 세대가 자아를 실현하는 길은 부와 부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권력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실용주의적 지향성으로도 표현된다.

둘째, 새로운 세대는 비정치적인 세대이다. 이들은 학교와 사회에서 부과되는 정치적 의례들을 수행하지만, 그것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재전유한다. 국가의 중대사나 정치적 사건, 당의 이데올로기적 구호는 더 이상 이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북한 당국은 청소년들을 ‘강성대국 건설 세대’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이전 세대의 혁명정신을 계승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혁명정신은 교과서 속의 죽은 말일뿐이다. 이들은 국가가 부여한 과업과 의례들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지만, 그것이 과업의 내용에 대한 동의와 내면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일상을 통해 무한 반복되는 정치적 담론과 형식들에 자신들만의, 자기 또

래들끼리 공유하는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재해석하고, 그림으로써 원래의 정치적 의미를 전복시킨다. 이는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권위 있는 국가와 권위 있는 가부장이 부재한 상황에 기인한다. 국가의 규율, 가정의 규율이 해체된 틈새를 또래들 간의 문화와 질서, 돈의 위력이 대체한다.

셋째, 북한의 새로운 세대는 외부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세대이다. 폐쇄적인 사회인 북한에서 외부 세계를 접할 수 있는 통로는 그간 극히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북중접경지역을 통한 외부문화 유입이 활성화되고, 국내적으로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상품과 문화매체의 전국적 유통망이 구축되었다. 새로운 세대는 이러한 문화적 변동의 세례를 받고 자라난 세대로, 한국과 외국의 영상매체 등 문화적 매개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외부 세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이들은 영화와 드라마 등의 영상매체를 통해, 자신들과 다른 생활환경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계를 접하고 또래들과 이를 공유한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에 대한 호기심은 때로는 동경과 환상으로 전환되고, 때로는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적인 모방과 재현으로 나타난다. 문화매체만이 아니라 접경지역을 통해 오고가는 사람들도 이들 새로운 세대가 외부문화와 소식을 접하고 외부세계를 동경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준다. 지역적 차이가 있지만,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장사일로 중국을 오가며 외부의 소식을 알려주고, 때로는 탈북 후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전화를 통해 한국의 소식을 알려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영상매체 속의 외부 세계는 이들의 현실세계에서 접근하기 어렵지만, 가닿을 수 없는 세계인 것만은 아니다.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국내에서의 지역적 이동의 경험이 풍부해졌고 행동반경이 넓어졌다. 특히 접경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국경 근

I
II
III
IV
V
VI
VII

처, 즉 외부 세계와의 경계를 배회하는 일은 일종의 놀이이고, 국경을 넘어가서 외부세계를 직접 보고 오는 일도 가끔씩 일어난다. 외부 세계의 물질적 풍요는 종종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는 상상을 실행으로 옮기는 강력한 촉매제가 된다. 일부 청소년들에게 탈북은 북한 사회에서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자아실현, 즉 물질과 권력에 대한 욕망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새로운 세대의 특성은 당장 북한 사회 내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김정은 정권의 정책 방향 결정의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북한 사회의 중장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북한 당국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경계하는 내용의 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자본주의적 문화와 외부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문화매체를 유통하고 소비하는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특히 대외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이것이 새로운 문화와 정보에 민감한 청소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혁명전통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육과 체제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살펴본 북한 청소년들의 세대경험은 당국의 강도 높은 통제정책의 실효성이 그다지 높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실용주의적이고 비정치적이고 개방적인 새로운 세대의 특성은 장기적으로는 개혁·개방에 대한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북한 청소년들에게 개혁·개방은 탈북과 같이 극단적인 방식을 통하지 않고 현재의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질적 풍요에 대한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국가담론의 공신력이 저하하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서 중장기적으로 부분적인 개혁·개방이 불가피하다.

북한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부분적인 개혁·개방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새로운 세대의 지지에 기반한 부분적인 개혁·개방은 장기적, 총체적 측면에서 오히려 체제를 안정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정권에 대한 지지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비정치적, 실용적 성향을 띠는 새로운 세대의 관심을 체제에 대한 비판이 아닌 체제 내에서의 경제적 이익 추구하고 물질적 욕망의 실현으로 집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개혁·개방과 시장관계 확대는 젊은 세대들을 소비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사적인 공간으로 침잠시키고, 정치적으로 더욱 둔감하게 만들어서 정권에 대한 수동적 합의의 기반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sup>147</sup>

다른 한편으로, 개혁·개방과 이에 따른 시장관계의 확대, 외부문화 유입 증가는 체제의 불안정성을 끊임없이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개혁·개방이 진행되고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공개적 정치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거나 비민주적인 강제적 억압기구가 축소되는 등 사회적 개혁 또는 민주화 조치가 점진적으로라도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담론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전유하고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세대 속에서 상당한 폭발력을 지닐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이나 서구 민주주의 사회의 물질적 측면이나 문화적 스타일에 대한 동경과 모방을 넘어 민주주의 사회의 본질에 접근하는 계기가 어떤 형태로 주어질 것인가가 이들 새로운 세대가 체제 내에 안주(安住)하느냐 체제로부터 탈주(脫走)하느냐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다.

<sup>147</sup> 조정아, “북한 주민의 ‘일상의 저항’: 저항 유형과 체제와의 상호작용,” 『북한학연구』, 제7권 제1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1), p. 67.

I
II
III
IV
V
VI
VII

이 연구는 경제난 전후에 출생하여 시장화의 과정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북한의 청소년들에 관한 일종의 ‘생태학적’ 보고서이다. 북한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겪어내고 기억 속에 간직해 꺼내 보인 경험의 편린들을 통해 이들의 경험세계에 접속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이다 보니, 연구 결과로 제시한 것보다 더욱 많은 질문들이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겨진다.

세대는 특정한 사회역사적 사건에 대한 체험을 통해 탄생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특정한 공동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웃한 연령집단과 비교하여 드러나는 차이를 통해 형성된다.<sup>148</sup> 이 연구에서는 기성세대와의 비교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세대의 세대경험과 특징을 분석하였지만, 동일한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변동과 시대적 사건들을 기성세대는 어떻게 경험하고 수용하였는지, 동일한 사건이 경험성층의 서로 다른 퇴적층에 누적됨으로써 세대 간에 어떠한 특질의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본격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였다. 이에 후속연구를 통해 다른 세대와의 관계, 그 차이와 연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세대의 특질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의 구술증언을 통해 부분적으로 드러나듯이, 이 연구에서 ‘새로운 세대’로 명명한 1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 사이의 연령대 내에서도 상당한 경험과 사고의 차이가 보인다. 특히 1990년대에 출생해서 유아기에 고난의 행군을 겪고 2000년대에 학령기를 보낸 10대와 20대 초반의 청소년 집단과, 1980년대 중반을 전후해 출생하여 고난의 행군기에 학령기를 보내고 2000년대에 성인 초기에 접어든 20대 중후반 연령층은 특정한 경험이나 사건에 대한 반응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

---

<sup>148</sup>- 이희영, “독일 ‘68세대’와 과거극복,” p. 38.

이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이 두 연령집단의 세대경험의 동질성과 이질성 여부 또한 30대 이상의 기성세대나 10대 중반 이하의 연령집단과 비교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르는 상대적으로 동질성이 큰 연령집단 내에서도 계층, 거주 지역, 가족 구성 등의 요소가 특정 세대단위로의 분화에 영향을 준다. 후속연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회적 요소들과 개인적, 인성적 요소가 유사한 경험을 해석, 수용하는 방식과 특정 세대단위로의 귀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새로운 세대 내부에서 세대경험을 소화하는 방식의 차이에 착목하여, 그것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세 유형을 세대단위의 맥아로 명명하였다. 이 세 집단을 명확히 구분되는 세대단위라고 명명할 수 있으려면 일정 정도의 기간에 이와 같은 집단의 구분과 집단별 특성이 유지, 발전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향후 어떠한 세대단위가 주도적 세대단위로 발전해나갈지를 관찰, 분석하는 것도 북한 사회의 변화 전망을 예측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작업이다.

이와 같은 후속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에 대한 현장연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에 살고 있는 청소년을 직접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시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경을 넘어 한국이나 다른 사회로 이주한 탈북청소년들을 통해 북한 청소년의 경험세계에 접근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탈북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북한을 떠난 청소년들이고 북한에서의 생애경험에 탈북 이후 체류했던 지역과 정착한 지역에서의 경험이 더해진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은 실험실의 화학시료와 같은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낱낱이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 겹의 경험들이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이들의 현재

I
II
III
IV
V
VI
VII

삶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총체적으로 발현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탈북 후 한국을 비롯한 다른 사회로 이주한 청소년들의 삶을 통해 북한에서 경험한 청소년기 세대경험이 어떻게 분화되는지를 탐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의 새로운 세대의 특성이 한국과 서구사회 등 사회문화적으로 이질적인 환경과 이주 과정에서의 다양한 생애경험을 통해 어떻게 분화되는지, 북한 거주 시 외부 사회와의 문화적 접점 형성과 의식 변화, 탈북, 한국 사회에서의 경험과 정체성 변화, ‘탈남’과 외국으로의 이주 경험을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관찰한 북한 청소년들의 세대특성이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변화되거나 유지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새로운 세대의 특성이 향후 북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것이 다시 북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더 나아가 남북한 통일의 과정에서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기 드보르 지음. 이경숙 옮김. 『스펙터클의 사회』.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6.
- 김두섭. 『북한인구와 인구센서스』. 대전: 통계청, 2011.
- 김신일. 『교육사회학』. 파주: 교육과학사, 2003.
- 김종수. 『북한 청년동맹 연구: 체제 수호의 전위대, 청년동맹』. 파주: 한울, 2008.
-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파주: 한울, 2003.
- 드니 쿠슈 지음. 이은령 옮김. 『사회과학에서의 문화 개념』. 파주: 한울, 2009.
- 린다 맥도웰 지음.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0.
- 메리 더글라스 지음. 유제분·이훈상 옮김. 『순수와 위험』. 서울: 현대미학사, 1997.
- 박경숙.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서울대학교 통일학연구총서 20.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박길성·함인희·조대엽. 『현대 한국인의 세대경험과 문화』. 서울: 집문당, 2005.
- 박재홍. 『한국의 세대문제』. 서울: 나남출판, 2005.
- 브라이언 터너 지음. 박형신 외 옮김. 『현대사회이론의 흐름』. 파주: 한울, 2010.
- 비비아나 A. 젤라이저 지음.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옮김. 『친밀성의 거래』. 서울: 에코라브르, 2009.

- 삐에르 부르디외 지음.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서울: 새물결, 1995.
- 사라 실즈 지음. 김정경 옮김.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서울:  
앨피, 2007.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 요시미 순야 지음. 박광현 옮김. 『문화연구』.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_\_\_\_\_.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이 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서울: 통일연  
구원, 2004.
- 이인정. 『북한 ‘새세대’의 가치지향 변화』.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
- 이호규·곽정래. 『북한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미디어』. 서울: 한  
국언론진흥재단, 2011.
- 임순희·이교덕. 『최근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화  
폐개혁 이후를 중심으로』. 통일정세분석 2011-5. 서울: 통일연  
구원, 2011.
- 임영식·한상철. 『청소년 심리의 이해』. 서울: 학문사, 2000.
- 정영철 외. 『북한 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조성남·이동원·박선웅. 『청소년의 하위문화와 정체성: 또래집단, 가족,  
학교를 중심으로』. 서울: 집문당, 2002.
- 존 앤더슨 지음. 이영민 외 옮김. 『문화·장소·흔적: 문화지리로 세상 읽기』.  
파주: 한올아카데미, 2013.
- 존 어리 지음. 윤여일 옮김.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 이동과 하이브리드로

- 사유하는 열린 사회학』. 서울: 휴머니스트, 2012.
- 중앙통계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93년 인구일제조사 전국보고서』.  
평양: 중앙통계국, 1994.
- 카를 만하임 지음. 이남석 옮김. 『세대문제』. 서울: 책세상, 2013.
- 크리스 바커·다리우스 갈라신스키 지음. 백선기 옮김. 『문화연구와 담론  
분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 
- 『문화연구와 담론  
분석: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담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Auge, Marc. *Non-Places*. London: Verso, 1995.
- Berk, Laura E. 지음. 이옥경 외 옮김. 『생애발달II: 영유아기에서 아동기  
까지』.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2.
- De Certeau, Michel.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translated by  
Steven Rendall. Berkeley·Los Angeles·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 Myers, D. *Psychology*. New York: Worth Publishers, 1993.
- Rice, F. Philip and Kim Gale Dolgin 지음. 정영숙 외 옮김. 『청소년심리  
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2.
- Williams, Raymond. *The Long Revolution*. Harmondsworth:  
Penguin, 1965.
- Yurchak, Alexei. *Everything Was Forever, Until It Was No More:  
The Last Soviet Generatio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 2. 논문

- 강동완·박정란.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통일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통일연구원), 2010.
- 강일천. “7.1경제관리개선조치 1년의 평가와 재해석.” 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제4차 국제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2003.6.26.
- 권수현. “삶의 정치로서의 친밀성.” 『한국여성철학』. 제15권 (한국여성철학회), 2011.
- 김래은. “북한의 ‘새 세대’ 특성 연구: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청년층의 형성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4.
- 김병로.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북한사회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15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2.
- 김석향. “1990년 이후 북한 주민의 소비생활에 나타는 추세 현상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6권 1호 (북한연구학회), 2012.
- 김선경. “경험되는 북·중 경계지역과 이동경로: 북한이탈주민의 경계넘기와 초국적 민족 공간의 경계 확장.” 『공간과 사회』. 제40권 (한국공간환경연구회), 2012.
- 김수환. “소비에트 마지막 세대의 눈으로 본 후기사회주의: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알렉세이 유르차 저 <서평>.”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한국러시아문학회), 2012.
- 김 희. “북한의 꽃제비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화순. “시장화시기 북한 주민의 일유형 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남성욱·공선영.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 소비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제4차 국

제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2003.6.26.

- 남영호. “사적인 것, 개인적인 것, 사회적인 것: 사회주의 도시의 경험.” 『슬라보학보』. 제27권 3호 (한국슬라브학회), 2012.
- 리광선. “세대에 대한 주체적 리해.” 『철학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1.
- 문경연·김판석.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과 경제에의 함의.”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미셸 드 세르토 지음. 박명진 외 옮김. “도시 속에서 걷기.” 『문화, 일상, 대중: 문화에 관한 8개의 탐구』. 서울: 한나래, 1996.
- 박경숙. “북한의 식량난 및 기근과 인구변동.”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통일연구원), 2012.
- 박재홍.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권력·이념·문화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3권 3호 (한국인구학회), 2010.
- 박정란·강동완. “북한의 정치사회화 및 수령관에 대한 인식 변화 연구: 1990년대 경제위기 전후 북한이탈청소년의 인식변화를 중심으로.” 『정치·정보 연구』. 제12권 1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09.
- 박현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가족의 사회적 재생산과 가족제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학위논문 미간행, 1999.
- 신효숙. “김정일 정권의 교육정책.” 『평화학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0.
- \_\_\_\_\_. “북한 사회의 특성과 북한청소년의 일탈행동.” 『교정담론』. 제3권 1호 (아시아교정포럼), 2009.
- 오양열. “북한 내 외래문화 유입으로 인한 영향과 전망.” 『플랫폼』. 통권 제26호 (인천문화재단), 2011.
- 윤선희. “북한 청소년의 한류 읽기: 미디어 수용에 나타난 문화 정체성과

- 사회 변화.” 『한국언론학보』. 제55권 1호 (한국언론학회), 2011.
- 이기동. “‘고난의 행군’ 세대의식과 체제변화.” 『북한학보』. 제36집 2호 (북한연구소), 2011.
- 이삼식. “북한 인구변동과 보건복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3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이석기. “북한의 노동: 2000년대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2.11.
- 이영란. “통일 이후 독일 청소년문화 변동에 대한 연구: 동독지역 청소년의 여가문화 변화를 중심으로.” 『독일연구: 역사·사회·문화』. 제12호 (한국독일사학회), 2006.
-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2005년 하반기호(통권 제44호) (평화문제연구소), 2005.
- 이인정. “1980년대 이후 북한 ‘새세대’의 가치 변화 연구: 『청년전위』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박사학위논문, 2004.
- \_\_\_\_\_. “북한 청소년 코호트와 도덕교육적 함의.” 『도덕윤리과교육』. 제30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0.
- 이향규. “북한 학교의 교과 지식.” 『현대북한연구』. 제3권 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0.
- 이희영. “독일 ‘68세대’와 과거극복: 나치과거에 대한 세대경험의 연속성과 단절에 대하여.” 『한국사회학』. 제40집 제3호 (한국사회학회), 2006.
- \_\_\_\_\_.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제44집 1호 (한국사회학회), 2010.
- 정창현. “북한 지배 엘리트의 구성과 역할.”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 염음.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 조정아. “2000년대 북한의 교육 전략과 교육생활세계의 변화.” 『KDI 북한경제 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09.
- \_\_\_\_\_. “교육에서의 실리주의교육의 불균등발전: 2000년대 북한교육의 변화.” 『한국교육사회학연구』. 제17권 4호 (한국교육사회학회), 2010.
- \_\_\_\_\_. “김정일 시대의 북한 교육 정책.” 『아시아교육연구』. 제5권 제2호 (아시아태평양교육발전연구단), 2004.
- \_\_\_\_\_. “북한 주민의 ‘일상의 저항’: 저항 유형과 체제와의 상호작용.” 『북한학연구』. 제7권 제1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1.
- \_\_\_\_\_. “북한 중등학교 규율과 ‘반학교문화’.” 『한국교육사회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교육사회학회), 2004.
- \_\_\_\_\_. “자아와 내면세계.”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_\_\_\_\_. “‘직업적 혁명가’와 ‘동요하는 인테리’ 사이에서: 북한의 교사상과 교원의 사회적 위치.” 『현대북한연구』. 제7권 제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 존 클라크 외 지음. 박명진 외 옮김. “하위문화, 문화, 그리고 계급.” 『문화, 일상, 대중: 문화에 관한 8개의 탐구』. 서울: 한나래, 2005.
- 차문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 경제의 성격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8권 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6.
- 홍 민. “북한의 ‘관계자본’ 교환구조와 시장교환의 전유.” 『현대북한연구』. 9권 3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6.
- \_\_\_\_\_. “북한의 인구정치와 식량체제: 인구학적 변화 속의 주민일상.” 홍민·박순성 엮음.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 사이

에서』. 서울: 한올아카데미, 2013.

황나미. “북한주민의 공공 식량배급 수혜상황과 영양취약 아동규모추계.”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85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Carrigan, Tim, Bob Connell and John Lee. “Toward a New Sociology of Masculinity.” *Theory and Society*. Vol. 14, No. 5, 1985.

Chamberlayne, Prue, Joanna Bornat and Tom Wengraf. *The Turn to Biographical Methods in Social Science: Comparative Issues and Examples*. New York: Routledge, 2000.

Fraser, Nancy.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Social Text*. No. 25/26, 1990.

Grotevant, Harold D. and Catherine R. Cooper. “Individuality and Connectedness in Adolescent Development: Review and Prospects for Research on Identity, Relationship and Context.” Eva Skoe and Anna Von der Lippe (eds.). *Persona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A Cross National and Life Span Perspective*. New York: Routledge, 1998.

Henrikson, Alan K. “Border Regions as Neighbourhoods.” Doris Wastl-Walter (eds.).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Border Studies*. Surrey: Ashgate Publishing, 2011.

Trommsdorff, Gisela. “Subjective experience of social change in individual development.” J. Bynner and R. K. Silbereisen (eds.). *Adversity and Challenge in Life in the New Germany and in England*.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 3. 기타자료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테제(1977.9.5).” 『김일성저작집 3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김정일. “청년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을 데 대하여(1993.2.26).”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_\_\_\_\_.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자  
(1996.8.24).”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세포비서>편집위원회. 『(당안에 한함) 세포비서』. 제10호(루계 제294호),  
2002.

“(당안에 한함) 간부학습제강 - 자본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짓부시기 위  
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릴데 대하여.” 주체91.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2.

“(대내에 한함) 국경연선주민정치사업자료 - 국경연선지대의 청소년들  
을 견결한 수령결사옹위투사로 키우자.” 주체92.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2003.

“(대내에 한함)(강연제강-근로청년용) 자본주의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쓸어 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자.”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002.

북한통계. <<http://kosis.kr/bukhan>>.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동아일보』.

『로동신문』.

『조선신보』.

『한겨레신문』.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in the DPRK. “DPRK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2009.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2012 Global Hunger Index.” 2012.

UNDP. “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2.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6.

연구총서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 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 학술회의총서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 협동연구총서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들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곤 외	7,500원

##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 기타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에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회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외	9,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외교 콘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02)	조한범 외	17,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2~2013	7,000원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 통일정세분석

## 비매품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회의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2013-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전성훈 외
2013-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성훈 외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전병곤, 이기현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박형중, 박영호, 김동수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외
2013-07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이기현
2013-08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박영자

##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장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자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장호 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2012-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이기현 외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숙 외

## Study Series

비매품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lh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 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 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자료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4,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kinu.or.kr](http://www.kinu.or.kr)



ISBN 978-89-8479-739-0